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남가주 동창회의 50주년을 축하하며
동문들의 모교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기부 문의

Los Angeles

213-435-1974 america@snu.ac.kr

New Jersey

212-768-9144 michelle@klcpagroup.com

Seoul

011-822-871-8004 snuf@snu.ac.kr

50TH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1974-2024

대학 상징

I 정문

서울대학교의 정문 '샤'

거대한 '샤' 모양의 정문은 국립법인서울대학교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입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가 관악구 현 위치에 자리잡으면서, 학교 상징의 기초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문은 서울대학교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국립법인서울대학교의 머릿글자인 'ㄱ' 'ㅅ' 'ㄷ' 의 형상을 본뜬 디자인은 열쇠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교의 교훈, '진리는 나의 빛'의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작: 강찬균(응용미술57-63) 모교 명예교수



I 교목

느티나무

서울대학교의 교목인 느티나무는 포용력과 너그러움을 상징합니다. 느티나무는 목재의 재질이 좋고 곁이 아름다워 규목(規木)이라 불리며 목공예의 재료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왔습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잎새와 줄기가 깔끔해 예로부터 선비정신을 표상하는 나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과 포용력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일치합니다. 학문의 전당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천년만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교목인 느티나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느티나무의 곧고 굽은 줄기만큼이나 송고한 학문의 정신을 존중하며 그 무성한 가지가 드리우는 그늘처럼 세상을 널리 포용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 교조

백학

고고함과 비상 의 정신

순백으로 빛나는 몸, 고고한 자태와 날개를 짝 펴고 비상하는 백학의 모습은 세속의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해 오직 학문의 정도를 걸으며 날개를 펴고 비상을 준비하는 서울대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쌍학

1998년 10월 14일, 모교 개교 52주년 기념식에 맞춰 제작한 모교 상징 조형물입니다. 신호제지의 이형국(경제 60-68) 동문의 출연으로 미대 조소과 엄태정 명예교수가 제작(540cm x 540cm x 740cm)한 것으로 학의 활짝 펼친 날개와 다리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날개와 다리는 청동이고, 좌대는 황강석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인 '겨레와 함께 미래로'가 烏石(흑요암)에 새겨져 있습니다.



I 교가

이병기 작사
현제명 작곡

Moderato

1.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2. 단 일해온 말 을 쓰 는 조-출한겨-레

이 세상의 사 는 진리 찾 는 이 길 을
창 조하 기 좋 아 하는 명 석한 머 리

씩 씩 하 게 나 아 가 는 젊 은 오 님 들
새 문 화 와 새 생 명 을 이 루 어 가 며

이 겨 레 와 이 나 라 의 크 나 큰 보 람
즐 겨 하 고 사 랑 하 는 우 리 의 조 국

뛰 어 나 는 인 재-들-이 다 모 여 들 어

더 욱 더 욱 융 성 하 는 서 울 대 학 교
은 누리 에 빛 을 내 는 서 울 대 학 교

1975년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당시 진입로에 있던 느티나무

50th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기형 경영대 75



JIK INVESTMENTS LLC

Developing Community Care Facilities
since 2001



도약, 100년을 향한 깃발을 들며



김문희
시인
(김병연 상임이사 부인)

그대들은
천부의 두뇌를 다스려
우리 시대의 쓰러지는 사람 가치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받침대

외로움이 뿔속에 스며드는 이방의 땅에서
손아귀에 넘치게 굵은
열망의 밭줄 하나 붙들고
가파른 삶의 비탈길을 기어
반백년 높은 탑에 올라선 당당함이어

이제는 스스로가 펼쳐나아가
21세기 번득이는 문명의 휘몰이 속에서
으뜸이 된 세계속의 한국인

꿈을 올린 하늘이 높아서
별빛이 푸른것인가
뿌리 깊은 나무, 크고 곧게 자라
태산이 되었는데
그대들이 있어
캘리포니아 땅이 단단해지는가

도약, 100년을 향해
역사의 깃발을 드는
'서울대인'의 아침이
이렇게 솟는다.

축 시(김문희) 9
 발간사(임춘택 회장) 12
 축 사(유홍림 총장) 14
 축 사(김종섭 총동창회장) 15
 축 사(이상강 미주동창회장) 16
 축 사(채규황 차기회장) 17

제1장 사진으로 보는 50년 19

제2장 전임 회장단 좌담회 39

제3장 단과대 동창회

남가주총동창회 ... 56	사범대학 94
가정대학 60	상과대학 98
간호대학 62	수의대학 102
공과대학 68	약학대학 108
농과대학 76	음악대학 112
문리대학 80	의과대학 116
미술대학 84	치과대학 120
법과대학 90	대 학 원 124

제4장 50년의 발자취

서울대 미주센터 개소식 130
 서울대학병원 LA 사무소 개설 132
 김지하 시인 LA 방문 133
 아이티 대지진 성금 134
 오바마 대통령 방문 135
 김문수의 날 선포 135
 커뮤니티 서비스 136
 가족 요리 경연대회 138
 라구나 우즈 동문회 140
 이음장학생 142
 이음음악회 144
 금난새 초청 신년음악회 146
 동문가족 캠핑 148
 원로선배 초청 오찬 150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 154
 송년대잔치 158
 데이브 민 하원의원 당선 161
 양민 가정의 비극 162

제5장 관악연대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168
 아크로 창간 1주년 기념 잔치 171
 관악연대 해끝잔치 176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180
 록밴드 컬리 프라이즈 182
 아크로의 추억 184
 공성식의 아크로 포레버 186
 이종호 동문 저서 다섯 권 출간 189

제6장 동호회

남가주 동문합창단 192
 산 약 반 194
 말수회 골프 198
 서기회(서울대 기우회) 200
 문리대 이목회 202
 산악자전거 철벽지 204
 55학번 동기회 206
 58학번 동기회 208

제7장 인물 50년사

박윤수 212	유재환 248
벤자민 홍 216	유익영 252
정재훈 220	한귀희 254
이명선 222	박창규 256
임낙균 226	임천빈 258
이태로 230	김동석 260
하기환 232	이창신 262
이기준 236	정인환 264
차종환 238	김 영 266
김병연 240	김홍묵 268
박종수 242	현혜명 270
김택수 244	오문성 272
백양희 246	<무순>

제8장 관악논단

남북대립과 중국의 역할 (이채진) 276
 테슬라 투자할 가치 있는가 (한홍택) 280
 한류의 파워 (김미란) 284
 지진 조기경보 가능한가 (박선영) 288
 지구 온난화 현상 (김대현) 290
 미국 수의학 교육 인증 (편집부) 294
 미국의 Nurse Practitioner (양수진) 296
 한인경제의 50년 (최운화) 298
 중국몽은 치킨 게임인가 (주준희) 302
 인류의 기원 (이상희) 306
 AI의 추론능력 (송명국) 308

제9장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샌드 페블즈의 디아스포라 (김인종) 312
 산간마을에 목공예 공방 (문병길) 314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박혜란·백시환) 316
 암투병 도에가 (손인숙) 319
 한국무용 알리미 (유희자) 322
 남편의 신장이식 (이정아·이병성) 324
 남태평양 이야기 (이홍표) 326
 역학 간호사의 삶 (이호진) 328
 경성제대 졸업증서 (신경자·신정자) 330
 나의 북한 방문기 (이방은) 332
 좌충우돌 이민기 (박주현·이지은) 334
 아프리카에 상록수의 꿈을 (임현진) 336
 마담 퀴리의 꿈을 접고 (주선희) 338
 노래나 서울대나 (홍광식) 340
 한인회장이 된 사연 (박학선) 342

제10장 삶과 추억

리사이클링의 선구자 (김영기) 346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이승희) 348
 동요 '꽃밭에서' (권길상) 350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 (김진형) 352
 서독광부 '대변인' (장준철) 354
 '백곰 탄도미사일' (홍용식) 356
 삼각함수는 나의 수호천사 (이중희) 358
 경평 축구의 산증인 (오재인) 362

제11장 우리는 동문부부

신건호·방효신 366 김경무·최정희 376
 조만연·김옥동 368 이찬용·장난희 378
 백정현·박해옥 370 이규상·오정은 380
 정만영·이인전 372 독고량·서정화 382
 나천택·최영희 374

제12장 포토 에세이

브리슬콘 소나무 숲 (오홍조) 386
 선인장의 교훈 (나두섭) 388
 가을의 고독 (김양희) 390
 겨울의 훗카이도 (고석자) 392

제13장 동문 에세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럼~ (홍성선) 396
 임윤찬, 두다멜, 그리고 '황제' (강미자) 397
 시민권을 받았건만 (최진석) 398
 렬수, 렬수, 이렬수가 (송미선) 399
 백인사위 한인 장모 (김영옥) 400
 5천불의 기부 (최재을) 402
 영시 산책 (이응섭) 403
 연건동 아리랑 (장소현) 404
 비운의 황손 이구 (한효동) 406
 그린힐 언덕 위에 (박윤자) 408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덕송) 410
 11월의 이야기 (박찬호) 412
 인생의 명강의 (신동국) 413
 화술의 대가 (강신용) 414
 '80년대 학번' 회장의 도전기 (최용준) 415
 LA 스케치 (신경섭) 416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박제환) 418

제14장 아웃도어 라이프

에베레스트 등반기 (권봉성) 420
 남극 여행기 (방효신) 422
 구순에도 스키 (유석환) 424
 알래스카 살아보기 (박정모·박인희) 426

기부자 명단 430
편집후기 432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는 서울대인’ 자긍심과 사회적 책무 잊지 않아



회장 임춘택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창립된지 어언 5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분이 모여 친목을 쌓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15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10개가 넘는 각종 동호회 모임이 결성되어 활발히 움직이는 명실상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로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의 공원에서 열린 가을 야유회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동문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을 야유회 뿐만 아니라 정기총회, 봄 야유회 그리고 다른 어느 동창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족의 밤 할리웃 보물 공연 단체 관람 등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는 거의 300명이 넘는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동문들은 ‘우리는 서울대인’이라는 자긍심과 사회적 책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친목에 더해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 남가주 동문의 위상을 높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동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남가주에서 열리는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은 물론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까지 초청해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이렇게 규모면이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은 이곳에 살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기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4년 초 전직 동창회장님들은 물론 많은 동문들께서 남가주 총동창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 50년을 돌아보는 책자를 발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에 우선 발간위원회만이라도 구성해 2~3년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50주년 기념집을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선 동문이 발간위원장을 맡았고 여러 동문이 참여해 2024년 5월 말 발간위원회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언론인 박용필 동문이 편집인으로 참여,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최진석, 홍선례, 이호진, 김옥권, 이상호 동문 등 모두들 흔쾌히 일을 맡겠다고 해주셨고 바쁜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기념집 제작에 힘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 기념집’을 2025년 2월 1일 정기총회를 하는 오늘, 동문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읽을 거리가 많아 재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가주 총동창회의 50년사를 한 눈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동창회 행사 기록이나 단과대가 무엇을 했느냐는 단순 기록물의 조합이 아니라 남가주 동창회장을 역임하셨던 상임이사님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 소개, 동호회 활동, 부부 동문 스토리, 글을 쓰는 동문들이 기고한 에세이, 수십년 각종 행사 때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골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간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념집을 발간하는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적게는 100 달러부터 시작해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내주신 동문님들이 계십니다. 기부와 광고로 도움을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맡아 마치 동창회가 해야 할 해묵은 커다란 숙제를 잘 끝낸 것같이 사실 지금 많이 기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총동창회장을 하면서 남가주에 거주하는 동문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주소록과 미주동창회보 발송 숫자 등을 감안해 본다면 3,000명 이상의 동문이 남가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동창회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동문들에게도 이 기념집이 닿아 고국에서 떨어져 살아도 ‘우리 서울대인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동창회에 발을 디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50주년 골드북, 꼭 한 권씩 챙겨가시고 올 한 해도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들의 위대한 여정 50년 모교와 조국의 위상 드높여”



총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멀리 미국 땅에서 서울대의 전통을 곳곳이 지켜오시며, 동문간의 우애와 결속을 이어오신 동문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이민 선구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면서도, 항상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땀과 사랑이 담긴 50년의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걸출한 동문들이 발굴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우리 동문들의 위대한 여정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 세월에 묻혀 갔을 것입니다.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동문, 신기술로 성공하신 기업가 동문, 평범한 삶 속에서도 동창회와 지역사회에 헌신하신 우리 동문 모두는 지난 50년간 미국 땅에서 서울대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신 자랑스러운 위인입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모교를 위한 지원에서도 우리 동문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서울대 미주재단을 통한 기부가 이미 6백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아끼며 모아 오신 자산을 모교를 위해 흔쾌히 기탁해주신 선후배 동문들께 모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2025년에 관악 캠퍼스 종합화 50주년을 맞습니다. 남가주 동문들은 물론, 우리 44만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남가주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0년을 담은 골드북은 금보다 더 값진 선물입니다”



회장 **김종섭**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삶의 여정에서 '50'이란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산 것을 축하하는 금혼식은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입니다. 금혼식때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분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부부는 서로에게 골드로 된 선물을 건네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자 관습입니다.

단체나 기업에서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는 풍성한 잔치를 벌입니다. 1974년 출범한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이제 굳건히 뿌리를 내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고 있어 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저는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총동창회가 탄생한 1974년은 LA 한인사회에서 한 획을 그은 해이기도 합니다. 제 1회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가 올림픽 불리바드를 화려하게 수놓은 장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퍼레이드는 최근 작고하신 김진형 선배님이 땀과 열정으로 만든 '매스터피스'여서 서울대의 유산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주요거리에는 서울대 동문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려있습니다. LA 시정부가 이 분들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헌정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큰 힘이 됐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졸업장은 뭔가 차이가 나야하기에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창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동창회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고 튀르키예 지진성금을 모금해 전달했으며, 특히 남가주 총동창회와 함께 지구촌 전쟁난민돕기 음악회를 열어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한 일은 지금도 가장 보람된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동문들간의 친목도모 뿐만이 아니라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법률조언, 백신접종, 세금보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해 한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이같은 동창회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임춘택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사랑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에 발간되는 '골드북'은 동문들에게 주는 금보다 더 값진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0년사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남가주는 인재의 산실, 역동적인 커뮤니티 지난 반세기 많은 발전이룬 동창회에 경의”



회장 **이상강**
의대 70
서울대 미주동창회

남가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총동창회의 창립 50주년과 Gold Book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미국내 각 지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활동적인 지부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재들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과 일기로 인해 더욱 더 활동적입니다.

동창회가 설립된지 어언 5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인들이 이민, 유학 등으로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남가주 총동창회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간 많은 선배 동문님들께서 노력하시고 힘들게 일구어 낸 동창회의 50년입니다. 이제는 여러 단과대학, 대학원들의 행사가 연중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춘택 총동창회장님께서서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와 50년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는 남가주 총동창회를 기대합니다.

‘서울대인’ 자긍심으로 뿌리내린 사랑의 공동체



차기회장 **채규황**
법대 69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2025~2026)

남가주에 거주하시는 전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0년대 모든 것이 낯선 이민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서울대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온 정열을 다바쳐 미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문들이 모여 이곳 남가주에 사랑의 공동체인 동창회를 창립한지 벌써 반백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멀리 타국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책임이 따르는 특혜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며 모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살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꾸준히 동창회를 발전시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50년사의 꽃을 앞으로도 계속 서울대 동문의 선후배가 일체가 되어 전심으로 사랑하고 키워갈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동문들과 발간작업에 직접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창회는 삶의 쉼터

만나서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 및 행사

▶ 연례총회

매년 2월 초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2부 순서로 합창장기자랑 연극 등 다양한 여흥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노익의 더블트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립니다.

▶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한여름밤의 향연이 할리웃 보울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에 앞서 열리는 피크닉에는 와인을 곁들인 디너가 제공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할리웃 숲속에서 열리는 가족의 밤 행사에 동문님들을 모십니다. 2025년에는 8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관악 인비테이셔널

80년대 학번 등 관악 캠퍼스에서 수학한 동문들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입니다. 지난 2022년 첫 대회를 치렀습니다.

▶ 동호회 모임

동창회에는 이외에도 등산반, 합창단, 서기회(바둑) 등 동아리 모임이 있어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원로선배 초청 오찬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열린 '원로선배 초청 오찬'은 동창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1944년 입학한 원로에서부터 1960년대 초 학번에 이르기까지 200여 동문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는 동창회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골프 토너먼트

매년 봄 가을 두차례 동문 및 가족 초청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대회는 샷건으로 진행되며 19번 홀 이벤트는 푸짐한 디너와 풍성한 경품으로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습니다.

▶ 신년 음악회

1월 첫 일요일 UC 어바인의 Barclay Theatre에서 지휘자 금난새 동문을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동창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콘서트는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 전쟁난민 돕기에 쓰여집니다.

회 장 임춘택(상)

차기회장 채규황(법)

감사 송두일(상) 총무국장 이상호(사) 부총무 이종묘(간) 이호진(간)

재무국장 김선명(공) 사업국장 나호성(농)

기획위원장 홍성선(약) 미래위원장 조용국(사) 행사위원장 김희경(사)

홍보위원장 김중하(문) 섭외위원장 유혜연(음) 문화위원장 김양희(음)

대외협력위원장 김인중(농) 가족의 밤 위원장 안혜정(가) 염인숙(가)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213-215-0446 · choontaklim@gmail.com · www.snuaa.org

50TH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제1장

사진으로 보는 50년

1974~2024



빛 바랜 사진에 반세기의 역사가~

사진을 흔히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법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순간을 현재로 불러오며, 그 순간을 꾸준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빛바랜 사진을 통해 한때 우리의 삶이었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처럼 시간을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지나간 추억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말 남가주 배구대회에서 우승한 '천하무적' 공대팀, 1970~80년대 '3김'으로 불리며 한국정

치를 주름잡았던 김종필 전 총리의 동창회 방문, LA 폭동 당시 한인사회 돕기에 발벗고 나선 서울대 동문들의 활약,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의 감격적인 합창공연, 커뮤니티 서비스의 일환으로 열린 독감백신 접종, 정기 피크닉, 산행 등등.

지난 반세기 서울대 동문들의 활약을 사진으로 소환해냈습니다. 사진에 담긴 의미와 감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세대에게도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것입니다.



1



2

- 1 1969년 '천하 무적' 공대 배구팀. LA 한인회가 주관한 대학동창회 대항 배구대회에서 우승,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였다. 김병삼·장준철·이재겸·이해영·고재천·이규정·곽병윤·손학식 동문 등이 주전 선수로 활약했다.
- 2 경기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문들. 김창준 전 하원의원도 타 대학 선수로 뛰었다.

제 1회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 김진형 동문은 한인 이민자들의 표상



1



2

- 1 올림픽가에서 펼쳐진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 김동석 동문은 1회 대회부터 농악팀을 만들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 2 축제에 앞서 톰 브래들리(왼쪽) LA시장과 짐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와 포즈를 취한 김진형(문리대 55) 한인축제재단 회장.

3 LA 코리아타운의 역사를 펴낸 김진형 동문. 그는 한인타운의 창시자이자 한인 이민자들의 표상이었다.



3

“동문 소식 알려드립니다” 월간 동창회보 · 뉴스레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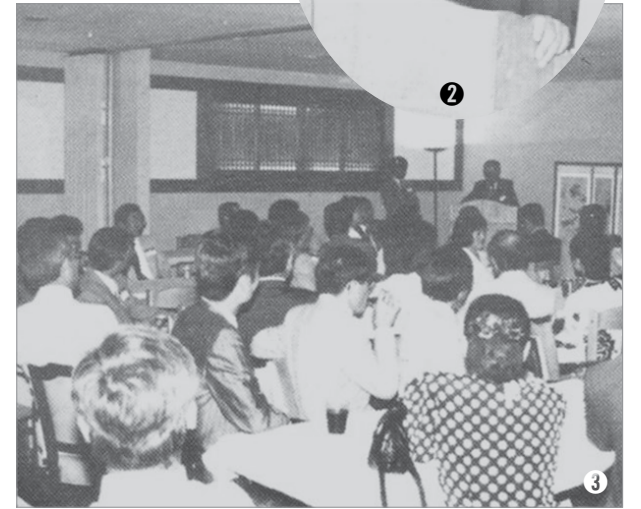
- ① 1978년 12월 1일자로 발행된 창간호. 3호 회보의 편집인은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의 창시자' 김진형(문리대 55) 동문이 맡았다.
- ② 지난 2013년 김상찬(문리대 65) 회장 재임시 발행된 뉴스레터. 봄 가을 두 차례 발행됐다.

- ③ '자랑스런 동창들' 코너에 소개된 유익영(문리대 55) 교수, 김익삼(문리대 53) UCLA 동양 도서관장.

“정치는 허업(虛業)입니다” ‘영원한 2인자’ 김종필 동문 초청 간담회



- ① 김종필(사대) 동문 초청 간담회가 지난 1988년 7월 30일 LA 한인타운의 우래옥에서 열렸다. 김 전 총리는 부인 박영옥 여사와 함께 LA를 방문했다.
- ② 한국의 정치 상황과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피력하고 있는 김종필 전 총리.
- ③ 박상길(농생대 58) 회장을 비롯해 200여 동문들이 우래옥 별실을 꽉 채웠다.



'사이구' LA폭동의 현장에서 ... 미 역사상 전례없는 인종갈등과 비극



③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강력히 지원 요청을 한 하기환(공대 66, 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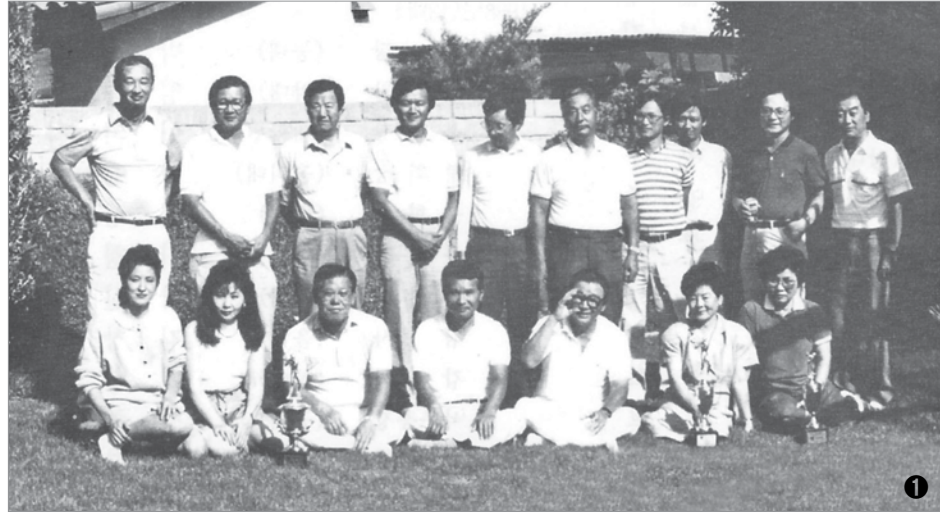
- ① 한인타운은 방화와 약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② 1992년 4월 29일 발생한 LA 폭동 당시 한인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위원장을 맡아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의영(문리대 55, 왼쪽) 교수. 장재민 한국일보 사장과 함께 피해 한인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자연 속 동문과 함께, 즐겁지 아니한가 노동절 연휴 비숍 가족 캠핑



- ① 노동절 연휴 중가주 비숍 캠핑은 주말 2박3일 일정으로 열린다. 시에라 네바다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겁게 동문우애를 나누는 시간이다. 캠핑, 산행, 산악자전거, 낚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 ② 장진성 동문의 칼솜씨. 손수 잡은 참치를 진공 포장해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아와 직접 회를 뜨고 스테이크를 구웠다.
- ③ 맘모스마운틴을 장악한 산악자전거팀 철벽지
- ④ 박정모(문리대 66) 동문의 유쾌한 '썰'에 다들 배꼽을 잡았다.

동창회 골프의 '성지' Azusa Greens 첫 대회에 100여 명이 몰려 '성황' 결속 다져



- ❶ 지난 1988년 5월 8일 아주사 그린스 골프코스에서 열린 동창회 친선 골프대회. 임원들과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❷ 대회 개막을 알리는 박상길(농생대 58) 회장.
- ❸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동문들. 동창회 골프는 80년대 초 아주사 그린스에서 첫 대회를 치렀는데 1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해 성황을 이뤘다.



우승 · 준우승 · 메달리스트... 중앙일보 골프대회 최강자 '우뚱'



- ❶ 지난 2011년 6월 열린 총동창회 골프대회는 한국서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진념 전 부총리 등 VIP 동문들도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 메달리스트는 이기준(법대 54), Mrs. 서치원(공대 69) 동문이 차지했다.



- ❷ 방석훈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자신의 재임시절 중앙일보 주최 동창회 골프대회(1998년 6월 4일)에서 서울대가 단체우승을 차지, 수상한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들여보이고 있다.
- ❸ 지난 2024년 6월 열린 중앙일보 주최 동창회 골프대회에서 서울대 대표로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한 동문들. 왼쪽부터 고민석(농생대 88), 장유호(공대 18), 이동희(사대 82), 노신철(사대 80).

최고 권위의 '호암상' 수상자 남가주 동문 4명... 전원 공대 출신이 받아

삼성 호암상은 1990년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학술 예술 인류복지 증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 제정한 상이다. 호암은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호다. 남가주 출신으로 호암상을 받은 동문은 모두 4명에 이른다. - 편집자



한 홍 택
(공대 60)
• 1999년 수상
• KIST 원장
• UCLA 석좌교수



진 성 호
(공대 65)
• 2000년 수상
•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 벨 연구소 책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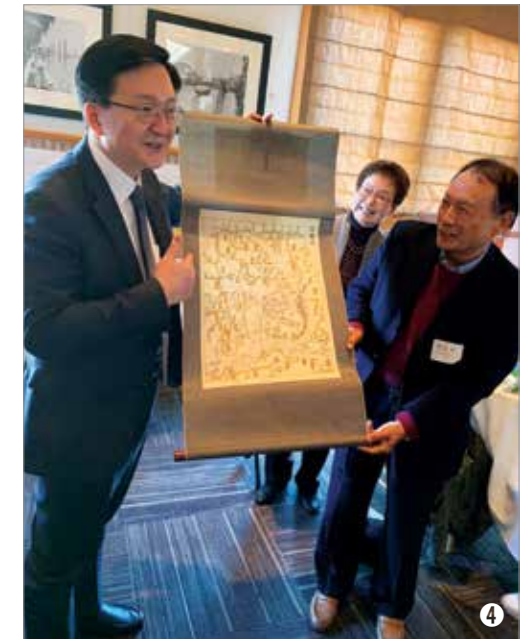


김 정 빈
(공대 66)
• 2002년 수상
• 스탠퍼드대 교수
• UCLA 석좌교수



김 창 진
(공대 77)
• 2015년 수상
• UC 버클리 박사
• UCLA 교수

“선후배 동문님들 반갑습니다” 이장무·오연천·오세정·유홍림 총장 LA 방문



- ❶ 지난 2009년 5월 15일 미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LA를 찾은 이장무(왼쪽) 총장. 김지영 총동창회장에 총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 ❷ 오연천(가운데) 총장 초청 강연 및 만찬이 지난 2012년 3월 5일 LA다운타운 세라톤 호텔에서 열렸다.
- ❸ 지난 2021년 9월 2일 오세정 총장이 벤자민 흥 동문 부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❹ 지난 2024년 1월 12일 유홍림 총장이 고액기부 동문인 박민식 UCLA 교수에게 평양고지도 복사본을 증정하고 있다. 이날 박 교수의 세 자녀도 각각 10만 달러를 기부, 박 동문 가족은 총 130만 달러를 서울대 발전기금에 전달했다.

힘차게 솟는 붉은 해에 희망을 싣고~ 해마다 신년 첫 날 그리피스산 해맞이

그리피스산은 서울의 남산과 같은 곳이다. 매년 새벽 6시 새해 첫날 남가주 동문들은 천문대 앞 등산로 입구에 모여 정상을 향해 오른다. 해뜨기 전이어서 사방은 킁킁하고 어두워서 손전등을 비추며 걸어가면 숲 속에서 뿔어나오는 나무들 내음과 신선한 바람이 새벽을 가른다. 6시 40분, 산 정상에 도착해 늘 수고하는 조무상(법대 70) 동문이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새해의 복을 전하는 덕담을 주고 받는다. 6시 57분, 드디어 붉은 해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둥근해를 바라보며 모두들 합성을 지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① 한정희·남종우 동문 부부.
② 왼쪽부터 제영혜, 이서희, 박혜옥, 김병연, 방석훈 동문.



푸르름 속 한여름밤의 향연 피크닉과 함께... 연례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



① 할리웃 보울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
② 가정대 주관으로 열리는 할리웃 보울은 매년 300명 가량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행사로 자리 잡았다.



③ 행사 안내하는 서영란(음대 75) 동문.
④ 공연 관람에 앞서 열린 피크닉. 와인을 곁들인 디너가 제공된다.

“동호회 모임은 행복 지키미, 재밌어요”
바둑·암벽타기·서예·철벽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 ❶ 김동근(공대 60) 동문이 리드하는 산행(매달 첫째 토요일)은 암벽타기가 하이라이트. 대원들은 대부분 7080 연령대에 속하지만 거뜬히 바위를 탄다.
- ❷ '지산' 정인환(법대 54) 동문이 지도하는 서예반. 정 동문은 서예 뿐만 아니라 채석 수집에도 일가견이 있다.
- ❸ 서기회(서울대 기우회) 회원들의 대국장면. 한달에 1~2회 작가의 집 등지에서 친선대국을 갖는다.
- ❹ 맴모스 마운틴을 정복한 '철벽지' 산악자전거 팀.

“헌신적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 주최 원로선배 초청 오찬 성황



- ❶ 지난 2015년 11월 7일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린 제 1회 원로선배초청 오찬에는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 ❷ 김영철(상대 44)
- ❸ 정창모(상대 45)
- ❹ 이송희(간호대 47)
- ❺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가야금 산조 연주.



아름다운 음률의 향기에 흠뻑~
지퍼홀 음대 정기연주회 ... 잇딴 앵콜 쏟아져



- ❶ 콜번스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대 정기 연주회.
- ❷ 소프라노 곽현주의 천상의 음색.
- ❸ 주일엽 동문의 바이올린 독주.
- ❹ 남성 복사중창. 넘치는 카리스마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 ❺ 김동석 교수가 지휘하는 국악 앙상블.

골프가 뭐길래... 흑백과 컬러의 차이?
45년 전엔 \$25, 요즘은 참가비 \$120



- ❶ 지난 1981년 창립한 문리대 골프클럽. 초대회장 배효식, 부회장 이진우, 이명상, 박양종 선출. 2개월마다 토너먼트를 열기로 하고 참가비는 25달러로 정했다.
- ❷ 2024년 '문공상' 정기 골프토너먼트. 문리대와 공대, 상대 동문들이 1년에 한차례 모여 화합을 다진다.
- ❸ 문공상 대회 참가비는 1인당 120달러. 45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동창회 로고송이 있다는데~ '꽃피는 우정' ... 1986년 회원명부에 실려

권길상(음대 46) 작곡 · 아동문학가 윤석중 작사

권길상 동문은 음대 1회 졸업생으로 '스승의 은혜' '꽃밭에서' 등 약 150곡의 동요를 작곡했다. 제 11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내는 등 동창회 일에 적극적이었다. '꽃피는 우정'은 동창회 회원 명부에 실렸는데 피아노 교습 광고(Hollywood Piano Studio)를 게재, 눈길을 끌었다.

꽃피는 우정

윤 석 중 요
권 길 상 곡

오 는 정 가 는 정 에 꽃 피 는 우 정
바 다 건 너 이-어 건 우 리 들 마-음
우 비 는 무 궁 무 궁 무 궁 하 거 레
무 궁 하 꽃 을 시 자 우 리 사 는 꽃 마 다

HOLLYWOOD PIANO STUDIO **권 길 상**
(음대 1회 졸업)

1730 N. Berenco St., L.A. CA 90027 (213) 660-0991

첫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프리마돈나 총출동 ... 이벨극장 가득 메워

88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겹쳤는데도 성황

남가주 총동창회의 사회활동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1988년 9월 16일 / 월서 이벨극장에서

● 라 토스카	● 그리온 금강산	* Ravel 물의 회동
● 휘가로의 결혼	● 내 마음	* Beethoven Fantasia Op. 77
● 라 트라비아타	● 가고파	* Milhaud Scaramouche
● 나비부인	● 나의 강산아	* Tomaso Vitali Ciaccona
● 떠나가는 배	● 별은 빛나건만 외 여러곡		

Piano: 박명숙

Sop.: Clara Kim

Ten.: 이재우

Piano: 홍순미

Piano: 유명희

Ten.: 이우근

Sop.: 김옥자

Piano: 정낙영

Cello: 이방운

Sop.: 조영애

국악: 김동석

LA 한인타운 이벨극장에서 열린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는 공교롭게도 88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겹쳐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동창회 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석 권유로 전좌석을 꽉 메웠다.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피아노 독주, 국악 공연 등으로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Refrigeration Reinvented

Outstanding Reliability / Superior Functionality / Excellent Convenience



Turbo Air Group is a global commercial refrigeration manufacturer with 13 warehouse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7 factories located in U.S.A, Korea, China, and Vietnam. Our products are sold in 67 countries worldwide.

서치원

공대 69
제37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Eco-Friendly Turbo Air

Natural refrigerant is now used in all Turbo Air products.

Replaced Hydrocarbon Refrigerants (R-290/R-600a)
Decreased energy consumption by an average of 25%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 Energy Star

Patented Self-Cleaning Condenser

The 'Self-Cleaning Condenser' cleans the condenser with a rotating brush that moves up and down 2-3 times a day, preventing any dust build-up and making it possible to always maintain the highest efficiency while saving additional energy.



Let's Watch Turbo Air's
Self-Cleaning Condenser Video!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 Toll Free: 800-627-0032 | www.turboairinc.com



제2장

전임 회장단 좌담회

1차 좌담회

2024년 6월 20일

LA 작가의 집

2차 좌담회

2024년 7월 25일

미주 동창회 사무실

3차 좌담회

2024년 8월 8일

미주 동창회 사무실



전임 회장단 좌담회 (1)



▲일시: 2024년 6월 20일 ▲장소: LA 작가의 집 ▲사회: 박용필(문리대 66)
▲참석: 박상길(13대·농대 58), 오흥조(24대·치대 56), 노명호(31대·공대 61), 김지영(33대·사대 69), 한종철(36대·치대 62), 김병연(41대·공대 68), 성주경(42대·상대 68), 임춘택(49대·상대 68), 채규황(50대·법대 69), 한효동(말수회 회장·공대 58), 최진석(전 법대회장·법대 64)

**7차 투표까지 갈 만큼 선거 과열현상 빚기도
투표용지에 이름 잘못 기재해 무효논란 일어**
“자네 도대체 몇살이야” 나이 어리다고 트집

2024년은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총동창회는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위해 골드북 위원회(Gold Book Committee)를 발족, 임춘택(상대 68) 총동창회장이 위원장, 채규황(법대 69) 차기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골드북 위원회는 역대 회장(생존) 38명 가운데 1차로 여덟분을 초청, 다음과 같이 좌담회를 열고 지난 50년을 되돌아봤다. 사회는 50년사 편집인으로 위촉된 박용필(문리대 66) 동문이 맡았다.

사회: 먼저 임춘택 회장의 인사말부터 들어본다.

임춘택: 총동창회 임원회의에서 50년사 발간을 진지하게 토의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골드북 커미티'로 이름지었다.

홍성선(약대 72) 동문을 기획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각 파트 별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었다. 광고수주와 책 판매, 그리고 기부를 받아 5만 달러를 모으기로 했다. 내년 2월 정기총회결산·구회장 이취임식 때 배부를 하도록 하겠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직 회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회장이 세습제냐’ 비난 두려워 도망 다니기도
소속 단과대가 반대해 낙마한 경우도 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 회장은 어떤 경로로 선출됐나?

오흥조: 단과대 동창회장이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맡았는데 초창기에는 대체로 이사회에서 박수로 통과됐다.

한종철: 총회장이 되려면 먼저 단과대 회장을 지내야 한다. 이번에 공대 차례라고 하면 원로선배들이 공대에서 추천된 인사를 인준하는 식이다. 제 경우는 공대쪽과 경합을 벌였다. 작고하신 장동호(공대 53) 선배가 제 손을 들어줬다. 서치원(공대 69) 동문은 후배이니 다음에 하라며 교통정리를 해주셨다.

당시 제가 술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특히 시바스 리갈을 많이 사다드렸다 (일동 웃음).

김지영: 오흥조 선배가 회장 하실 때 처음으로 동창회에 나왔다. 서영석(공대 55) 회장때부터 내리 5년 동안 총무를 했다. 제가 선거를 세번 치렀는데 굉장히 ‘핫’했다. 29대 회장 선거때는 김건진(문리대 62), 김영(수의대 63) 두 후보의 표가 같았다. 그런데 누가 투표용지에 ‘김건진’이라고 썼다. 무효표나 유효표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때 김영 동문이 이견 100% ‘김건진’을 잘못 쓴 것이라고 양보, 박수가 터져나왔다. 결국 한 표차로 김건진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다. 이같은 정직성을 인정받아 김영 동문은 이듬해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임낙균(약대 64) 동문의 회장 당선 때도 해프닝이 있었다. 상대는 법대 L 동문이었다. 7차 투표까지 했을 정도로 선거가 과열현상을 빚었다. 최종 결과는 임 동문의 압도적인,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래서 (몇 표차로 이겼는지) 발표를 안했는데 두고두고 혼이 났다.

제영혜(생과대 71) 동문은 대선배 김은중(상대 59) 동문과 경쟁을 했는데 김 동문이 후배에게 회장자리를 양보했다.

최진석: L 선배는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켰다. (동창회에서) 퇴출된 거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일동 웃음).

김지영: 47대 회장 선거때는 문리대에서 박제환과 A 동문 두 분이 후보로 나왔다. 젊은 층에선 A 동문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문리대 원로 측에서 A 동문에 비토를 냈다. 동창회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대신 박 후보를 전폭 밀었다.

음대에서도 후보가 두명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결국 김동석(음대 64) 동문이 회장이 돼 논란을 잠재웠다.

박상길: 김기주(문리대 47) 초대 회장은 활동이 거의 없었다. 뒤를 이은 오재인(치대 31) 회장이 4년동안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해냈다. 동창들을 많이 아꼈고 또 동창회의 기틀을 잡았다. 훌륭하신 분으로 기억한다.

해프닝도 적지 않았다. 음대 출신의 안응균(안스 피아노 운영) 동문이 총동창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는데 음대쪽에서 결사반대해 결국 낙마했다. 안 동문이 회장이 되면 음대는 총동창회에서 빠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권길상(음대 46) 동문이 어부지리로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회: 대학원 출신이 회장이 될 뻔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임 회장단 좌담회 (1)



박상길: 맞다. B는 대학원 출신인데 약대 선배 한 분이 밀었다. 나와 (고) 장동호(공대 53) 회장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나중엔 ‘총회 제대로 되나 두고 보자’며 협박까지 했다. 이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결국 정관을 수정해야 했다. 4년제 학부과정을 나와야 회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직전까지는 대학원 출신도 정회원으로 인정해 회장이 될 수 있었다. 만약 대학원 출신이 서울대 회장이 될 경우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동창회장도 동시에 겸할 수 있게 되는 황당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

사회: 최연소 회장은 누구인가?

박상길: 내가 회장을 못할 뻔 했다. 선배 한 분이 내게 “너 나이 몇살이냐”고 묻길래 ‘45살입니다’하고 정직하게 답했다. 그러자 그 분이 “네 나이가 모자란다”며 회장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 점잖으신 권길상 회장님도 내게 “대관절 자네 몇살이야”하고 물어 “저도 제 나이를 모릅니다”고 통명스럽게 받아쳤다. 그 분이 제게 사과를 하셔야 했는데… (일동 웃음).

한효동: 공대 출신의 장동호, 장준철, 김영기 이 세 분은 동창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들로 기억한다. 세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특히 김영기 선배는 처음으로 동창신문을 만들었다.

오흥조: 미주 동창회가 결성되면서 동부의 워싱턴 D.C.는 명예(회장)를, 서부는 신문제작을 맡는 걸로 역할 분담이 됐다. 5-6대 회장인 김영기(공대 51) 동문은 신문 만드느라 참 고생 많았다.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크게 해 재력이 뒷받침 됐는데 신문이 나오면 회사직원들이 리어커를 끌고 우체국으로 가져갔다. 이병준(상대 59) 회장대에 이르러 회장이 신문 발행도 책임지도록 정비했다. 사실상 신문은 미주 동

창들의 연결고리나 다름없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 회장 재임시 가장 인상적인 일을 꼽는다면…

노명호: 광복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처음 열었다. 4~5개월 맨날 밥 사고, 연습하고… 옛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다.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하려 했는데 매니저가 15만 달러를 요구해 무산됐다. 대신 테너 고성현을 3만 달러를 주고 무대에 올렸다.

디즈니홀은 2,500석이나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돼 잠도 안왔다. 결국은 꼭 채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사회: 티켓을 팔았다.

노명호: 20~30달러에 판매했다. 심지어 합창단원들도 티켓 판매에 적극 나섰다. 합창단장은 홍유현, 지휘자는 조성환 동문이었다. 디즈니홀 공연은 결코 잊지 못한다.

오흥조: 돈 많이 썼고 고생도 많으셨다. 돈 안쓰려면 동창회장 맡으면 안된다. 나는 미주 동창회장 2년을 하면서 50만 달러 가량 썼다.

한효동: 당시 집 한채 값이다. 참 대단하시다.

오흥조: 아버님(오재인)이 3-4-5대 회장을 지내셨다. 내가 회장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해먹는다는 말이 나올까봐 처음엔 도망다녔다. 그러다 회장이 됐는데 당시 이사회에 영감님들이 많아서 회의가 엄청 길어졌다. 2~3시간 회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스키치들 들고 나와 회의 시작 전 한 잔씩을 돌렸다. 그

디즈니홀 2천5백석 꼭 채워, 합창공연 못잊어
성주경·김병연 동문은 보배 … 동창회 궤뚫고 있어

리고는 오늘 토의내용이 이런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고 답변을 유도했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0분 내로 끝내고 저녁먹고 헤어졌다.

김지영: 동창회 역사에서 관악연대를 빼놓을 수 없다. 관악연대라는 말은 내가 처음 만들었다. 원래 연대는 ‘시대’라는 뜻으로 썼는데 관악세대가 이를 자신들은 한 집단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으로 달리 해석해 사용했다. 어쨌거나 관악연대가 생겨나면서 젊은 세대가 따로 모이기 시작했다. 삼겹살 파티를 주로 했는데 당시 81학번의 정연진, 이원영 두 동문이 주축이 됐다. 두 사람은 이것이 인연이 돼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연극이다.

노명호: 나같은 사람도 연극에 끌어들였다 (웃음).

김지영: ‘복남이의 봄날’을 무대에 올렸는데 처음엔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연극을 하려면 대본을 써야하고 연습을 해야하고 또 배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해낸 것이다. 정말 뿌듯했다. 연극은 세번이나 이어졌다. 이명박 선거 패러디 등 참 재밌었다.

관악연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과대 중심으로 동창회가 구성됐었는데 관악세대는 학번이 같으면 모두가 친구가 됐다. 양민(공대 77) 동문이 초대 관악연대장을 맡았다. 주축은 그러나 80~81학번이었다. 90년대 이후 학번은 잘 안됐다.

‘컬리 프라이스’ 악단도 만들었다. 역시 관악연대가

중심이 됐다. 임낙균 회장 회갑잔치 때 처음 공연을 했다. 인터넷 신문 ‘아크로폴리스 타임스’도 잘 했는데 더 쉬운 플랫폼이 나와 아깝게 문을 닫아야 했다.

박상길: 88 서울올림픽때 한인타운내 이벨 극장에서 음악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개막식이 열렸다. 사람들이 올리지 않았다. 관객동원이 엄청 힘

들었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되면 88올림픽이 생각나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내가 회장 재임시 처음으로 재외동문주소록을 만들었다. 유럽은 물론 중남미까지 커버했다. 그러자 한국의 총동창회가 이를 알고는 자기들한테 주소록을 넘기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침 한국서 김종필 전 총리가 LA를 방문해 동문들에게 저녁을 냈다. 귀국하면 7만달러 가량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아마 한국 총동창회가 김 전 총리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재외동문 주소록을 안주니 보복을 한 것이다.

노명호: 동창회가 주관해 골프 토너먼트를 했는데 처음엔 참가 동문이 적어 바가지를 썼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이메일 대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많이 와서 3팀이나 못쳤다. 욕을 잔뜩 먹었다. 이때 깨달은 것이 있다. 전화가 가장 확실한 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한종철: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다. 내가 회장 할 때 디즈니홀에서 제 6회 합창단 정기공연을 가졌다.



전임 회장단 좌담회 (1)

1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 모금이 어려웠다. 하지만 회장이 다 책임질테니 연습에만 충실해 달라고 합창단에 주문했다. 그리고는 합창단 후원이사를 모집해 회비를 모았다. 40명이 신규가입해 오히려 돈이 넘쳐났다.

디즈니홀 공연은 모두에게 꿈이었다. 오직 서울대만이 해내 자부심이 컸다. 하지만 아쉽게도 디즈니 공연은 6회로 끝나고 말았다.

오홍조: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분들도 있다. 대표적인 분들이 성주경(상대 68), 김병연(공대 68) 동문이다.

한번은 144명이 참가하는 골프토너먼트를 열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성 동문이 혼자 조를 다 짰다.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불만이 없었다. 멤버들을 (핸디와 성격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창회의 대단한 보물이다. 김병연 동문은 동창회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분이다.

김지영: 양민과 강신용 전 회장 등 총무 때 열심히 봉사한 분들도 기억해주면 좋겠다.

성주경: 1990년에 직장을 잡았는데 김성희(상대 67) 동문이 바로 한 해 선배였다. 그 분이 상대 총무를 할 때 내게 부총무를 맡겼다. 6개월 지나니 자기는 빠지고 나를 총무로 올려놨다. 직장 상사여서 말을 들어야 했다. 울며겨자먹기로 총무를 했다.

동창회를 살려보려고 노명호 회장 말씀처럼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5년 후 인원이 200명으로 늘어났다. 공대는 그렇게 동문 숫자가 많은데도 (동창회에 이름을 올린 인원이) 250명에 지나지 않았다. 상대가 2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공대가 깜짝 놀랐다.



한홍택·김인종 두 동문은 인품도 훌륭해
장동호 회장만큼 동창회 사랑한 분도 드물어

이병준 선배가 미주 동창회장 할 때 2년 총무로 도왔다. 그때 적자가 났는데 본인이 사재 20만 달러를 털어 막았다.

이명상(문리대 58) 회장 때 내가 총무를 맡아 처음으로 이사제도를 도입했다. 회장은 1만달러 가량 써야 했는데 그때는 큰 돈이었다.

이사회비를 받아 돈 문제를 해결했다. 대학 동창회에 관여하다보니 정작 고등학교(경기)는 일선도 못했다. 지금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총무만 10년 넘게 했다.

노명호: 장동호 회장만큼 동창회를 사랑한 분도 없지 않다.

한효동: 그 분이 공대 회장할 때 내가 부회장으로 모셨다. 너무 일찍 가셨다.

한종철: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동문이 있다. 발전기금에서 남가주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종(농대 74) 동문이다.

미주에서 2천만 달러를 기금으로 모았는데 이중 절반은 남가주 동문들이 낸 것이다. 김인종 동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말 인품도 훌륭한 동문이다.

노명호: 한홍택(공대 60)

박사도 존경하는 동문 중 한 분이시다. 동창회에서 장학사업을 거의 혼자 맡아 하신다. 차도 수바루를 탄다.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는데 '수바루가 어때서요'하며 싱긋 웃으신다. 동창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배다.

사회: 법대 동창회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채규황: 전에는 20~30명이 모였다. 노 회장님 말씀처럼 전화를 걸고 참석을 독려하니 이제는 40명 넘게 모인다. 내가 69학번인데 사실상

막내나 다름없다. 법대 후배 동문들이 적극 참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분들을 후배로 인정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법대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사회: 상대는 어떤가?

성주경: 상대는 이름만 없어졌지 관련 학과가 없어진 건 아니다. 경영대가 상대 후신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대로 옮겨 갔지만 상대 동창회에 나오고 있다. 상대 선배들이 많고 아직은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상대로 오고 있는 거 같다.

사회: 오늘 두시간 넘게 좋은 말씀 감사하다. 늘 건강하시기 바란다.





유희자(음대 68) **국악 무용 연구소**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9650 Reseda Blvd., Northridge, CA 91324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내
Youth Activity Center

(818) 456-8022
www.hizakordance.com
hizaskoreandance@yahoo.com

전임 회장단 좌담회 (2)



방석훈



김동석



제영혜



서치원

- ▲일시: 2024년 7월 25일 ▲장소: 미주 동창회 사무실
- ▲참석: 방석훈(농대 55·23대 회장), 김동석(음대 64·32대 회장), 제영혜(생과대 71·34대 회장), 서치원(공대 69·37대 회장), 김상찬(문리대 65·38대 회장), 이서희(법대 70·39대 회장), 박혜옥(간호대 69·40대 회장), 채규황(법대 69·50대 차기회장)
- ▲사회: 박용필(문리대 66)

범생이들의 반란? 신문사 주최 골프대회 우승 ‘감격’
서치원 회장은 관악연대의 ‘대부’ 지원 아끼지 않아

사회: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오신 회장님들 고맙습니다.

먼저 가장 어르신인 방석훈 회장님, 역시 골프대회 우승이 가장 ‘신나는’ 업적이겠지요?

방석훈: 1998년 제가 회장할 때 중앙일보 주최 동창회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이기준(법대 52), 조은하(수의대 72), 노신철(사대 80) 등 쟁쟁한 멤버들로 팀을 꾸렸지요. 자체 토너먼트를 열어 대표선수들을 뽑았습니다. 선발과정은 공정했어요.

당시 LA 한인사회에서 서울대 우승이 가장 큰 뉴스였어요.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줄 알았는데 운동도 잘 한다고요. 다음날 곧바로 한국에 갔어요. 만나는 동문들마다 (우승을) 자랑했습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언더를 친 노신철 동문은 이 대회 메달리스트로 뽑혔다.)

사회: 김동석 회장은 재임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김동석: 2007년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두번째

합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악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디즈니홀 공연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제영혜 회장님이 돈을 많이 걷어 왔어요 (일동 웃음). 정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치원: 처음엔 공대가 주축이 돼 합창단이 구성됐어요. 장동호(공대 53·17대 회장) 선배님이 합창단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처음엔 김영(수의대 63·30대 회장) 선배님에게 디즈니홀 공연을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는 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후 알아보니 벌써 (디즈니에) 돈을 다냈다고 하네요. 말보다 실천이 앞서서 분이세요.

사회: 합창단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 하면 어떨까요?

김동석: 디즈니 콘서트가 워낙 커서... 다른 행사는 할 엄두도 못냈어요. 아, 댄머스 마운틴에서 동문가족 캠핑을 했네요.

사회: 제영혜 회장님은 선거와 관련해 해프닝이 있



김상찬



이서희



박혜옥



채규황

었다고 들었는데...

제영혜: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김은중(상대 59) 선배님과 한판 붙었어요 (웃음). 어느날 상대 쪽에서 상임이사가 10명 넘게 신규등록했어요. 물론 회비도 완납하고.

서치원: 사실 공대도 김은중 선배를 밀었어요. 당시 재력이 상당해서 동창회를 위해 돈을 많이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동문은 한참 후배이니 선배에게 양보하고 다음에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김상찬: 김은중 선배는 미주 총동창회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역 동창회장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니까 남가주 회장선거에 뛰어들 거지요.

제영혜: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총무도 오래 했고 해서 표밭은 (다져났지요). 회장을 뽑는 상임이사회에 100명 넘게 오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서치원: (살벌했다기 보다는) 진지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김은중 선배가 투표 직전에 후보를 사퇴했어요. 내년엔 나오면 될텐데 굳이 승산없는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겠지요.

(김은중 동문은 이듬해 남가주 총동창회장에 무투표 당선된다. 이어 미주 총동창회장이 돼 자신의 꿈을 이뤘다.)

김상찬: 종전까지만 해도 남가주 회장은 60년대 학번이 하나씩 내려가면서 회장을 했는데 임낙균(약대 64), 광철(법대 64) 회장 이후는 뒤죽박죽이 됐어

요. (71 학번인) 제영혜 동문이 갑자기 당선되는 바람에... (웃음). 제 회장은 총무 때부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인정합니다.

제영혜: 권혁창(법대 57·18대 회장) 선배가 회장할 때 부름을 받았어요. 가정대 출신이, 특히 여성동문이 없다고 해서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석: 내가 회장할 때 양민(공대 77) 동문이 총무를 맡아 도와줬어요. 공대가 물심양면으로 많이 협조했어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실제 능력만으로 따지면 문리대가 (공대보다) 앞섰어요.

서치원: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웃음).

김상찬 회장은 봄·가을 뉴스레터 발간해 인기
‘기금모금의 달인’ 제영혜 회장, 재정 흑자 달성

김상찬: 70~80년대 벨리에서 ‘박양중(문리대 61)을 모르면 다들 간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박 선배는 마당발이었어요. 이외에도 나승욱(문리대 59) 등 선배들이 동창회를 위해 일 많이 했습니다.

50년사에 꼭 이 분들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김동석 회장 역시 한인커뮤니티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UCLA에 국악강좌를 개설하는 등 우리 음악 보급을 위해 진력하셨지요.

사회: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서치원: (내 회장직은) 실패작이란 말 밖에 없네요. 합창단을 내가 맡아먹었어요 (일동 웃음). 사실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음대 동창회가 주관해서 공연을 이어가도록 당부했는데 음대 쪽에서 대꾸가 없었어요. 필요하면 경비도 대겠다고 했는데도.

전임 회장단 좌담회 (2)

제영혜: 말수회 골프 동호회는 제가 회장할 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은퇴한 동창회 임원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오픈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김상찬: 제 회장은 기금을 많이 확보했어요. 누구나 (제 회장한테) 한번 걸리면 (기부금을 내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동창회가 흑자가 될 수 밖에요 (웃음).

저는 임기 때 봄 가을 두번 동문소식지인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이후엔 발행이 안돼 좀 아쉬웠지만.

제영혜: 연극 한 거 정말 '짱'이었는데...

서치원: 맞습니다. 제 회장 취임식 때 '관악골 이장선거'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패러디한 연극이었어요.

이원영(문리대 81) 동문이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회충(이회

창), 정통영(정동영), 허갱년(허경연) 등 셋이었는데 내가 허갱년 역을 맡아 '열연'을 했지요.

제 공약은 결혼정년제 도입이었습니다. 결혼 10년이 되면 누구나 이혼을 해야하는데 부부가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도록 각본이 되어있었지요. 총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 허갱년이 75%를 득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총회장이 야단법석,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웃음).

김상찬: 서 회장 때 관악연대가 최절정기였습니다.

서치원: 하기 싫다는 후배를 억지로 관악연대장을 시켰는데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결국 그 후배가 일을 안해 관악연대는 동력을 잃은 채 내리막길을 걸었지요.

제영혜: 커뮤니티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08년 처음 시작했는데 한인사회의 반응이 무척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치원: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있어요. 커뮤니티 봉사건으로 신문에 기사와 함께 제 사진이 실렸어요. 한국에서 옛 제자가 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온거예요. 대학다닐 때 입주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제자가 내 얼굴을 알아본겁니다. 이듬해 한국에 가서 5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영혜: 2009년 서울대 미주센터 설립도 동창회 역사에 남겨야겠지요.

그때는 서울대 분교가 LA에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서울대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

셋이 파견돼 왔고요. 동문들에겐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특별할인을 해줬어요. 원래 450만 원이 정가였는데 150만원 특

별 할인가격으로 건강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가서 VIP 대접 받았어요.

김상찬: 아크로폴리스타임스(acropolistimes.com)는 관악연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용도 참 좋았어요. 다시 복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치원: 지금도 내가 발행인으로 돼 있어요. 사이트 운영에 수백 달러가 들어가지만 버리기가 아까워요.

사회: 동창회에서 간호대의 역할도 공대 못지 않게 컸지요?

서치원: 박혜옥 회장의 공이 커요. 그전에는 사실 간호대의 존재가 미미했는데 박 동문이 회장에 취임하자 69학번 동기가 10명 넘게 동창회에 들어왔어요. 나도 "야, 우리 동기가 이렇게 많네"하며 흥분을 감

박양종·나승욱 동문 등 동창회의 '언성 히어로' 원로초청 오찬은 '가슴 뭉클' 행사, 다시 했으면

추지 못했어요.

박혜옥: 원로선배의 밤을 개최해 호응이 컸지요.

제영혜: 그건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도 다 늙어가고 있는데...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혜옥: 예산도 다 마련됐어요. 선배들의 기부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인터스트리 힐스 골프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예산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한 선배님은 간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참석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나 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서치원: 일부에선 동창회에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공짜니까 온다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선배님들을 위한 잔치인데 많이 오시면 좋잖아요.

제영혜: 가족캠핑도 에피소드가 적지 않아요.. 빅베어로 캠핑을 갔는데 선배 한 분의 부인이 실종됐어요. 그 상황에서 김동근(공대 60) 등산대 대장님의 책임감에 지금도 존경심이 갑니다.

즉각 레인저에 긴급구조를 요청해서 헬기가 뜨는 등 구조에 만전을 기했어요. 김동근 대장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등산반을 수십년동안 아무 탈없이 이끌어오신 분이세요. 김 대장님을 대체할 사람은 없지요.

김상찬: 백정현(음대 66) 동문은 한마디로 상남자예요. 리더십은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여전히 바

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김상찬: 백 동문의 40일간의 자전거 대륙횡단은 거의 '전설'입니다. 탠덤(tandem·커플 자전거)으로 자전거를 배웠는데 이후 산악자전거로 바꿔 타게 됐어요. 우리는 '백 두목'이라고 부릅니다.

제영혜: 회장이 되면 상임이사(전직회장)들을 골프에 초청하고 이어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어요. 선배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김동석: 처음엔 한 선배 회장으로부터 하드타임을 받았어요. 전직회장들을 부에나 파크에 있는 사간(지금의 경복궁)으로 초청, 식사를 대접했는데 다음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영혜: 전직 회장들과 골프 회동 후 저녁식사는 정말 좋은 전통이지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동창회관을 마련하는 겁니다. 합창단 음악회하고 남은 돈이 3~5만 달러 가량 됐는데 이 돈을 별도 계좌로 만들

어 후임회장들이 못쓰게 해 댔어요. 회관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지요.

김상찬: 동창회 총회는 무조건 재밌어야 합니다. 타 대학 동창회에서도 서울대 동창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연극 공연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채규황: 저도 동감입니다. (차기 회장으로서) 내년 총회는 재밌게 치를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이크가 잘 안들려 분위기가 산만했는데 내년에는 스피커 3대를 더 주문해 댔어요. 기대해 주세요.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 김경무(왼쪽) 이임 회장이 임춘택 신임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이양하고 있다.

전임 회장단 좌담회 (3)



▲일시: 2024년 8월 8일 ▲장소: 미주 동창회 사무실
 ▲참석: 이기준(7~8대 회장, 법대 54), 차종환(10대 회장, 사대 54), 한귀희(44대 회장, 미대 68), 민일기(45대 회장, 약대 69), 임춘택(49대 현 회장, 상대 68), 채규황(50대 차기회장, 법대 69)
 ▲사회: 박용필(문리대 66)

아주사의 ‘후진’ 골프장에서 첫 대회, 100여명 모여
 “이건희 회장은 고교 제자, 나 한테 많이 혼났지”

사회: 오늘이 전직 회장님들의 세번째, 마지막 좌담회입니다. 임춘택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임춘택: 지난 2월 총회에서 50년사 발간위원회를 만들어 스테디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올해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임원진의 의견이 일치해 지난 5월 29일 발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전직 회장님(상임이사)들을 모시고 6월 20일, 7월 25일에 이어 오늘(8월 8일) 좌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작비가 얼마나 들까, 어떤 규모로 책을 만들까

고민을 많이했는데 예산은 4만여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여러 상임이사님들과 기부자님들, 그리고 각 단과대 회장님들의 협조로 예산의 60%는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책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각 동문 가정에 비치해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지난 5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충실한 내용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기준 회장님, 차종환 회장님, 민일기 회장님, 그리고 한귀희 선배님... 아니 선배 아니고 우리 68학번 동기입니다 (일동 웃음). 그리고 채규황 차기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년 재미나게 놀게 해주겠다” 집에 노래방 기계까지
 취임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렀는데... 팬데믹이 올줄이야

사회: 이기준·차종환 두 회장님은 54학번 동기이신데 이 회장님이 7대, 차 회장님이 10대이니 이 선배님이 시니어 회장이지요.

이기준: 1976년말 쯤 미국에 왔어요. 당시 100개가 넘는 한국기업들이 LA에 진출해 있었는데 내가 상사지사협의회를 만들어 회장을 했어요.

사회: 어떤 연유로 협의회를 만드셨나요?

이기준: 당시 LA총영사가 한국서 VIP들이 오면 영사관이 일일이 접대할 수 없더라 상사지사협의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솔직히 어용단체를 맡았지요 (일동 웃음). 전두환 전 대통령이 LA를 방문했을 당시 김방앗간 주인인 김명환옹이 거리에 두리눅스 등 대통령의 카 퍼레이드를 방해한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주 반골이었어요.

사회: 그분의 아드님이 초대 동창회장을 지냈지요?

이기준: 맞아요. 김기주(문리대 46) 동문이 회장이었는데 건강이 아주 안좋았어요.

사회: 상사지사협의회와 동창회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기준: 오재인(2-3-4대 회장, 치대 31) 박사님이 저를 동창회에 끌어들었어요. 상사지사협의회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창회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그러면서 회장을 반드시 맡아달라는 겁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차종환, 김영기(공대 51), 안응균(음대 54) 등 5~6명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차종환 박사가 내가 회장이 되면 안된다며 혼자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차 박사, 기억안나요?

차종환: 전혀 기억안납니다 (일동 폭소).

이기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사지사협의회에서 부정한) 돈을 얼마나 만지작 거렸느냐는 거예요. 참 내...

처음엔 동창회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월서와 크렌서 볼러바드 코너의 건물을 살 계획도 있었지요. 아마 내가 동창회 회장이 되면 상사지사협의회 돈을 갖다 쓸 수 있겠다 싶어 그랬던 거 같아요. 황당했지요.

사회: 회장이 되어서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이기준: 저는 골프광입니다. 미국에 온 것도 골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동문들을 모을 작정으로 골프 토너먼트를 할 계획을 세웠지요. 공대 문리대 상대가 주축이 돼 토너먼트를 갖기로 했는데 당시 멤버십을 갖고 있는 동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사에 있는 아주 후진 골프장에서 첫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한 여름철이어서 토너먼트를 열 수 있었지요. 누가 무더위 속에서 골프를 치겠어요? 우리 말고는 이른바 공·문·상 골프는 1982년 한여름에 태어난 대회지요.

첫 대회에 무려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동창회 발족이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대회는 성공리에 마쳤는데 딱 한 사람이 엄청 반대했어요.

차종환: 내가 앞으로는 골프대회 갖지 말라며 반대했습니다.

이기준: 이유가... 서울대 동창회가 골프만 하느냐며 혼자 반대했어요 (웃음).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어깃장을 놔어요. 그러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내가 동원참치 창업주와 친한 사이였는데 차 박사가 그 창업주와 또 절친한 사이예요. 고등학교때 차 박사가 1등을 해서 서울대에 들어왔고 동원참치 회장이 2등을 해서 수산대로 갔습니다. 차 박사가 머리는 엄청 좋았어요.

그래도 처음엔 깍듯이 존대했어요. 선배인줄 알고..

차종환: 내가 이기준 회장이 나온 서울사대부고 교

전임 회장단 좌담회 (3)



이기준 차중환 한귀희 민일기 임춘택 채규황

사를 했어요. 그러니 은사가 되는 셈이지요.

이기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면 차 박사가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사라며... 나중에 동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반말을 할 수 없었어요.

환심을 사려고 차 박사가 운영하는 꿈나무 장학금에 기금까지 냈다니깐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다음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일동 웃음).

사회: 두 분은 참 인연이 깊네요. 악연으로 만나서 이젠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차중환: 이건희 삼성회장도 내 사대부고 제자였어요. 나한테 많이도 혼났어요. 그때 안 혼냈으면 나중에 삼성에서 수위라도 했을텐데... (일동 웃음).

사회: 꿈나무 장학금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차중환: 35년 됐는데 140만 달러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30명 가량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차 회장님은 지금도 책을 쓰시고 있나요? 기네스북에 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중환: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한국 국회에서 인증식을 갖기도 했지요. 당시 야당 대표인 박지원 의원이 "선생님은 백세까지 충분히 사시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받아줬어요. "아노. 나는 염라대왕과 120세까지 살기로 이미 합의했어요." 그랬더니 며씩해 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사회: 지금까지 몇권 쓰셨나요?

차중환: 340권 되요. 앞으로 계속 쓸테니 모두 몇권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회: 한귀희 회장님은 관악연대와 가장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귀희: 제 임무는 선후배 교량역할을 맡아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60년대 말 학번이어서 위로는 50~60년대, 아래로는 70~80년대 학번들과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친분관계를 이용해) 임원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아무도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관악세대 유치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웃음).

사회: 무슨 공을 들였나요?

한귀희: 관악 쪽 동문들은 동창회가 재밌어야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재밌게 노는지 알기 위해 한번 따라가봤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킁킁한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 맥주 마시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놀게 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다 놔지요.

그러고는 관악연대를 집으로 불러 놀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선언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재미나게 놀게 해주겠다고요 (웃음).

사회: 당시 임원진을 어떻게 구성했나요?

한귀희: 80~90학번은 물론이고 2003학번(김유원, 음대)까지요. 최용준(수의대 81, 45대 회장) 동문이 총무를 맡았지요. 손영아(음대 85)는 행사있을 때마다 전화를 200통이나 돌리고.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회장할 때 16명이 모였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10년 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아직 4년 더 남았습니다 (웃음).

사회: 10년 약속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2천4백여 동문들에 회비납부 편지 보내
“코비드 덮쳐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요”

한귀희: 일 해 본 사람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동창회를 도울 일이 생기면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넉넉히) 10년을 잡은 겁니다.

사회: 동창회비를 걷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귀희: 회비는 주로 총회와 골프대회 참가 동문들에게서 걷어요. 대체로 골프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총회에 안 오세요.

회비를 안내시는 분들이지요. 제가 얼굴을 다 아니까 반갑게 인사하면 (회비를) 다 내세요. (한 회장은 퇴임 후에도 골프대회가 열리는 날엔 꼭 접수대에 앉아 회비를 강제(?) 징수, 주최측에 넘겨주고 자리를 떠난다. 골프를 안치기 때문이다.)

남가주 총동창회에는 2천4백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큰 행사가 있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행사안내와 함께 동창회비 납부 요청을 하면 회비가 많이 들어와요. 일일이 우표 붙이는 작업이 힘든 들지만 즐겁게 일했어요.

사회: 이기준 회장님은 골프와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기준: 1998년 중앙일보사 주최 동창회 골프 토너먼트에 저를 포함해 4명이 나가 우승을 했지요. 원래는 고등학교 대항 골프대회였는데 제가 신문에 찾아가 서울대가 참가하겠으니 대학에도 오픈하라고 요구, 관철시켰어요. 덕분에 연고대 등 대학팀들도 많이 출전했어요.

사회: 우승에 곡절이 있었다면서요?

이기준: 준우승한 용산고 측에서 거칠게 항의했어요. 우리 팀에 티칭프로그가 끼었다며 부정선수라는 겁니다. 용산고에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외삼촌이 주먹으로 악명을 떨쳤던 시라소니) 식칼을 들고와 협박까지 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동문들에게 골프를 지도해준 거에 불과하다며 신문사 측을 설득해 트로피를 지켜냈지요.

사회: 민일기 회장님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일동 웃음).

민일기: 취임식 만큼은 근사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팬데믹이 울쭉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열고... 나보고 (회장을) 거저 먹었다고 하는데 억울해요. 정말 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채규황: 당초 민 회장님이 몇만 볼 쓰려고 했는데 그만 팬데믹으로...

민일기: (전직 회장들을) 골프에 초청하려고 예약까지 마쳤어요. 이상호(사대 80) 총무가 자기 돈으로 예약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무산됐지요. 이 총무가 돈을 매일 뵈 했어요. 나중에 돌려받았지만.

장학금도 줬어요. 제가 2천5백불을 내고 미주재단(발전기금)에서 매칭 펀드로 2천5백불을 내놔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팬데믹 시국이지만 회장으로서의 소임은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좌담회에 참석해 좋은 말씀 들려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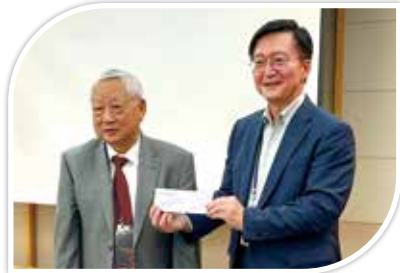


제 1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한 동문들. 왼쪽부터 강동원, 김종섭, 노명호, 이사균.

하와이·알래스카·남가주·시카고에서 뉴욕·보스턴·조지아·텍사스에 이르기까지 미주 동창회는 동문님들과 함께 합니다



▲ 뉴잉글랜드 지부 방문.



▲ 유홍림 총장(오른쪽)과 이상강 회장.



▲ 시카고 지부 임원진과 함께.

주요 사업

- 월간 미주동창회보 발행** 동문소식과 수필, 칼럼 등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 평의원 회의 개최** 매년 주요 도시에서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회의에는 그러나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0일에는 풍광이 수려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립니다.
- SNUAA Entrepreneurship Network**... 동문 창업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홍택 박사(UCLA 석좌교수)가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 'SNUAA Scholar' 장학금** 미주 동창회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적이 우수한 한인 대학생 10명을 선발, 1인당 1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가 노벨상 수상의 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재정지원** 관악세대 동문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홈커밍데이 참가** 매년 10월 서울대 개교기념일에 맞춰 모교를 방문합니다. 주요 문화 관광지를 탐방하는 여행도 마련돼 있습니다.

회 장 이 상 강(의)

사무총장 김경숙(생)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 국장 나용화(생) 부국장 최경석(사) 박문수(공) 데이터베이스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 함은선(음)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 이주현(미) 사무장 박혜옥(간) 편집장 신복례(문) 감사 박평일(농)



서울대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the U.S.A.(SNUA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818) 395-1967 | www.snuua.org | news@snuua.org | email: okjapaik@gmail.com



제3장

단과대 동창회

가정대학(생활과학대)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

문리과 대학(사회과학·인문대·자연대)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수의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대학원



한인회 주관 배구대회 출전이 계기돼 공대와 문리대 참가해 우승·준우승 차지 '최강'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발족한 해는 1974년이다. 따라서 2024년이 50주년이 되는 셈이다. 기록에 따르면 1968년 8월 한인 거류민회(현 한인회)가 주관한 대학동문회 친선 배구대회에서 서울대 공대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해 10월 공대 동창회가 정식 창립됐는데 남가주 총동창회의 모태가 된 셈이다.

69년 대회에 공대 배구팀은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이어 열린 70-71년 두 대회에서 거푸 우승배를 들어 올렸다. 1972년에는 공대와 문리대 두 팀이 참가해 공대가 우승, 문리대가 준우승을 각각 차지해 배구에 관한 한



1970년대 동창회보. 오재인 회장 재임시 창간호가 나왔다.

서울대가 최강임을 한인사회에 과시했다. 1973년에는 서울대 단일팀으로 출전해 챔피언 트로피를 따냈다. 당시에는 골프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아 배구가 가장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종목이었다.

배구대회 참가를 계기로 1974년 10월 남가주 총동창회가 창립된다. 초대 동창회장에는 김기주(문리대) 동문이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김병준(공대) 유진형(상대) 김석영(치대) 동문, 감사 김창규(법대), 총무 부창호(문리대) 동문 등이 각각 임명돼 총동창회의 출범을 알렸다.

초대 회장인 김기주 동문은 LA 코리아타운의 상징인 '김방앗간'의 장남이다. 한인타운에서 '김방앗'로 널리 알려진 김명환은 타운의 산증인이다.

1965년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민

와 방앗간을 차려 초기 이민자들에게 고향집 같은 곳이다. '김방앗'은 11명의 자녀를 뒀는데 김기주 동문이 장남으로 태어났다. 회장직을 물려난 뒤에는 한국 학교 이사장을 맡는 등 2세 교육에 진력했다. 1998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갓 출범한 총동창회는 2대 회장인 오재인(치의대) 박사 때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재인-정원훈(상대)-김영기(공대) 동문 등으로 이뤄진 임원진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3년여 동안 재임, 동창회보

를 제작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 매달 발행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는 남가주 동창회보가 그 효시인 셈이다.

1978년 12월 발행된 창간호는 10면에 불과했지만 각종 정보와 함께 동문들의 경조사를 알려줘 서울대 커뮤니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냈다.

오재인 회장은 창간사에서 "각 단과대학 사이에 상호 친목과 우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



1970년대말로 추정되는 공대 동창회 모습. 모두 정장차림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방앗간 장남' 김기주 동문 초대 회장 선출 아버지와 아들(오재인-오흥조)이 대물림 회장 동창회보도 발간, 김영기·김진형·차종환 광고

제 2호 동창회보는 1979년 6월 발행됐다. 회보엔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동문 명단이 나와 화제가 됐다. 모두 8명이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최고령은 장경숙(51년 쉼), 최연소는 이동호(74년 쉼) 동문으로 둘은 20년 넘게 나이 차이가 났다.

골프 대회가 회보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 1회 동창친선 골프대회가 9월중 열린다는 공지가 나간 것.

우승한 단과대학 팀에게는 서울대 총장배가 수여된다는 내용이 기사로 나와 호응이 컸다.

있으면 좋겠다"며 "한 알의 물방울이 모여 샘이 되고 이 샘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나중에는 망망대해를 이루듯 동문들도 서로 협조하고 참여 의식을 가져 보람찬 동창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연회비 10달러 납부 회원은 오재인 회장을 비롯해 정원훈(상대), 서경만(의대), 김영기(공대), 김대영(치대), 김광하(치대), 오흥조(치대), 지치균(치대), 김규희(문리대), 김병기(상대), 장동호(공대), 안병규(상대), 김봉규(약대), 김낙희(치대), 신조지(약대), 김천근(치대), 송준하(치대), 최예섭(치대) 등 모두 18명이다.

동창회보에 앞서 회원명부(주소록)도 발행됐다. 명부에는 회칙도 실렸는데 대학 학부는 물론 대학원 졸업자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회보는 광고 수입으로 제작비를 충당했다. 김진형(문리대) 동문의 부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보석상과 김영기(공대) 동문의 베스트웨이 리사이클링, 차종환(사대) 동문의 나성백화점, 안응균(음대) 동문의 안스 피아노, 오흥조 치과 등이 거의 고정적으로 게재됐다.

1981년 나온 주소록에는 모두 1,027명의 회원 명단이 실렸다. 동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치과대학으로 모두 173명이었다. 이어 농대 154명, 공대 144명, 사대 94명, 문리대 93명, 약대 91명, 의대 85명, 상대 62명, 미대 46명, 법대 39명, 수의대 25명, 대학원 19명 순이었다.

남가주 총동창회 역대회장 명단

- | | |
|--------------------|--------------------|
| ▲ 초 대: 김기주(문리대 47) | ▲ 29대: 김건진(문리대 62) |
| ▲ 2~4대: 오재인(치대 31) | ▲ 30대: 김영(수의대 63) |
| ▲ 5~6대: 김영기(공대 51) | ▲ 31대: 노명호(공대 61) |
| ▲ 7~8대: 이기준(법대 54) | ▲ 32대: 김동석(음대 64) |
| ▲ 9대: 정원훈(상대 38) | ▲ 33대: 김지영(사대 69) |
| ▲ 10대: 차종환(사대 54) | ▲ 34대: 제영혜(생과대 71) |
| ▲ 11대: 권길상(음대 46) | ▲ 35대: 김은종(상대 59) |
| ▲ 12대: 오형원(의대 53) | ▲ 36대: 한종철(치대 62) |
| ▲ 13대: 박상길(농대 58) | ▲ 37대: 서치원(공대 69) |
| ▲ 14대: 임종문(약대 51) | ▲ 38대: 김상찬(문리대 65) |
| ▲ 15대: 손수웅(수의대 60) | ▲ 39대: 이서희(법대 70) |
| ▲ 16대: 신보남(미대 59) | ▲ 40대: 박해옥(간호대 69) |
| ▲ 17대: 장동호(공대 53) | ▲ 41대: 김병연(공대 68) |
| ▲ 18대: 권혁창(법대 57) | ▲ 42대: 성주경(상대 68) |
| ▲ 19대: 이병준(상대 55) | ▲ 43대: 강신용(사대 73) |
| ▲ 20대: 전희택(의대 58) | ▲ 44대: 한귀희(미대 68) |
| ▲ 21대: 박병기(공대 52) | ▲ 45대: 민일기(약대 69) |
| ▲ 22대: 이명상(문리대 58) | ▲ 46대: 최용준(수의대 81) |
| ▲ 23대: 방석훈(농대 55) | ▲ 47대: 박제환(문리대 75) |
| ▲ 24대: 오흥조(치대 56) | ▲ 48대: 김경무(공대 69) |
| ▲ 25대: 서영석(공대 55) | ▲ 49대: 임춘택(상대 68) |
| ▲ 26대: 이청광(상대 61) | ▲ 50대: 채규황(법대 69) |
| ▲ 27대: 임낙균(약대 64) | 2025년 2월 1일 취임. |
| ▲ 28대: 곽 철(법대 64) | |



유흥림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방문을 맞아 기념촬영하고 있는 남가주 동문들.



지난 2024년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렌지카운티 랩프 클락 공원에서 열린 피크닉.



단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가정대학 (생활과학대)

1968년 초대 회장 이정자, 미주서 가장 오래돼 미국 방문 현기순 학장 “목련회 이름 처럼 살라”

생활과학대(생과대) 동창회는 오래전부터 ‘목련회’라는 고유명칭을 써왔다. 2019년에는 타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생활과학대 동창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으나 동문들 사이에선 여전히 ‘목련회’가 더 친숙하다.

미주 목련회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회장은 이정자(사대 49) 동문이다.

목련회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가정대 학장을 역임하신 현기순(1919~2014) 교수가 뉴욕을 방문해서 이정자 회장을 비롯한 유학생 동문들을 만났다. 그때 창 밖의 목련이 유난히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고 한다. 현 교수가 “여러분들도 목련처럼 우아하고 기품있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목련회 회장은 1994년까지는 동부지역에서만 선출됐다. 이듬해 남가주의 오송자(사대 59) 동문이 총

동창 회장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문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남가주 목련회가 정식 발족하게 됐다.

목련회는 전 미주차원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과 함께 장학기금 모금 활동도 꾸준히 펼쳤다.

오송자 회장단은 1997년 모교 발전기금으로 \$2,790, 그리고 여러 차례 모교에 송금을 했다. 제 13대 윤순재(사대 60)회장단은 2001년 생활과학대 학시설 개설로 154만원, 16대 김옥경(사대 60) 회장단은 2008년 가정대 발전기금 \$3,030를 모교에 보냈다. 제 19대 회장단 이후부터는 북미 목련회장직을 겸임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남가주 생과대 동문은 30여명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동문이 많아 앞으로 회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가주 생과대 동창회가 주관하는 큰 행사로는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이 있다. 이 행사는 2001년 제 13대 윤순재 회장 때 제영혜(의류 71) 동문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틀을 잡았다. 제영혜 동문은 제 34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오송자(사대 59), 김혜인(의류 69), 고 박범순(식품영양학 70) 동문 등도 할리웃 보울 위원으로 활약했다. 2006년 김옥경 제 16대 회장 때는 안혜정(식품영양학 77), 염인숙(가정관리학 78) 동문 등이 2024년까지 위원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에 참석한 생과대 동문들.



한자리에 모인 가정대 원로들. 왼쪽부터 김옥경(60), 전상옥(52), 오송자(59), 박자경(60) 동문.

남가주 목련회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특히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애가 무척 끈끈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2024년 9월에는 김옥경 회장이 자신의 아이다호주 세컨드홈으로 동문들을 초대해 담소를 나누는 한편 주변의 멋진 풍광을 즐기기도 했다.

생과대는 여러번 명칭이 바뀌었다. 1945년 경성여자사범학교가 해방과 더불어 경성여자사범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가정과가 신설됐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공포에 따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통합개편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가정과로 개칭됐다.

1968년 가정대학이 신설되면서 사범대 가정과는 가정관리학과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의 3개 과가 설치됐다.

지난 1997년 가정대학은 생활과학대학(College of Human Ecology)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대의 농가정학과가 생과대로 이관 및 통합됐다.

생과대는 현재 소비자학, 아동가족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글: 김경숙(70) 회장



김옥경 동문의 아이다호주 세컨드홈에 초대받은 동문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생과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 | | |
|---------------|----------------|----------------|----------------|
| ▲ 초대: 이정자(49) | ▲ 7대: 이명자(60) | ▲ 13대: 윤순재(60) | ▲ 19대: 박범순(70) |
| ▲ 2대: 김종원(58) | ▲ 8대: 백숙자(60) | ▲ 14대: 김혜인(69) | ▲ 20대: 안혜정(77) |
| ▲ 3대: 장순열(46) | ▲ 9대: 이정자(57) | ▲ 15대: 오송자(59) | ▲ 21대: 김경숙(70) |
| ▲ 4대: 김청자(60) | ▲ 10대: 오송자(59) | ▲ 16대: 김옥경(60) | |
| ▲ 5대: 김인숙(58) | ▲ 11대: 김연주(52) | ▲ 17대: 안혜정(77) | |
| ▲ 6대: 김다혜(60) | ▲ 12대: 최현숙(69) | ▲ 18대: 김옥경(60) | |



단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간 호 대 학

존경받는 전문직, 쉽게 영주권 취득 가족 초청 이송희 동문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지난 2024년 6월 27일 하루 일정으로 샌타 바바라 미션을 찾은 간호대 동문들. 평일인데도 4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간호대 동창회 정관에는 다음의 6가지 조건 중 하나만 갖추면 누구나 정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서울대 간호대 입학 및 졸업생 ▲서울대 의대 간호학과 입학 및 졸업생 ▲서울대 의대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서울대 의대 부속 간호고등학교 졸업생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간호부 양성소 졸업생 ▲경성의학 전문학교 부속병원 간호부 양성소 졸업생 등은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동시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될 수 있다.

1959년 의대에 간호학과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간호기술학교 등 3년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었다. 4년제 정규학과 개설은 1950년대말 시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산물이었다. 1992년에는 의대에서 독립, 단과대학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초대회장 최덕순(59년 입학) 동문은 4년제 간호학과 1회 졸업생이다.

방정자(61) 동문은 3대에 이어 6대 회장도 맡는 등 동창회의 산증인. "초창기에는 4년제 서울대 출신과 3년제 간호기술학교 졸업생들이 모두 격의없이 지

방정자 합창단 단장, 남가주 간호협회 회장 지내 양수진 1천만원, 자서전 판매 580만원 모교 기부



간호대 동창회의 산증인 방정자(61) 동문.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 단장을 지내는 등 동창회 일에도 적극적이다.

냈어요. 간호대의 뿌리이니깐요."

1972년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온 방 동문은 남가주 간호협회와 연계해 엔클렉스(NCLEX) 준비반을 만들어 후배들의 합격을 도왔다. 엔클렉스는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면허시험이다.

당시 '간호고시'라는 우스개로 불렸는데 서울대 졸업생들은 대부분 3개월 가량 공부하면 합격해 정식 RN이 될 수 있었다. 간호대 졸업생들에게 엔클렉스는 '아메리칸 드림'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

방 동문은 남가주 한인간호협회 회장도 지내 간호계 원로로 꼽힌다. 지난 2011년 튀르키예(터키)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5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긴급의료팀을 꾸려 현지에서 부상자들을 돌봤다.

이를 계기로 의료선교회를 조직해 브라질, 중국, 네팔, 아프리카 케냐, 남미의 과테말라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주소록도 없었어요. RN 준비반을 만들고 취업정보도 교환하는 등 동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애를 썼지요."

방 동문은 RN은 전문직이어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해 가족을 미국에 초청할 수 있어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

방정자 동문은 CCRN을 추가로 취득, 은퇴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 단장을 맡는 등 동창회 일에도 열심인 그는 매주 수요일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합창 연습에 빠지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는다.

박혜순(68) 동문도 간호협회 회장에 선출돼 한인 간호사들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양수진(80) 전 회장.



2022년 1월 신년 하례식 모임.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30여 명이나 참석했다.



지난 2023년 2월 4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에 참석한 간호대 동문들.



지난 2024년 8월 17일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송희(46) 동문 추도식에 참석한 간호대 동문들. LA 총영사관에서 국가유공자인 이 동문을 추모하기 위해 대통령 근조 조기를 보내왔다.

을 창립한 이송희(46) 동문은 201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받았다. 한국전에 참전한 그는 간호장교로는 최초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다.

모교 기부금 전달도 동창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지난 2020년에는 홍여신(51)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

서전 '나의 이력서 나의 삶 나의 하나님'을 동문들에게 판매해 수익금 5,100 달러(약 580만원)를 모교에 기부했다.

홍 교수의 자서전 판매를 이끈 김수향(68) 전 회장은 간호대 동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 동문들에게 보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 판매대금은 3,345 달러. 여기에 전현직 회장 등이 기부금을 추가해 5,100 달러를 모았다. 동창회는 2020년 1월 11일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2024년 10월 17일에는 양수진(80) 전 회장이 졸업 40주년을 맞아 간호대 홈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 1천 만원을 서울대 발전기금 재단에 기부했다.

간호대는 매년 10·20·30·40·50 주년 등 10년 단위로 졸업을 맞는 동기생들이 모여 홈커밍 축제를 벌인다.

양 동문은 "서울대에서 보낸 4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동문은 이날 홈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한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 동문은 이어 서울대 측 초청으로 대학병원과 분당병원에서 미국의 Nurse Practitioner(NP)와 관련해 패널 토의 및 강연을 가졌다. 미국의 NP 시스템은 한국의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유회도 빼놓을 수 없는 간호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6월 27일엔 샌타 바바러 미션을 다녀왔다. 평일인데도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우의를 다졌다.

골프 클럽도 간호대 동창회의 주요 친목단체다. 지난 2019년 4월 남가주 총동창회 주관 골프토너먼트(브룩사이드 골프 코스)에 이종묘·이호진·양수진 동문 등이 참석한 것이 계기가 돼 간호대 골프클럽이 결성됐다.

그해 5월말 애나하임힐스에서 처음으로 정기 모임을 갖고 단합을 다졌다.

코비드 사태로 몇개월 중단됐으나 2020년 5월부터 모임이 재개돼 대드밀러, 애나하임 힐스, 풀러튼,



간호대 골프클럽 팀. 핑크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출전해 인기를 끈다.

간호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 | | |
|---------------|----------------|--------------------|----------------|
| ▲ 초대: 최덕순(59) | ▲ 7대: 최숙규(65) | ▲ 13대: 김수향(68) | ▲ 19대: 박혜옥(69) |
| ▲ 2대: 조옥자(56) | ▲ 8대: 홍명희(67) | ▲ 14대: 박선희(70) | ▲ 20대: 김수향(68) |
| ▲ 3대: 방정자(61) | ▲ 9대: 이화숙(67) | ▲ 15대: 윤국희/이영현(70) | ▲ 21대: 이호진(74) |
| ▲ 4대: 형용숙(59) | ▲ 10대: 김정애(69) | ▲ 16대: 이영현(70) | ▲ 22대: 양수진(80) |
| ▲ 5대: 배옥례(55) | ▲ 11대: 박혜옥(69) | ▲ 17대: 최정희(72) | ▲ 23대: 양수진(80) |
| ▲ 6대: 방정자(61) | ▲ 12대: 이정렬(68) | ▲ 18대: 장난희(74) | ▲ 24대: 이종묘(69) |



단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간 호 대

북클럽 활성화, 동문들의 지적 욕구 충족
팬데믹의 부산물, 토론 후 만남의 시간도

라미라다 등지에서 라운딩을 갖고 있다. 엄세옥(69) 동문은 '90세' 티칭 프로의 지도로 기본기를 익혔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안순(78) 동문도 뒤늦게 가입하는 등 회원이 늘었다. 팝스프링스, 테미콜라 등지로 1박2일 골프여행도 다닌다. 간호대 골프 클럽은 이종묘 회장이 팀장을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간호대 동문들.

맡고 있다. 주소가 파악된 간호대 졸업생은 LA 일원에 100명이 넘는다. 동문 카톡방에는 60여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경조사는 물론 각종 정보가 올라있어 이민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낸다. 글: 이종묘(69) 동창회장

코리아타운 올림픽 지점 (올림픽+카타리나)
2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213-755-8130

US METRO BANK



Zoom을 통한 북클럽 모임.

북클럽은 2019년 양수진 당시 회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마침 지구촌을 휩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북클럽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 대면 모임도 추진됐으나 서부와 동부, 한국에 흩어진 동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은 Zoom 뿐이었다.

그동안 문학상 수상작품과 문제작, 사회·경제·심리·의학과 관련된 책들을 두루 섭렵했다. 세계 여러 나라 작가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그 나라,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 역사를 배우는 묘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북클럽 토론 후에는 다음 달 읽을 책을 정한다. 시간과 거리가 맞는 회원들끼리 어울려 점심을 나누고 또 뮤지엄을 방문하기도 한다. 보너스로 얻는 소소한 재미다.

북클럽에는 '청강생'도 더러 있다. 시간날 때 들르는 회원들을 일컫는다. 김영희(66)·김영옥(69)·장동욱(72)·안인숙(72)·유한신(72)·양수진(80) 동문은 매달 꾸준히 만나는 회원들이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통해 심적 평안과 진리를 발견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다.

간호대 카톡방에 그달 읽을 책과 Zoom 공지 등을 올리고 있으니 관심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그동안 북클럽에서 읽었던 대표작들을 소개한다.

- ▲ 엘리트 세습(다니엘 마코비츠)
- ▲ 마인드셋(캐럴 드웍)
-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니콜라스 카)
- ▲ 파친코(이민진)
- ▲ 천개의 찬란한 태양(할레드 호세이니)
- ▲ 영혼의 집(이사벨 아엔데)
- ▲ 자기만의 방(버지니아 울프)
- ▲ 어린 왕자(생 뉘베리)
- ▲ 작별하지 않는다(한강)
- ▲ 화가들의 마지막 그림(이유리)
- ▲ 클라라와 태양(가즈오 이시구로)
- ▲ Uncle Tom's Cabin(Harriet Stow)
- ▲ 인간의 품격(데이비드 브룩스)
- ▲ Home Going(Yaa Gyasi)
- ▲ 무어의 마지막 한숨(살만 루슈디)
- ▲ 눈먼 올빼미(사데크 헤다아트)
- ▲ 아침 그리고 저녁(온 포세)
- ▲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
- ▲ 사막(르 클레지어)
- ▲ 철도원 3대(황석영)
- ▲ 행복한 그림자의 춤(앨리스 먼리)
- ▲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Dee Brown)
- ▲ Same As Ever(Morgan Housel)
- ▲ A Day in the Life of Abed and Salama (Nathan Thrall)
- ▲ The Question of God (C.S. Lewis and Sigmund Freud)
- ▲ 경이라는 세계(이종태)

글: 이영희(66) 북클럽 반장
문의: 818-970-4623



단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공과대학

1968년 11월 창립... 한인사회 최초의 동창회
10명이 발기위원, 초대회장에 정형조(화공 45)
 동창회 배구대회 단골 우승, 공대의 전성시대 이끌어

1968년 11월 2일. 서울대 공대 남가주 동창회가 창립된 역사적인 날이다. 장소는 고려정(Korea House). 당시 한인들이 많이 살았던 USC대학 인근 제퍼슨 애비뉴에 소재했던 레스토랑이다.

동창회 발기모임에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의 김동명(토목 44) 목사를 비롯해 정형조(화공 45), 김병준(금속 51), 최순달(전자 50), 김병삼(금속 52), 홍용식(기계 51), 한효동(건축 58) 동문 등 10명이 참여했다.

미국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 세계 최강국이 되었듯 공대 동창회도 당시 원로 선배들 덕분에 남가주에서 가장 번창하고 결속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공대 동창회는 남가주에서 서울대



LA 한인타운 최초의 한식당 고려정(2731 W. Jefferson Blvd.)과 주인 프란시스 류. 1965년에 오픈한 식당으로 공대 동창회가 창립된 곳이다.



지난 2023년 12월 8일 작가의 집에서 열린 송년회 겸 정기 총회에서 신임 배재현(왼쪽) 회장이 남종우 전임 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는 물론 한인 대학들 중 가장 먼저 창립된 동창회다. 창립 발기위원장에는 김병삼 동문이 추대됐다. 김 위원장은 발기문에서 "청운의 포부와 웅대한 희망을 안고 언어와 관습이 낯설고 판이한 도덕관이 행사되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정력적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창 여러분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동창회의 발족 취지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앞으로 태평양 건너 이 땅을 처음 밟을 후배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울대 공대 동창회가 창립되자 이후 고등학교 및 대학 동창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동창회간 교류도 활발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야구경기, 대학 동창회에서는 배구경기가 유행



2024년 12월 13일 송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공대 동창회는 결속과 화합이 잘 되어 배구대회 우승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당시 공대 대표선수로는 장준철, 이재겸, 한효동, 손학식 등이 주전으로 뛰었다. 배구대회 우승한 날에는 홍용식, 김병삼, 김영기 등 그해의 회장 맥에 모여 자축파티를 열곤 했다.

90년대 들어서는 축구와 골프, 테니스 등 경기 종목이 다양해졌다.

1973년 2월 19일도 공대 동창회에서는 기억해야 할 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USC 대학에서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남가주 지부가 결성됐다. 모두 32명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노준희 동문을 지부장으로



옛 공대 캠퍼스 정문.

로, 홍용식 부지부장, 김종철 감사, 이영창 총무간사, 문상휘 재무간사, 그리고 최순달, 김재균, 김종국 등을 섭외간사로 선출했다.

초창기 KSEA 남가주 지부는 서울대 공대 동창회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동문들이 주축이 돼 운영됐다.

지부장 등 임원진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 중의 하나가 모국의 과학기술관련 귀빈들의 공항 영접과 환송이었다.

태평양 횡단 항공편들이 거의 LA 국제공항(LAX)을 서부의 관문으로 삼고 있는데다가 대한항공이 1972년 8월 미주운항을 시작하며 보잉 747 점보기의 기착지로 LAX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병삼 창립발기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발기문. 만사를 미루고 상호 독려하여 참석해 달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이처럼 귀빈들의 영접과 환송업무 과로(?)에 태평양 쪽에 주소를 둔 탓이라고 자위하는 중에도 이들 VIP들의 잦은 왕래 덕분에 고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어 귀국에 대한 결단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4년부터 시작된 영구귀국 물결에 많은 공대 동문들이 참여, 고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최순달(한국인공위성개발의 선두자, 체신부 장관), 홍용식(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임석중(51, 자원개발연구소 소장), 조장희(55, 뇌과학 연구소 소장), 전경철(55,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남정현(57, 대우엔지니어링 회장), 송영두(59, 우주과학자협회 회장), 한홍택(기계 60, KIST 원장, 호암상 수상), 위종민(자원 64,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위원회 선임기술고문), 김광희(65,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김정빈(전기 66, 호암상 수상), 백우현(67, LG전자 사장), 이범천(69, 큐닉스 회장), 김장진(77, 호암상 수상) 동문 등이다.

2005년 8월엔 남가주 공대 동창회 웹사이트를 오픈, 동창회 활동, 주소록, 사진 등을 수록했다. 2023년에는 서울대 전체 웹사이트에 통합됐다.

공대 동창회(당시 회장 한효동) 창립 50



2024년 10월 5일 부에나파크의 랠프 클락 공원에서 열린 피크닉.

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018년 12월 14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0여 명의 동문과 가족, 그리고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동창회 창립멤버 10명 중 현재 생존자는 한효동 동문 뿐이다. 이외에도 초창기 활동한 최순달, 홍용식,

장준철, 김영기 동문 등 50년대 초 학번 선배들은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가주 거주 공대 동문은 2024년 현재 500여 명으로 37번째 회장단이 이끌고 있다.

글: 배재현(전기 75) 회장

재미한인과기협 남가주 지부 발족에 주춧돌 70년대초 '귀국 러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



2024년 2월 3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에서 김경무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는 공대 동문들. 왼쪽부터 김병완 합창단장, 한효동 전 공대회장, 김동근 신악대 대장.

남가주 공대 동창회 50년사. 1968년부터 2021년까지 반세기의 역사를 담았다.



김용오 신임 공대 학장이 지난 2024년 8월 LA를 방문해 동문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김학장은 공대의 현재와 도전 과제, 미래 비전을 동문들과 공유했다.



2024년 2월 남미 잉카 트레일 정복에 나선 서치원 동문. 해발 5,036m의 레인보우 마운틴에서 포즈를 취했다.



한홍택(기계 60)·백훈(미대 61) 부부와 포즈를 취한 서치원(전자 69) 동문.

공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초대: (고) 정형조(화공 45)
- ▲ 14대: 남흥범(건축 59)
- ▲ 27대: 서치원(전자 69)
- ▲ 2대: (고) 김병준(금속 51)
- ▲ 15대: 이해영(전기 56)
- ▲ 28대: 홍광식(조항 62)
- ▲ 3대: (고) 최순달(전자 50)
- ▲ 16대: (고) 장동호(건축 53)
- ▲ 29대: 김경무(응수 69)
- ▲ 4대: (고) 홍용식(기계 51)
- ▲ 17대: (고) 김기종(토목 60)
- ▲ 30대: 양 민(공화 77)
- ▲ 5대: (고) 김병삼(금속 52)
- ▲ 18대: (고) 고재천(자원 57)
- ▲ 31대: 김영도(기계 67)
- ▲ 6대: (고) 박경식(기계 53)
- ▲ 19대: (고) 박병기(전기 54)
- ▲ 32대: 권국원(기계 69)
- ▲ 7대: (고) 김병준(금속 51)
- ▲ 20대: (고) 홍정일(건축 59)
- ▲ 33대: 한효동(건축 58)
- ▲ 8대: (고) 조종응(화공 45)
- ▲ 21대: 김동근(전기 60)
- ▲ 34대: 조정시(금속 60)
- ▲ 9대: (고) 김영기(화공 52)
- ▲ 22대: 노명호(토목 61)
- ▲ 35대: 위종민(자원 64)
- ▲ 10대: (고) 안병의(건축 48)
- ▲ 23대: 정 황(전기 64)
- ▲ 36대: 남종우(전기 62)
- ▲ 11대: (고) 이중희(섬유 53)
- ▲ 24대: 이종도(토목 66)
- ▲ 37대: 배재현(전기 75)
- ▲ 12대: (고) 은윤석(조항 50)
- ▲ 25대: 한홍택(기계 60)
- ▲ 38대: 백사훈(전기 72)
- ▲ 13대: (고) 장준철(기계 56)
- ▲ 26대: 김병연(응수 68)

김동명(토목 44) 동문은 누구? '탕자' 끌어안듯 영혼을 사랑한 목사



지난 2013년 3월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동명 동문은 1957년 LA 한인침례교회를 개척하는 등 침례교단 성장 발전에 크게 헌신해 온 목회자다.

고인은 평생을 하나님 은혜에 빛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남미와 한국 그리고 미국 전역에 25개 교회를 개척하는 등 기독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김 동문은 '탕자'를 끌어안는 자세로 그리스도인을 착한 양, 착한 목자의 길로 안내하는 사역에 일생을 바쳤다.

평북 철산에서 목사의 3남으로 출생한 김 동문은 공대를 졸업한 후 1948년 유학으로 미국에 왔다. 항일 신앙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이숙 사모와 결혼한 그는 미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텍사스 남침례교단 신학교를 졸업 후에는 1957년 미국 남침례회 한인부를 위한 최초의 국내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인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이때 교회와 집이 '동명식당'으로 불리며 안이숙 사모와 함께 외로운 유학생들을 섬겨 '유학생들의 영육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김 목사는 미 남침례회 국내선교부와 협력하여 미국내에 25개의 한인침례교회를 개척했다. 1979-1982년에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와 막가 인디언교회를 설

립하여 섬기기도 했다.

미국 남침례교단은 김 목사를 한인 침례교회의 대표적 목회자로 인정하여 1964-65년에 남침례회 캘리포니아 주총회 부회장, 1981-82년에는 미국 남침례회 전국 총회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1982년에는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LA 시의회는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LA 한인침례교회에서 33년간의 목회에서 은퇴한 김 동문은 1989년 팔로알토 버클랜드 침례교회(현 새누리교회)의 청빙을 받아 동 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또 김 목사는 한국의 대덕 과학기술단지에도

대전 새누리침례교회를 개척, 섬겼다. 자신이 좋아하는 4가지 성경 말씀은 '용서받은 탕자', '나는 빛진 자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로 이것이 신앙고백이며 목회철학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동명 동문은 "용서받은 탕자가 되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세상은 에덴동산이 될 수 있다"면서 '용서받은 탕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임을 특히 강조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책자 제목도 '용서받은 탕자'(2000년 요단출판사 간행)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을 착한 양, 착한 목자의 길로 안내하는 40여년 목회 사역 내용을 담고있다.

1989년 LA 시의회는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동명식당'은 동문들에 '영혼의 오아시스' LA 시의회 그의 헌신 기려 특별 공로상

서울대 공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한효동, 건축과 58)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2018년 12월 14일 로스엔젤레스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50여 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 그리고 내빈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공대 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모교 발전에 공헌하자는 데에 의기투합한 동문들에 의해 지난 1968년 11월 2일 미국 한인 대학 동창회로서는 최초로 창립되었다. 교민 사회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는 고 김동명(토목과 44) 목사와 귀국 후 체신부 장관을 역임한 고 최순달(전자과 50) 동문 등 10명의 창립 멤버 중 이제 한효동 동문 한 분만 생존해 있다.

남가주 거주 공대 동문은 현재 약 500여 명으로 33번째의 회장단이 이끌고 있으며 남가주에서 가장 활발하고 결속된 동문회로 알려져 있다.

1부 기념식, 2부 특별 강연, 3부 축하 연주회 및 여

1968~2018 공대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성황' 10명에서 현재 500여 회원, 결속력 강해



창립 5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는 장면. 오른쪽부터 한효동 회장, (고) 김영기 회장 미망인 김남숙 여사, 조정시 부회장.

흥 등 전체 3부로 구성된 이번 기념 모임은 위종민(자원과 64) 총무의 사회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효동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서치원(공교과 69) 동문의 리드로 공대학가 제

창이 있었고, 이어 타계한 동문들에 대한 추모목념, 회장인사, 참석자 소개 및 축사로 이어졌다.

서울공대 이부섭 총동창회장의 축사는 위종민 총무가, 서울공대 차국현 학장의 축사는 조정시(금속과 60) 부회장이, 그리고 강신용(사대 73)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의 축사는 한귀희(미대 68) 차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는 1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했다.



기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대독했다. 또한 최용원(건축과 57) 동문의 '서울 공대 동창회 50년사 축시'와 김병연(응수과 68) 동문의 부인인 김문희 시인의 '만선의 깃발을 올려라' 등 축시 낭독이 있었다.

이부섭 회장과 차국헌 학장은 축사를 통하여 뜻깊은 50주년을 맞는 남가주 서울공대 동문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에 경의를 표하고, 산업 불모지의 조국을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한 원동력으로 일조를 담당한 자랑스러운 공대동문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출중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효동 회장.

아이디어 창출과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리더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서울공대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이제 성공하는 반백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한국인의 성공한 역사가 희망찬 미래를 위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기대해 본다는 요지의 격려를 했다.

이어서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온 고 김영기(화공과 52) 전 회장의 부인인 김남숙 여사에게 감사패를, 동문들의 친목 도모에 애써온 김철한(자원과 57) 동문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1부행사는



행사장을 가득 메운 동문들. 사회자가 개막을 알리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효동 회장, 조정시 부회장, 김남숙 여사의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회 50주년 축하케이크 커팅과 이해영(전기과 56) 동문의 참석자 전원 파노라마 기념촬영으로 마쳤다.

스테이크와 연어 요리를 중심으로한 오찬을 함께 나누는 후 2부 행사인 특별강연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강연은 로봇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현재 UCLA 교수인 데니스 홍 박사의 흥미진진한 로봇이야기였다. 1972년 4대 회장을 역임한 홍용식(기계과 51) 동문의 자제인 홍 박사는 로봇 기술에 있어서 인문



이날 사회 겸 특강을 맡은 위종민 박사.

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봇이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지능적인 기계, 결국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따뜻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그의 연구소 '로멜라'에서는 화재 진압용 로봇, 재난 구조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듭되는 도전과 실패의 연속 과정에서도 한 걸음씩 인간을 위한 로봇의 꿈에 다가가고 있다. 차가운 기계로만 보이는 로봇의 기술, 하지만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로봇을 발명하여 워싱턴 포스트지로부터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우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위종민 박사의 강연은 물에 관한 것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물의 공급, 처리, 수질, 가정의 정수기, 그리고 5각수, 6각수, 산성수, 알카리수, 이온수, 탄

'창립멤버' 한효동 회장 "우리 조국 발전의 초석" 데니스 홍 '인문학 입힌 로봇'·위종민 '물' 특강도

산수, 수소수, 담수 등 각종 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홍선례(음대 70) 동문의 진행으



데니스 홍 교수의 로봇학 강연.

로 서울대 음대 동문들의 축하 연주회가 열렸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예란(음대 13)의 사라사테의 '집시의 노래', 첼리스트 최유나(음대 11)의 차이콥스키의 '야상곡'과 포퍼의 '요정들의 춤', 그리고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음대 02)의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가 연주되었다. 이어서 세 동문이 트리오로 연주한 영화 '여인의 향기'(Scent of a Woman)로 잘 알려진 피아졸라의 '탱고'로 흥겨운 분위기를 절정에 달했다.

글: 위종민(자원 64)



음대 동문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농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

수원 기숙사 생활로 선후배 사이 '돈독' 그리피스 파크에서 창립... 김주희 초대회장

농생대는 동문들간의 유대관계가 가장 끈끈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관악캠퍼스로 통합되기 전 수원에 위치해 있어 재학생들은 기숙사나 하숙을 해야했기에 선후배 및 동기간의 우의가 남달리 돈독하다. 졸업후에도 수원에서의 추억을 공유한 덕분에 쉽게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 깊은 정이 오가는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가주에 농생대 동창회가 조직된 것은 1978년이다. 그해 6월 11일 LA의 그리피스 파크에서 20여 명의 동문들이 모여 김주희(농화학 54)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리피스 파크 모임은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LA를 방문한 김두경(농학 58, 작고) 동문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 모임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58학번 동문들이 동창회 발족을 공식 제의, 공감대가 이뤄져 동창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주요 연례행사는 신년 총회. 매년 1월 중 개최한다. 새 회장단을 선출하고 전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여흥 순서로 진행한다. 참석인원은 평균 50명 가량이다.

매년 10월 중 열리는 가을 야유회는 동문 및 동문가족이 모여 각종 게임을 즐긴다. 장소는 주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파크의 램프 클라크 리저널 파크. 바베큐를 비롯해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즐기는 한편 배드민턴과 제기차기, 발 야구, 라인댄스 등을 곁들여 주말 하루를 흥겹게 보낸다.

골프 토너먼트도 농생대 동창회의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중 하나다. 연간 3~4회 모여 기량을 겨루며 친목과 우의를 다진다. 골프모임은 최창희(축산 63)동문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8~2010년에 활성화돼 거의 20여명이 라운딩을 한다.

농생대 골프모임이 배출한 '유명인사'는 고민석(식품공학 88) 동문이 꼽힌다.

지난 1998년 중앙일보사 주최 동창회 골프 토너먼트에서 서울대가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고



지난 2015년 1월 17일 용궁에서 열린 신년모임.

단체 카톡방에는 52~96학번 동문 133명이 등록 '샌드 페블즈'는 농생대의 전설, LA에서도 공연

동문은 지난 2022년 4월 로스 세라노스 골프코스에서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주관 토너먼트에서도 메달리스트로 등극, 서울대 대표 골퍼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베이거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등을 방문,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농생대 신년총회에 참석해 '나 어떡해' 등 샌드 페블즈의 히트곡들을 불러 기립박수를 받는 등 총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1971년 창단한 샌드 페블즈는 2학년 한해만 활동하고 다음해에는 후배에게 인계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제 53기가 활동 중이다.

동문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행사는 옥스나드 및 워너스프링스 랜치의 2박3일 여행.

지종근(농화학 55) 회장이 야심차게 기획한 행사로 바다낚시를 비롯, 리버리지 컨트리클럽에서의 골프 라운딩, 허스트 캐슬 관광을 즐기고 밤에는 신선한 해물요리를 곁들인 여흥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김정호(농경제 59) 회장과 이승우(농공학 67) 회장 재임중에도 샌디에이고 인근 워너스프링스 랜치에 1박2일 일정으로 피크닉 모임을 여러차례 가졌다.

낮에는 유허운천, 골프, 테니스, 탁구 게임을 즐기고 밤에는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 앉아 기타 반주에 맞춰 추억의 6070노래, 싱얼롱 등을

즐겼다.

이밖에도 야생화 구경, 줄리엔의 애플파이 맛집, 철도 박물관 등을 찾아 동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부에나파크의 램프 클라크 공원에서 열린 농생대 피크닉(2014년 10월 18일). 아래 사진은 흥겹게 라인댄스를 하고 있는 동문들.



보컬그룹 '샌드 페블즈(Sand Pebbles)'는 자타가 인정하는 농생대의 전설. 지난 2015년 1월 샌드 페블즈 제 42기 재학생 6명이 선배들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LA의 주요 명소를 비롯해 라스



2011년 7월 30일 Rest Area에서 Hollywood Bowl의 Concert 전에 다과를 즐기고 있는 동문들.



2022년 4월 30일 Los Serranos Golf Course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농생대 고민석 동문(88, 식공)이 괄목할만한 Score로 서울대 전체 Medalist를 수상하였다.



골프로 친목을 다지는 동문들. 지난 2003년 10월 10일 옥스나드의 리버리지 골프코스에서 티오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했다.

농생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초대: 김주희(농화학 54)
- ▲ 2대: 김석두(농학 58)
- ▲ 3대: 박상길(농학 58)
- ▲ 4대: 한상주(농학 58)
- ▲ 5대: 이 청(농학 61)
- ▲ 6대: 강세진(농경제 61)
- ▲ 7대: 이충남(축산 61)
- ▲ 8대: 방석훈(축산 55)
- ▲ 9대: 김재영(축산 62)
- ▲ 10대: 한영교(농화학 58)
- ▲ 11대: 김정호(농경제 59)
- ▲ 12대: 이승우(농공학 67)
- ▲ 13대: 박인창(농생물 65)
- ▲ 14대: 지중근(농화학 56)
- ▲ 15대: 정병혁(농공학 70)
- ▲ 16대: 최충희(축산 63)
- ▲ 17대: 정병혁(농공학 70)
- ▲ 18대: 이학진(농생물 71)
- ▲ 19대: 정병혁(농공학 70)
- ▲ 20대: 유이종(농화학 74)
- ▲ 21대: 이학진(농생물 71)
- ▲ 22대: 정병혁(농공학 70)

동창회 최고령 선배는 강항운(축산 52) 동문.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관한 2024년 9월 피크닉에서 즉흥 춤경연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다. 시상 후에는 본인의 춤사위까지 보여주는 등 노익장을 한껏 뽐냈다.

강 동문은 평소에도 농생대 단체 카톡방에 각종 정보를 올리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다. 카톡방에는 52학번부터 96학번에 이르기까지 모두 133명이 등록돼 있다.

글: 정병혁(70) 회장



2011년 11월 15일 만리장성에서 열린 신년회.



남가주 총동창회 신년회에 참석한 동문들. 2024년 2월 3일 노역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2022년 10월 15일 Westridge Golf Course에서.



농생대의 전설 '샌드 페블즈'의 공연. 2015년 2월 17일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나 어떡해' 등 애창곡을 불렀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Westridge Golf Course에서 열린 골프 모임.

문리과 대학 (사회과학·인문대·자연대)

초대 회장 김기주, 부회장 유의영·김종국 문과와 이과 출신 한해 번갈아 회장 맡아

리버럴 아츠와 '문·인·사·자'

전통적으로 서구의 대학 교육의 중심에는 '리버럴 아츠'가 있었다. 한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에서 고등 교육의 근간인 리버럴 아츠의 상징적 전통은 바로 '문리대'가 이어왔다.

서울대 개교 이래 동승동 메인 캠퍼스 시절, 그곳은 바로 문리대의 터전이었다. 당시 문리대의 역사와 추억은 지금도 '학림다방'과 '세느강', '미라보 다리'와 같은 전설적 이름과 함께 흐르고 있다.

모교가 종합화 조치에 따라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문리대는 인문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로 세분화되어 3개의 별도 College로 나누어졌고, '문리대'라는 명칭은 더 이상 서울대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단과대학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文'과 '理', 세상의 두 갈래 근본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문리대'의 역사와 정신은 남가주에서 '문리대 동창회'의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월 13일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식에 모인 동문들이 활짝 웃으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체 동문 웹사이트 'Mulidae.com' 운영 인문·사회대·자연대 3개 칼리지로 세분화



문리대 옛 교정의 모습.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는 동승동 문리대의 '문'에서부터 인문대의 '인', 사회대의 '사', 자연대의 '자'에 이르기까지 '문·인·사·자'의 정신으로 대동단결해 더욱 승화된 형태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의 출발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의 시초는 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원로 선배님들의 증언과 설명에 따르면, 문리대 동창회 창설을 주도하신 분은 고 노준희(생물 47) 박사였다.

여기에 고 김기주(사회 46), 배효식(영문 52), 권영달(사회 52) 선배 등 원로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초창기 모임에 참여했던 김종국(화학 56) 동문의 회고다.

"1970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동문들 몇 명이 1971년 12월말쯤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을 때 마침 김용식(화학 55) 선배님께서 옛 영사관 근처에 중식당 'Panda'를 개업했고, 이곳에서 김기주(사회 46), 노준희(생물 47), 이영창

(생물 53), 유의영(사회 56), 유동용(정의 56), 김종국(화학 56),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대학원생 2명 등이 개업 축하 겸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 중 노준희 박사님이 '우리 이왕 모인 김에 문리대 동창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회장에 김기주 선배님, 부회장에 유의영(문학부)과 김종국(이학부)을 추천해서 문리대 동창회가 창립됐죠.

그 후로 문리대 동창들을 더 찾아내고 주소록도 만들면서 몇 번의 작은 모임들을 가졌고, 이어 1972년 송년회 때 노준희 박사님을 회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부회장들은 그대로 유임됐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이룬 발전

초창기의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는 1년에 한 번씩



1960년대 당시 서울대학교 동승동 문리대 캠퍼스 정문 모습.

회장을 맡은 동문의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회식을 하는 형식이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종국 동문과 문경호(수학 59) 동문에 이어 1975년 배효식(영문 52) 동문이 회장으로 선임됐

고, LA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죽봉(사학 53) 동문 등이 회장직을 이어 맡았다.

1977년께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블러바드와 엘텐 에비뉴 근처에 있던 중식당 '아서원'에서 노준희 박사(정치 53) 동문 등을 비롯해 15명 정도가 모여 민원식(정치 55)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 당시부터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는 문과 출신과



2024년 1월 13일 열린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식에 문리대 출신의 유홍림(정치 80) 모교 총장과 김종섭(사회복지 66)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참석, 전현직 문리대 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환(영문 75), 김건진(영문 62) 전 회장, 유홍림 총장, 김종섭 총동창회장, 김중하(영문 85) 문리대회장, 박정모(사회 66) 전 회장.

나승욱(외교 59) 동문이 회장직을 이어갔다.

그리고 박찬중(정치 61), 박대영(언어 62), 박정모(사회 66), 박재환(사회 63), 고 박양중(외교 61), 이채진(정치 55), 이수녕(물리 56), 김순길(외교 61), 김홍묵(물리 60), 김상찬(지질 65), 김건진(영문 62), 김용찬(생물 64), 김귀섭(물리 61), 문병길(수학 61), 박정모(사회 66), 김충현(물리 72), 조용원(수학 66), 그리고 한태호(국문 75) 동문 등 역대 회장들을 중심으로 뭉쳐 열정과 헌신으로 문리대 남가주 동문회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박재환(영문 75), 이종호(동양사 81), 이경희(독문 83) 회장에 이어 현재 김중하(영문 85) 동문이 2023년부터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활발한 소통과 단합

현재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명부에는 150여 명의 동문들이 등재되어 있고, 이 중 80여 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는 자체 웹사이트인 '문리대 닷컴(Mulidae.com)'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1970년 당시 문리대 옛 교정.

이과 출신들이 해를 번갈아 회장직을 맡는 전통이 있었으며, 80년대 고 김익삼(중문 57), 이명상(중문 59), 문경호(수학 59), 유동웅 회장에 이어 1990년 김중국(화학 56) 동문이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고



문리대 골프모임인 '이목회'(매달 두번째 목요일)의 19번째는 종종 선배 동문들의 집들이겸 해서 열린다. 2023년 7월 18일 이영일(정치 53) 동문의 풀러튼 자택에서 열린 풀파티.

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Mulidae.com은 1999년 남가주로 이사온 뒤 문리대 동창회에 합류한 문병길(수학 61) 전 회장이 개설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문리대 닷컴은 도중에 해킹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문병길 동문의 헌신적 봉사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는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신년 하례식이다.

**세상이치에 능통한 동문들의 '입담' 압권
신년하례식은 가장 큰 행사, 총장도 참석**

신임 회장 선출을 겸한 신년 하례식 행사는 문리대 동창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한 해 계획을 논의하고 서로의 건승을 기원하며 희망에 찬 새해 첫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2024년 1월 13일 부에나파크 에픽라이브 이벤트홀에서 열렸던 남가주 문리대 2024년 신년하례회는 특별한 행사였다.

문리대에 속한 사회과학대 출신의 유홍림(정치 80)

서울대 총장과 역시 문리대 출신의 김종섭(사회복지 66)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단과대 신년행사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기 때문이다.

문리대 동창회는 또 춘계 야유회를 통해 단합을 다지면서, 남가주 총동창회의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과 가을 야유회, 골프대회, 그리고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총동창회 행사마다 문리대는 높은 참석률을 자랑하고 있다.

문리대 모임의 특징은 항상 즐거움과 유익함을 함께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 신년하례회 때에는 작은 음악회와 세

미나 등을 준비해 뭐 한 가지라도 공부하고 교양을 나누며 문화의 향기를 공유하려 노력한다. 또 행사 때마다 세상의 근본 이치에 능통한 문리대인들답게 각자가 풀어내는 스토리와 '입담'은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모임만의 즐거움이다.

글: 김중하
(영문 85, 문리대 회장)



미술대학

‘한화랑’ ‘갤러리 스킵’ 초창기 구심점 1회 동문전 ‘Vision in 2000’ 도산홀에서

초창기 미대 동창회는 친목모임의 성격이 짙어 특별히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었고, 예술가 특유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초창기 주역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한국으로 돌아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관련한 증인은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창기에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순수한 모임이었다. 안영일(회화 54), 김옥경(회화 56), 김봉태(회화 56), 임동규(응미 57), 임종식(회화 57), 성수환(조소 59)

등 주로 50년대 학번 선배들이 중심이 됐다. 초창기의 동문 모임은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의 역사와 많은 부분 겹치기도 한다.

70년대 들어서 한인들의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되고, LA에도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면서 동문들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대 1회 졸업생인 한우식 동문이 1973년 이민 와, 올림픽 가에 문을 연 ‘한화랑’을 중심으로 동문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다. 화랑은 한인타운의 중심인 올림픽가에 자리잡고 있어서 동문들이 오다가다 들르는 사랑방 구



2024년 미대 신년 모임. 초창기에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 동창회가 결성됐다.

작품 옥션으로 기금 모아 모교에 발전기금 기부 탁상달력 제작, 동문들의 애장품으로 자리매김

실을 했다.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계도 80년대에 자리가 잡히고 활성화되면서, 미대 동문들의 활동과 모임도 활발해졌다. 이 무렵 중심 역할을 한 것은 김봉태 동문이 운영하던 ‘갤러리 스킵’였다. 동문들의 전시회도 활발하게 열렸다.

하지만 미대 동창회가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동문들의 전시회가 있을 때나, 모교 교수들이 방문했을 때, 매해 연초 신년하례 때 등에 자연스럽게

던 동문으로는 한우식(작고), 안영일, 김옥경, 김봉태(귀국), 황하진(58, 작고), 황영애(회화 58), 권길중(금속공예 56, 작고), 곽훈(회화 59, 귀국), 신보남(조소 59), 이규중(조소 59, 작고), 배영선(회화), 선우옥녀(회화 57), 현혜명(회화 61), 박경섭(응미 57, 작고), 장정용(조소 64), 이경원(조소 65), 장소현(응미 65), 박영국(회화 66) 동문 등이 있었으며 90년대로 활동이 이어진다.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환교수로 LA에 온 동문들도 모임에 참여하곤 했다. 장운우(공예), 김경인(회화 60), 한운성(회화) 동문 등이다.

단순한 친목모임에 머물던 미대 동문회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동문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였다.

1998년 박다애(회화 73) 동문에 이어 동창회장이 된 김구자(응미 61) 동문을 중심으로 1999년 3월부터 미대 동문전에 관한 구체적 토의를 몇차례 가진 후 전시장소를 라디오 코리아 방송국의 도산홀로 결정했고 2000년 2월 11~20일 28명의 동문의 작품으로 역사적인 제1회 미대 동문전(Vision in 2000)을 개최하였다.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던 시대에 힘을 모아 동문전같은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동문들의 결속력이 한층 단단해지는 시기였다. 당시 임원진은 부회장 원영배(조소 74), 총무 김경옥(회화 61) 등이었다.

2000년 4월 새 회장으로 성수환(조소 59), 부회장으로 김경옥(회화 61), 김윤진(회화 67)이 선출됐다. 회장자격에 나이 제한 없애고 연회비 50달러를 정하는 등 동문회 정관을 만들었다. 2001년 4월



지난 2023년 5월 S-갤러리에서 열린 동문 전시회 포스터. 현혜명, 김구자, 오성주 등 61학년부터 02학번까지 모두 19명이 참가했다.

모이는 친목 모임의 성격을 유지했다. 80년대 들어 남가주 총동창회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인사회의 중요한 단체로 자리를 잡았지만, 미대 동창회는 여전히 친목모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자연스러운 친목모임이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회장도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나이 많은 선배가 맡아서 수고하는 식이었다. 이 무렵 회장직을 맡았거나 모임에 자주 참석했

도산홀에서 32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2회 동문전을 개최하였다.

한인 미국 이민 100주년 되는 해에 회장이 된 김옥경 동문을 중심으로 3회 동문전이 100주년 특별 기획전으로 기획되어 2002년 5월 도산홀에서 열렸다.

21명의 동문들이 참가했으며 특별히 7명의 서울동문들의 작품이 찬조출품되어 더욱 다양한 미술세계를 만나보는 계기가 되었다. 총무 김명숙(응미 57), 재무 김옥녀(회화 57) 동문이 임원이었다.

2002년 7월 회장 육선희(응미 76) 동문은 전시회를 통한 기금모금과 타주 동문들의 동문전 참여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2003년 4월 도산홀에서 4회 동문전을 23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으로 한국적인 기법에 미국적



S-갤러리에서 열린 옥선에 참가한 동문들. 옥선에서 판매된 작품은 탁상달력으로 제작돼 동문들의 애장품이 되고 있다.

인 정서가 포함된 독특한 형태의 그림과 조각의 전시회였다.

2003년 7월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옥 동문은 회원들의 결속과 창작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본인 집에서 수년동안 여러차례 모임, 행사를 가지곤 했다.

미대 웹사이트 만드는 토의도 진행되었으며 5회 동문전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2월 Korean American Museum에서 개최하였다. 임원으로는 총무 백혜란(회화 70), 회계 현혜명(회화 61)이 수고했다.

뒤이어 2005년 4월 회장이 된 정동현(회화 67)동문

은 모임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며 전시회 경비 마련을 위해 김경옥(회화 61) 동문댁 앞에서 야드세일을 열었고 임원들의 성금, 그리고 처음으로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500 달러 후원을 받았다.

2006년 10월에 열린 제 6회 동문전은 주제가 있는 최초의 전시회였다.

개별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던 동문들이 동일주제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글’이란 주제로 25명이 30여 점을 출품, 한글의 아름다운 재탄생을 연출하였다. 총무 백혜란, 회계 신정연 동문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한 신정연 동문은 2008년 4월 Lee & Lee 갤러리에서 26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7회 동문전을 열었고 이듬해 10월에는 제 8회 동문전을 25명의 작품을 가지고 개최하였다.

7회때 부터 동문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동문들의 작품이 남가주

화단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8회에는 특별히 한국화의 대가인 이열모 선생이 작품을 내놓아 전시회를 돋보이게 하는 등 더욱 풍성한 동문전이 되었으며 서울대 동문작가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전시회가 되었다. 총무 한석란(회화 71), 회계 신희정(회화 73) 동문이 임원으로 활약했다.

2010년 회장직을 맡은 한석란 동문은 2011년 6월 Assiart Gallery 에서 25명이 참가한 제 9회 동문전을 개최했다. 현대적 감각을 살린 수준급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호평을 받은 전시회였다. 2012년 김윤진(회화 67) 회장은 Lee & Lee 갤러리에서 10회 동문전을 열었고 25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였다. 동문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부회장 서니 김(회화 62), 회계 백혜란(회

화 70) 동문이 임원이었다.

홍선애(회화 62) 동문이 회장직을 수행한 2013년에는 10월에 Lee & Lee 갤러리에서 11회 동문전을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성황리에 전시가 진행되었다.

임원진은 총무 김윤진(회화 67), 회계 한귀희(회화 68) 동문이었다.

신혜자(응미 61) 동문이 회장이 된 2014년에는 12회 동문전을 Lee & Lee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었으며 장소현(조소 65) 동문은 “그림은 사랑이다” 및 시집을 도네이션했다.

총무 김경애(회화 83), 회계 한귀희 동문이 임원으로 수고하였다.



지난 2019년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 겸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동문들.

2015년에는 박영국(회화 66) 동문이 회장직을 맡아 제 13회 동문전을 Lee & Lee 갤러리에서 열었다. 남가주 총동창회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오픈리셉션에 참여하는 등 동문전이

풍성하게 열렸다.

장정용(65·부회장), 김경애(83·총무), 한귀희(68·회계) 동문들이 임원진을 구성했다.

미대 동창회는 2010년대 중반에 들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2015년 회칙이 새로 개정되어 회장의 임기가 2년 연임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신입 회장을 구심점으로 동문들이 응집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칙 개정과 함께 박영국(서양화 66) 동문이 2015년과 2016년에 미대 회장직을 맡았고, 당시 미대 동문들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활동해왔던 한계를 넘어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미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했다.

당시 미대 동창회 임원으로는 총무 김경애(회화 83)

미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초대: 박다애(회화 73)
- ▲ 7대: 서동현(회화 67)
- ▲ 13대: 박영국(회화 66)
- ▲ 2대: 김구자(응미 61)
- ▲ 8대: 신정연(회화 61)
- ▲ 14대: 한귀희(회화 68)
- ▲ 3대: 성수환(조소 59)
- ▲ 9대: 한석란(회화 71)
- ▲ 15대: 백혜란(회화 70)
- ▲ 4대: 김경옥(회화 61)
- ▲ 10대: 김윤진(회화 67)
- ▲ 16대: 한석란(회화 71)
- ▲ 5대: 육선희(응미 76)
- ▲ 11대: 홍선애(회화 62)
- ▲ 17대: 장원경(조소 73)
- ▲ 6대: 김경옥(회화 61)
- ▲ 12대: 신혜자(응미 61)
- ▲ 18대: 이원식(응미 79)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독 고 량

(공대 대학원 82)

서 정 화

(음대 80)



이 대

동문, 회계 한귀희(회화 68) 동문이 활동하면서 미대 동문 명단을 확인 재정비했으며 그동안 이어져오던 동문전을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2016년은 미대 동문전에서 옥션 행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그해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병연)의 주관으로 서울미대 남가주 동문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옥션을 통해 판매해 그 수익금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남가주 동창회를 위해 많은 동문 작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도네이션 했고, 서로 다른 전공으로 모인 서울대 동문들이 작품 구입을 통해 모교와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뜻깊은 일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후 미대 동문전 옥션 행사는 2017년과 2018년 미대 회장을 맡은 한귀희 동문이 주도하면서 그 위상이 남가주 총동창회 뿐 아니라 모교 서울대에서도 크게 올라갔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맡은 김병연, 성주경, 강신용, 한귀희, 민일기, 최용준, 박제환 역대 회장들과 총동창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옥션 행사가 매년 성공적으로 치러져 총동창회와 모교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미대 동창회의 입지가 더욱 단단하게 다져진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미대 회장을 맡은 백혜란 동문은 미대 동문전을 개최하고 동창회가 주관하는 옥션에 참여함으로써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귀희 동문과 힘을 합쳐 미대가 총동창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기여하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동문전이 열리지 못했다.

2021년과 2022년 미대 회장을 맡은 한석란(회화 71) 동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인터넷 전시에 남가주 미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였고, 서울대 미대 도록에 남가주 미대 동문들의 작품을 신도록 주선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에 있는 서울미대 동창회와 남가주 동창회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미대 동창회의 중요한 성과 중에서는 화집으로도 손색이 없는 작품 탁상달력을 제작한 것이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총동창회에서 주관하고 후원한 옥션 행사에서 출품, 판매된 동문 작가들의 작품으로 제작된 탁상



지난 2014년 제 12회 동문전에 출품한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달력은 매년 서울대 동문 500여명의 애장품으로 자리 잡았다.

남가주는 물론 미국 내 타주와 한국에서까지 주문이 이어져 미대 동문작가들의 작품과 이름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같은 옥션 행사는 2022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입학년도 순으로 회장직을 맡도록 정한 정관에 따라 2023년 장원경(조소 73) 동문이 미대 회장에 취임했고 그해 6월에 동문전을 개최하였다. 이어 2023년 8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원식(음미 79) 동문이 현재 미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글: 이원식(음미 79)

법과대학

‘다이얼 부동산’ 모임에서 김찬규 초대회장 짝수달 둘째 화요일에 정기 오찬 모임 가져

법대 동창회는 1975년 올림픽 불러바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탄생했다. 당시 이재권(56학번) 동문이 운영했던 ‘다이얼 부동산’이다.

“이 동문의 사무실이 사랑방 역할을 했어요. 오다가다 들러서 학창시절,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딱히 언제 모이자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윤경민(55학번) 동문의 회고다.

윤 동문에 따르면 김병제(51학번), 김찬규(54학번), 이상인(54학번), 윤경민, 이재권 동문 등이 ‘다이얼’ 모임의 고정 멤버였다.



지난 2024년 6월 11일 열린 월례모임은 구순을 맞은 김태윤, 신건호 두 동문들을 위한 축하잔치로 열렸다. 이날 후배들은 두 선배의 건강을 기원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일원에 살고 있는 법대 동문들은 고작 10여 명에 불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목모임에서 동창회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남가주 총동창회 발족이 계기가 됐다. 지난 1974년 말 무렵 총동창회가 만들어지면서 법대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1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김찬규 동문이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2대회장은 ‘다이얼’의 주인인 이재권 동문이 선임돼 동창회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후 이민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문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90년대 정기총회에는 100여 명이 모이는 등 서울대 동창회에서 ‘법대 전성기’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기준(54학번) 동문은 남가주 총동창회 7·8대 회장을 지내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에서 ‘좌장’ 역할을 맡고 있다. 김기주(문리대 47)·오재인(치대 31)·김영기(공대 51) 등 1~6대 전임회장들이 타계해 이 동문은 최고원로가 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법대 전성기’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에 따라 학부과정이 폐지된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 더 줄여서 ‘설법’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법대는 이후 후배들이 배출되지 않아 동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법대는 서울대학교의 명실상부한 간판 학부중 하나였다.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자랑했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 로스쿨 원장인 장승화(81학번) 동문을 초청해 미주 동문들과 상견례를 가졌

의대 동문 등 외부 강사 초청 ‘말씀’ 듣는 시간도 학부 폐지해 로스쿨 졸업생들도 동문으로 인정

다. 장 원장의 LA 방문은 최진석(64학번) 당시 동창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장 원장은 용수산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로스쿨 졸업생들도 동문으로 인정해 법대의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장 동문은 “미주의 많은 선배님들께서 대학을 다녔던 60~70년대에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중요한 화두였지만 지금은 복지과 공정, 분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말해 시대의 변화를 새삼 느끼게 했다.



법대 동창회 정례모임. 주로 50~60년대 학번 동문들이 모인다.

이같은 외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대 동창회는 선후배 동문들의 높은 참여정신으로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

동창회는 매 짝수달 둘째 화요일에 정기오찬 모임을 열고 있다. 오찬 모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주요 초청 강사는 다음과 같다.

- ▲김경세(의대 62) 신경외과 전문의(치매 예방, 혈관 질환)
- ▲최운화(상대 78) 은행장(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 ▲김지영(사대 69) 변호사(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자란 무엇인가)
- ▲방송인 위진록(청춘은 마음가 집에 있다)
- ▲박평식(여행의 즐거움)
- ▲로버트 안(마리화나 합법화)
- ▲김동석(음대 64) 동문(한국음악의 참 의미)
- ▲강혜신(방송 앵커의 역할).

매년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에는 음대 동문들을 초청, 소음악회를 열어 친목과 화합



지난 2020년 1월 28일 남가주 법대 동창회 초청으로 LA에서 강연회를 가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일행. 왼쪽부터 임용 학생부 원장, 장승화 원장, 최진석 동창회장, 조형범 정책기획단 법학발전재단 원장.(사진=미주 한국일보).

을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음악회에는 박예린, 김민지, 제갈소망, 신선미 동문 등 유명 연주자들이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한국어 '기와 검사'로 널리 알려진 유창중(64학번) 동문이 LA를 방문, 강연회를 가졌다.

유당 와당박물관 관장인 유 동문은 기와의 역사와 종류를 상세히 설명해 동문들은 물론 LA 문화계 인사들에 깊은 감명을 줬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 동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와 1천8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6월 노재성(58) 동문의 뉴포트비치 자택에서 열린 홈 콘서트. 김유은(바이올린), 신선미(소프라노), 아이작 프리도프(피아노), 이티니 가라(바이올린) 등의 젊은 연주자들이 출연,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등을 연주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연주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동문 자택에서의 하우스 콘서트도 주요 행사 중 하나였다. 지난 2019년 6월 8일 뉴포트비치의 노재성(58학번, 작곡) 동문 자택에서 열린 콘서트(Gypsy



정인환 동문이 로스쿨 장승화 원장에게 한시가 쓰여진 부채를 선물하고 있다.

Dance & Love Story)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소프라노 신선미 등 남가주에서 활약하는 연주자들이 출연해 동문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동문들이 가장 잊지 못하는 추억 중 하나는 기차여행이다. 2019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의 여행에는 모두 25명이 참가했다.

LA 유니언 역에서 출발, 중가주 샌루이스 오비스포까지 6시간 동안 서부 제일의 비경인 태평양 연안을 끼고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허스트캐슬을 비롯해 솔뱅 등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LA로 돌아왔다. 이태로(56) 동문의 초대로 북창동 순두부에서 뒷풀이를 했다.

법대학장과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천 박사가 지난 1998년 6월 26일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군부 독재에 항거한 유 총장은 1971년 미국에 망명, 샌디에고에 살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서울의 봄'이 찾아오자 귀국해 다시 법대 강단에 섰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확실해지자 다시 샌디에고로 돌아왔다. 1993년 사별한 부인 헬렌 여사와 경기도 고양군 가족묘지에 합장했다.

2024년 현재 법대 동창회장은 안재엽(84 학번) 동

문이 맡고 있다.

한편 채규황(69 학번) 동문은 이기준, 권혁창, 광철, 이서희 동문에 이어 법대 출신으로는 다섯번째로 남가주 총동창회장(2025~2026)에 선임됐다.

글: 최진석(64)
전 법대 회장



지난 1998년 샌디에고에서 향년 82세로 타계한 유기천 총장.



2024년 10월 8일 LA 용수산에서 열린 정기모임에서 신임회장으로 안재엽(84)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회원들은 20년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동창회의 발전을 다짐했다.

법대 동창회 정례모임.
썩수달 둘째
화요일에 만난다.



2019년 4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데스밸리와 라스베이거스를 공동 동창회와 합동 단체여행으로 다녀왔다. 27명이 참가한 여행에는 박민식 수의대 동창회장도 함께했다.

사범대학

1960년대 중반 무렵 유학으로 LA 이주 주영흠·주영세·문완철·김선호 등 물리과 동기

사범대 동문들의 LA 이주는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영흠(53학번)·주영세(59학번) 형제, 문완철(59학번), 해병대 중위로 월남전에 참전한 김보원(59학번), 그리고 물리과 과대표를 한 김선호(57학번) 등 동문들은 1965~1967년 사이 LA에 왔다.

대광고등학교 교사를 지낸 주영세 동문은 문교부 유학시험에 합격, 미국에 왔다. 당시 외환은행이 유학생에 환전을 해준 액수는 150달러.

그런데 교사출신이라며 50달러를 더 바꿔줘 200달

러를 손에 쥐 수 있었다. 1960년대만해도 교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이었던 것.

1960년대는 동문들이 극히 적었을 뿐더러 대부분 공부에 바빠 동창회를 조직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꿨다.

주영세 동문의 1960년대 LA 풍경은 사뭇 흥미를 자아낸다. “한인은커녕 동양인조차 보기 힘들었어요. 히스패닉도 마찬가지로요.”

베니스 불러바드가 흑인과 백인의 경계선이었던다는 게 그의 회고다.



지난 2022년 작가의 집에서 열린 신년하례식. 차중환 박사 등 원로들이 다수 참석했다.

동창회 결성은 1980년대... 김정섭·변홍진 주도 이정근·박부강, 이춘석·이정애 등 동문부부도

LA 북쪽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돼 있었고 LA시청 동쪽에는 일본타운인 ‘리틀도쿄’가 자리했다. 한국마켓이 없던 시절이어서 주말이면 장을 보러 일본타운에 갔다. 극장도 몇개 있어 휴일엔 일본영화를 많이 봤다.

주 동문은 버몬트와 후버 사이에 한인업소가 산재해 있었는데 이발소 한 곳과 작은 식당이 서너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규모가 큰 식당은 제퍼슨과 크렌셔 인근의 고려원. 대부분의 모임은 고려원에서 열렸다.

주 동문이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USC의 올림픽 메달이었다고 한다.

한국엔 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 일개 사립대학에서 금메달(육상부문)을 무려 66개나 따냈다는 얘기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것.

제가 사진 중매로 결혼한 노총각들이었다.

결혼은 했지만 비자발급이 몇년이나 지연돼 LA 공항에 마중나간 총각들이 그 사이에 벌써 폭삭 늙어버려 할아버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한인사회에서 우스개로 돌아다녔다.

목회자로서는 권희상 목사(동요작가 권길상 동문의 친형)가 제퍼슨과 버몬트 인근에서 장로교회 담임으로 있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공대출신의 김동명 목사가 시무하고 있었던 침례교회(버몬트와 베니스)에 출석했다.

VIP로는 법대를 나온 노신영 동문이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어 동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당시 LA에는 Coast Trading Company가 유학생들 사이에 꿈의 직장이었다.

한국정부의 해외구매담당 회사였는데 주영세·서동영(영어 60) 등 동문들이 핵심 사원으로 근무했다.

1980년대 초 LA로 이주한 동문들 가운데는 고참선 배들이 많았다. 우선 이종률(역사 47)은 한국서고등학교 교장과 문교부 편수관을 지내다 1980년초 이민왔다. 백성룡(국어 52) 역시 교장직을 사임하고 미



김희경 회장.



지난 2021년 심금옥 동문 자택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

동문은 아니지만 USC 메디컬 스쿨을 나온 새미리 박사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인들의 자랑이 됐다.

60년대엔 웃고픈 사연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범대

고민과 갈등의 끝, 안정과 희망의 시작

신혜원 변호사



- ▶ **Certified Specialist, Family Law**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 ▶ **가주 Certified 가정법 전문 변호사**
- ▶ **법정 재판 28년 이상 경험**
- ▶ **서울대학교 BA 수석 졸업**
- ▶ **UC Irvine BS in Computer Science**
- ▶ **Southwestern Univ. 법대**

가정법

- 이혼
- 자녀양육
- 재산분배
- 혼전계약
- 혼인무효
- 배우자 생활비
- 가정폭력

유산 상속

- Living Trust
- 상속재판
- 후견인설정
- 유언장
- 상속분쟁

법정재판

합의이혼

중재

Law Offices of Haewon Shin, APC

- Los Angeles Office : 3810 Wilshire Blvd. Suite 1509, Los Angeles, CA 90010
- Orange County Office : 2030 Main Street, Suite 1300. Irvine, CA 92614

Tel. (213) 385-3773

www.haewonshinlaw.com

국에 왔다.

군사정권의 해직교수 1호인 차중환(생물, 54) 박사도 이 무렵 LA에 등지를 틀었다. 1976년 한미교육연구원을 설립한 차 박사는 매년 약 4만 달러의 장학금을 한국과 미국에서 수여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강연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과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동창회가 결성된 것은 1989년이다. 당시 유머감각과 재력을 겸비한 김정섭(역사 58)을 중심으로 박형준(국어 60), 이춘배(체육 60), 변홍진



“선배님들, 건강하세요!” 신년 하례식에서 50년대 학번 동문들이 두 손을 치켜들며 후배들의 덕담에 답례하고 있다.

이후 김지영(69), 강신용(73), 임항균(73), 김규정(77), 이상호(80), 유성숙(80), 최경석(80) 등 동문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동문부부도 적지 않다. 이정근·박부강, 이춘배·이정애 등이 사대 동문 커플이다. 이정근 목사는 그러나 안타깝게 지난해 9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형제자매가 동문인 경우는 국어과의 고영린·고영주, 역사과의 신경자·신정자는 자매관계다.

언론계에선 변홍진, 박홍진 두 동문이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 스트리트 저널 발행인이자 세리토스 시의원 및 시장을 지낸 조재길 동문도 사대 출신이다.

밸리의 케네디 하이스쿨 카운슬러를 지내다 은퇴한 이춘배 동문은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김지영 변호사와 강신용 CPA는 남가주총동창회장을 지내는 등 사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현 사대동창회 회장은 김희경(화학 80) 박사다. 2025년 회장은 신혜원(영어 81) 변호사가 선출됐다.

글: 주영세(물리 59)·김희경(화학 80)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 겸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사대 동문들. 앞줄 오른쪽이 이정근·이부강 목사 부부.

(불어 59) 등 동문들이 동창회를 만들었다.

전송택(화학 61), 황선제(수학 57), 전낙관(화학 61), 송두빈(체육 57), 전성대(지리 60), 정복근(영어 69), 김홍(독일 60), 주영세(물리 59), 고영린(물리 57) 동문들이 초창기 회장으로 동창회를 이끌었다.

상 과 대 학

캐치프레이즈 ‘뭉치자 뚫자 빛내자’ ‘돈 어떻게 벌었느냐’ 보다 ‘번 돈 멋있게 쓰자’

“뭉치자 뚫자 빛내자.”

구호에 걸맞게 남가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는 1972년 창립 이후 50여 년간 동문들의 교류와 단합의 장이 되고 있다.

상대동창회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원로동문에서부터 열심히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젊은 동문에 이르기까지 화기애애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60년대 초반에도 상과대학축제 흥륜제의 표제가 “낭만을 즐기자” 이었듯 여유와 멋은 상대동문들에게 깊게 흐르는 전통이다.

상대동창 모임에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야기 대신 번 돈을 멋있게 쓰는 방법을, 월급과 승진보다는 남다른 아이디어로 소속된 조직을 변화시키는 재미를 나눈다.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모임을 기대하게되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동창회는 상과대학의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고상 1920-1945), 경제학과, 무역학과와 상학과, 경영학과로 구성된 상과대학(1945-1975), 경영대학(1975-), 사회과학대학내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지난 2021년 12월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송년모임.

등록회원 200명 넘어... 모교 재학생들에 장학금 정원훈·이병준·성주경 전임 회장 등 훌륭한 업적

(1975-1995),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를 통합한 경제학부(1995-) 졸업생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대 편제에 지금 상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대동창회는 상대 이전과 이후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으로 오늘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가주 상대동창회는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지역들을 커버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동문들은 정기적으로 골프, 식사, 전문 분야에 관한 강연, 음악연주회, 유람선 연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각종 경조사 소식을 공유하여 동문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명선 동문의 회고록 발간 축하연.

또한 동창회 활동은 이 지역 동문간 친목도모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국 상과대학 동창회의 장학사업에도 동참하여 모교재학생에게 남가주 상대동창회 이

름으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남가주 상대동창회는 1972년 3월 12일 LA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이는 해외에 설립된 최초의



지난 2023년 에어쇼 참관 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이병준 동문.

상대동창회 지부로 기록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24명, 회비는 1인당 10달러로 240달러의 수입으로 출발하였다.

1974년 12월 20일 LA소재 뉴코리아 식당에서 제3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가주외환은행 행장으로 LA에 나와있던 정원훈 동문(고상 38년입학)이 회장으로 선출된다. 당시 정원훈 회장의 주도적 역할로 남가주 상대동창회의 근간이 완성되었다. 이로서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동문간의 교류가 보다 확대되고 정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원훈 회장을 도와 함께 일을 했던 동문들은 정 회장이 남가주 상대동창회의 시조격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평생 한국과 미국에서 은행가로 살고 LA 최초 한인은행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인데 미술에도 취미이상의 실력을 소유하여 막상 정원훈 동

일찌기 세대교체, 70~80학번이 회장 맡아
회비·이사회비 자진납부, 넉넉한 재정마련

문 본인은 은행가가 아닌 화백으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다. 역시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상대동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정원훈 회장의 주도로 상대동창회의 근간이 이루어졌다

면 여기에 살과 피를 불어넣어 발전시킨 분은 이병준 동문(55)이다. 이병준 회장은 사재를 털어 상대동창회를 재미있는 동창회로 탈바꿈시켰고 2년간의 회장직이 끝나자 모든 동문들의 합의로 상대동창회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그후 이병준 회장은 미주 서울대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될 때까지 남가주 상대동창회를 선후배를 아우르는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창회로 이끌었다.

이병준 회장은 미주 서울대 동창회장으로서도 훌륭



늘 재치와 인생의 지혜가 넘치는 동문들의 오찬 모임.

한 업적을 남겼다.

이병준 회장 재임시 미주 서울대동창회는 서울대 미주재단에서 발행하던 미주 서울대동창신문을 정식으로 인수하였고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로 지금까지 발행되어오면서 미주 총동창회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있던 서울대 동창회 지부들을 서울대 미주동창회로 통합하였고 마지막 통합작업으로 사재를 써서 방대한 서울대 미주동

창회 회원명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또하나 남가주 상대동창회를 언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문이 있다. 1990년부터 남가주 상대동창회 총무로 11년간, 부회장으로 7년간, 회장으로 2년간, 총 20년을 봉사한 성주경 동문(68입)이다.

성주경 회장이 총무를 하던 시절에는 일일이 선배님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하며 동문들의 연락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동문들을 끌어내어 2년마다 발간하는 남가주 상대동창회 명부에 등록케하여 2002년에는 남가주 상대동창회 명부에 등록된 상대동문이 무려 200명을 넘었다.

또한 성주경 회장은 남가주 상대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장이 기부하여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



2015년 김창욱 동문 자택 모임에서 흥겨운 노래에 장단 맞추는 동문들.

을 개선하여 동창회비와 이사회비를 자진납부하는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넉넉한 동창회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은 재정확보 방식의 도입으로 70학번 이후로 회장이 되는 동문들은 돈걱정 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되어 상대동창회는 일찌기 2010년부터 70, 80년대 학번이 회장을 맡아오고있다.

지난 50여년간 꾸준한 활동을 해온 상대동창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위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훌륭한 선배들을 이어받아 상대동창회를 계속 이끌어갈 젊은 동문들의 참여확대, 남가주의 틀을 뛰어넘어 모교와 모교후배에 대한 지속적 지원, 지역사회에 공헌방안 등이 남가주 상대동창회의 향후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모든 동문들은 “뭉치자 돕자 빛내자”라는 상대동창회의 정신으로 이러한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된 남가주 상대동창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다.

글: 김창욱(79)

상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초대: 유진형(47)
- ▲ 2대: 정원훈(38)
- ▲ 3대: 이응선(45)
- ▲ 4대: 김병기(48)
- ▲ 5대: 홍성목(45)
- ▲ 6대: 김의한(50)
- ▲ 7대: 김종태(58)
- ▲ 8대: 김수영(54)
- ▲ 9대: 이병준(55)
- ▲ 10대: 김기태(56)
- ▲ 11대: 김창호(57)
- ▲ 12대: 탁익용(58)
- ▲ 13대: 지인수(59)
- ▲ 14대: 김석의(60)
- ▲ 15대: 이청광(61)
- ▲ 16대: 심상은(54)
- ▲ 17대: 이명선(58)
- ▲ 18대: 김은종(59)
- ▲ 19대: 이원덕(57)
- ▲ 20대: 조만연(58)
- ▲ 21대: 성주경(68)
- ▲ 22대: 김능집(71)
- ▲ 23대: 유병원(76)
- ▲ 24대: 김종국(76)
- ▲ 25대: 김창욱(79)
- ▲ 26대: 강호석(81)
- ▲ 27대: 권희재(80)
- ▲ 28대: 최응환(80)
- ▲ 29대: 임춘택(68)
- ▲ 30대: 이종열(65)
- ▲ 31대: 김창욱(79)



한인은행의 대부 정원훈 행장이 지난 2007년 FSB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자신이 그린 팜 플라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수의과 대학

스터디 그룹에서 출발, 초대회장에 이정재 동부회원 감소로 남가주가 재미 전체 총괄

수의대 동창회는 1979년 정길택 동문이 남가주로 이민오면서 형성된 스터디 그룹에서 비롯됐다. 자연스럽게 서울대 동문들이 모이게 되어 동문간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 남가주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가 1979년 결성되어 초대회장에 이정재 동문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1-4년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조지훈, 양희곤, 박희규, 오갑출, 손수용, 김영, 오영문, 최재현, 이봉수, 이정호, 강상봉, 권태삼, 박익순, 강동원, 문홍식, 승원표, 박종수, 박민식, 신동국, 이병희, 이사균, 이재현, 이용훈, 이승택, 최용준, 김영주, 최재을, 최용준(2회) 동문들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2024년에는 김용진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동부에는 1983년에 동창회가 결성되어 오연

각 동문이 초대 회장을 하였고 이어서 김현영, 조정현, 강영배, 민홍식, 전무식, 지홍민, 김문소, 이병인, 염수암 동문들이 회장을 지냈다.

남가주에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부에는 젊은 회원들이 충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통합해 재미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로 명칭을 바꾸고 남가주 본부에서 미주 전체를 통괄하고 있다.

2010년에 회원이 234명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는 200 여명이다. 남가주에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모교학장 초청과 학생연수

주요 사업으로는 모교 학장 초청과 학생 연수이다. 매 2-4 년마다 학장이 바뀌면 미국에 초청하여 서로간에 교류증진과 모교 소식을 듣는다. 그 동안 다녀가신 분들은 이장락, 정창국, 임창형, 권종국, 조충호, 최희인, 이영순, 이홍식, 이문한, 양일석, 박용호, 권오경, 류판동, 김재홍, 우희중, 서강문, 한호재, 성제경 학장들이다.

남가주에 많은 단과대학들이 있지만 수의대만 학장을 초청한다. 그래서 대학본부에서 열린 학장들 회의에서 총장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학생연수 사업은 1991년 오갑출 회장의 아이디어로 1992년 손수용 회장 재임시 처음 시작되었다. 매년

모교 학장 초청, 재학생 연수사업 박종수·박민식·신동국 고액 기부



지난 2024년 6월 29일 성제경 서울대 수의과 대학 학장 환영회를 개최한 남가주 동창회.

2명을 초청했고 2010년 박익순 회장 때 3명이 왔다.

학생들의 초청 및 연수 경비를 동창회서 부담하고, 선배들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선배 병원에서 한달간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했고 특히 샌디에고의 강동원, 이재현 동문 등이 수고가 많았다.

그동안 초청한 학생들은 윤덕원('92년도 초청), 이상록('92), 노상호('93), 한민('93), 배근환('94), 황병태('94), 박수진('95), 정미선('95), 정연승('96), 김진태('96), 양한석('98), 유종현('98), 김찬란('99), 최지혜('99), 김종민('2000), 김순영('00), 김수민('00), 오병철('01), 배보경('01), 정연우('02), 권정국('02), 성의제('03), 장재영('03), 고영환('04), 임창윤('04), 이선태('05), 서상호('05), 이종윤('06), 김학상('06), 서정연('07), 김두욱('07), 고영환('08), 심호철('08), 장기영('09), 한승희('09), 손형락('10), 김현정('10), 노현우('11), 유민욱('11), 이애리('12), 김민희('12), 최은교('13), 김은영('13), 이덕원('14), 차용환('14), 이주형('15), 이기은('15), 이가온('16), 김유진('16),

이재권('17), 김정민('17) 등 51명이다.

이중 7명은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와서 수의사를 하고 있다.

재학생 초청 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수의학도 크게 발전했고 또 미주 동문들도 고령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정에서의 연수가 어려워지면서 대학과 상의, 2018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개별적으로 오는 후배들은 각자의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다.

모교의 초빙 및 겸임교수

수의과 대학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재미동창회의 모교를 위한 사업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초빙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다.

다녀온 회원들은 손수용, 승원표, 이정재, 문홍식, 김영, 이봉수, 최재현, 유형규, 이재현, 권태삼, 신동국, 장철봉, 강동원, 이병희, 김영주, 김종민, 박민식, 심영춘, 오연각, 성흥환, 방유식, 이용훈, 허진영 동문들이다. 이 프로젝트 역시 2018년부터는 중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13일 서울대 수의과 대학 생명과학 연구동에서 열린 '박종수 홀' 명명식. 이날 명명식에는 박종수 동문 가족과 함께 우희중 학장, 최종표 동창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기부

- ▲신동국(2005년, 모교에 1만 달러 기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 1만 달러 기부)
- ▲2007년 수의과대학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기부자: 박민식, 문홍식, 김영, 승원표, 강동원, 신동국, 박종수(일인당 백 만 원씩, 총 7백만 원)
- ▲박민식(2008년, 10만 달러)
- ▲박종수(2009년, 10만 달러)
- ▲박민식(2011년, 20만 달러)
- ▲지흥민(2011년, 1만 달러)
- ▲이병희(2012년, 1만 달러)
- ▲박홍락(2012년, 1만 달러)
- ▲손수웅(2012년, 1만 달러)
- ▲신동국(2012년, 1천 달러)
- ▲박민식(2013년, 20만 달러, 2013년 현재 총 50만 달러 기부)
- ▲박종수(2013년 용인 땅 기부, 6억9천만원)
- ▲유형규(1천 달러)
- ▲성흥환(1천 달러)
- ▲유소양(1천 달러)
- ▲방유식(1천 달러)
- ▲조정현(200 달러)
- ▲심영춘(1천 달러)
- ▲김승원(200 달러)
- ▲박홍락(500 달러)
- ▲조병선(1천 달러)
- ▲승원표(1천 달러)
- ▲재미 74 동기회(1천 달러)
- ▲김영(1천 달러)
- ▲강동원(1천 달러)
- ▲문홍식(1천 달러)
- ▲유형규(2016년, 미국의 Western 수의과대학에 1만 달러 기부)
- ▲신동국(2017년 1만 달러)
- ▲지흥민(2017년 1만 달러)
- ▲이사균(2017년 1만 달러)
- ▲신동국(2017년부터 강원대 수의과 대학생 1명에게 매년 1천200 달러 장학금 수여, 10년간 하였음)
- ▲박민식(2019년 20만 달러, 총 80만 달러 기부)
- ▲조두연(2019년 10만 달러 기부)
- ▲신동국(2019년 Western Veterinary School 학생 두 명에게 장학금 전달, 2천400 달러, 2023년부터 15년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 2억원 기부)
- ▲박종수(2024년 10만 달러 기부하여 전체 기부액이 10억원이 넘었음)
- ▲박민식(2024년 현재 총 130만 달러 기부, 2024년 아들 2명이 20만 달러씩 기부).

박종수 동문의 발전기금 기부

- ▲수의대 개교 60주년 사업추진특별기금 (2017)
 - ▲장학기금 (2009~2012)
 - ▲수의과대학 위임기금 (2013, 시흥시 부동산 매각 기금)
 - ▲수의과대학 시설물 기금(2015)
 - ▲선한 인재 장학금 (서울대학교/학술, 2017)
 -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 (2017)
 - ▲수의과대학 위임기금(2018)
 - ▲수의과대학 위임기금 (2019)
- 합계: 881,975,943원

지흥민 동문은 1978년 이영소 학장의 초청으로 모교를 방문하여 졸업생과 대학원생들에게 미국 수의사 진출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자랑스런 수의대인상' 수상자 모교에서는 매년 한 두 명의 '자랑스런 수의대인상'을 수여하는 데 미주동문들 중에 받은 분들은 신쌍재, 김영, 미국 수의대동창회, 박종수, 손수웅, 지흥민, 최재현, 김문소, 김현영, 윤상래, 조정현, 박민식, 조두연, 강동원, 신동국, 최용준 회원들이다.

박민식·박금옥(사대 63) 부부는 지난 2022년 제 15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사회봉사활동 및 격려금 전달
많은 회원들이 수의사로서, 학자로서, 연구소와 각자의 사업 일터에서 일하며 사회활동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의 단체장으로 봉사한 회원들은 조한철, 조형원, 조정현, 김영, 김문소, 김길남, 주한수, 강영배, 박종수, 최재현, 이봉수, 윤상래, 강동원, 이재현 등 그 외 많은 분들이 있다.



최용준 동문(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2024년 10월 13일 열린 수의과 대학 동창회(회장 백영옥)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에서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을 받았다.

윤상래 동문은 2017-18년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김현영, 서진국 동문은 은퇴 후 과테말라의 Coban 지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손수웅 동문은 LA의 한국일보 수의사 상담란에, 장철봉 동문은 중앙일보에, 미주 동부에서는 김기택, 김현영 회원들이 신문에 글을 기고 하였다.

승원표 동문은 LA에 있는 한국 방송에 나가서 수의 상담을 하였다. 문홍식, 승원표 회원들은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연수를 원하는 임상수의사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장철봉, 이봉수, 강상봉, 신동국, 김현영 회원들은 바쁜 중에도 책을 저술하였다. 김현영, 장철봉, 신동국 회원들은 한국의 대한수의사회지에 글을 자주 기고 하였다.

유형규 동문은 미국 수의사 저널에 많은 글을 기고하였고, 중국의 수의사협회와 수의과대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미주의 몇 회원들은 북한을 방문하여 고아원 아이들과 수의계에 도움을 주었다.

손수웅, 김영, 최용준 동문



남가주 수의과 대학 동창회 정례모임.

수의과대



Skilled Nursing
Home Health Aide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Speech Therapy
Social Services



Sung Hee Kang, BSN
Administrator / DPCS

213. 383. 9678 Tel
213. 383.9648 Fax
405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은 남가주서울대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영 동문은 지난 2005년 7월 남가주서울대합창단 이사장을 맡아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수 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합창단 공연을 개최해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합창단 공연은 그 이후 계속 이어져 한인사회의 훌륭한 문화행사가 되었다.

그해 노동절 연휴를 맞아 9 월초 비숍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박 3일간의 캠핑에 동창들 수 백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를 치렀다. 김영 동문 부부는 오래동안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은퇴 후 유명한 성악가, 연주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패밀리 콘서트를 일년에 두 번씩 하며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신동국 동문은 2022년 11월 재미한인수의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편찬위원장으로 5년간 준비하



지난 2022년 12월 17일 샌버나디노의 유한택 동문 자택에서 열린 송년회 모임.

다녀왔다.

박민식 동문은 미주와 LA지역에 있는 비영리기관에서 오래동안 봉사하면서 많은 기부금으로 헌신하였다. 최재현 동문은 LA 지역 민주평통회장으로 4년간 봉사를 하였다.

신동국 동문 부부는 2007년 비영리 기관인 Mission Globalization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학원생, 대학생, Youth 학생 등 연인원 461명에게 총 28만8천 달러에 이르는 장학금을 제공, Korean-American 2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수의사 후배 부부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수 년에 걸쳐 자녀교육세미나를 개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었다. 공산권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동창회에서는 미국 수의사 면허 공부 중인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2007년 8명에게 200 달러씩, 2009년 4 명에 200 달러씩, 2010년 3 명에 400 달러씩을 각각 수여하였다.

재미한인수의사회는 우리 동문들이 1972년 창립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초창기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체 재미한인수의사회 80% 이상이 서울대 동문이었으나 현재는 50% 정도 된다.

글: 신동국(76)



미국 수의과 대학 임상 로테이션에 참가한 수의대 본과 4학년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성제경 수의대 학장(왼쪽에서 두 번째).

여 550 페이지 분량의 '재미한인수의사회 50년사'를 5천 부 발간하여 미주회원들, 한국의 10개 수의과대학들과 도서관들, 많은 수의 관련 기관들, 언론사들과 4곳의 정부문서보관소에 보냈다.

2023년 노동절 연휴를 맞아 동문 40여 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 여행을

약 학 대 학

한국의 약대교육과정 인정 못받아 어려움 제도적 역경 극복, 정착에 10년 넘게 걸려

지난 1983년 2월 전종낙(45학번), 김성환(57학번), 채희원(59학번), 장진성(66학번) 등 10여 명의 동문들이 강서식당(현 조선옥 자리)에 모여 최연장자인 전종낙 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 남가주 약학대학 동창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연건동 시절의 약대 건물, 마치 고등학교 교사를 연상시켜 준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

한 약대 동문은 세 분이다. 1989년 14대 총동창회를 지낸 (고) 임중문 동문(51학번)과 27대 회장을 맡았던 임낙균 동문(64학번), 그리고 45대 회장 민일기 동문(69학번)이다. 특히 임낙균 회장은 임기중 관악연대 젊은 동문들과 함께 동창회 웹사이트를 활성화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1994년도에 약대회장을 맡았던 박취서 동문(60학번)은 약대동창회의 역대 회장 명단을 정리하고 동창회원 명부를 제작해 배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문들의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후 2007년 민일기 회장 당시 약대동창회 명부는 박취서 동문과 홍성선 동문(72학번)의 노력으로 새 회원을 추가, 다시 제작되었다.

2007년 명부에는 총 102명의 동문이 실려 있다.

약사 이민 그리고 새로운 도전

미국의 이민 문호가 획기적으로 개방된 것은 1965년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새 이민법은 그 전까지 주로

유럽의 이민자를 국가별 쿼터에 따라 받아들였던 것을 폐지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이민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은 1965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1968년 7월에야 비로소 국가별 이민 쿼터가 완전히 폐지되어 명실상부한 전면적 시행에 이르렀다.

약학대학 동문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개정 이민법이 실제로 적용된 1970년 무렵부터였다. 하지만 새로운 이민법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는 당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예컨대, 한국의 약사면허가 있어도 미국의 약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약학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하거나 적어도 추가로

요구되는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 약사가 본국 약대의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약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1983년이었으며, 이는 1965년 이민법이 시행된지 18년이 지난 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대 동문들은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야 했다. 약학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동문(김향자, 장진성, 박창규, 박제인, 임용빈, 임낙균, 신한경, 이성일 동문 등), 또 일정 과목들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동문(정만영, 이인정 동문 등),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동문(채희원, 김성환 동문 등), 그들은 모두 이민초기 미국 사회의 도전을 이겨낸 승리자들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역경을 극복하고 정착하는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다. 따라서 초기 약대 동문들은 공부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 하느라 동창회라는 공식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

1983년 동창회 발족, 타 단과대 보다 뒤늦어 독감예방주사 접종 등 사회봉사에 적극적



2016년 열린 신년하례식.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약대 동창회의 창립도 다른 단과대학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서비스와 친목 단합 모임

지난 2023년 부에나파에 소재한 랄프 클락 공원에서 가진 야유회는 참으로 즐거운 하루였다(회장 홍종화). 야유회는 그 동안 뉴욕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최근 남가주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라미라다에 정착한 송재한 동문(61학번)이 준비한 잔치였다. 음식에

과일 디저트와 음료까지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진행도 다채로웠다. 약사로서 그 동안 샌디에고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한인사회가 그리워 돌아온 김향자 동문(61학번)의 고전무용 춤... 80이 넘는 나이에 수양버들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몸 동작... 흥을 돋구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이에 뒤질세라 박취서(60학



2022년 11월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정례모임.

SEOUL NATIONAL UNIVERSITY

번) 동문의 '몸 따로, 머리 따로' 흐드는 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 노는 것과 잡기 하면 빠지지 않는 이명일 동문(72학번)이 진행한 오락시간은 모두가 흥겹게 참여한 노래와 춤의 한마당이였다. Mt. McKinley 가장 많은 약대 동문이 모인 것은 장진성 동문(66학번)이 회장이던 2003년 한인타운 용궁에 서였다.

40명이 넘는 동문과 배우자가 참석하였는데, 그 날



할리웃 보울 피크닉에 함께한 약대 동문들.



2002년 알래스카 Mt. McKinley 등반에 나선 노준래 동문(왼쪽).

의 모든 경비를 장진성 회장이 부담하였다. 많은 동문이 나왔기에 서로 초면인 동문들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 동안 살아온 얘기를 간단히 말하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한 시간 이상이나 소요되었다.

모임은 2차로 이어졌으며, 10 여명의 동문들이 노래방에 가서 힘껏 목청을 돋구었다. 이번에는 그 자리의 최고참 선배였던 채희원 동문(59학번)이 쓰았다.

홍종화 회장 때 열린 2005년도 모임도 동문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 모임에는 특별한 슬라이드 쇼가 있었다. 평생을 아마추어 산악인으로 살아온 노준래 동문(64학번)이 알래스카에 있는 매킨리에 오르며 찍은 사진이었다.

2002년 대한산악연맹 산하의 미주산악연맹이 한국인의 미주 이민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한 행사였는데, 미 전국에서 6명을 선정하여 매킨리 등정대를 결성하였다.

노 동문은 그 등정대에 당당히 합류하여 2002년 5월 눈과 얼음으로 뒤덮힌 매킨리 정복에 도전했다. 노 동문의 매킨리 등정 이야기와 곁들어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며 식사를 즐겼다.

노 동문에 따르면 매킨리 등정은 초인적인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 짐을 운반해주는 도우미(Sherpa)가 없어서 자기 짐을 메고 또 끌고 올라가야 하고, 북극에 가까워 혹한도 견뎌내야 한다. 대략 40-50파운드의 배낭을 등에 메고, 70-80파운드 정도는 썰매에 끌고 산에 올라야 한다. 노준래 동문이 50대 후반의 나이에 던진 과감한 도전장! 감동적이었다.

약대동창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가진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 독감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다.

제33대 남가주 총동창회 김지영 회장이 2008년 가



지난 2023년 5월에 열린 야유회에서 동문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을에 행사를 시작하여 5년간 이어졌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약대는 항상 독감 예방주사(Flu Vaccine)를 직접 구매, 접종하는 일을 맡았다.

서울대 동창회가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 행사를 시작하자, 한인사회의 교회 등 많은 단체들이 앞다퉀 우리 행사를 모방하였다. 자랑스런 서울대 동창회의 리더십이었다.

약대동창회는 동문들의 정착 방법, 시기, 장소가 각각 달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선후배 간의 애뜻하고 끈끈한 정은 항상 그대로다. 동문의 경조사가 있으면 약대동창회 축기 또는 조기를 보낸다.

축기와 조기는 1997년 김진호 동문(64학번)이 회장할 때 제작했다. 그 때까지 축하 화환과 근조 화환을 보내던 것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제는 상당수 동문이 연로하여 운전 때문에 동창회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후배 동문들이 차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다. 후배들의 도움으로 최근 총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한 연로한 선배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약대 동창회와 동문관계는 탄탄하고, 또 영원하리라!

글: 홍종화·홍성선



김향자 동문의 즉석 춤사위.

약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초대: 전종낙(45)
- ▲ 2대: 신한경(59)
- ▲ 3대: 오인근(59)
- ▲ 4대: 박창규(59)
- ▲ 5대: 박제인(60)
- ▲ 6대: 임종문(52)
- ▲ 7대: 채희원(59)
- ▲ 8대: 허무원(59)
- ▲ 9대: 임윤택(59)
- ▲ 10대: 김성환(57)
- ▲ 11대: 서재열(59)
- ▲ 12대: 박취서(60)
- ▲ 13대: 심화섭(61)
- ▲ 14대: 이혁재(61)
- ▲ 15대: 김진호(64)
- ▲ 16대: 임낙균(64)
- ▲ 17대: 김원호(63)
- ▲ 18대: 정만영(66)
- ▲ 19대: 허영훈(64)
- ▲ 20대: 이명일(72)
- ▲ 21대: 장진성(66)
- ▲ 22대: 이명일(72)
- ▲ 23대: 홍종화(74)
- ▲ 24대: 이규상(74)
- ▲ 25-29대: 민일기(69)
- ▲ 30-33대: 홍성선(72)
- ▲ 34-36대: 이명일(72)
- ▲ 37대: 홍종화(74)

음악대학

‘테너 안형일과 쌍벽’ 김창무, 동창회 창립 권길상·이우근 등 원로들 차례로 회장



지난 2017년 9월 9일 콜번 스쿨의 지퍼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대 정기 연주회.

음대는 1945년 12월 설립된 경성음악학교가 이듬해 8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편입되면서 탄생했다.

휴전되던 해인 1953년 4월 음악부가 음악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동승동과 함춘원 의대 부지를 오가던 음악대학은 1959년 을지로 6가의 옛 약대건물로 이전했다. 1976년에는 관악 캠퍼스 예술관에 자리잡고 같은 해 동양음악연구소를 설립했다.

남가주 음대 동창회 창립의 주역은 김창무(성악 53) 동문이다. 1950년대 테너 안형일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명성을 날렸다. 그가 미국 이민의 뜻을 밝히자 교수들까지 나서 적극 만류했다는 얘기는 당시 성악계에서 널리 회자됐었다.

그는 1963년 LA 한인사회 최초의 악기점인 씨.엠 음악사(C.M. Music Co.)를 오픈해 운영했다. 김 동문의 부인 최애인 여사 역시 성악과 동문이다.

김 동문은 1969년 권길상(작곡 46)·이우근(성악

교향악단 창단,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공연 기업인으로 성공한 안응균, 한미은행 이사장 지내

50) 등과 함께 음대 동창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권 동문(1969~1972)이 추대됐다. 2대 회장은 이우근(1973~1976), 3대 회장은 김창무(1977~1980) 동문이 맡아 동창회의 틀을 다졌다.



지난 2016년 10월 22일 라크마(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초청으로 열린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동문의 독주. 600석을 가득 채우는 등 성황을 이뤘다.

동창회 창립의 산파역을 맡았던 권길상, 이우근, 김창무 세 동문은 1986년 남가주 교향악단을 창단, 클래식 음악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원로 음악인 김생려를 상임 지휘자로 초빙해 그해 11월 22일 창단공연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무대에 올렸다.

창단 기자회견에서 김창무 동문은 “음악이야말로 여러 인종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한국 공통언어”라며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되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계를 고루 참여시켜 악단을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대 회장을 지낸 김광철(작곡 59) 동문은 입지전적인 인물. 미국에 이민와 백화점에 취업한 그는 시계반지 등을 수리해 ‘손재주’를 인정받았다.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차려 재력을 모은 그는 음대

동창회는 물론 남가주 총동창회 등에 기부를 많이 해 ‘기부 큰손’으로 불렸다.

한인사회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김동석(국악 64) 동문이다. UCLA 음대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을 가르쳐 한국의 문화예술을 주류사회에 보급한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에 1회 대회부터 국악팀을 꾸려 참가하고 있다.

기업인으로 성공한 이는 안응균(기악 54) 동문이다. LA 한인타운에 ‘안스 피아노’를 운영해 부를 쌓았다.

한미은행 창립멤버로 참여, 이사장을 지냈다. 또 LA 평통회장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한미교육재단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계와 교육계 원로로 활동했다.

윤길숙(성악 49) 동문은 토크쇼 사회자로 인기를 끌었다. KBS 방송국에서 재치문답 프로를 진행한 그는



지퍼홀에서 열린 음대 정기연주회에서 첼리스트 김원선 동문이 독주를 하고 있다.

위트 넘치는 명사회자로 이름을 날렸다.

홍유현(기악 61) 동문은 남가주 동문합창단을 창단

하고 이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쳐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주위에서 “디즈니에서라니... 실패할 게 뻔한데 미쳤느냐”며 적극 말렸는데도 남가주 총동창회의 김영, 장동호, 김병연, 홍광식 등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공연은 전석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회장 재임시 처음으로 음대 인명록을 펴낸 이는 백정현(성악 66) 동문이다. 이외에도 굵직한 사업을 수행해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홍선례(작곡 70) 동문은 해마다 UCLA 기금모금 음악회를 열어 수익금을 전액 김동석 교수에 전해 UCLA 한국전통음악과 존속에 힘을 보탤다. 한국의



2017년 3월 24일 열린 최경은 동문의 첼로 독주. 최 동문은 USC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국악과 동문들을 초청해 LA와 보스턴 등지에서 공연을 열었다. 특히 팝송을 국악기로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음대 정기공연은 1977년 처음으로 USC 행콕홀에서 열렸다.

이후엔 주로 이벨극장에서 열렸는데 할리우드에 있는 반스달파크 홀에서도 몇차례 공연을 가졌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문들의 홈 콘서트로 대체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엔 콜번 스쿨의 지퍼홀에서 연례공연을 갖고 있다. 박영희(기악 66) 동문은 회장 재임시 오보에 주자 4명 등 이색적인 악기 편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글: 홍선례(작곡 70)



국악과 양악의 오묘한 조화.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에 가야금, 해금, 대금이 어우러져 천상의 하모니를 이뤘다.



이성동 동문의 대금 연주.



김경아 동문의 태평소 독주.

음대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괄호안은 학번)

- | | | |
|-------------------|-------------------|-------------------|
| ▲ 초 대: 권길상(작곡 46) | ▲ 11대: 백정현(성악 66) | ▲ 21대: 박인옥(기악 65) |
| ▲ 2대: 이우근(성악 50) | ▲ 12대: 김순희(성악 50) | ▲ 22대: 박영희(기악 66) |
| ▲ 3대: 김창무(성악 53) | ▲ 13대: 임선영(성악 53) | ▲ 23대: 서영란(성악 75) |
| ▲ 4대: 김옥자(성악 56) | ▲ 14대: 윤길숙(성악 49) | ▲ 24대: 최명용(성악 66) |
| ▲ 5대: 김광철(작곡 59) | ▲ 15대: 정문영(성악 59) | ▲ 25대: 서정화(성악 80) |
| ▲ 6대: 김동석(국악 64) | ▲ 16대: 홍유현(기악 61) | ▲ 26대: 김양희(기악 77) |
| ▲ 7대: 안응균(기악 54) | ▲ 17대: 주 훈(기악 69) | ▲ 27대: 김미자(국악 81) |
| ▲ 8대: 윤민제(작곡 57) | ▲ 18대: 홍선례(작곡 70) | ▲ 28대: 유혜연(기악 79) |
| ▲ 9대: 서세진(작곡 62) | ▲ 19대: 박혜란(작곡 73) | ▲ 29대: 김동석(국악 64) |
| ▲ 10대: 김옥자(기악 66) | ▲ 20대: 유재각(성악 73) | ▲ 30대: 홍훈정(기악 70) |



정기연주회에 출연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매년 콜번 스쿨 지퍼홀에서 열린다.

의과대학

케네디 이민개혁안 통과로 미국행 '러시' '한인의사회 창립' 김용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의료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이민은 1965년 이른바 '케네디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전까지 미국 이민은 아시아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유럽의 백인들만이 대상이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이를 아시아권에 대해서도 이민문호를 개방, 한인들의 이민이 가능해진 것이다.

케네디의 뒤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됐다. 처음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우선 대상이었다. 베트남전이 확

대됨에 따라 의료인의 부족이 심각해진 탓이다.

캘리포니아는 그러나 타주에 비해 한인 의사들의 진출이 늦어졌다. 김용제(54학번) 동문의 증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들은 뉴욕이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70년대 초에 들어서야 외국에서 졸업생들이 올 수 있게 됐고 이와 맞물려 한인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한인 의사들이 많이 모이게 됐



지난 2024년 3월 16일 열린 신년 하례식 겸 총회. 신임회장에 김자성, 이사장에 김성한 동문을 선출했다. 이상강 미주 총동창회장과 전경배 북미주 의대 동문회장이 축사를 했다.

1976년 창립총회, 전희택 회장·임남진 총무 체제로 서경만 동문의 고려보건재단은 한인 커뮤니티 무료 진료



고려보건재단 이사장 서경만 동문. 저소득층 주민들의 진료를 위해 힘썼다.

습니다." 김용제 동문이 미국에 온 해는 1955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그는 중령으로 미 8군사령부 안과과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도 안과과장을 지냈다.

그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다. LA 닥터스 오케스트라의 독주자로 아시아 4개국 순회공연을 다녔

고 피아니스트 신수정 씨의 반주로 서울 국립극장에서 독주회를 갖기도 했다.

김 동문은 1973년 남가주 한인의사회(KAMA)를 창립한 장본인이다. 월서 블러바드의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창립 모임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회원이 85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남가주 한인의사회는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각 출신대학별 동창회가 12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 의대 출신 의사들이 11개 그룹이고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한 그룹(KAGMA)으로 되어 있다.

서울대 의대 남가주 동창회는 1976년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전희택(57학번) 동문을 회장, 임남진 동문을 총무로 선임해 출발했다.

김 동문이 회상하는 초기 한인의사들은 다분히 개척자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다. "초창기 의사회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뭉쳤고 한인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주류정계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1971년 미국에 온 서경만(50학번) 동문은 저소득층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고려보건재단 이사장을 오래 지내 한인사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LA시정부로부터 15만 달러의 기금을 받아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활동을 폈다.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 동문도 초창기 멤버 중 하나다. 1967년 이민 온 그는 노스리지에서 개업, 40여 년을 보냈다.

전 동문은 한미박물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한인단체에서도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는 또 건강에세이집 '건강한 삶'을 펴냈다.

김창선 동문은 카이저병원의 벨플라워 의료센터 병원장을 지냈다. 그는 '노화와 성인병은 반드시 늦출 수 있다' '해외여행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 '맘소사! 우리 아이가 성인병을 키우고 있다니!' 등의 베스트셀러를 한국어서 출간했다.

차민영(78학번) 동문은 1993년 미주 한인커뮤니티



의대 뉴스레터 '시계탑'. 연 4회 발행되며 2024년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OB 산악회

히말라야 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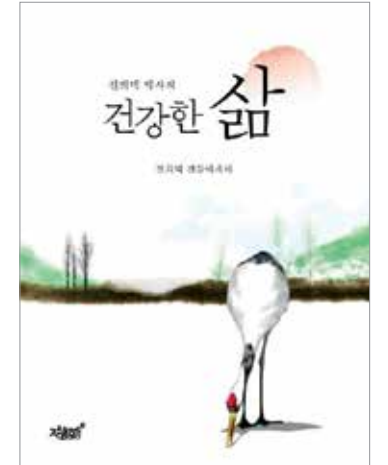
티에션 처음으로 의사 네트워크인 서울메디칼그룹(SMG)을 설립해 의료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서울메디칼그룹은 미 전역에 환자 7만여 명, 4천800여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네트워크다. 서울메디칼그룹은 2023년 7월 뉴욕의 대형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에 인수합병됐다.

세리토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안우성(70학번) 동문 역시 지난 2013년 센터메디컬그룹을 설립, 2,000명이 넘는 의료인들을 확보



초대 동창회장 전희택 동문. 한미박물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한인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희택 동문이 펴낸 에세이집 '건강한 삶'.

7월부터 연 4회 발행, 2024년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한편 의대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2024년 3월 16

일 LA의 아로마 센터 연회실에서 신년 하례식 겸 총회를 열고 김성환(65학번) 동문을 이사장으로, 김자성(79학번) 동문을 회장으로, 안상훈(88학번) 동문을 재무로 각각 선임했다.

고용규(67학번)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는 교기 입장과 함께 교가 제창 후 신임 회장 김자성 동문과 이사장 김성환 동문의 인사와 함께 전미주 의대 동문 회장인 전경배 동문(69학번), 서울대 미주 총동창 회장 이상강 동문(70학번)의 축사가 있었다.

식사 후 매년 사진 촬영으로 수고하는 나두섭(67학번) 동문의 기념 촬영이 있었다. 2부 순서에는 노래와 춤 등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오랜 코비드를 끝내고 남가주 의대 동창회는 싱겁게 시작되는 봄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재개할 것을 다짐했다. 남가주 의대 동창회 회원수는 300여 명에 이른다.

글: 김자성(의대 79) 회장



안과전문의 김용제 동문은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로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독주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해 한인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지난 1972년 뉴욕에서 창설된 북미주 의대 동창회는 1976년부터 매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남가주 출신인 전경배(69학번) 동문이 북미주 회장으로 세라톤 세리토스 호텔에서 제 38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북미주 동창회는 '시계탑' 뉴스레터를 지난 1974년

치과대학

오재인·오홍조 부자의 헌신과 열정이 큰 몫 주정부 상대 라이선스 시험 로비 펼쳐 성사



지난 2023년 4월 24일 권호범 치대·치의학 대학원장의 LA 방문을 맞아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남가주 치과대 동창회는 ‘아버지’ 오재인(33학번)·‘아들’ 오홍조(56학번) 동문 부자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재인(2015년 103세로 작고) 박사가 LA에 온 것은 1969년.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 6년간의 초빙교수직을 끝내고 세계일주를 하던 중 LA에 들렀는데 이곳 날씨에 매료돼 정착하게 된 것이다. 마침 천식으로 고생하던 부인 오정희 여사의 건강을 위해 남가주에 인생 2막의 동지를 틀었다.

오 박사는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다. “LA에 와보니 서울대 출신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모두 30여 명이 됐는데 미국 라이선스가 없어 봉제공장이나 청소 등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선 단체가 필요했습니다.”

1970년 서울대 치대 동창회를 만들고는 이어 재미 한인치과의사협회를 창립해 주정부 관련기관을 상대로 라이선스 발급 로비활동을 펼쳤다.

라이선스 시험 대비반 만들어 요점정리, 합격자 무더기 배출

소수계 커뮤니티의 단체들과도 연계해 추진, 신청한지 불과 두 달만에 시험제도가 실시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이때부터 외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들도 미국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친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오홍조 동문은 치과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 UCLA를 다녔다. 1975년 4월 졸업이었다.

당시 남가주에는 이미 한국에서 이민온 치과의사들이 있었지만 시험이 어려워 길게는 5~6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호범 학장이 이범모(가운데)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선호 회장.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전문직이었으나 면허가 없는 개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동문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부인들의 고생은 눈물



지난 1976년 7월 1일 올림픽 볼러바드에서 42년간 치과진료를 한 오홍조 동문. 지난 2018년 문을 닫고 은퇴했다.

겨울 정도였다.

오 동문은 전략을 짰다. 16과목이나 되는 치과면허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30명을 모았다. 그리고 2주간의 과목에 2명씩 요점정리를 해오게 한 것. 덕분에 전 과목을 단기간에 마스터 할 수 있었다.

이같은 스터디그룹 도움으로 그해 8월 치과면허 시험에 도전했다. 넷째날까지 치르는 필기시험을 단 한번에 통과했고 이어 넷째날 실기시험까지 합격했다. 마지막 날 시험은 진짜 환자 2명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시험들을 너무 일사천리로 패스하는 바람에 미처 환자를 못구해 고배를 마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지만 10개월만인 1976년 2월 시험을 모두 통과해 동문들 사이에 ‘천재’로 통하게 됐다.

치과면허시험 대비반의 스타강사로 떠오른 오 동문은 그의 족집게 강의 덕분에 1년에 1~2명 정도 취득하던 한인들의 치과시험 통과자가 급증하게 됐다.

오 동문은 “한인치과의사들이 개업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덕분에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면허시험 대비 공부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협회차원에서 보수교육을 시작했다. 치과를 비롯

50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명 선 (상대 58)
Chairman M S LEE



Houston Fearless 76, Inc.
203 W. Artesia Blvd., Compton, CA 90220
E-mail: mslee@hf76.com · www.@hf76.com

한국어 보수교육 실시 ... 한인사회 성장에 기여
회장 하선호·부회장 최금강 등 임원진 관악세대



2008년 4월 10일 LA를 방문한 서울 치과대 동창회 흥예표 회장. 이날 오홍조 동문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다.

해 의료전문인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서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영어가 익숙지 않은 한인 의사들에게 영어권 보수교육은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다. 오 동문은 협회가 보수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쳐 끝내 성사시켰다.

치과대 동문들이 미국에 이민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재인·오홍조 부자의 헌신과 열정이 큰 몫을 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서울대 남가주 치과동창회장과

한인 치과협회 회장도 물려받은 오홍조 동문은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미주 총동창회장도 지낸 서울대 동

문 커뮤니티의 산역사로 꼽힌다.

불과 10여 명으로 시작된 남가주 치대 동창회는 오늘날 회원이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2024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하선호(81학번)
- ▲부회장 최금강(87학번)
- ▲총 무 백승훈(94학번)



지난 2006년 10월 28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 총회 겸 만찬행사. 이날 행사에는 1965년부터 제 6대 및 7대 치대학장을 지낸 이영욱 전 학장 등이 특별히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권호범(왼쪽) 학장과 하선호 남가주 동창회장.

대 학 원

차종환 박사 주도로 1975년 창립, 초대회장 최태호·김용일 두 동문이 우연히 만나 계기



2024년 10월 26일 열린 정례 모임에서 동문들이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모임은 독고량 동문의 풀러튼 자택에서 열렸다.

대학원 동창회 모임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태호·김용일 두 동문이 LA의 한 교회(남가주 가디나 한인장로교회)에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된 것.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한 것을 알게 돼 가깝게 지냈다. 최 동문이 1963년 입학으로 김 동문보다 4년 선배였다.

당시 LA에는 대학원 동문들이 적지 않았다. 최·김

두 동문이 중심이 돼 운전교습이 필요한 동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사업을 시작하는 동문들에게 사무실 한 칸을 내어주는 등 상부상조의 정신을 이어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본교 대학원 과정은 단 하나였고, 따라서 입학의 문이 상당히 좁았다. 예를 들어 사대 출신은 문리대 졸업생에 밀려 대학원입학이 쉽

하버드대 입학 워크샵, 수백명 몰려 '대성황' 총동창회 공연에 1만달러 넘는 통큰 기부도

지 않았다. 사대 생물과 출신 4명이 대학원과정에 응시했는데 차종환 회장만 입학 허가를 받았던 것. 문리대 출신 4명은 그러나 모두 합격했다.

이후 각 단과대학별로 전공별 대학원 과정이 생기면서 석사 졸업생들이 대거 등장했고, 본교 및 타교 학부 졸업생들에게도 대학원 입학의 문이 열리고 석사 졸업생 수가 많아지면서 대학원 동창회도 생기게 됐다.

남가주에 대학원 동창회가 정식 결성된 것은 1975년 차종환(대학원 60) 박사에 의해서다. 초대회장엔 차종환, 부회장에 이의덕(신문대학원 69) 동문이 선출돼 동창회가 정식 발족된 것이다. 차 박사는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이의덕 동문과 함께 대학원 동문들을 직접 방문, 참여를 권유하는 등 회원 확보에 진력했다.

차종환 박사는 최장기 회장(1975~1985)으로 대학원 모임의 기틀을 마련했다. 동문회가 주관한 워크샵, 세미나는 대부분 차 회장의 아이디어로 시행됐다. 차 회장은 각 분야의 역량있는 동문을 세미나 발제자로 초대해 그가 지닌 전문분야 지식을 다른 동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례화했다.

유익하고 흥미있는 대학원 동문회의 소문을 듣고 많은 동문들이 모여들었다. 동문 회원들이 늘어나자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수행했다.

서성인(행정대학원 65) CPA의 절세전략, 오형원(의학 대학원) 동문의 당뇨관리, 김용일 동문의 미국

의 병원조직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 오성용(치의학대학원) 동문의 건강치아 유지 방법 등의 세미나가 동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의덕 회장은 봄·가을 야유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발제자로 초청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땅한 세미나 연사가 없을 경우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을 초청, 시사 문제에 관한 좌담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서성인 회장은 동문회를 세미나를 결들인 만찬으로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텍스 시즌이 되면 동문들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대학원 동문들.

에 절세전략을 강의해 도움을 줬다. 오성용 치의학대학원 동문을 초청, 바람직한 치아건강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태호 회장 재임시 동문이 아니더라도 워크샵과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게 동문회 행사를 외부에 오픈했다.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서성인 CPA의 절세요령은 인파가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대학원 동문회가 주관한 행사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대입준비 워크샵이었다. 하버드대 재학



새 회장으로 선출된 윤수현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생과 입학사정관을 초청,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위한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해 수백명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김용일 동문의 딸 제니를 비롯한 하버드 재학생 2명은 하버드 입학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직접 소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태환(하버드 경영대학원) 동문도 하버드대 입학사정관 로버트 김을 섭외해 워크숍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광고를 보고 몰려든 학부모들로 꽉 찼다. 강당에 도네이션 박스를 놓았는데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 광고비는 물론 워크숍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다. 워크숍 덕분에 동문회 재정은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대학원 동문회의 하버드대 입학사정관 초청 워크숍은 이후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칼리지 페어의 모델이 됐다.

김용일 회장 재임시에는 대학입학 워크숍 뿐만 아니라 한인 언론사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에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본사 방문 기회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권대원(경제학) 동문이 LA타임스 기자로 근무하고 있어 성사됐다.

이외에도 이벨극장에서 열린 제 1회 남가주총동창회 주최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1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지원, 감동을 선사했다.



2024년 1월 LA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동문회.

대학원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 ▲ 초대: 차종환(대학원 60)
- ▲ 2대: 이의덕(신문대학원 69)
- ▲ 3대: 서성인(행정대학원 65)
- ▲ 4대: 최태호(보건대학원 65)
- ▲ 5대: 김용일(보건대학원 69)
- ▲ 6대: 최종혁(경영대학원 70)
- ▲ 7대: 독고량(공대 대학원 84)
- ▲ 8대: 김만용(치의학대학원 83)
- ▲ 9대: 독고량(공대 대학원 84)
- ▲ 10대: 정 신(보건대학원 94)
- ▲ 11대: 윤수현(환경대학원 86)



독고량(왼쪽) 전 회장이 최종혁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만용(오른쪽)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독고량 동문.

최종혁 회장은 처음으로 동문소식지를 발행했다. 동문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동문회 정관을 재정비했다.

특히 최 동문은 말수회(매달 마지막 수요일 열리는 골프 모임) 초대 회장을 맡아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그동안 총무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정용근 동문이 유럽 여행중에 2005년 7월 7일 타계했다는 비보가 전해져 동문들을 안타깝게 했다.

독고량(공대 대학원 84) 회장은 젊은 세대의 동문들을 영입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는 한편 회원 자격 규정을 정비했다. 회원가입시 대학원학위 과정 증빙을 의무화했다. 독고 회장은 남가주 총동창회의 '관악골 이장선거' 연극 공연에 쓰일 소품 가발 10여 벌을 기증



채규황(왼쪽) 차기 총동창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신영구, 권기상, 윤수현 대학원 동문들.

하기도 했다.

김만용(치의학대학원 83) 회장은 동문회 개최일의 정례화와 동문소식 정기 이메일 발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모임의 활성화를 기했다. 윤홍원(환경대학원) 동문이 총무로 김만용 회장을 도왔다.

정신(보건대학원 94)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모임이 어려워져 온라인 미팅 기반을 구축해 회원들과 적극 소통했다.

운영위원장 및 자문기구를 설치해 동문회 활성화에 진력했다.

오경식(행정대학원) 동문이 부회장으로 정신 회장을 보좌했다.

현 회장은 윤수현(환경대학원 86) 동문으로 오경식 동문이 부회장을 맡았다.

글: 정신(보건대학원 9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홍 훈 정** (70)
 부회장 **김 양 희** (77)
 김 미 자 (81)
 회 계 **김 혜 림** (73)
 감 사 **유 재 각** (72)
 박 혜 란 (7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창회

50TH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제4장

50년의 발자취

서울대 미주센터 개소식
 서울대학병원 LA 사무소 개설
 김지하 시인 LA 방문
 아이티 대지진 성금
 오바마 대통령 방문
 김문수의 날 선포
 커뮤니티 서비스
 가족 요리 경연대회
 라구나 우즈 동문회
 이음장학생 및 음악회
 금난새 초청 신년음악회
 동문가족 캠핑
 원로선배 초청 오찬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
 송년대잔치
 데이브 민 하원의원 당선
 양민 가정의 비극



“코리아타운에 서울대 캠퍼스 생긴다” 미주센터 개소식에 한인사회 ‘흥분’

지난 2009년 5월 14일 문을 연 서울대 미주센터(월셔+세라노)는 남가주 동문들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미주센터는 서울대의 국제교류 강화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설립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대 분교가 될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한인사회에 흥분을 안겼다.

이장무 당시 총장은 인삿말에서 “서울대는 세계 각국의 대학과 학점교류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세계화의 선두에 있다”며 “서울대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CEO를 배출한 대학순위로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인 평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제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수록, 해외 거점의 필요성이 한층 절실해지며, 교육과 연구의 국제 협력, 교수와 학생의 국제교류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미주센터가 서울대와 우리나라를 국제화시키고, 국제사회에 우리를 알리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중심지가 되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국제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는 드넓은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UCLA 존 던컨 교수 등의 특강에 이

어 이상익 설립단장(국어국문학과 교수) 경과보고, 축사, 리셉션 등이 진행되었다.

던컨 교수는 “미국에는 많은 분교가 있지만 국립대 차원에서 분교를 시도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라며 “서울대 미주센터가 한국대학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소식에는 스칼렛 엄 LA 한인회장, 명원식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차종환 LA 평통회장 등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 서울대 분교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미주센터는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와 사무실 2개를 갖추고 첫 걸음을 디뎠다.

초대 소장에 이상익 교수, 사무국장으로 김인중(농생대 74) 동문을 임명하는 등 체제를 갖춘

미주센터는 이외에도 자문위원에 김지영(사대 69) 변호사, 강신용(사대 72) CPA, 이경희(인문대 85) 변호사 등 동문들이 위촉됐다. 스티브 강 UC 머시드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미주센터의 강좌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서울대 교수들이 전공분야별로 참여해 무료로 일반에 공개됐다.

첫 해에는 ▲이상익 교수의 ‘한글의 비밀 및 로마자 표기’ ▲최성재(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노후 복지



서울대 미주센터 개소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는 동창회 임원들과 한인 사회 인사들, 대학관계자들.

다양한 교양강좌, ‘월셔가의 문화 살롱’ 굳혀 예산 확보에 어려움, 미주재단으로 재편돼

론’ ▲이옥연(외교학과) 교수의 ‘미국정책 결정과정의 이해’ ▲문중양(국사학과) 교수의 ‘한국의 기술문화’ ▲데이비스 김(UCLA 지리학과) 교수의 ‘독도 문제의 전망’ 등이 인기를 끌었다.

미주센터의 교양강좌에 개근을 하다시피한 동문은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이상익 소장으로부터 가장 출석을 많이 하고 열정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서 동문은 “상은 국민학교 때 개근상 이후 50년만에 처음”이라며 “상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익살을 떨어 좌중을 웃겼다.

서 동문은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아카데미한 학구열을 다시 불러 일으켜준 아크로폴리스 타임스에 돌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매달 300 달러씩 아크로 발전 기금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장무(왼쪽) 총장이 김지영 남가주 총동창회장에게 총장 상을 전달하고 있다.

서 동문은 현장에 참석한 아크로 편집팀과 운영 관계자에게 “아크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열매”라면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돕겠다”고 다짐했다.



미주센터에서 열린 이상익 교수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문들.

미주센터는 이처럼 ‘월셔가의 문화살롱’으로 자리를 굳혔다.

2대 소장으로 부임한 장정주(경영대) 교수는 최고 경영자과정 등을 개설해 커뮤니티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미주센터는 외국인 특별전형입학 설명회도 개최해 미주지역 우수 한인 2세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교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총 14명의 미주지역 고교생이 서울대 학부과정에 입학했다. 위트니 하이스쿨, 서니힐스, 다이아몬드바, 글렌데일 등 명문고교 출신이 많았다.

미주센터는 당초 서울대 분교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활동이 중단됐다.

현재는 서울대 발전기금의 미주재단으로 기능이 재편됐다.

서울대 병원 LA 한인타운에 사무소 개설 5천명에 건강검진... 사업성 떨어져 철수

미주 지역 동포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이 2008년 11월 20일 LA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서울대병원은 미주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병원 및 강남센터와 연계해 건강검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예약,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LA 한인 타운 중심지역인 윌셔 블러바드에 LA사무소를 오픈했다.

개소식에는 정상철 서울대병원장,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장,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김지영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LA사무소는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동포를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강남센터에 의뢰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다. 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서울대병원 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현지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었던 것.



서울대 대학병원 LA 사무소장 박순결(간호대 94) 동문.

건강검진은 LA사무소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고객의 연령, 과거 병력,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내 체류 일정에 따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과



SL 재단과 서울대병원 리더들이 LA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 담당했다.

서울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LA 사무소 개소 기념 ‘한국 의료의 세계화 비전을 위한 건강심포지엄’을 LA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한인, 현지 개원의사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노현 기획조정실장이 ‘서울대병원의 의료역량과 LA사무소의 역할’, 조상현 강남센터 부원장이 ‘99 88 건강 프로젝트’,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첨단의료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LA 사무소는 ‘천사의 도시’인 LA 진출을 기념해 선착순 ‘1004’명에 한해 30% 할인행사를 펼치는 등의 육적인 프로그램을 내놨다. 서울대 병원은 LA에 이어 2012년에는 뉴욕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다.

LA 오피스는 개소 이래 5천여 명에 건강검진을 제공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사무소를 폐쇄, 파견인력을 철수했다.

“반동분자 김지하 올시다” ‘오적’ 시인 김지하 LA 작가의 집 강연



작가의 집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지하 시인. 부인 김영주 여사와 작가의 집 김문희 시인(오른쪽).

유신시대의 대표적 ‘저항 시인’ 김지하(문리대 59) 동문이 지난 2013년 4월 14일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상찬, 문리대 65) 초청으로 LA 작가의 집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150여 명의 동문 및 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김 동문은 대뜸 첫 마디부터 “반동분자 김지하올시다”라고 일갈해 좌중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어 김 동문은 미국과 한국 등 동서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동문은 특히 조선말기인 1880년대 충청도의 역학자가 주창한 정역(正易)에 나오는 간태합덕(艮兌合德)에 의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역설해 관심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간(艮)은 산(山)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을 나타내고 있다. 태(兌)는 연못, 즉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과 물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같은 운명체라는 사

실이 1880년대 그 까마득한 시절부터 내려온 사실이라고 했다.

김 동문은 이같은 한미관계를 설명하는 와중에도 간간히 그간 자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비평에도 날카롭게 대응해 나갔다. 특히 일부 계층에서 자신을 반동분자라고 일컫는데 대해서는 “나를 반동분자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반동분자”라고 거침없이 규정했다.

김지하의 본명은 김영일이다. 전남 목포 출생으로 문리대 미학과를 나와 1970년대 유신시대 옥고를 치른 대표적 저항시인이다.

1980년부터는 동서양의 철학과 한국의 전통사상을 아우르는 ‘생명사상’을 제창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등이 있고 회고록 ‘흰그늘의 길’과 ‘김지하 사상전집’을 비롯한 35권의 저서가 있다. LA 강연회에는 부인 김영주(소설가 박경리의 딸, 토지문화관 관장) 여사가 동행했다.

김 동문은 지난 2022년 5월 8일 별세했다.

아이티 대지진 참사 성금 아크로와 총동창회 1만 달러 전달



김은중(오른쪽) 회장과 김성수
사업국장.

지난 2010년 1월 13일 사상 최악의 지진 재난을 당한 아이티 돕기 캠페인에 남가주 동문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아크로’를 통해 한끼 절식을 통한 아이티 돕기 운동을 펼친 동문들은 십시일반 온정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총동창회에서도 매칭펀드를 조성해 1만 달러를 모아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양대 신문에 전달했다. 동문들은 아크로를 통해 1천683

달러를 기탁했다. 아크로 운영진이 이에 1천 달러를 매칭해 모두 2천683달러를 아이티 지원기금으로 총동창회에 기탁했다.

총동창회는 이에 매칭 펀드와 신년총회 현장에서 취합한 성금 등을 합쳐 모두 1만 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아크로 성금으로 모아서 기탁했다. 동창회를 대표해 중앙·한국 두 신문에 성금을 전달한 김은중 회장은 “동문들이 이같은 뜻 깊은 일에 동참함으로써 모범적인 동창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선양하게 됐다”며 동문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금은 각각 국제적십자사와 월드비전으로 전해져 사상 최악의 지진참사 중 한 곳으로 기록된 아이티의 재건에 쓰여졌다. 아이티를 덮친 지진은 규모 7.0으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박원득·이원영 동문 기자 오바마 대통령과 LA에서 깜짝 회동



오바마 대통령과 깜짝 회동한 박원득(왼쪽), 이원영 중앙일보 동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깜짝 회동한 동문이 화제다. 지난 2011년 5월 LA 한인타운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예고없이 중앙일보사를 찾았다. 소수계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신문을 치하

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일보 편집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시니어 기자들과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 이원영(사회대 81)·박원득(농생대 81) 두 동문과 즉석 기념촬영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이 글만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너무 미남이다. 한국인들이 잘 생겼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며 한국(인) 예찬론을 쏟아냈다.

오바마를 만난 이원영 동문은 “이왕 한인타운을 방문했으니 족발에 소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으나 오바마는 “족발은 물론이고 닭똥집도 너무 먹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수행 중이어서 곤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할테니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글렌데일 시장 ‘김문수의 날’ 선포 경기도지사 시절, “뜻밖이다” 감사

글렌데일시가 지난 2010년 9월 30일을 ‘김문수의 날’로 선포해 화제가 됐다.

김 동문(상대 70)은 경기도지사 시절 글렌데일-김포 자매도시 결연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아라 라자리안 글렌데일 시장은 “9월 30일을 ‘김문수의 날’로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김 동문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김 동문은 “뜻밖이다. 글렌데일시의 환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김포-글렌데일은 물론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의 경제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동문은 드림웍스를 방문해 경기도의

영화산업 발전 등을 모색했다.



김문수(왼쪽)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0년 9월 30일 아라 라자리안 글렌데일 시장으로부터 ‘김문수의 날’ 선포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활동에 '구슬땀' 의료·세금·애완견·접종... 대통령상 받아

대학 동창회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주요 연례사업으로 시행해 LA 한인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첫 커뮤니티 서비스는 지난 2008년 11월 LA 한인타운내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동창회 소속의 변호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공인회계사 등이 참가해 무료 서비스를 펼쳤다. 홍보가 부족한 탓에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 그쳤지만 첫 행사치고는 성공작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2회 때는 날짜를 9월로 앞당겨 실시해 동양선교교회 행사장은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다.



허리 건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형기 통증 전문의.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린 제 3회 행사에는 독감예방접종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전문직 동문들도 40명이 넘어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컸다.

한인 동포들은 건강상담부터 법률, 회계상담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제공받았으며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병원 LA사무소 직원들도 나와 대학병원 건강검진 방법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이같은 활발한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인정받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제 5회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는 2012년 10월 13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도 많은 동문들이 주말 한나절을 기꺼이 시간을 내어 개인상담, 특별강연, 예방주사 접종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대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5회째를 끝으로 종료됐다.

서치원(공대 69) 당시 총동창회장은 '오바마 케어'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등 의료 환경의 변화로 서울대 커뮤니티 서비스가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커뮤니티 서비스는 그동안 2,000여 한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 서울대가 한인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12년 10월 13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제 5회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



1 약대 동문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진성 전 약대 회장.



2 재정설계와 학자금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강신용 CPA.
3 이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경희 변호사.
4 미국 법률강의를 맡은 이종건 변호사.



5 이상대 발전문제가 개인상담을 하고 있다.

동문가족 사랑의 요리 경연대회 “올해 ‘남가주 대장금’은 누구?”

관악연대가 주관한 요리 경연 콘테스트는 2010년 10월 24일 부에나 파크의 랩프 클락 공원에서 첫 대회를 치렀다. 즉석에서 6인분 정도의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부스터와 냄비, 그리고 재료를 갖고와 요리가 완성되면 심사위원들의 엄선을 거쳐 시상했다. 정식 명칭은 ‘동문들과 사랑의 요리 나누기.’ 그래서 부부 참가를 원칙으로 했다. 다음은 제 3회 요리경연대회를 재구성한 것이다. - 편집자.



20여 팀이 출전한 동문가족 요리 대회. 이날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언제,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요리는 더 더욱 아닙니다.” (김성수, 사회대 80)

“남편이 동참하지 않는 요리는 감점입니다.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장·차재운 농생대 83)

지난 2011년 7월 23일 제 3회 ‘남가주 동문가족 요리 경연대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의 동문가족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는 17개 팀으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동문 가족들과 심사위원

및 참관 동문들을 합치면 이날 무려 120여 명이나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남가주 관악연대 이상대(농생대 80) 연대장은 “참가 동문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요리 경연대회는 동문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요리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심사기준은 독창성과 맛, 차림새와 영양 등의 관점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최종 집계해 결정됐다.

심사위원은 한종철(치대 62)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서 서치원(공대 69), 김지영(사대 69), 제영혜



요리를 하는 순간은 오직 몰아의 경지.



지종근 동문의 브라질리언 바베큐.



대상에 빛나는 이현림 동문의 강렬한 요리 포스.

(가정대 70), 서정화(음대 80), 유성숙(사대 80) 동문 등이다.

이날 정세욱(자연대 92) 동문은 참가자 중 가장 젊은 동문으로 부인 카렌 정 여사는 “동문들이 우리를 ‘애기’로 부른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상도 출신의 한 동문은 “애기는 무슨, ‘아그야지’라고 말해 한바탕 폭소를 자아냈다.

정 동문은 동치미 국수와 동그랑땡을 준비했는데 메뉴만으로는 주변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다. 20명 분의 국수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던 것.

게다가 국수에 넣어주려고 준비했던 삶은 달걀이 중간에 통째로 없어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정 동문은 이같은 인기로 힘입어 3등에 입상했다. 한편 부인 박혜옥(간호대 69) 동문과 함께 출전한 백정현(음대 66) 동문은 이날 참가자 중 최고참으로 기록됐다. 이 바람에 역시 경상도 출신의 한 동문으로부터는 “대회에 ‘아그야’도 왔고 ‘아제’도 왔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백정현 동문은 ‘crabmeat on baguette’, 부인은 ‘spicy beef salad’로 서로 다른 요리를 출품해 이색



김은중 회장 부부의 몰입 표정.

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백 동문은 “올해 처음 참가했는데 마치 동문들을 위한 잔치날 같아 기분이 만점이다. 앞으로 매년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인 박 동문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경연대회 입상보다는 내가 한 요리를 동문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번외로 참가한 김은중 총동창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인 윤혜섭 여사와 함께 직접 조리에서 동문들을 위해 멋진 막걸리 안주(?)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된장찌개와 일품요리’를 선보인 이현림 동문이 만든 요

리는 모든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사 영예의 1등을 차지, 올해의 ‘남가주 대장금’이 됐다. 이날 시상식은 이병철(공대 81)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 ▲1등: 이현림(된장찌개와 일품요리)
- ▲2등: 송정우(수제비 메기 매운탕)
- ▲3등: 정세욱(동치미 국수와 동그랑땡)
- ▲4등: 김성수(건강 삼색 요리)
- ▲5등: 석호태(냉우동 샐러드)
- ▲6등: 최용준(차돌구이와 강된장)
- ▲7등: 이병철(타코).

라구나 우즈 동문회 120명 대가족 분위기 50~69학번까지 ... 의대 출신이 가장 많아

“미국 어딜 가도 우리 같은 동문회는 없을 겁니다. 동문들이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가족이라고 할까요.”

대가족의 대표는 송만식(공대 69) 동문. 라구나 우즈(Laguna Woods) 서울대 동문회 회장이다.

라구나 우즈는 LA에서 남쪽으로 50여 마일 가량 떨어진 은퇴마을이다. 입주자격을 55+.

이곳에 서울대 동문회가 발족된 것은 지난 2009년. 조순승(문리대 49)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돼 두 차례 연임을 했다.

현재 회원으로 공식 등록된 동문은 116명. 송 회장에 따르면 최근 이사해 와서 아직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문들을 포함하면 120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송 회장은 라구나 우즈에 동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날씨를 꼽는다. 겨울이 없고 여름엔 건조해 시니어들에게 최적화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도심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은 풍광이 좋아 마치 매일을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산자락을 끼고 있으면서도 바다가 지척이다. 자동



라구나 우즈 서울대 동문기.

차로 불과 10분쯤 거리에 라구나 비치, 뉴포트 비치, 코로나 델마 등 태평양이 한 눈에 펼쳐진다.

레저시설 또한 라구나 우즈에 시니어들이 몰리는 이유다. 골프장도 18홀 짜리와 9홀짜리 등 두 개나 된다. 집집마다 골프 카트 한대씩은 갖고 있다. 카트가 단지내 교통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다.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도 5개다. 이외에도 테니스, 볼링, 탁구 등 스포츠 시설이 곳곳에 있어 연중무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뛰니 뛰니해도 시니어들에겐 세이프티, 곧 안전이 최우선 관심사다. 마을 여러 곳에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경비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어 문 열고 살아가도 될 만큼 안전이 확보돼 있다.

단과대 별로는 의대 출신이 3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대 20명, 문리대와 사대가 각각 13명, 약대 7명, 법대와 음대가 각각 6명, 미대 5명, 치대와 상대 각각 3명, 농대 1명, 간호대 1명 등이다.

동문들의 학번 분포도를 보면 1959년 입학 동문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58학번과 60학번은 각각 1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하와이 훌라춤을 연기하며 흥겨운 시간을 갖고 있는 라구나 우즈 동문회 송년모임.



지난 2024년 7월 6일 열린 모임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최고령은 고석원(문리대 50) 동문. 최연소는 송 회장의 동기생들이 69학번으로 3명이 회원 명단에 올라 있다.

라구나 우즈는 은퇴마을이지만 20년 전 시로 승격돼 어엿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 5명을 투표로 뽑는다.



동문회 모임에서 라인댄스를 즐기고 있는 장면.

인구는 거의 모두 시니어들이다. 지난 2020년 센서스에 따르면 1만8,000명에 이른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0%로 압도적이다. 이어 한인을 포함한 동양계가 23%를 차지한다.

동문들은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여흥을 즐

기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한때 모임이 중단됐었다. 2022년부터는 연 2차례 모인다.

“동문들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 아닙니까. 만날 수가 없어 모두들 아쉬워했지요.”

송 회장은 그래도 전화와 줌 화상 모임을 갖는 등 비대면 접촉을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입은 동문들이 없어 다행이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라구나 우즈 입주민들은 중산층에 속한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집을 용자없이 일시불로 구입해야 한다. 관리비(HOA)는 콘도 기준으로 한달 800달러 가량. 소득도 연 4만 달러가 넘어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등 까다롭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HOA가 그리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아주싼 값에 매일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 회장은 라구나 우즈에 들어와서 골프 실력이 크게 늘었다고 자랑했다.



동문회 피크닉을 알리는 안내장.

라구나 우즈 동문들은 2024년 6월 모임을 대면행사로 치렀다. 송년모임도 갖는다.

“동문 가족이 모두 모이는 축제나 다름없어요. 요즘 모임 준비하느라 임원진 모두 눈코 뜰새 없이 바빠요.”

송 회장은 몸은 힘들어도 동문들이 모두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엔돌핀이 펄펄 솟아나는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서울대 '이음 장학생' 13명 남가주 방문 형편 어려운 후배들 초청, 3주 일정으로 미국체험



이음장학생들의 LA 방문을 맞아 열린 환영 파티.

이음 장학생 13명이 처음으로 LA를 찾았다. 지난 2022년 6월말 약 3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들은 동문 가정에서 숙박하며 남가주 일원의 연구소와 관광명소 등을 방문, 견문을 넓혔다.

이음 장학생은 서울대 발전기금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상 해외 경험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미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역량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취지다.

한귀희(미대 68,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동문이 소유한 S-Village에서 열린 환영파티에는 박제환(문리대 75)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최용준(수의대 81) 전 총동창회장 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미국을 처음 찾은 후배들을 격려했다.

바베큐 파티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선후배간 격의없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치원 회장은 이음장학생들을 자신의 애로헤드 별장에 초청, 격려했다.

한 전 회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단지내 6유닛을 제공해 학생들이 머무는 동안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게 했다.

이외에도 강호석(경영대) 동문이 4명의 학생을, 독고량(대학원)·서정화(음대) 부부, 김인종(농생대) 동문이 각각 2명의 학생들에게 동문가정 숙박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음학생들은 “동문 가정 방문과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배려를 통해 걸로 아는 미국이 아닌 이민자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며 “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선배님들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근 웨스트레이크에서 펼쳐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참관, “마치 구름 위에서 보는 것 같아 환상적이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학생들을레이크 애로헤드의 본인 별장으로 초대해 1박2일의 새로운 경험을 안겨줬다.

서 전 회장은 한국에서 엔지니어의 삶, 그리고 미국에서 겪은 애환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며 후배들에게 인생에서 겪을 고생을 두려워말라고 당부했다.

LA를 방문한 이음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손평아(경영학), 이소희(미대), 임유빈(미대), 김예린(지구과학교육), 박용주(교육), 민여은(정치외교학), 채예원(정치외교학), 안수혁(지리학), 박진학(수의학), 이동건(의예), 김도연(노어노문학), 김서경(서어서문학), 윤지인(인문계열), 한지우(중어중문학).

“60년 전 나의 처지와 오버랩돼” 이음 장학금 쾌척 노명호 회장

노명호 전 동창회장은 ‘이음’의 뜻을 알고는 가슴 한켠이 찡해졌다고 털어놨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다는 설명에 주저하지 않고 1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 돈이 더 많은 ‘이음’으로 이어져 젊은 서울대 후배 동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다.

이음 장학금은 모교 재학생들의 국제역량 강화와 해외 동문들과의 교류 확대가 취지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돼 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직 미국을 와보지 못한 재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프로그램이다.

노 회장 역시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힘들게 학업을 마쳤다. 대학 입학식날부터 졸업식날까지 내리 4년을 가정교사를 해가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다.



노명호(공대 61, 오른쪽)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유홍림 총장.

이번 LA를 방문한 이음 학생들을 만나 보고 나니 문득 60년 전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돼 동병상련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한편으로 이음 학생들의 생각이 바르고 긍정적이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모두 글로벌 인재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음 장학생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되갚는(pay back) 대신 훗날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른바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의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서울대 커뮤니티를 하나로 엮어주는 구심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노 회장은 서울대 발전기금에 약정한 50만 달러를 지난해 완납했다.

이음 음악회에 800여 관객 몰려 ‘포르테 디 콰트로’ 출연, 팬들 환호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와 본국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주최하고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후원하는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가 지난 2022년 7월 26일 800여 청중의 환호가운데 성료됐다. 미주 평의회 일정을 마친 다음날 개최된 음악회에는 일부 평의원들도 참석했다.

음악회에는 특별히 본국에서 초청된 ‘포르테 디 콰트로’의 듀엣 김현수(성악 05), 손태진(성악 08)의 크로스오버 성악곡에 관중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 ‘넬라 판타지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아다지오’ 등 6곡에 이어서 앵콜곡 ‘향수’에 이르러서는 관중들의 감동 속에 오랜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1부에는 플룻 최혜성, 하프 윤희진의 합주 그리고 바이올린 박민정, 유키모리, 첼로 김원선, 비올라 조나단 위, 피아노 홍국희의 현란한 합주로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음음악회는 서울대 재학생을 선발해 미국 방문을 통한 견문과 경험을 늘려 국제적 인재를 키운다는 장학프로그램으로 여건상 미국방문이 어려웠던 학생



‘포르테 디 콰트로’의 열창. 이날 김현수, 손태진 두 서울대 동문이 출연, ‘넬라 판타지아’ 등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들려줬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지난 2017년 JTBC의 팬텀싱어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스타덤에 올랐다.

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대는 이음음악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문들은 물론 남가주 동포들도 함께 연결되고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의미로 동문, 비동문 등 일반에게도 무료 초대권으로 행사를 오픈했다.

박제환 남가주 회장은 인사글을 통해 서울대 동문과 남가주 동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같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주 평의회와 음악회 참석을 위해 LA를 방문한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학교의 국민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위해 남가주 동문은 물론 동포 여러분들께도 서울대학교의 감사를 담아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음악회를 기획

했다”며 “남가주 동포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관중은 동문과 비동문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참석해 일반에게 오픈된 동문음악회의 취지가 반영됐고, 관중석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려온 포르테 디 콰트로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성원하기도 했다.

이음 한 소절, LA 한 움큼



김도연
인문대 21

과거의 나는 ‘자유’가 텅 비어있는 스케치북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SNU 이음장학금’ 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는 경험이 부족하면 빈 스케치북에 상상력을 펼칠 소재조차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만날 때 비로소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그려 나갈 수 있다. LA에서 내가 밝은 곳들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의 스케치북을 채워줬다.

‘힙’한 상점이 많기로 유명한 멜로즈 거리에서 처음 들어간 옷가게의 점원은 LA 사람답게 스몰 토크 (small talk)를 걸었다.

패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원래 이렇게 짧은 옷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더워서(I’m hot)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 말대로 정말 핫하네요!”(You are hot!)하고 받아치자 엄청나게 웃었다. 그때의 그 유쾌한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히 느껴진다.

LA의 상점을 구경할 때면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옷에 맞춰 몸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LA의 의류점에서는 다양한 체형을 위한 광범위한 치수의 옷이 준비돼 있고, 자기 사이즈를 찾을 수 있도록 점원이 세심하게 도와준다.

옷뿐만 아니라 LA의 거리를 걷다보면 “LA IS FOR

EVERYONE” 문구의 벽보를 스타벅스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권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일상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인지 LA에서만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돼 핑크말기 무늬 바지나 형형색색 패치워크된 핸드 메이드 크롭탑처럼 내 개성을 담은 옷을 마음껏 즐겨 입을 수 있었다.

LA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루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감상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대중교통이 끊긴 밤 10시에 핸드폰 데이터는 안되고 배터리는 3% 남은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고목 생화(枯木生花)라 하지 않던가. 나의 백마탄 기사님은 ‘인싸’ 우버 기사님의 형태로 나를 구원하러 왔다.

속소로 못돌아갈 뻔했다는 생각으로 간이 룻알만해진 나에게 우버 기사님은 설새없이 밝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말을 걸어왔다.

대학교를 가게된 이유처럼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질문들과 “너처럼 긍정적이고 멋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우버를 하게 됐다”라며 능청스레 건네주는 칭찬, 그리고 내가 말하는 족족 빵뻥터져 알 수 없는 웃음 포인트는 최고의 우버 경험을 선사해줬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서울대 선배님들을 뵈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며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됐다. 여유를 갖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을 가지라는 진심어린 조언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내 열정에 불을 지피었다.

내 스케치북의 한 장 한 장을 다채롭게 채워준 SNU 이음장학금 프로그램을 가능케한 모든 분께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마에스트로’ 금난새 초청 신년 음악회 UC 어바인 바클레이 시어터에서 개최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관한 첫 신년음악회가 2024년 1월 7일, UC 어바인 캠퍼스에 있는 Barclay Theatre에서 열렸다. 이날 지휘는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66) 동문. 지구촌 전쟁난민을 돕기 위한 나눔음악회가 이날 콘서트의 취지였다.

한국서 연평균 120회의 공연을 갖는다는 금난새 지휘자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남가주 동문들을 찾았다.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코리아-IA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금 동문은 음악을 말로 표현해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독특한 기술을 가진 마술사.

750석을 꽉 채운 비교적 큰 무대였지만 마치 내집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것같은 정겨움과 편안함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공연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과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금 동문의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음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간 중간 재치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클래식에 문외한이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 한시도 눈을 떼 수 없게 만드는 매직을 연출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편안한 공연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



지난 2025년 1월 5일 UC 어바인 바클레이 시어터에서 열린 제 2회 신년 음악회.



금난새(왼쪽) 동문과 노은아 교수.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중 하나는 하모니카 연주. 이윤석(음대 11) 동문은 무디의 스페인 환상곡 ‘톨레도’를 하모니카로 연주해 동문 관객들을 흠뻑 매료시켰다.

앵콜이 쏟아지자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의 OTS ‘문리버’를 선사,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곡과 출신인 이윤석 동문은 노르웨이에 유학, 세계적인 하모니카 대가인 지그문트 그로분을 사사해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영화음악을 연주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 김기경(서울대 음악박사) 피아니스트는 절대음감의 소유자다. 관중석으로부터 음을 듣고는 이를 즉석에서 피아노 건반으로 옮겨 찬탄을 자아냈다.

지익환(음대 08) 동문의 ‘탱고 앤 스카이’ 연주는 클래식 기타의 진수를 보여줘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닥터 지바고’와 ‘러브 스토리’ 등

750석 가득 메워, 전쟁 난민돕기 나눔 행사 UCI 총장 초청 노은아 교수의 해금 연주 압권

신청곡을 받아 관중들의 흥을 돋우었다. 객석과 주거리 받거리 하면서 청중과 소통, 클래식의 고정관념을 깨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 무대는 김기경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부른 ‘나의 살던 고향.’ 750여 동문 가족이 한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이민자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다.

행사를 주관한 김경무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이처럼 많은 동문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신년 음악회는 첫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창회 임원진의 헌신 덕분에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실무 총괄한 이호진(간호대 74) 동문을 비롯해 이종모(간호대 69), 안혜정(생과대 77), 이안순(간호대 78), 이상호(사대 80) 동문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UC어바인 바클레이 시어터를 가득 메운 동문 가족들.

제 2회 신년음악회는 2025년 1월 5일 UC 어바인 바클레이 시어터에서 역시 금난새 동문의 지휘로 성대하게 열렸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UCI 총장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서울대 음대 국악과 교수인 노은아 박사가 해금을 연주해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신년음악회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은 동문들이 금난새 지휘자와 기념촬영을 했다.



신년음악회 관람에 앞서 접수데스크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있는 동문들.

“온가족이 행복했던 동문 가족 캠핑” 비숍·멤머스 레이크 ... 2박3일의 ‘별빛’ 소통 하이킹·낚시·장기자랑 등 이벤트, 청춘으로 되돌아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수다 떨고...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문가족 캠핑은 2009년 빅베어에서 처음 열렸다. 일정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빅베어 랫지에서 약 80여 명의 동문가족들이 참가했다.

낮에는 세 코스로 나눠 등산을 했다. 산행 마니아들은 왕복 24마일에 이르는 난 코스를 무사히 끝내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저력을 과시했다. 새벽 6시 출발해 저녁 6시에 돌아오는 12시간의 살인적인 강행군이었지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무사귀환한 것.

밤에는 장작불이 타는 커뮤니티 홀에 모여 기타치고, 마시고, 노래하고, 시낭송도 곁들이면서 황홀한 밤을 보냈다. 동문들은 나이를 잊고 청춘으로 돌아가 사랑과 우정을 말하고 삶의 맛을 나눴다.

마침 추석과 겹쳐 둥근달은 빅베어 삼림을 교묘하게 비춰주며 동문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는 듯 했다.



하이킹을 앞두고 단체 촬영. 한명의 낙오자 없이 험한 트레일을 뚫다.

참가인원이 많아서 식사 숙소 산행 등등 챙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김창신(사회대 75) 사업국장과 최용준(수의대 81) 총무국장 등 집행부의 헌신적인 봉사로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010년부터는 캠핑 스케줄을 9월 첫째 주 노동절 연휴로 잡았다. 장소도 비숍, 멤머스 레이크로 옮겨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시에라의 유명 관광지에서의 가족캠핑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촌을 엄습하기 전까지 총동창회의 연례



전임 회장단이 커플로 모였다. 오홍조, 김영, 김상찬, 김건진 회장 부부.



출정 앞둔 서울대 철벽지들. 일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잔차 퍼레이드를 벌였다.



캠프파이어의 백미. 마시멜로우 스틱들과 싱얼롱.

행사로 자리잡았다.

캠핑 장소는 세코이아 팍, 킹스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동쪽인 이스턴 시에라. 가까이에는 멤머스 스키장, 호수, 광대한 사막이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이킹은 물론 송어낚시, 암벽등반, 산악자전거, 유항 온천욕 등을 즐겼다.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는 각 단과대학이 준비한 바베큐 식사와 함께 캠프파이어로 한층 분위기를 돋우며 쏟아지는 밤 하늘의 별빛들을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직접 운전하기 힘들거나 대중교통편이 필요한 동문들을 위해 대형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캠핑분위기에 익숙지 않은 동문들을 위해 캠핑장과 가까운 지역에 모텔을 단체로 예약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도 했다.

2015년 멤머스 레이크에서 열린 가족 캠핑에는 무려 200여 명이나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낚시팀은 박정모(문리대 66) 동문의 인솔로 레이크 조지에서 새벽 낚시를 즐겼다.

42명이 참가한 하이킹에는 김동근(공대 60) 산악대장의 인솔로 10마일 코스의 험한 트레일을 오르내리



하기환(공대 66) 동문의 제기차기 묘기. 거의 신기(?)에 가까웠다는 중론.

지 대원들은 내친김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7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LA로 돌아오는 모험을 즐겼다.

손녀와 함께 처음 참가한 하기환(공대 66) 동문은 제기차기 묘기를 선보여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2016년에도 노동절 연휴를 맞아 16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멤머스 레이크를 찾았다.

하이킹과 낚시, 관광, 게임, 경품 등 2박3일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

“처음에는 야외에서의 캠핑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앞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숲과 호수는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야외에서 동문들과 함께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홍선례(음대 70) 동문의 코멘트에 많은 동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행복했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며...



강신용 동문의 통돼지 구이. 이날 캠핑의 하이라이트였다.

원로선배 초청 오찬 “일년치 웃음을 오늘 하루에 다 웃었다”



2015년 11월 7일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린 제 1회 원로선배 초청의 밤. 200여 동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1회 ‘원로선배 초청 오찬’ 행사(2015년 11월 7일)를 성황리에 치른 박혜옥(간호대 69) 40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선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컥해진다고 했다. 건강도 안좋은데 얼마나 동문들이 그림고 보고 싶었으면 이 행사에 참석했겠느냐는 것이다.

박 회장이 잊지 못하는 그 분은 김영기(약대 41) 선배다.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권(미대 76) 동문의 부친으로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행사는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렸다. 시티 오브 인터스트리에 소재한 이 리조트는 LA인근에서는 풍광이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료가 만만치 않게 비쌌다. 박 회장은 그래도 동창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들을 모시는 만큼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청대상은 70세 이상의 동문들. 첫 행사인데도 200여 선배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날 참석한 원로는 김영철(상대 44) 동문을 비롯해 정형조(공대 45), 정참모(상대 45), 이송희(간호대 47) 동문 등이었다. 특히 이송희 동문은 서울에서 열린 모교 69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



원로선배 초청 오찬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코믹 단막극 ‘최진사댁 셋째 딸’은 압권 ‘진나빛’ 악단 공연도 두고두고 못잊어



최용준 회장이 원로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인’상을 받아 이날 기쁨이 배가됐다.

홍선례(음대 7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순서는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가야금 산조에 이어 소프라노 서영란(음대 75) 동문이 ‘가고파’를 열창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백정현(음대 66) 동문의 팝송. ‘And I Love You So’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등을 불러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마지막 순서는 ‘싱얼롱’으로 진행됐다. 김인중(농생대 74)·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의 기타 반주로 ‘만남’에 이어 ‘친구여’를 부를 때는 모두 일어나 손에 손을 잡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원로선배 오찬 행사는 2016년 김병연(공대 69), 2017년 성주경(상대 68) 회장 때까지 3년 연속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렸다.

오형원(의대 54) 전 동창회장의 인사말은 동문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됐다. “저는 지금도 활동하며 원로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여기 오니 제가 원로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노년의 개념이 바뀌어 65세도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3고’가 있더라고요. 외롭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이 세가지를 잘 견뎌내고 동문들 모두 웰에이징, 웰빙, 웰다잉 하시기 바랍니다.”

제 4회 행사부터는 장소를 LA 한 인타운으로 옮겨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됐다. 2018년 10월 27일 열린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호텔 그랜드 볼룸을 꽉 채웠다.

강신용(사대 71)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로잔치가 이제는 서울대 동창회의 자랑스런 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선배님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덕담을 했다.



‘진나빛’ 유랑 악극단의 ‘최진사댁 셋째딸’ 공연 장면. 코믹한 연기로 폭소가 터져나오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해냈다.

강 회장은 한효동(공대 58) 공대 회장, 김동근(공대 60) 산악반 대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Jayone



대표 이승훈 (상대 74)

f jayone.food

ig @jayonefoods

yt @Jayonetube



Jayone Foods, Inc.

HQ Office: PARAMOUNT, CA 90723, UNITED STATES

info@jayone.com | jayone.com | Tel: 562-633-7400 | Fax: 562-633-7401

이날 참석한 최원로는 김영기(약대 41), 로영자(의대 48), 이순희(음대 49) 동문으로 최연소 후배인 조용국(사대 92), 임현애(음대 13) 동문이 선물을 증정해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11일 열린 행사는 신나는 공연으로 선배들의 엔돌핀을 팍팍 솟게 만들어 화제가 됐다. 한귀희(미대 68)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2부 순서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6명의 노래경연 대회가 하이라이트.

홍광식(공대 61), 방석훈(농대 55), 제영혜(생과대 71), 김자성(의대 79), 송미선(음대 89) 동문 등이 자용을 겨뤘다. 대상의 영예는 '숨어 우는 바람 소리'를 부른 제영혜 동문이 차지했다.

총동창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진나빛(진리는 나의 빛)' 공연단의 연주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이들 공연단은 6주간의 맹연습 끝에 '홀로 아리랑' '내 나이가 어때서' '아모르 파티' 등의 노래를 현란한 울동을 곁들여 연주,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선 이기준(법대 54)·손수용(수의대 60) 두 전 회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원로초청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한해를 건너 띄었다. 2021년 11월 6일 오찬행사는 200여명의 원로 선배들이 일찌감치 예약을 마쳤다.

최용준(수의대 81) 총동창회장은 "많은 행사 중에



김영기(약대 41) 원로선배는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옆은 딸 김옥권(미대 76) 동문.

서도 원로초청 오찬 모임을 가장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건강이 걱정됐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이날의 압권은 연극 '최진사댁 셋째 딸' 공연. 서울대에 들어간 최진사의 자랑스런 딸 삼순이와 캠퍼스 커플이었던 칠복이가 50년만에 만나게 된다는 코믹 단막극이다.



가곡 '가고파'를 열창하고 있는 소프라노 서영란(음대 75) 동문.

막간에는 '진나빛' 밴드가 '최진사댁 셋째 딸' 'Hey Jude' '넌과 함께' 등을 연주했다. 드림은 악극단 단장이기도한 최용준 회장, 기타 최성록(공대 92), 베이스 채규진(문리대 80), 키보드 유혜연(음대 79) 동문이 맡았다. 원로 선배들은 근래 보기드문 훌륭한 무대였다고 입을 모았다. 오형원 전 회장은 "칠복이와 삼순이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옛 생각이 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비록 단막극이지만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찬사를 던졌다.

이명선(상대 58) 동문은 "반세기 넘게 미국서 살았지만 이렇게 재밌는 행사는 처음"이라며 "특히 최용준 회장의 진행 솜씨와 드림연주, 연기 등은 오래 오래 생각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로들은 "일년치 웃음을 오늘 다 웃은 것 같다"며 동창회 임원진의 열정과 수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할리웃 보울은 윤순재·제영혜 콤비의 작품 김옥경 회장 때 대표적 이벤트로 자리잡아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는 가장 많은 동문들이 모이는 행사다. 2024년 8월 29일 열린 행사엔 320명이나 몰려 역대급 이벤트가 됐다.

할리웃 보울 동문가족 피크닉은 2001년 윤순재(60) 가정대 동창회장 재임때 시작됐다. 아이디어는 제영혜(71)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냈다. 제 동문은 티켓 구입과 판매를, 윤 회장은 집에서 김밥을 맡았다. 첫 행사인데도 100여 동문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할리웃 보울 이벤트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은 김옥경(60) 동문이 가정대 회장이 되고나서부터다. 김 회장을 적극 도운 이는 안혜정(77)·염인숙(78) 두 동문. 안 동문은 애피타이저를, 염 동문은 티켓 담당으로 업무를 분담해 할리웃 보울 피크닉이 남가주 동문 커뮤니티 행사 중 가장 인파가 많이 몰리는 이벤트로 키웠다.

디너는 김밥 또는 도시락을 주문해 제공했다. 여기에 와인을 곁들인 것. 안주가 필요했는데 찜계나 찜 등 한식 메뉴를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애피타이저가 할리웃 보울 행사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잣대

가 됐다.

“처음엔 4가지 정도의 애피타이저를 준비해 갖고 갔는데 금세 동이 나버렸어요.” 안혜정 동문의 회고다. 한때는 36가지 애피타이저를 만든 적도 있었다고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며칠 밤새워가며 만들었다. 이를 보다 못한 조무상(법대 70) 동문이 앞치마를 두르고는 도왔다. 조 동문이 할 일은 애피타이저를 자신의 밴트럭에 싣고 할리웃 보울 현지까지 덜러버리하는 것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해 결국 앞치마를 두르게 된 것이다.

언젠가는 애피타이저를 공연 인터미션 시간에 종이컵에 담아 동문들에 제공,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소문을 듣고는 텍사스, 버지니아 등 동부에서 온 동문들도 있었다. 와인과 애피타이저, 그리고 할리웃 보울의 정취에 취해 ‘원더풀’을 되뇌었다.

한여름밤의 낭만을 할리웃 보울에서 안혜정·염인숙 두 동문은 ‘숨은 일꾼’

규모가 커져 매년 300명 넘게 몰리자 티켓 구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 티켓을 구입하려면 1만 달러의 선금이 필요한데 이미 70~80대에 접어든 가정대 임원진으로서 역부족이었다.

“공연 당일 티켓을 반납하는 동문들도 있었어요. 할 수 없이 티켓 부스에 가서 (직원 몰래) 팔았어요.” 김옥경 동문은 ‘웃고픈’ 에피소드가 적지 않았다고 털어냈다. 선구매한 티켓을 100% 소화하지 못하면 가정대 회장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간호대 주관’이었다. 인원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여유가 있어 간호대를 강력 추천한 것. 그러나 간호대 측이 난색을 표명해 결국 남가주 총동창회가 자체 예산으로 티켓 선구매를하기로 합의, 일단락 됐다.

할리웃 보울 공연 프로그램 선정도 티켓 구입 못지 않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시니어 동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선호하는 곡은 클래식 음악이다. 여기에 불꽃놀이를 추가하다보니 ‘1812년 서곡’ 등 차이코프스키 작품이 선정되는 해가 적지 않았다. 재즈를 비롯



할리웃 보울 행사는 남가주 총동창회의 연례 피크닉으로 자리잡았다.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도 현대음악은 인기가 없어 프로그램 선정에 애를 먹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은 할리웃 보울 역사상 가장 많은 동문들이 몰린 행사다.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2년 연속 LA 필과 협연을 가진 것. 2023년 8월 1일 공연에서는 자신이 밴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LA 팬들에게 선사했다. 이날 서울예고 출신의 성시연씨가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해 더욱 화제가 됐다.

2024년 8월 29일 열린 공연은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LA 필과 협연해 할리웃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동창회는 단체티켓 310매를 예매했는데 각 단과대 카톡방에 공지가 나가자마자 매진, 표를 미처 못구한 동문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티켓 값은 50달러. 공연은 물론 디너와 와인, 애피타이저가 포함된 가격이다. 적자를 예상한 동창회는 디너(비빔밥)를 직접 만들어 경비 절감을 꾀했다.



할리웃 보울의 주역 안혜정(77, 오른쪽)·염인숙(78) 동문.

‘할리웃 보울 동문가족의 밤’ 비빔밥과 애피타이저 직접 만들어 서브

‘사모님’ 일곱분이 간편한 차림으로 패서디나의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장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쯤(2024년 8월 27일). 박인희(간호대 67) 동문을 비롯해 노현숙, 마리아 성, 수잔서, 채선영 등 역대 동창회장의 부인들이시다.

키친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식자재를 보고는 다들 ‘와~’ 그만 낫이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부터 320명 분 음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니 처음엔 엄두를 못냈다. 디너 메뉴는 사전 합의한 대로 비빔밥.

그런데 하루에 끝내기는 무리. 동문들이 드실 음식인데 정성이 빠지면 안될 것 같았는지 안주인이 어렵사리 운을 뚫었다. “아무래도 안되겠네요. 하루 더 수고를 하셔야겠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비빔밥 만드는 공정이 1박2일로 늘어났다. 팔순이 가까운 한 사모님은 새우를 1천 마리 넘게 까 손톱이 별장게 변했다는 후문.

그냥 도시락이나 김밥을 주문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는지... “경비를 절약해야 해요.” 임춘택 회장은 돈도 아끼고 또 재료도 직접 프레시한 것을 사다 쓰니 맛도 좋으며 1석2조가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비빔밥 재료. 320명분을 만들기 위해 하룻밤 꼬박 새웠다.

비슷한 시간대, 아케디아의 안혜정(생과대 77) 동문의 집.

김경무(공대 69)·최정희(간호대 72) 부부, 이호진(간호대 74) 동문, 약대 회장 홍종화 동문의 부인 홍혜경 여사 등 다섯분이 모여 애피타이저를 만들고 있었다.

재료는 모두 안 동문이 트레이더 조에서 주문한 올개닉 푸드. 4~5일 전 미리 재료를 사다 집에 쟁겨나 실내온도를 65도로 낮춰놨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안 동문의 집은 매년 이맘때 즈이면 전

기값이 엄청 나온다. 에어컨을 하루종일 틀다보면 감기 걸리기 십상. 식구들이 푸념을 늘어놓지만 안 동문은 콧등으로 흘려 듣는다.

안 동문은 회사에 3일 휴가를 신청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FDA(연방식품의약청)의 케미스트로 화학박사다.

올해는 ‘나이 탓’인지 손가락을 다쳤다. 부상(?)을 무릅쓰고 애피타이저를 일곱가지나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비빔밥과 애피타이저는 당일 할리웃 보울 피크닉 에어리어에서 동문들을 맞는다. 야외 테이블에는 이상호(사대 80) 총무가 가져온 싱싱한 과일과 동창회가 무제한(?) 공급하는 와

1박2일 밤샘 작업, ‘사랑의 수고’로 풍성 행사위원장, 3일 직장 휴가내 준비에 만전

인으로 금세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다.

올해 ‘할리웃 보울 동문 가족의 밤’에는 320명이나 참석해 ‘역대급’ 규모가 됐다. 피아니스트 임운찬이 LA필과 협연하는 무대여서 평일인데도 전 좌석이 꽉 찼다. 역시 천재는 천재... 임운찬의 급은 남달랐다.

티켓 구매는 행사위원장을 맡은 안혜정 동문 몫이다. 할리웃보울 담당자와 싸움싸움해서 320장을 예매하는데 성공했다.



여러 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비빔밥.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티켓은 1인당 50달러다. 공연관람은 물론 디너와 와인까지 포함해서다. 자칫 적자가 예상되는 가격이어서 이처럼 직접 먹거리를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홍성선(약대 72), 조무상(법대 70) 동문 등 봉사자들이 운반을 도맡아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날 가장 많이 참석한 단과대는 간호대와 공대로 각각 44명, 문리대 43명 등의 순이었다.

할리웃 보울 행사는 지난 2000년 가정대에서 비롯됐다.

가정대 동문끼리 삼삼오오 모여 피크닉과 공연을 즐겼는데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번져 남가주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봉사자님들.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 덕분에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오래 오래 사실 거구요.”

멀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시간 넘게 운전해 왔다는 한 동문이 밝게 웃었다.



잠시 일손을 놓고 기념 촬영. 이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들이 있기에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는 매년 성황을 이룬다.

그 뿐아니다. 파킹장은 원래 오후 5시부터 오픈하는데 서울대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이 역시 관철시켰다.

‘SNUAA’ 사인을 내걸면 4시부터 주차할 수 있게 특별배려를 해줬다. 몇해째 할리웃보울 행사를 치르다 보니 담당자와 친숙한 사이가 됐다는 것.



애피타이저 만들기 삼매경에 빠진 안혜정, 최정희 동문.

송년 대잔치는 한인사회의 ‘넘사벽’ 이벤트 탄탄한 기획과 프로 뺨치는 연기력, 풍자와 재치~

서울대 총동창회 송년 대잔치는 LA 한인사회에서 ‘넘사벽’ 이벤트로 불린다. ‘넘’볼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다. 어느 단체건 흥내조차 낼 수 없다고 해서 다. 잘 짜여진 기획, 탄탄한 대본, 프로 뺨치는 연기, 풍자와 재치... 디너를 곁들인 송년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소 대행진으로 치러진다. 1년치 웃음을 이날 하루에 다 웃었다는 말이 결코 빈 말이 아닐 터다. 지난 2021년 12월 11일 열린 송년모임은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지구촌을 휩쓴 직후에 열려 두고 두고 회자되고 있다. 이날 송년 대잔치를 재구성해 본다. - 편집자.



노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송년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52학년부터 2011학번까지 230여 동문이 한마음 대잔치를 벌였다.

장소는 LA 인근 노워크의 더블트리 호텔. 늦은 시간대(오후 5시)에 열렸는데도 250여 동문들이 참석해 호텔 그랜드볼룸이 꽉 찼다.

1952년 입학한 전상욱(사대) 동문부터 2011학번 김지혜(약대) 동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한마음 축제였다.

먼저 최용준(수의대 81) 총동창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팬데믹 중에도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유튜브 영상제작, 골프 토너먼트, 자선 음악회, 야유회, 원로초청 오찬행사 등 동창회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순간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며 ‘서울대 브라보’ 환호가 터졌다.

하이라이트는 2부 순서. 베이스 장진영(음대 88)

‘서방차’의 현란한 춤과 ‘진나빛’의 단막극 공연 연말 더블트리 호텔 행사는 두고두고 회자돼



최고령 전상욱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창회에 데뷔한 벤자민 홍 동문과 비비안 부부.

동문의 ‘그 집 앞’ 솔로 축하에 이어 동문합창단(단장 김병완, 공대 58)이 무대에 등장, 시선이 집중됐다.

18명 단원 모두가 빨강 초록의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등장, ‘걱정하지 말아요’ ‘Deck the Halls’ 그리고 울동까지 곁들인 ‘징글벨’을 선사했다. 소프라노 파트를 리드하고 있는 조은아(음대 89) 동문은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장기자랑도 연말 대잔치의 단골 메뉴. 방석훈(농대 55)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듀엣을 시작으로 주훈(음대 69) 동문의 열정적인 색서폰 연주가 이어졌다.

‘서방차’의 등장은 행사장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서방차’는 ‘서’울대에서 ‘방’방 뜨는 ‘차’세대 댄스팀. 김종하·김용진·신경섭 트리오가 한국의 3인조 아이돌 그룹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커버 댄스했다.

서울대의 대표적인 밴드 Sand Pebbles 4기 김인중(농생대 74) 동문이 ‘You Are Always in My Mind’

‘Wonderful Tonight’을 최용준 회장의 드림과 호흡을 맞춰 부르자 여기저기서 ‘오빠 최고!’ 탄성이 쏟아졌다.

2부행사의 또다른 압권은 전원 동창회 임원들로 구성된 ‘진나빛’(진리는 나의 빛) 악극단의 출연. ‘최진사댁 셋째 딸, 경사났네’를 코믹하게 연기해 동문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듬뿍 안겼다.

서울대 동문인 최진사의 딸 삼순이와 칠복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각본·연출은 손영아(음대 85) 동문.

사이사이의 배경음악은 임원들이 직접 연주하는 등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동문은 벤자민 홍 은행장 부부.

“오늘 동창회에 데뷔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홍 행장은 문리대 53학번. 부부의 나이차가 50년이라는 사회자의 설명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서방차’의 열정적인 댄스공연.

마이크를 잡은 홍 동문은 미국은행 시절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자신의 좌우명이 ‘My Way’라고 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내 갈 길 내가 개척했다고 할까. 이제는 바뀌었다며 씩스러운 듯 아내 비비안



70년대 '샌드 페블즈' 김인종 동문의 열창. 최용준 회장의 드럼도 일품이었다.

여사를 가리켰다. "She Is My Way". 흥 동문의 이 말에 "두 분이 순애보를 쓰셨다" "정말 심쿵했다" 여 기저기서 부러운듯 한마디씩 했다.

최고령 전상옥 동문은 "90 평생 병원은 아이 낳느라 딱 두번 갔다"고 말해 박수가 터져나왔다. 전 동문의 건강비결은 아주 소박했다. "신앙과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늘 기쁘게 웃으며 살아요. 그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장진영 동문이 지휘한 동문합창단의 축하공연.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자성
의대 79

Jasung Kim
Psychiatrist Clinic

505 Shatto Pl #204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797. 5953
dr.jasungkim@gmail.com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당선
"이민자의 아들로 이 나라에 모든 것을 빚졌다"

민병곤(공대 65)·전혜경(문리대 67) 부부의 장남

서울대 커뮤니티에 경사가 났다. 지난해 11월 5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동문 부부의 아들이 하원에 입성하게 된 것.

화제의 주인공은 데이브 민(48)으로 민병곤(공대 토목공학 65)·전혜경(문리대 화학 67) 부부의 장남이다.

민주당 소속인 데이브 민은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서 51.3%의 득표율로 48.7%를 얻은 공화당의 스콧 보 후보를 꺾고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민 의원이 승리한 47선거구는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어바인과 헌팅턴비치, 라구나비치 등 부촌이 포함된 지역이다. 백인이 50%, 아시아계 25%, 히스패닉 15% 등 미국의 전형적인 인종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부친 민병곤 동문은 "축하 전화와 문자가 쇄도해 얼떨떨하다"며 "선거캠페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4년여 표밭을 열심히 갈아 마침내 꿈을 이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부는 지난 1972년 동부의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에 유학했다. 민 동문은 고체역학, 부인 전 동문은 물리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코넬대에서

포스트닥을 한 뒤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민 동문은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 전 동문은 반도체 기업에서 오래 일한 뒤 은퇴했다.

민 의원은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와튼 스쿨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기업감시업무를 맡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경제 금융정책 자문으로

정계에 진출한 그는 워싱턴의 진보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CAP)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도 했다.

UC 어바인 법대교수로 초빙돼 오렌지 카운티로 이주한 그는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 당선됐다.

박람회장에서 총기 전시를 금지하는 등 총기 규제 강화와 가정폭력 정책에 집중해 왔다.

민 의원은 당선직후 성명에서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 나

라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빚졌다"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반드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만난 아내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부인 제인도 UC 어바인 법대에서 가정법을 가르치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포즈를 취한 데이브 민(가운데) 하원의원. 민 병곤(공대 65)·전혜경(문리대 67) 동문부부의 장남이다.

양민(공대 77) 동문 가정의 비극 LAPD ‘조울증’ 아들에 충격, 한인사회 분노

80학번 주도... 경찰 과잉폭력 규탄 집회 열어



한인타운 리버티파크에서 열린 양민 동문 아들의 추모집회. 경찰폭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2024년 한해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양민(공대 77) 동문 가정의 비극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양웅(40)이 5월 2일 경찰의 충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아들은 조울증(bipolar disorder) 환자다. 부부는 사건 당일 아들의 상태가 나빠지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전화,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DMH는 관련 법규정 5150에 의거, 환자를 72시간 보호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현장에 온 DMH 요원은 그러나 LAPD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당시 아들은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 경찰이 “칼을 버리라(drop it)”고 지시하자 아들은 “나는 당신들을

부르지 않았다(I didn't invite you)”며 경찰에 다가섰다.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총을 쏘았다.

출동경찰 바디캠 공개

LAPD는 “경찰의 바디캠(body cam)을 오픈하라”는 가족과 한인 커뮤니티의 거듭된 요구에 사건발생 2주만에 24분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바디캠에 녹화된 당시 장면을 보면 거실에 있었던 아들은 칼을 들고는 있었으나 경관들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채 다가섰다. 경찰을 물리고 거실 문을 닫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그러나 복부와 가슴에 모두 4발을 쏘 아들은 그자리에서 숨졌다. 불과 8초만에 일어난 일이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소파쪽으로 쓰러졌다. 경찰은 “움직이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라”고 소리치

고는 양웅의 두 손을 뒤로 젖힌 뒤 수갑을 채웠다. 즉각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함돼 있어 경찰충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파문이 일고 있는 대목은 당시 ‘빈백(bean bag)’ 등 비살상무기를 소지한 경관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그것도 환자를 상대로 과잉폭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인 사회에선 DMH의 환자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환자 상태와 관련해 양동문 부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눴는데도 총을 쏜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양 동문은 ‘닥터 양 대입 컨설팅 학원’을 20여년 운영해 한인사회에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사다.

양 동문 가정의 비극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특히 관악연대가 양 동문 돕기에 적극 나섰다. 양민 동문은 관악연대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은 동기와 후배들에 일일이 전화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최응환(상대 80) 변호사 등 동기생들을 만나 양 동문 돕기 방안을 모색했다.

한인회 기자회견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가 커지자 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충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강(의대 70) 미주 동창회장을 비롯해 김병완(공대 58), 고윤석(공대 60), 남종우(공대 82) 동문 부부, 박혜옥(간호대 69), 이호진(간호대 74) 남가주 총동창회 부총무, 최응환 변호사 등 20여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참석했다.

아시아계 단체의 추모행사

비영리단체인 ‘아시아 정신건강 프로젝트(Asian Mental Health Project)’는 5월 19일 LA 한인타운 내 가주마켓 옥상에서 아들 양웅을 추모하는 순서를 마련,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 충격 방지를 촉구했다.



양민(공대 77) 동문.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추모 테이블(제사상)에는 많은 한인들이 찾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한 주민은 화분과 함께 “죄송하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기도하겠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정동구(공대 57) 동문은 멀리 샌퍼낸도 밸리에서 손수 운전해와 후배인 양민 부부를 위로했다. 임춘택(상대 68) 남가주 총동창회장, 김경숙(생과대 70)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백정현(음대 66)·박혜옥(간호대

69) 부부, 홍선례(음대 70), 김자성(의대 79) 등 다수의 동문들도 현장을 찾았다.

이날 눈길을 끈 건 ‘서울대 58학번 동기회’의 근조 플래카드. 박상길(농대), 한효동(공대) 두 58학번 동기는 추모 테이블 뒤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조문객들을 맞았다.

포레스트 힐스 장례식

장례식은 사건발생 28일만인 5월 30일 포레스트 힐스 올드노스처치에서 광진영(사회대 78) 목사 집례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할리우드에서 음향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성록 동문은 12분 짜리 영상(Memory of Yong)을 제작, 상영해 많은 조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장례식에는 김상찬(문리대 65), 제영혜(생과대 71), 박제환(문리대 75), 최용준(수의대 81) 등 전 남가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홍종화** (74)
부회장 **홍성선** (7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남가주 동창회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최응환 동문.



추모집회에 사용될 피켓을 만들고 있는 양수진 동문.

총동창회장들을 비롯해 정건수(공대 79), 신혜원(사대 81), 채규진(인문대 82), 김영혜(사회대 86) 등 관악연대 동문들도 다수 참석했다. 언론계에선 남윤호(사회대 81) 미주 중앙일보 대표도 참석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선배 동문의 비극을 애도했다.

범커뮤니티 향의집회

6월 2일 LA 한인타운내 월셔 블러바드의 리버티 파잔디광장에서 열린 범커뮤니티 집회에서는 LAPD 소속 경관의 잔혹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식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양용을 위한 정의구현 시민위원회 (Justice for Yong Yang People's Committee, JYYPC)'가 주관했다. 최응환과 양수진 두 80학번 동문은 집회 전날에도 한인마켓과 업소 등을 돌며 전단지를 뿌리는 등 홍보에 열심이었다. 뿐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집회에 쓰일 피켓을 제작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집회에선 동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김지영(사대 69) 전 남가주총동창회 회장과 남윤호 미주 중앙일보 대표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봤다.

변홍진(사대 59), 홍선례(음대 70), 김영혜(사회대 86) 동문들도 피켓을 들고 LAPD를 성토했는데 앞장섰다. 정동구(공대 57) 동문은 직접 연사로 참여, 동

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미주 동창회의 이상강 회장은 JYYPC에 1천 달러의 성금을 보내 동문들을 격려했다.

시의회 추모·LAPD 시위

사건이 발생한지 139일만에 LA 시의회가 양민 동문 아들의 죽음을 공식 추모했다.

9월 17일 LA 시의회 회의장에는 양 동문 부부 등 유가족이 시의원석 단상에 섰다. 유가족을 초청한 건 초선의 휴고 소토-마티네즈(제 13지구) 의원이었다.

그는 유가족을 옆에 세워두고 3분이 넘는 추모의 글을 읽었다. 마티네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이 부모의 집 거실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공정한 조사가 조속히 진행돼 가족과 커뮤니티 모두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 회의장에는 동문 20여 명을 포함, 한인 5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이어 동문들은 LA 경찰국(LAPD)으로 장소를 옮겨 20여 분 동안 경찰의 과잉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박상길(농생대 58), 김지영(사대 69), 민일기(약대 71), 박혜옥(간호대 69) 등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들을 비롯해 정동구(공대 57), 김병완(공대 58), 정종현(공대 60), 백정현(음대 66) 등 원로 동문들도 시위에 동참, 양민 가족의 비극을 애도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골드북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제11대 미주 동창회



회장 김은종 (상대 59)

역사를 되돌아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한인커뮤니티가 이곳 남가주에서
아직 그 위상이 알려지지 않은 이민역사 초창기부터,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서
서울대인의 Identity & Integrity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그 발간을 진심으로 경축하며,
임춘택 남가주총동창회장과 임원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않게 수고한 편집인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맞이할 100년사를 위한
튼튼한 밑바탕과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 관악후원회 부회장: 노명호(공)
- 사무총장: 성주경(상)
- 총무국장: 백옥자(음)
- 재무국장: 강호석(상)
- 사업국장: 이경희(문)
- 섭외국장: 이상대(농)
- 감사: 김재영(농) 박평일(농)
- 기금모금위원장: 이종도(공)
- IT개발위원장: 김병연(공)
- 상임고문: 방석훈(농) 김건진(문)
- 편집위원장: 지인수(상)
- 편집주간 & 위원: 이기준
김재영(농) 나철삼(문) 이종도(공)
김지영(사) 이원영(문) 김종하(인문)

2011년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함께 수고했던 임원진 대다수가
‘SNUA CLUB 11’이란 이름으로 정기적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5장

관악연대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아크로 창간 1주년 기념 잔치

관악연대 해끝잔치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록밴드 컬리 프라이즈

아크로의 추억

공성식의 아크로 포레버

이종호 동문 저서 다섯 권 출간



2009~2019 아크로폴리스 타임스의 복간 어려운가

총 2,200여개 글 실려, 톡톡 튀는 댓글도 인기
'미친 글빨' 이상희 동문, '오뎅점' 등 유행어도



지난 2016년 6월 관악연대 피크닉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운찬(상대 66) 전 국무총리가 찾아와 오홍조(오른쪽)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 동문들과 어울렸다.

남가주 동창회 50년 역사에서 아크로폴리스타임스(Acropolistimes.com·아크로)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아크로는 2009년 3월 24일부터 2019년 9월 7일까지 10년 조금 넘게 발행됐던 인터넷 신문이다. 한때는 미국과 한국의 서울대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남가주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연대의 중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크로는 그러나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매체에 밀려 발행을 접고 말았다. 아크로에는 여전히 좋은 글들이 많이 쌓여 있다. 발행이 중단됐을 뿐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주옥같은 글들과 워트 넘치는 댓글들을 읽을 수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서울대 본관과 도서관 사이의 광장이다. 관악 캠퍼스의 정중앙에 자리잡은 그 곳은 서울대생들의 열정과 기쁨,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눴던 동문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2009년 3월 25일자에 실린 김성수(신문 80) 관악연대 연대장의 창간사는 지금도 동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창간사를 간추려 싣는다.

“처음엔 소박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를 미주 서울대 동문회에서 다시 만들어 낼 수 없을까.

그래서 미주 최고의 재주꾼들, 입담꾼들, 논객들이 모두 웃고 떠드는 그런 광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들끼리만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크로폴리스 타임스는 이런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각자 가는 길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만남은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그 옛날 서울대 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이버 공간의 아크로폴리스가 우리 삶의 휴식처가 되고, 재충전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정보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타임스(Acropolistimes.com·아크로) 웹사이트.



칼라바사스의 서치원 동문 자택에서 열린 관악연대 주최 컬리 프라이스 밴드 공연.

아크로폴리스 타임스는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창의적인 매체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다시 제공할 것입니다.”

제영혜(생과대 71) 당시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재기 넘치는 축사를 올렸다.

“잡 읽고 밤 잠 못이루는 친구, 웬수같은 사랑에 가슴 아려하고 있는 친구, 어김없이 돌아오는 페이먼트에 골치 아픈 친구, 진짜 프로다운 프로의 지식에 목말라하는 친구, 사람답게 살아가길 염원하는 친구, 생활비 한푼이라도 아껴보길 원하는 친구, 자식놈 좋은 교육받게 하려고 안달하는 친구 등등. 다, 모여라.”



관악연대 티셔츠를 착용한 동문들이 정 전 총리와 함께 응원을 펼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다.

제 회장은 읽고 난 뒤 본인의 의견을, 또 다녀간 흔적을 남기자며 댓글 달기 풍토를 만들자고 역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크로는 내용도 물론 충실했지만 톡톡 튀는 댓글이 무엇보다 감칠 맛이 있었다는 게 독자들의 증론이다.

아크로폴리스는 이원영(정치 81, 중앙일보 편집국장) 동문이 편집장을 맡아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김지영(사대 69) 고문의 '오달쌤의 영어 훈민정음'은 한국과 영미문학을 쉽고 재밌게 소개해 인기를 끌었다.

뒤늦게 아크로에 합류한 이상희(고고미술 85, UC 리버사이드 인류학 교수) 동문은 '사람과 세상' 칼럼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운화(경제학 79) 동문은 이상희 교수가 동문인지 처음 알았다며 대학 다닐때 인류학을 전공하려고 잠시 시도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이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쓰나 하고 감탄, 이미 팬이 됐다고 실토했다. 이 동문의 '미친 글빨'에 팬클럽도 생겨날 정도였다.

이상실(간호대 88) 동문의 '잔인한 4월에 일어난 일'은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다. “남성의 경우는 XX를 하늘을 향해 '곧추' 세워야 한다”는 대목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수술실에서의 체험을 꾸밈없이 담아낸 탓인지 댓글에 온갖 상상의 날개가 달려 펍 시끄러웠다. “이 상실의 시대에 죽어도 세우고, 희망도 세우고,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세우자”(Payton), 예술과 외설의 차이(김학천) 등 되레 댓글이 더 야하고 재밌었다는 반



흥에 취한 나머지 훌러덩 웃음을 베풀어 재끼고...

응이다.
이외에도 주혜정의 ‘팝송 이야기’, 이충섭의 화수점 회 통신, 김학천의 ‘살며 살아가며’, 이원영의 ‘인물 오디세이’, 박찬민의 ‘사진 코너’, 양민의 ‘살며 생각하며’, 객진용의 ‘톡톡 튀는 설교’ 등은 인기 연재물이었다.
‘오뎅점’은 아크로가 만든 신조어. 정(오) (뎅)치면 (점)심 먹자는 모임을 일컫는다. 처음엔 오렌지 카운티 동문들 사이에서 유행했으나 LA에까지 확대됐다.
동문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다보면 엔돌핀이 팍팍 솟는다고 해서다. 심지어 ‘오뎅점’을 모르면 서울대

동문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아크로에 실린 글은 모두 2,200여개나 된다. 10년의 역사를 그대로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크로 편집고문을 맡았던 김지영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아크로를 미주동창회보의 인터넷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이신문’ 동창회보와 ‘전자신문’ 아크로의 결합이 야말로 동창회 결속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70~80년대 학번 동문들은 상당수가 아크로 복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크로와 함께 장년기를 보내서다.

“행복했다, 따뜻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관악연대 아크로 창간행사 화제 만발

“아크로~ 아크로~ 아크로~ 아크로~” 로고송과 함께 개막 ‘인생 머 있나’ 사회자의 능청스런 코멘트에 배꼽 빠지는 줄

남가주 총동창회 50년 역사에서 이른바 관악연대가 왕성하게 활동을 펼친 시기는 20년이 넘는다. 동창회의 거의 절반 가량은 관악세대 학번들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지 싶다. 70년대말에서 80년대말 학번 동문들이 주축인 관악세대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크로폴리스타임스(acropolistimes.com)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 2009년 12월 4일 열린 아크로 창간기념 행사를 사진과 함께 당시의 열기를 재구성해 본다. - 편집자.

행복했다. 따뜻했다. 충만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LA 한인타운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09년 해끝잔치 및 아크로 창간 기념행사는 150여명의 동문 및 가족, 게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동문들은 행사가 끝나고도 이야기 꽃을 피우고 노래와 춤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을 잊은 듯 했다.

신임 연대장에 이경희 동문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차기 관악연대장 선출에서는 83학번 동기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이경희 동문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이 동문은 후보 추천을 받은 자리에서 마치 당선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83 동기 모두가 연대장으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해 타 후보는 아예 추천조차 없이 만장일치로 연대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경희 동문은 “망설이다가 관악연대장의 이권이

많다는 말에 혹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고향의 부모님께 이런 영광을 알려 드렸



재기발랄, 폭소 만발. 끝날 때까지 시종 화기애애.

다”고 말해 흥분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행사는 관악연대 공식행사, 아크로 창간행사, 오락 및 여흥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순서대로 각각 김한신, 김종하, 김승진 동문이 사회를 맡아 수고를 해

**모두가 함께한 지난 반세기
동창회의 더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양수진 (간호대 80)
Family Nurse Practitioner
(가정의학과)

GOLDEN SPRINGS MEDICAL CLINIC
1877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 (714) 335-2148



아크로 창간 1주년 기념 행사는 시종 일관 폭소 대잔치로 진행됐다.



신임 연대장에 선출된 이경희 동문과 이쁜 딸 민정이.



최응환 동문(가운데)이 추리문학상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를 본 김종하 동문, 왼쪽은 김성수 연대장.

주었다.

특히 김승진 동문은 의욕을 갖고 여흥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낱말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준비했으나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를 모두 선보이지 못해 아쉬워 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 동문들은 즐거움을 만끽했다. 한 동문은 “많은 모임을 나가 보지만 우리 동문처럼 맘 편하고, 금세 친해지는 곳을 보지 못했다”며 “정말 우리 동문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감격.

오스카 상 방불케한 아크로 시상식

가장 관심을 모은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창간 기념 ‘아크로 어워즈’ 시상식 행사는 귀에 익으면서도 신

나는 아크로 로고송과 함께 시작됐다. “아크로~ 아크로~ 아크로~ 아크로~”를 외치는 이 노래는 다름 아닌 동요 ‘앞으로 앞으로’.

유명 동요 작사가 윤석중 선생이 선견지명으로 이 노래를 아크로폴리스 타임스의 탄생을 위해 지어놓으셨다는 사회자의 능청스런 코멘트에 참석자들은 배꼽을 잡아야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상장’과 함께 커피 머그세트가 든 선물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학창 시절 이후 처음으로 상을 받아 본다”며 감격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인생 머 있냐” 아크로 최대 유행어

그해 아크로 커뮤니티의 최대 유행어는 단연 이병



그리운 얼굴, 얼굴들. 우리는 이날 사랑과 우정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철 동문이 전파한 ‘인생 머 있냐’였다. 이병철 동문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가장 닮은 아기사진을 편집진에 보내면서 아기의 말풍선을 통해 ‘인생 머 있냐’를 화두로 던졌다. 이 말은 삼시간에 아크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급기야 이 동문은 이런 위트와 유머를 통해 아크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공로로 엔돌핀상까지 거머쥐게 됐다.

게스트 닥터 문 삼행시 대상 받아

스포츠라이트를 받은 스타는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Dr. 할리 문(USC치대 교수).

한 편의 낭만시를 떠올리는 삼행시(오행시)로 아크로 어워드 삼행시 부문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김학천 동문의 후배이기도 한 할리 문씨는 댓글을 통해 범상치 않은 한국어 실력을 선보였는데 이날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때 이민은 1.5세로 밝혀져 놀라움을 더하게 했다.

할리 문씨는 “우연히 알게된 아크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매일 매일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피력.

김판건 동문 래플 1등 당첨

이번 행사는 어느 행사 때보다도 선물이 풍성했다. 이승훈(대표), 최경희(부장) 동문이 근무하는 자연나라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에게 김 선물세트를 하나씩

안겨줬으며, 게임과 래플을 통해 50여명에 가까운 동문들이 푸짐한 상품을 받아갔다.

가장 부러움을 받은 동문 가족은 등산 전문가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김판건 동문 가족. 래플 대상인 35인치 HDTV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김판건 동문의 딸 나연양은 10여장의 티켓을 잡고 번호가 불릴 때마다 아쉬운 한숨을 연신

내뿜다가 마지막에 대상에 당첨되자 아버를 부여 안고 팔짝팔짝 뛰면서 기쁨을 만끽.

열기 발산, 2차 노래방까지

원래 행사는 행사장에 있는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12시 정도에 끝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열기가 이어지면서 자정이 넘도록 동문들이 자리를 뜰 기미를 보이지 않자 호텔측 직원들이 난감해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중 일부는 2차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명을 발산한 후에 귀가길에 오르기도 했다.

미네소타 변우진 동문 동영상

미네소타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변우진 동문은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와 동문들과 교감했다. 변 동문은 유튜브에 올린 1분 30초의 동영상 파일을 통해 “아크로를 통해 인생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지면을 통해서이지만 많은 동문들과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이 크다”고 말했다.

변 동문은 또 “아크로에 글을 쓰면서 내가 한국인, 서울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크다”면서 여러 동문들도 비슷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 동문은 미네소타 특파원으로서 아크로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특파원상을 받았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의 사는 진리를 찾는 길"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골드북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일동

조니 워커 블루 실종 사건도

행사에 참석한 최운화 동문은 조니 워커 블루 한 병을 주최측에 기증했으나 행사 도중에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

주최측에서 각 테이블을 돌면서 정밀 감식한 결과 최모 동문이 블루를 자기 테이블에 가져간 뒤, 테이블 아래에서 잔을 따르는 기묘한 전술로 타 주당의 시선을 따돌리고 혼자서 거의 반병을 해치운 사실이 드러난 것.

행사 주최측은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평소 애주가로 알려진 최 동문이 얼마나 블루에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셨겠는가"라며 너그럽게 넘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사 말미에서는 관악연대와 아크로의 실질적인 창시자 역할을 한 김지영 동문(사대69)이 특별 연설을 통해 후배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될만한 경귀를 들려줬다.

김지영 동문, 인생 경귀 들려줘

김 동문은 평소 살면서 이 3가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첫째, Your heart knows the answer.

둘째, Maybe, You're right.

셋째, I'll be there for you.

이 세가지를 명심하면서 살면, 꼬이는 인생의 해답이 저절로 얻어질 것이라며 후배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 달라고 당부.



- ① 래플 경품 추첨에서 1등을 차지한 김판건 동문.
- ② 유려한 댓글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할리 문씨가 게스트로 초청되어 왔다. 아크로 삼행시 부문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 ③ 절대 동안, 댓글의 왕자로 군림하는 이상대 동문(오른쪽)이 댓글 문학상을 받고 즐거워 하는 모습.
- ④ 무엇이 그리 재밌을까. 함박웃음이 핀 동문들.

“사랑, 낭만, 우정~ 겨울밤이 무척 짧았다”

관악연대 주관 해끝잔치, 선후배가 하나 되어
서치원 회장 ‘저택’ 개방, 독특한 친교문화 매료

해끝잔치는 관악연대가 주관하는 송년모임이다. 2007년 독고량(대학원)·서정화(음대) 부부 자택에서 처음 열린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후 용수산 식당, 가든 스위트 호텔 등지에서 열렸다. 비공식 캐치프레이즈는 ‘인생 머 있나, 케세라 세라.’ 사랑과 낭만, 우정, 겨울밤이 무척 짧다며 웃음꽃이 만발하고 선후배가 하나되어 어느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악연대만의 독특한 정겨움이 연출된다.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두 번이나 칼라바사스의 ‘맨션’을 해끝잔치 장소로 흔쾌히 개방해 ‘서 선배 짱’이란 찬사를 들었다. 서 동문의 저택에서 열린 해끝잔치를 재구성해 봤다. - 편집자.

2010년 12월 4일(토) LA 북부 칼라바사스에 위치한 서치원 동문의 자택에서 열린 해끝잔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카운티 동

문들도 많이 참석했고, 관악연대의 독특한 친교 문화에 매료된 여러 게스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을 끝으로 1년 임기를 마친 이경희 전임 연대

장은 “1년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갔다. 연대장하면서 비즈니스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면서 “올해 1년은 관악연대장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인 지지로 새 연대장에 선출된 이상대 회장(조경 80)은 “올해는 관악연대와 총동창회의 융합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새 후배들을 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면서 총동창회에 활



이날 오후 4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동문들.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는 백야드에서 와인 과 함께.

력을 불어넣는 2가지의 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함께 열린 소음악회에는 주일엽(바이올린), 김소현(피아노), 김일두(테너), 곽현주(소프라노), 이혜경 동문이 주옥같은 음악을 선사해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어 열린 ‘제 2회 아크로 어워드’에서는 모두 13명의 동문이 아크로와 동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영훈고양상: 곽건용

(좋은 영성관련 글)

▲땃글문학상: 홍선례(정성스런 땃글)

▲미술문학상: 박준창(놀라운 미술실력 과시)

▲건축에세이상: 한선정

(딱딱한 건축을 재밌게 풀어)

▲포토예술상: 고정범

(좋은 사진으로 아크로 지면에 기여)



김은종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관악연대에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본다고 역설했다.

▲미각증진상: 이석우

(전문적인 와인 칼럼으로 지면을 빛냄)

▲4차원 논문상: 양민

(잠자리와 모기의 사랑법 비교한 탁월한 논문)

▲우정상: 이경희(연대장으로서 주목할 성과 이룸)

▲인기상: 안소영

(새내기로서 맛깔스런 글로 관심을 사로잡음)



서치원 동문 부부가 준비한 맛있는 저녁식사. 모인 회원들이 회비를 거둬 비용을 지불하려 했으나 부부는 이 돈을 관악연대 예산에 보태라고 했다. 쉽게 말해 몽땅 쓰았다는 말씀.



날이 어둑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 서로 악수를 나누며 정담을 교환.



- ❶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선을 집중 시킨 관악연대 중진(?)들.
- ❷ 소음악회에서 반주를 맡았던 송지현(김한신 동문의 부인)의 아들이다. 이 집 두 아들, 정말 휘젓고 다녀서 눈길을 딱 끌었다.
- ❸ 이경희 연대장(왼쪽)이 집주인인 서치원 부부를 소개하고 있다.

▲브리지상: 김진중
(아크로를 통해 동창회와 모교 가교역할에 기여)
▲정서함양상: 켈리 박(추억의 멜로디와 감칠맛 나는 내레이션으로 새로운 음악장르 개척)
▲몽블랑상: 김지영(아크로 창간부터 지금까지 지지 않는 필력을 보이며 아크로 발전에 기여)
▲엔돌핀상: 서치원(아크로인들에게 음양으로 엔돌핀을 donate 해준 공로)
2015년 열린 해끝잔치는 김종하(영문학 85) 연대장의 맛깔스런 초대의 말씀이 동문들 사이에 회자됐다.
“안녕들 하시죠??^^”

실감 안 나고 실감 나기도 싫지만... 벌써 해끝이네요. 2015년 다들 알차게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끝잔치 해야죠. 것도 짬나게, 신나게!!
모니모니해도 제대로 놀라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탈해야 하기에 금년 해끝잔치는 호텔이나 식당이 아닌 서치원 선배님과 형수님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서 선배님 자택 뒷마당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자주 모이지 못했으니 조금 멀더라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잔치의 theme은 '컬프와 함께하는 복면가왕'인데요, 켈리 프라이즈와 함께 노래해 보고 싶었던 모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낮가리는 분들을 위

해서 복면도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왕으로 뽑히시는 분은 컬프가 정중히 메인 보컬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꼭 신청 부탁드

립니다. 이 기회에 동문 및 동문 배우자분들의 숨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 ❶ 영화배우 같다는 말을 들은 안소영(의류 2000학번) 동문. 이날 아크로 인기상을 받았다.
- ❷ 신임 연대장에 선출된 이상대 동문(왼쪽). 이원영 동문이 나와 "요즘 같은 연평도 안보 정국에 관악연대장 정말 잘 뽑았다. 이 분은 공수부대 출신이다"고 강조.
- ❸ 아크로 어워드. 사회를 맡은 김종하 동문이 '영혼고양상'을 수상한 객견용 동문에게 전달할 상장을 낭독하고 있다. 사회자는 '품행이 방정하고...'를 '품행이 방정 맞고..'로 잘못 읽어 장내를 술렁거리게 했다.
- ❹ 추철호 동문이 이끈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 시간.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토너먼트 제주도에서 온 동문 ... ‘장대비 와도 출전’ 열의

학번마다 유니폼 색깔 달리해 차별화 ‘눈길’
80학번은 빨강색 상의, 검정색 하의로 통일

제 1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가 지난 2022년 12월 4일 팔로스 버디스의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로스 버디스는 태평양이 한 눈에 펼쳐져 LA에서는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대회는 모두 8개팀 60명이 참가, 오전 9시 1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티오프해 차질없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관악 캠퍼스에서 수학한 동문들로 70년대 후반에서 90년도 중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동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특별 게스트로 60년대 학번들도 참가해 관악 동문들을 격려했다.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을 비롯해 성주경(상대 68), 임춘택(상대 68), 서치원(공대 69), 김경무(공대 69) 동문 등 선배들도 팀을 꾸려 후배들과 어울렸다. 한국서 김중섭(문리대 66) 총동창회장도 참가, 대회를 빛내줬다. 개인부문 남자부 우승은 장예진(사대 94) 동문, 여자부 우승은 전영록(치대 81)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81학번 팀은 개인전 여자부 우승 선수(전영록, 오른쪽에서 3번째)를 배출했다.

단체 부문 우승은 노순철·박경륜·이상호 동문 등이 출전한 80학번팀에 돌아갔다. 2등은 60년대 학번팀(서치원·성주경·김중섭), 3등은 78-79학번팀(김한석·송태진·최운화)이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도 무려 10명이 출전해 ‘인해전술’을 펼 80학번팀이 최대 참가자상을 받았다.

이날 싱글을 친 동문들은 장예진(5), 서치원(7), 노순철(8, 사대 80), 박경륜(9, 공대 80), 이상호(9, 사대 80), 고민석(9, 농생대 88), 정태유(9, 사대 92) 등 모두 7명이다. 박경륜 동문은 이글샷을 날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대회가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 대회 개막 이틀 전부터 비 올 확률이 40~50%로 예보됐기 때문. 대회를 실무 총괄한 김희경(사대 80) 남가주 총동창회 총무는 거의 2시간 간격으로 일기예보를 체크했다고 털어놨다. 이 정도로 맘 고생이 컸다는 것이다.

심지어 단체특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동문들을 울컥하게했다. “저는 하느님 뻘이 없는데 뻘 있으신 분은 비 안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글을 읽은 한 동문은 얼마나 가슴 조렸으면 이런 ‘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김 동문을 응원했다.

어느 동문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2대1로 누



르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된 나머지 “장대비가 내려도 대회는 열려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워 박수를 받았다.

김 총무의 기도가 통했는지 대회 당일 가랑비가 약간 내렸을 뿐 골프치기에는 최적의 날씨였다.

제1회 대회이니 만큼 전통을 세우려는 주최측의 의지가 무척 강했다. 학번마다 옷색깔을 달리해 입도록 한 것. 예를 들어 80학번은 빨강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85학번은 검정색 상의에 베이지색 하의를 입고 참가했다. 889(88~89) 학번팀은 하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789(78~79) 학번은 파랑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나왔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토렌스의 백정 강호동 레스토랑에서 디너겸 뒷풀이 행사를 열었다. 역시 ‘관악 캠퍼스’ 동문들은 60년대 학번들과는 사뭇 달랐다. 동기이면 단과대 구분없이 서로 ‘반말’을 했다.

‘~씨’ 대신 ‘~아’로 통한 것. 한 80년대 여자동문은 남자 동기생에게 “너, 오랜만이다. 한국 갔다 왔다며?”하며 친근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60년대 선배가 “아무리 동기라도 그렇지 어떻게 반말을...”하며 놀라워하자 “세대차이를 느낀다. 그런 말 하면 곧대소리 듣기 십상”이라며 눈치를 줬다.

참가자 중에는 제주도에서 온 동문도 있었다. 주인공은 김성수(사회과학대 80) 동문. 원래 LA출신으로 관악연대장을 지냈다. 관악 골프 대회 개최소식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왔으며 반드시 우

승해 비행기값을 벌어야겠다고 익살을 떨어 좌중을 웃겼다. 김 동문은 그러나 아직 시차적응이 안된 탓인지 퍼팅이 난조를 보여 우승권에서 멀리 비껴났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전영록 동문은 상금으로 맥도널드 커피를 돌려 ‘통 큰’ 동문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전 동문은 서울대 재학시절 자신의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80년대 꾸준히 인기를 모으며 통런했던 가수 전영록과 이름이 같아 ‘남자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는 것. 당시 방송 DJ일을 했던 전영록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의 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줘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석호태(공대 85) 동문도 이름에 얽힌 비화를 털어놓아 흥미를 유발했다. 한국을 방문할 때 호텔에 투숙하면 ‘석호필’로 잘못 알고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석호필은 폭스TV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웨스트위스 밀러의 한국 애칭이다. 캐나다 출신의 독립유공자 스코필드 박사의 한국 이름이기도 하다.

노명호(공대 61) 회장과 조용국(사대 94) 동문의 ‘만남’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두 동문은 이날 최원로와 최연소 타이틀 홀더. 무려 3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지만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노 회장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 ‘콘템퍼러리 (contemporary)’예요.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날 노 회장은 16개를 쳐 골프에 관한 한 조 동문을 압도(?)했다.

남자부 우승 장예진 (사대 94) 여자부 우승 전영록 (치대 81)

관악연대의 록사운드 '컬리 프라이즈'와 불타는 금요일을~

'진부함을 거부하라' 아크로 창간 기념일에 데뷔
김인중·최용준·지훈아울·김종하 등 '끼'있는 11인

관악연대 동문들은 지금도 '제 1회 아크로 놀이마당 축제'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못잊어 한다. 2011년 5월 25일 서울대 온라인 신문인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창간 2주년과 첫 '아크로폴리스' 단행본 발간을 기념해 열린 무대다. 장소는 LA 한인타운의 엠파크다.

열기의 중심에 '컬리 프라이즈'(Curly Fries·약칭 '컬프')가 있었다. 관악연대 동문들로 구성된 밴드다. 창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악을 좋아하는 몇몇 동문들이 남가주 총동창회를 비롯한 행사에서 공연을 하면서 모이게 됐다.

다들 생업에 바쁘고 모임 계기가 없어 별다른 활동없이 지내다가 아크로폴리스 편집진의 권유로 놀이마당 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공연은 '컬프' 멤버들에게 잊고 있었던 끼를 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3주밖에 맞춰보지 못한 채 무대에 섰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푹푹 뭉쳐 역사를 만들어냈다.

당초 행사는 책 발간과 아크로 2주년을 기념하는 통상적인 행사로 예정됐었으나 '관악연대 답게 재밌는 이벤트로 하라' '아크로 답게 진부함을 거부하라'

는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컬프가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김종하 동문이 아크로폴리스 타임스에 소개한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웬만한 프로 뺄치는 수준이다.

우선 컬프의 만형이자 정신적 지주인 김인중(농생대 74) 동문. 보컬, 기타, 퍼커션 담당이다. 서울대 농대의 전설적 밴드 '샌드 페블즈' 기타리스트 출신이다.

베이스 담당 양민(공대 77).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 뒤에 숨은 그의 끼와 매력이 폭발한다.

채규진(불문학 82)은 기타리스트이면서도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거의 없고 작곡까지 넘나드는 실력파다.

고정범(법대 79)은 '폼생폼사' 카리스마가 작렬하는 보컬의 주인공. 컬프 멤버 중에서 가장 '로키'의 필이 난다. 컬프의

공식적인 '짱사'이기도 하다.

최용준(수의대 81)은 명실상부한 컬프의 리더. 파워풀한 드럼의 진수를 보여준다. 연습지회에서부터 레퍼토리 선정, 기술적 준비, 밴드의 세세한 운영에 이르기까지 컬프의 중심엔 그가 있다.

최성록(공대 92)은 한마디로 신들린 기타리스트.



컬리 프라이즈의 '비주얼' 고정범 동문.



공연장인 카페 스페이스 공감을 가득 메운 관객들.



객석의 표정. 말이 필요없다.

어느 프로 밴드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실력의 소유자다.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음향전문가이자 영화 연출가이기도 하다.

곽현주(성악과) -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다는 컬프의 여성 메인 보컬.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진정한 디바다.

켈리 박(기악과) - 바이올린, 키보드, 작곡 담당. 전공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아크로의 뮤직박스 코너에서 DJ 켈리로 활약했다.

양지훈(경영대 89)은 보컬, 키보드, 작곡 담당으로 한국에서 데뷔(1993년)해 큰 인기를 모았다. 서울대 출신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의 주역이었던 진짜 가수다. 미국서는 지훈아울(Jihoon Owl)이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강국(법대 80)은 보컬, 하모니카, 작사 담당이다. 뛰어난 가창력과 훈남 포스, 그리고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컬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멤버.

김종하(영문학 85) - 아이돌이 대세인 요즘 '비주얼'을 무시할 수 없어 온전히 외모(?)만으로 뽐냈다. 현역기자(한국일보 편집국장) 탓에 컬프의 홍보를 맡고 있다.

공연에는 1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함께 어울려 환호와 열광에 사로 잡히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크로에 댓글이 120개나 달린 것만 봐도 이날의 공연이 얼마나 '핫'했는지 가늠할만 하겠다

처음 동문행사에 참여했다는 윤근자(가정관리학 82) 동문은 컬프 공연을 소녀팬처럼 좋아했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고 이메일 주소까지 남겼다.

컬프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드디어 제1회 정기공연을 갖기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아프리카 식수개선 프로젝트 돕기' 캠페인에 참가, 월서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상희(UC 리버사이드 고인류학 교수) 동문은 멤버들의 외모가 상당히 좋다고 컬프가 아니라 메(메트로 섹슈얼)꽃(미남 오빠) 밴드로 개명하라는 멘트를 날려 화제를 모았다.

컬프는 '농대의 전설' 샌드 페블즈와도 공연을 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 어떡해'로 대화가요제 대상을 받은 샌드 페블즈는 2015년 2월 6일 재학생 6명이 LA를 방문해 컬프와 조인트 리사이틀을 가졌다.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린 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모교 중앙도서관 증축 지원금으로 기부됐다.

LA 작가의 집에서 열린 정기공연(2016년 4월 23일)에는 '팔등신 미녀' 동문이 데뷔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됐다. 주인공은 백양희(경영대 98) 동문. 고정범(법대 79) 전 관악연대장에 따르면 백 동문은 '화끈한' 학벌(하버드 MBA)의 소유자다.

이외에도 컬프는 서청원(공대 69), 김은중(상대 58) 등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초청으로 '해뜰잔치' 홈콘서트를 열어 동문들을 록음악에 흠뻑 빠지게 했다.

아크로폴리스 타임스(2009~2019)의 추억 '소통의 장' 온라인 신문, 재능기부로 운영

이원영 정치학 81

돌아보면 참으로 가슴 뛰는 시절이었다. '서울대 미주 동문들의 글 마당'을 표방하고 2009년 시작한 웹사이트 '이하 아크로'(acropolistimes.com)는 시작과 함께 동문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 신문형태로 구성된 포맷도 일반 다른 단체의 웹사이트와 차별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고로 콘텐츠를 채워간다는 것이 신선했다.

처음엔 우려도 많았다. 과연 자발적으로 (원고료도 없는데) 기고를 할 것인가, 글을 쓸 만한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시작했다가 금세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동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 군데 모아서 공유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란 점에서 시작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당시 아크로 창간에 김지영, 이경훈, 김성수, 필자 이원영 등이 앞장섰다.

웹사이트 포스팅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됐다. 언론사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나는 초대 편집장을 맡았다.

처음 웹사이트 화면을 꾸리던 시절이 떠오른다. 주로 동창회와 관악연대(당시 관악 캠퍼스 출신들의 별도 친목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이었다)의 모임이나 행사 등으로 화면을 꾸렸다. 여타 다른 단체의 웹사이트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가 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기고를 해달라는 편집진의 부탁에 누군가가 원고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릴레이는 불이 번지듯 빨라졌다. 마치 숨은 글쟁이를 발굴하는 '복면가왕' 경연장을 방불

케했다.

초기 편집장으로서, 기고를 받을 때마다 "아, 아크로가 없었으면 어쩔뻔 했어?"하는 감탄의 연속이었다. 역시 내공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아크로가 재미 있었던 것은 동문들의 전공과 하는 일들이 다양각색이어서 소재가 무척 다양했다는 점이다. 에세이, 시평, 과학, 예술 등 분야를 망라하고 기고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그때 편집을 맡으면서 "어? 공대, 음미대 출신들이 이렇게 글을 잘 써도 되는거야?"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솔직하고, 자신의 경험과 전공에 충실하고, 독자에게 친절하게 전달되는 글을 쓴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크로 기고자들은 글쓰기의 달인들이었다.

아크로 초창기 때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기고문에는 주로 댓글을 다는 형태로 소통을 했었다. 그 댓글을 읽고 반응하는 재미도 좋았다. 나는 주로 신문사 편집국에서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기에 댓글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거기에 반응글을 올리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지 모를 정도로 일과 아크로에 몰입했다.

아크로가 동문들에게 큰 인기를 끈 요인은 여럿 있겠지만 나는 참여자들이 지킨 무언의 '점잖함'을 꼽고 싶다. 어느 웹사이트처럼 주장에 대해 날카롭게 다투며 절연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다. 물론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쌍방이 참으로 점잖게 글을 썼었다.

그리고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어느 매체에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와 재미가 있었다. (나는 그때 아크로보다 더 읽을거리가 많은 매체가 있다면 나와 봐!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러 명이 참여한 연작소설이었다. 당시 첫 연작소설을 시작하면서 아크로에 올린 글이다.

"얼마전 미네소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우진 동문(언어 81)이 반가운 인사를 해왔다. 그리고 이어 획기적인 제안을 해왔다.

'아크로 릴레이 소설'을 연재해 보자는 것이다. 변 동문은 한때 습작으로 소설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크로를 통해 LA의 동문들을 만나면서 '릴레이 소설'을 한번 써보았으면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고 전해왔다. 정말 멋진 발상, 멋진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자, 시작해 보자. 후속편을 쓸 동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편집팀에 쓰겠다는 통지를 하고 오케이를 받은 다음 송고해 주기 바란다. 1회 원고는 워드로 2000~3000자가 적당할 듯하다. <편집자주>

이렇게 시작한 소설이 무려 15회(?) 정도 이어졌다. 기적이었다. 아무런 주제도 정해진 것 없이 다만 앞에 쓴 글을 이어받아 이렇게 소설을 이어갔던 것이다. 참, 거침없던 시절이었다. (동문들이 릴레이 소설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반응에 2년 후 다시 한번 시작했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창간과 동시에 2년여 온라인에 게재된 글들 중에서 분야별로 뽑아 2011년 <아크로폴리스>란 제목의 책으로 발간한 이벤트였

다. 편집 전문가인 이종호 동문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책 발간을 계기로 출간 기념행사도 하고...아무튼 참, 이래저래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다.

욕심을 냈다. 아크로가 남가주 동문들의 글 놀이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 미주, 나아가 글로벌 서울대인들의 글마당으로 키워가면 좋겠다는 비전을 품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아크로를 통해 광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겠다는 꿈이었다. 한창 때는 동문 뿐만 아니라 비동문들도 아크로에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아크로는 모든 언론들이 그러하듯이 점점 시들해져갔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찾아서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시대가 점점 저물었다. 편집장으로 수년간 재능기부하던 이원영, 김종하 동문도 회사 일과 병립하는 게 점점 지쳐갔다.

아크로를 살리고 애초 비전처럼 글로벌 동문 글마당으로 키우기 위해선 돈도 필요했고, 사람도 필요했다. 이 두 가지가 현실의 장벽에 막혀 실현되기 힘들었다. 서서히 아크로 기고가 줄어들고, 마지막 애정을 놓지 못하는 동문들의 애씀으로 연명하다가 2019년 거미줄을 치고 말았다.

난 아직도 이 사이트를 '글로벌 서울대인의 글마당'으로 충분히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사랑하는 뜻있는 동문들의 속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원영 동문은

LA 중앙일보 편집국장 · 논설실장
아크로폴리스 타임스 편집장



신혜원 연대장이 총무직 제의, 강제로 앉혀 화점회 부활, 소식지 작성, 소모임 참여 독려

체육대회, 캠핑, 소풍, 해끝잔치 등 ‘풍성’
그 시절은 내 인생의 황금기 “관악연대 Forever”

공성식 경영 89

2013년, 관악연대의 연대장으로 81학번 신혜원 선배가 임명되었다. 남가주 지역에 사는 75학번 이후 동문들 모임의 11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미 변호사로서 명성이 자자하던 분이려, 나를 포함해 많은 동문들이 그분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혜원 선배가 나에게 총무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해오셨다. 사실 관악연대에는 총무라는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를 새로 만들며 나를 반강제로 앉힌 셈이었다. 당시에는 괜히 누만 끼치는 것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 돌아해보면 덕분에 그 시절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신혜원 연대장은 “인생 뭐 있나, 한바탕 웃어봅시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글로 임기를 시작했다. 겉보기엔 진지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매우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신년하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 선배의 치밀하고도 대범한 리더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동문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에 한동안 중단되었던 화점회(매주 화요일 점심 모임)를 부활시켰고, 매달 소식지를 작성해 아크로폴리스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지를 통해 동문들의 다양한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활동하던 소모임들은 정말 다양했다. 산악 자전거를 타는 철벽지 모임, 김지영 선배와 함께 대본을 읽으며 영어를 공부하던 스크린 영어 동호회, 고정범 선배가 이끄는 빛다발 사진 동호회, 박건용 목사님의 종교공부 모임, 그리고 켈리프라이즈 밴드까지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동문들이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분기마다 열리는 큰 행사들도 성황을 이뤘다. 5월의 체육대회에는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줄다리기와 릴레이 달리기 같은 경기들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마음이 된 순간이었고, 그 날의 웃음과 열기는 여전히 생생하다.

10월의 가을 소풍도 기억에 남는다. Yucaipa의 사



신혜원 회장과 공성식 총무의 커플 댄스.

과 과수원으로 떠난 이 소풍에서는 동문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과를 따고 애플 사이터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연대장이 선곡해 다같이 불렀던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지금도 10월이면 머릿속에 맴돈다.

12월의 해끝잔치는 그해의 대미를 장식한 행사였다. 동문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며, 저녁 만찬과 각종 공연이 더해져 풍성한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신혜원 연대장과 나는 코믹댄스를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총무로서 활동하는 동안 나에게 개인적인 이벤트를 벌일 기회도 있었다. 바로 아내의 40세 생일을 기념하는 깜짝 이벤트였다. 여러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를 취합해 앨범으로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이

는 원래 아내가 나의 40세 생일에 해주었던 이벤트를 그대로 되갚아준 것이었다.

동문들의 협조 덕분에 이 이벤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아내는 감사 인사와 함께 “마흔! 흔들고 못 먹어도 go!”라는 2행시를 남겼다. 이 이벤트는 동문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에, 내게는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 소식지는 “관악연대 Forever!”라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비록 몇 년 전부터 관악연대의 활동은 멈추었지만, 그 시절 내가 총무로서 보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황금기와 같은 시간으로 남아 있다.

관악연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동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커다란 가족 같은 존재였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 시절 함께했던 추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가 지난 50년동안 의미있는 행사들과 사업들을 통해 동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동창회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동창회 50년사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명호 공대 토목 61

서울대 남가주 공대 동창회장 (1999-2000)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2006)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2021-2023)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이	원	식	(79)
총	무	김	유	석	(82)
회	계	운	연	순	(87)
기	획	유	준	준	(93)
홍	보	이	상	훈	(02)
감	사	김	영	태	(73)
고	문	한	귀	희	(6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창회

이종호 동문, 단독 저서만 5권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에세이 등 다양

이종호 동양사 81

2020년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이종호(동양사학과 81) 동문은 언론인이자 저술가다. LA중앙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에 이어 2021년부터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로 재직하면서도 신문 기사 뿐 아니라 꾸준히 책을 집필했다.

이종호 동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출간한 책은 만50세 기념으로 2012년 한국에서 펴낸 논설 에세이집 '그래도 한국이 좋아'이다. 이 책은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 미주 한인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민자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풀어내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인 2013년엔 명언 에세이집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를 펴냈다.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명



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을 내놓았다. 이 책은 당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으며, 미주 동포 출간 책으로는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초판 매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금도 예스24나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2021년 애틀랜타 중앙일보 대표로 부임한 이후엔 조지아주 산과 명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집필한 답사기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2023년)를 펴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조지아주 한인들의 필독서로 떠올랐고, 지금도 애틀랜타 중앙일보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또 이 동문이 신문에 장기 연재한 미국 역사 시리즈를 모은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 미국 역사'(2023)도 미주 한인들의 미국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밖에도 이 동문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생활정보서 'OC 라이프'(2017)를 비롯해, 애틀랜타 부동산 가이드 '그곳에 살고 싶다'(2021), '조지아 애틀랜타 백과'(2024) 등 매겨진 스타일의 가이드북도 다수 편찬했다.

한편 이종호 동문은 2024년부터 애틀랜타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애틀중앙TV'에 직접 기획하고 대본,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 만든 생활 정보 관련 동영상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동양사학과 81학번 이종호 동문이 출간한 책들.

언 명구를, 발언자 소개와 함께 감칠맛 넘치는 단상을 덧붙여 엮은 책으로, 남가주 동문들의 명언(?)도 다수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에는 역사 교양서 '세계인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채 규 황

법대 69
2025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제6장

동호회

남가주 동문합창단

산악반

말수회 골프

서기회(서울대 기우회)

문리대 이목회

산악자전거 철벽지

55학번 동기회

58학번 동기회



서울대 동문합창단 “화음 맞추다 보면 세상 근심 다 없어져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6년 연속 공연
단장 박진국(의대 65) · 지휘 장진영(음대 88)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모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24년 8월 24일 콜번스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은 8회째.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지휘로 11개의 합창곡, 독창과 중창 등 주옥같은 노래를 들려줬다.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가야금 산조도 곁들여 공연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진국(의대 65) 단장은 “이번 정기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매주 한차례 모여 강도높은 연습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연의 테마는 ‘고향’. 곡도 주제에 맞춰 골랐다. 박 단장은 “우리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

는 ‘디아스포라’들”이라며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고 고마워했다.

합창단은 이른바 ‘MZ 세대’의 젊은 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 단장에 따르면 음대 성악과 출신들은 물론 간호대 공대 문리대 사대 가정대 의대 등 각 단과대 동문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어 단원들간의 유대도 매우 돈독하다.

합창단은 지난 2018년 미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국립합창단의 초청을 받아 한민족합창축제에 참가

한 바 있다.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LA 다운타운의 나성영락교회에서 연습을 한다. “3개월 연습한거와 6개월 연습한거와는 하늘과 땅차이가 나요. 연습량에 따라 공연의 질이 달라집니다.” 박 단장의 경험칙은 바로 연습이다.

오렌지카운티의 뉴포트 비치 집에서 연습 장소인 나성영락 교회까지는 왕복 거의 100마일이 넘는다. 트래픽까지 감안하면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한다. 그래도 단원들과 화음을 맞추다 보면 피곤이 금세 가신다.

“합창단은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정신 건강에 노래만큼 좋은 보

약이 없어요.”

합창단은 지퍼홀 공연에 앞서 클래식 음악의 메카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6년동안이나 공연을 가졌다. 남가주 총동창회 50년 역사에서 길이 빛날 업적 중의 하나로 꼽힌다.

디즈니홀 첫 공연은 지난 2006년 8월 4일. 서울대 개교 60주년과 광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치러졌다.

노명호(공대 61) 당시 총동창회장은 지금도 그날의



왼쪽부터 박진국 단장, 김옥경 전 단장, 장진영 지휘자
(사진=미주중앙일보)



지난 2022년 11월 19일 콜번스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의 공연.



김병완(공대 58) 전 합창단장은 ‘미스터 스마일리’ (Mr. Smiley)로 통한다. 늘 웃는 다고 해서 부쳐진 별명이다.

붙어졌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합창단은 역사가 오랜 만큼 에피소드도 적지 않다.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 있다. 김홍묵(문리대 60) 단장 시절 물리학과 출신이 무려 6명이나 됐다. 단일학과 중에는 ‘최다’를 기록한 것. 김 단장이 물리학과 출신이어서 후배들이 대거 합창단에 가입

감격을 잊지 못한다. “경험도 없는데 디즈니 콘서트홀이라니...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며 처음엔 반대도 많았어요. 2천석이 넘는 객석을 어떻게 채울거냐. 그래도 밀어붙였어요.”

노 회장은 막이 오르기 전 객석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눈시울이

한 것이다.

합창단은 장진영(음대 88) 동문이 지휘한다. LA 오페라 캠퍼니에서 resident artist, LA 필하모닉과 패서디나 심포니 등과 협연을 했다.

합창단 지휘는 공대 이상훈 선배의 권유로 맡게 됐다. “취장암 투병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하시던 이 선배님은 꼭 서울대 합창단 지휘를 맡아야 한다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겨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어요.”

2015년부터 합창단 지휘를 맡은 장 동문은 “원로 선배님들, 젊은 후배들 누구나 공감하고 또 청중이 좋아할 레퍼토리를 추구합니다. 외로워질 수 있는 이 민생활에 함께 모여 노래하며 추억을 되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경험의 장입니다.”

장 지휘자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동문들은 실력,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 문의: (818) 307-7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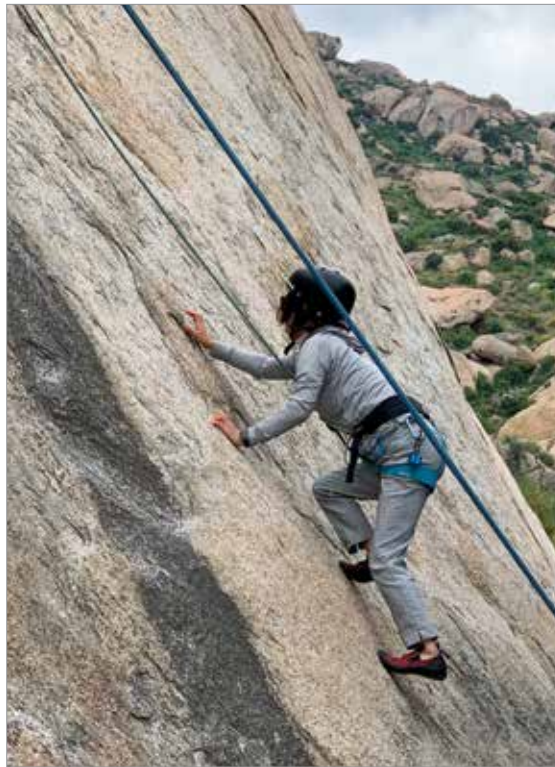
나이를 정복한 산악반 경사각 70도 암벽도 거뜰...

막내가 60대 중반, 대부분 70~80대 노익장 과시
레이크 페리스 '빅락' 200피트, 모두 등반에 성공

“(앞을) 보고, (발을) 믿고, (허리는) 펴고...” 절벽 아래서 로프를 당기며 ‘빌레이어(belayer)’가 찌렁찌렁 목소리를 높이면 바위에 몸을 맡긴 ‘초짜’들은 따라서 복창한다. “보고, 믿고...” 어느새 등반화가 바위에 밀착, 몸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빌레이어’는 암벽등반에서 이른바 ‘조교’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페리스의 빅락(Big Rock). 서울대 산악반의 2024년 5월 산행 장소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암벽등반. 바위를 손과 발의 마찰력으로 오르는 슬랩 클라이밍(slab climbing)이다.

파킹장에서 숲길을 따라 나서자 얼마안가 우람한 바위가 나타났다. 숲이 이 거대한 화강암 바위를 뚫고 숨겨놓고 있었던 것. 깎아지른 듯한 바위를 올라가야 하는 난코스다. 바위 정상까지는 약 200피트. 경사각은 무려 70도다. 바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70대 여성 대원이 경사각 70도의 바위를 맨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날 산행에 참가한 30여 대원들 가운데 제일 막내는 60대 중반의 두 여성. 나머지는 모두 70~80대다.

김동근 대장은 프로급 클라이머다.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쉬워요. 내 발을 믿으면 됩니다. 로프를 하네스에 차고 올라가면 ‘빌레이어’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주니까 그냥 믿으세요.”

대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대장이지만 대부분 앞에 턱 버티고 서있는 바위에 압도당해 서로 눈치만 살핀다.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한 여성대원이 자원

하자 모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초짜, 그것도 60대 중반에 가까운 여성이다. 그가 정상 정복에 성공하고 내려오자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날 남녀 통틀어 두 번씩이나 등반에 성공한 유일한 대원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이후 너도 나도 하네스에 로프를 매고는 바위에 올랐다.

이날 동기부여가 된 또다른 인물은 현장에서 만난



김동근(왼쪽) 대장이 암벽 등반 전 장구를 챙기고 있다.

한 미국인 클라이머. 오는 7월이면 90세가 된다는 이 남성에게 호기심이 집중됐다. 이 노인의 화려한 ‘무용담’에 귀를 쫓긋 세운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요구하자 흔쾌히 받아들이는 등 이날의 반짝 스타가 됐다.

사이즈 10.5를 신는다는 김자성(의대 79) 대원은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 등반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80대 동료들의 활약에 자극을 받았다. 사이즈 9.5의 신발을 신고는 기여코 암벽을 정복한 것. “발을 신발에 맞추라”는 주변의 터무니 없는 강권에 따라 힘을 냈다.

산악반의 월례 행사는 등산 뿐 아니라 ‘현장 강의’도 겸한다. 단골 강사는 김동근 대장. 소동파의 적벽부를 비롯해 유명 한시를 읊어가며 해설해 대원들의 지식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날의 ‘강의’는 박진국(의대 65) 대원의 ‘미네소타 프로젝트’였다. “우리가 이처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미네소타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나라를 돕기 위해 미국이 마련한 플랜이다. 의대와 간호대, 농대와 공대의 서울대 출신 젊은 학자들을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시켜 선진학문과 과학기술을 습득하게 했다.

“미네소타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

마운 프로젝트입니다.” 박 대원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또다른 기록을 쓴 이는 남중우(공대 62) 박사. 초스피드로 바위에 오르자 이에 놀란 ‘빌레이어’ 김인중(농생대 74) 동문이 급제동을 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선배님, 천천히~.” 그래도 개의치 않자 급기야 톤을 높였다.

“중우형! 이제 좀 쉬세요, 제발.”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 들었다.

이처럼 80대가 바위를 타는 모습을 지켜본 한 대원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한마디 했다. “요새는 자기 나이에 30을 빼야 되요.”



‘빌레이어’는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교’다. 김인중(가운데) 빌레이어가 대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서울대 산악반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바위를 타라니... 으앗!”

등록 회원만 60여명... 매달 첫 토요일 산행
김동근(공대 60) 대장, 후임자 없어 ‘만년 현역’

남가주 서울대 동문 산악반은 공대에서 비롯됐다. 1977년 김동근(공대 60) 동문이 조직한 동호회로 전체 동문을 아우르는 산악반으로 규모가 커진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다. 매달 첫 토요일에 정기 산행을 간다.

산악반은 김 동문이 50년 넘게 혼자 꾸려가고 있다. 이미 팔순이 넘었는데도 그 자리를 물려받겠다는 후임자가 아무도 없는 탓이다. 등록 회원만 63명에 이르는데도.

최근 산행을 간 곳은 라카나다 인근의 마운트 워터맨 하이킹 트레일헤드. 왕복 12마일이 넘는 가파른 산길이다. 허겁지겁 점심을 먹고나자 김동근 대장이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을 앞으로 불렀다. 요즘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민(공대 77) 동문 아들의 피살사건을 요약 정리해 설명하라는 것.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경찰 총격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비극이다.

양 동문의 설명이 끝나자 시계는 이미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원들은 이제 곧 하산을 하나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 “자, 이제부터 바위를 타며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예상은 어이없게도 한참이나 빗나갔다. 일행 앞에는 빌딩 몇채만한 화강암 바위덩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으앗!” 아무 준비없이 어떻게 저 바위를... 김동근 대장이 맨손으로 바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었던 것. 어느새 바위 꼭대기에 걸터앉아 로프를 단단히 매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대원이 고개를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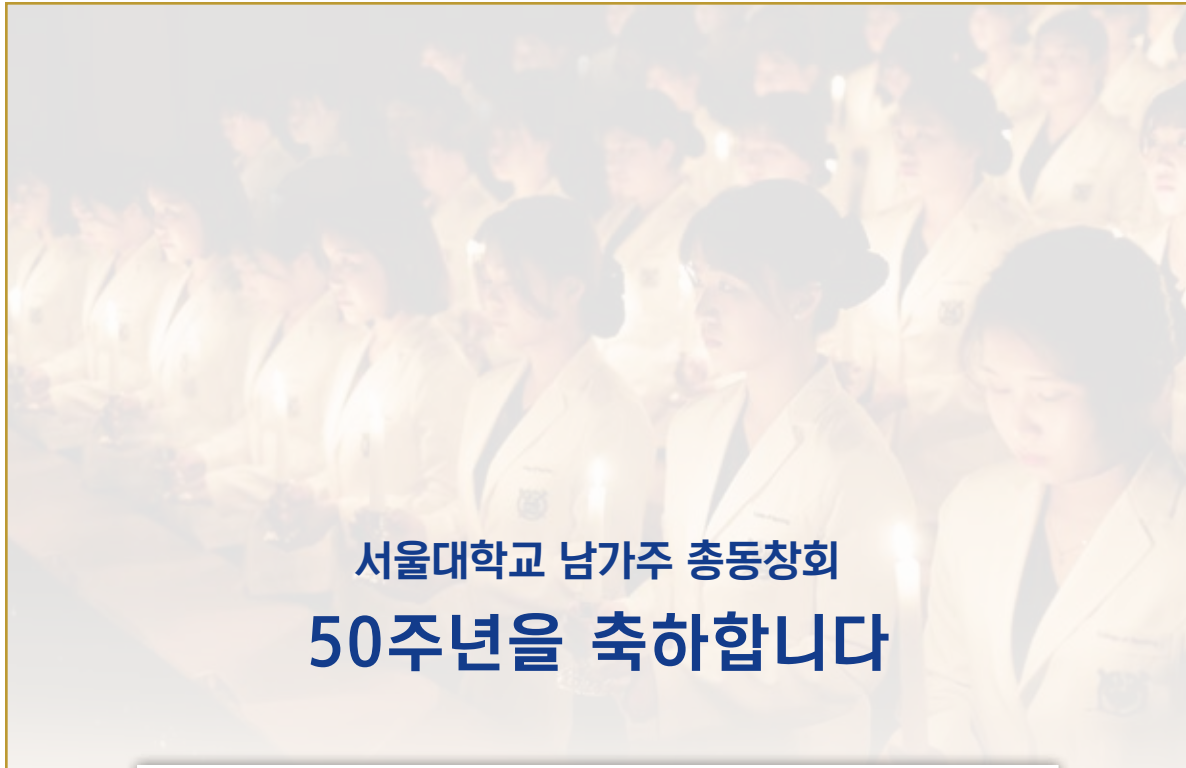


지난 2022년 6월 정기 산행을 마친뒤 대원들이 김동근(공대 60) 대장의 80회 생신 축하연을 베풀었다.

레설레 흔들었다. “우리 대장님 은퇴는 결코 없을거다. 오래오래 사시어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소서.”

김 동문은 소년시절부터 산을 유별나게 좋아했다고 한다. 경기중학 다닐 때부터 산악반에 들어가 그때 벌써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의 명산은 거의 모두 등반했다. 20여 년 전 그의 환갑기념 등반은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상징인 ‘엘 카피탄(EI Capitan)’ 암벽을 로프에 매달린 채 이틀밤을 꼬박 세운 끝에 정복, 한인 알피니스트 역사를 새로 썼다.

김 대장의 3년 선배인 정동구(공대 57) 동문은 하산 길에 이런 말을 들려줬다. “나는 그분이 서두르거나 불안해 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군자, 곧 젠틀맨입니다.” 그러면서 시 한수를 대장에게 바쳤다. “청산은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티없이 살라하네/ 바람처럼 살다가라 하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이 종 묘 (69)
부회장 이 안 순 (78)
총 무 김 성 옥 (8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남가주 동창회

‘말수회’ 동호회 모임 골프 애호가들 “하하호호” 매월 마지막 수요일

15년째 아케디아의 샌타 애니타 골프 클럽에서 열려
1953~2018 학번까지... ‘꾼’들의 입가엔 미소 흐르고

서울대 남가주 동문 골프동아리 모임인 ‘말수회’ (회장 한효동·공대 58),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언뜻 촌스럽지만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김진진 (문리대 62) 창립멤버의 작명.

지난 2009년 5월 첫 모임을 시작해서 15년째 아케디아의 샌타 애니타 골프 클럽에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10주년기념 골프대회를 열었고 15년이 된 2024년 6월에는 최종혁(대학원 68, 초대회장) 댁에서 가든 파티를 즐긴데 이어 7월에는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문리대 66) 초청 대회를 테미큘라에 있는 레드박스 골프클럽에서 가진 바 있다.

2017년 신춘 말수회 풍경

2017년 첫 모임이 1월 25일(수) 아케디아에 있는 샌타 애니타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겨울 폭풍 뒤 활짝 갠 날씨 속에 말수회의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자리였다. 작년 11월 29일에는 20명의 회원이 같은 코스에서 2016년 남회를 가진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 김윤호(공대 62) 회원이 9번 홀에서 이글을 하는 행운을 누렸다.



말수회는 제 34회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챔피언십 대회에 서울대 대표팀으로 출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효동(왼쪽) 회장과 최종혁 초대회장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티타임 예약

골프 모임에 티타임 예약만큼 귀찮은 일도 없을 것이다. 말수회는 방석훈(농대 55), 최종혁 선배들의 티타임 예약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영어도 안되고 인터넷도 못해서...”

최고참 선배들이 70대 젊은(?) 후배에게 회장 자리를 맡기며 티타임 예약을 자원했다. 2년여 동안 매월 모임 1주 전 수요일 새벽 여섯시에 일어나 4-5개 팀의 티타임을 예약하고 있다. 두 선배 덕분에 나머지 회원들이 편히 라운딩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영어가 안 되느니 인터넷을 못하니 하는 말씀은 물론 사실이 아니다.

‘꾼’들의 놀이

말수회 날이면 샌타 애니타 코스 한 쪽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신이 내린 스포츠’, ‘최대의 단점이 재미’라는 골프의 재미에는 ‘꾼들의 놀이’ 내기 골프를 빼놓을 수 없다. 김윤호 선배는 차로 두 시간 거리를 단숨에 달려 왔다. 새벽 골프를 치고 말수회에 나온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골프 열정만으로 그 먼 길을 달려 온 것만은 아니다. 김윤호선배가 드라이빙 레인지로 다가가자 이미 김귀섭(문리대 62) 선배가 연습에 열중해 있다.



최종혁 동문 자택에서 열린 말수회 19번 홀 모임. 최상급 갈비가 나와 “모처럼 입이 호사를 누렸다”며 다들 고마워했다.

아직도 헨디캡은 연습에 비례한다고 믿는 그들이다. 김귀섭 선배는 수년 전 은퇴한 후 과학적 골프를 연마한 끝에 장타자가 되어 꾀들의 놀이에 합류했다.

꾼이어 예의 최종혁 선배가 풀카트를 끌고 빠른 걸음으로 나타난다. 샷게임의 명수. 그와 라운딩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그 정교한 솜씨에 혀를 두른다. 꾀들의 멤버인 S회장이 부부팀에 들어가고 한정현(치대 55)선배가 선을 보였다.

한 선배는 여름에 새로 등록된 고참 선배로, 꾀들의 강자 김윤호 선배의 사부(?)였다고 하니 실력이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어떤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포커페이스에는 눈빛만 빛난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는지 마살이 오는지 모르는 채 신이 내린 꾀들의 놀이에 빠져 있다.

푸짐한 뒤풀이

푸짐한 요리가 뒤풀이 식탁에 오른다. 최종혁 선배가 메뉴 선택도 맡았다. 최 선배는 정원에서 굴을 따다 회원들에게 나눠 주곤 한다. 플레이를 마친 회원들이 골프장 근처 중국식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뒤늦게 도착한 꾀들은 스코어 카드에 얼굴을 묻고 손익계산 중이다. 애주가들이 모인 자리에는 웃음소리가 요란하다.

한편 D 선배(2019년 작고)는 똑딱이 셔터 누르기

에 바쁘다. D 선배가 셔터를 누르면 모임은 한결 활기를 띤다. 말수회 날 찍은 사진은 그날의 이야기를 담아 다음 날 아침 회원들에게 배달된다. 사진은 영원하다(?). 노 선배의 사진 이야기는 말수회의 역사.

즉석 말수회 합창단(대부분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원)의 ‘즐거운 나의 집’이 울려 퍼진다. “내 실 곳은 작은 집~” 말수회가 골프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즐거운 곳, 편히 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의 말수회

금년 5월로 말수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2019년 한효동 회장이 새로 취임한 이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의 최대 동호회가 되었다. 회원이 1953년 학번부터 2018년 학번까지 80여명에 이른다. 실력도 대단하다. 에이지 골퍼가 수명에 이르며 신문사 골프 대회에 나가 우승, 준우승 트로피를 챙겨온다.

동문 누구든 환영

“1년안에 보기 플레이어가 되겠다”. 수년 전 골퍼에 갓 입문한 K 선배(58학번)의 말수회 등록 일성이다. 나도 60이 넘었다고 외치는 80학번 여성 동문은 골퍼에 ‘목숨 걸었다’면서 85세까지 골프를 치겠다고 80줄 선배들의 기를 죽여 놓는다.

말수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말수회에는 딱딱한 규칙도 선납 식대 외의 별도 회비도 없다. 한 달에 한번 마지막 수요일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 동문들과 운동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면 된다.

글: 현기웅(문리대 64)

서기회(서울대 기우회) “바둑은 삶의 축소판입니다”

복잡한 인생사와 신통하게 닮아있어
‘사소취대’ ‘일수불퇴’ 등 교훈도 많아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전체 361목으로 짜여있다. 가로는 42cm, 세로 45cm다. 그런데 이 판 위에는 단 한 번도 같은 수가 펼쳐지지 않는다. 놓는 돌에 따라 기보가 달라진다.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활로가 열리기도 하고, 무심코 놓은 돌이 패착이 돼 판세를 뒤집기도 한다.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진석(법대 64) 서기회(서울대 기우회) 회장의 바둑 예찬론이다. “한 판의 바둑은 신통하게도 복잡한 인생사와 닮아 있어요.”

최 동문의 맞수인 신영찬(의대 63) 동문은 아마 5단. 그 역시 최 동문의 견해에 동의한다.

“바둑은 단순한 집 짓기 싸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바둑 둘 때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과 교훈 등을 담은 바둑 격언은 우리네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호주(공대 64) 동문은 국민(초등)학교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워 익힌 ‘짤 바둑’의 소유자. 기원급수로는 4~5급이다. 아마(타이젠)로는 3단 쯤 된다.

“저는 늘 사소취대(捨小取大)를 교훈으로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탐하지 말고 큰 것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인생에서도 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기회 회원들이 바둑 삼매경에 빠져 있다.

채규황(법대 69) 동문은 초등학교 2~3학년 때 아버지 친구들의 바둑 두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대국을 하며 ‘전술’을 익혔다.

본격적으로 바둑수업을 하게 된 것은 LA에서 ‘고수’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고수는 일본에서 임해봉 명인과 두 점을 깔고 뒤 한 집을 졌다고 한다. 임해봉은 1960~70년대 일본 바둑계를 평정했던 중국출신의 전설이다.

채 동문은 LA의 ‘고수’로부터 6개월 가량 지도를 받아 기량이 급속히 올라간 케이스다. 주변에선 채 동문을 아마 2~3단으로 분류한다.

“요즘은 유튜브의 ‘10초 바둑’에 푹 빠져 지내요.



온누리 교회팀과 친선대국을 벌인 서기회 회원들.

15~20분 만에 대국이 끝납니다. 너무 재밌어 거의 매일 봅니다.”

홍동식(법대 64) 동문은 ‘서울대의 기인’으로 불리는 홍종현 프로 9단의 ‘제자’다. 그와 동기생인 홍 동문은 8점을 깔고 뒤 지면 담배 한 갑을 사서 ‘바쳤다’고 한다.

최 동문에 따르면 홍종현은 한때 명인 조남철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5공시절 군부 권력실세들과 가깝게 지내 기재를 펴지 못하고 사라진 불운한 천재다.

홍종현과 고교(경기고) 동기생인 이호주 동문도 대학 재학시절 그의 기재가 하늘을 찔렀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신영찬 동문은 기원에서 이일선 사범(프로 3단)으로부터 바둑의 정석과 행마 등을 배웠다. 고교 졸업 후 대학 학기 시작 전까지 2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기량을 익힌 덕분에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고 했다. 본과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강의 시간 중 노트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둘 만큼 바둑에 ‘미쳐’ 있었다시피 했다.

무릇 바둑에 헌법이 있다면 제 1조 1항은 단연 ‘일수불퇴’다. 한 번 놓은 돌은 절대 무를 수 없다는 뜻이다.

“무를 수 없는 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선택해 발을 내딛었다면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 동문은 바둑을 둘 때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웃음을 여겼다.

뒤편이해도 바둑을 한 단어로 압축 표현하려면 ‘기성’ 오창원의 ‘조화론’이 아닐까 싶다. “바둑의 본질

은 싸움이 아니다. 상대와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의 작품이다. 조화에 바둑의 품격이 있고 그 조화의 미묘함에 바둑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서기회는 지난 2023년 9월 발족한 남가주 바둑동호회다. 아마 5단인 최진석 동문이 초대 회장, 아마



신영찬(의대 63, 왼쪽) 동문과 채규황(법대 69) 두 고수가 맞대국을 펼치고 있다.

9단 나천택(공대 68) 동문이 사범, 홍선례(음대 70) 동문이 총무를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다.

서기회는 온누리 교회 인싱크 바둑반과 친선 대국을 갖는 등 한인사회의 바둑 애호가들과의 모임을 통해 바둑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 (213) 321-6428(최진석)

‘이목회’의 19번 홀 잔치 김순길 동문의 ‘통 큰’ 랍스터 갈비 메뉴 고령에도 풀 파티 자청한 이영일 큰 선배

“골프 코스에서 한 라운드는 18홀이지만 완벽한 홀은 19번 홀(19th hole)에서 끝난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골프를 가장 사랑했다는 아이젠하워가 남긴 명언이다.

아이젠하워는 재임 8년동안 골프를 무려 800번 넘게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력으론 중하위 골퍼에 불과했지만 그가 골프를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다. 18번 홀을 다 돌고 나선 동료들과 함께 19번 홀이라 불리는 클럽하우스의 식당이나 바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날 라운드의 베스트 샷, 제일 멋진 샷, 안타까운 샷 등을 얘기하면서 와인잔을 기울였다. 이렇게 19번 홀에서 나누는 담소는 실제 라운딩할 때 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준다.

동문 골프 모임 중 가장 널리 회자되는 19번 홀은 문리대의 뒷풀이. 문리대 골프 모임은 매달 두번째(2) 목요일 라운딩을 한다고 해서 ‘이목회’라 불린다. 단독방에 이름을 올린 이목회 회원만도 30여명이나 된다.

이목회의 19번 홀은 호스트가 대체로 특정돼 있다. 지난 2023년 7월 13일 열린 19번 홀은 이영일(정치학 53) 동문의 풀러튼 집에서 열렸다. 90세의 고령인데도 굳이 자택에서 모임을 갖겠다고 해서 성사됐다.

이목회 회장격인 김상찬(지질학 65) 동문은 이번 19번 홀 모임은 풀 파티로 진행된다며 가능한 한 수



19번 홀의 호스트 이영일(정치 53, 왼쪽) 김순길(외교 61) 동문.

영복 지참을 사전 고지, 흥을 돋우었다.

이목회의 19번 홀 모임에는 골프를 안치는 동문들도 찾는다. 이날 오후 3시쯤 이채진(정치학 55)·강미자(음대 62) 동문 부부가 50여 마일의 먼거리를 손수 운전해 집주인과 반갑게 해후했다. 이채진·이영일 두 동문은 학창시절부터 익히 알던 선배사이. 이어 골프를 끝낸 동문들이 수영장에 풍덩 몸을 던져 더위를 식히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날 점심점 디너는 최상품 통갈비와 각종 해산물, 제철 과일 등으로 푸짐하게 상이 차려졌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메뉴는 단연 ‘열무김치 메밀국수말이.’

주준희(외교학 72) 동문이 단독방에 올린 글은 압권이었다. “국수를 말아먹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선배님이 손수 주신 ‘블러디 메리’는 엄지척이고요. 그리고 풀에 들어가니 시원하고 상쾌하고. 완벽한 7월의 하루였습니다.”

이날 모임의 막내는 송명국(철학 90) 동문. 캘리포니아 주립대(롱비치) 경영학 교수인 송 동문은 선배들의 ‘입담’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혹시 세대 차이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송 동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넌 재밌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요. 앞으로 (골프는 안 치더라도) 19번 홀 모임 만큼은 빠지지 않을 작정입니다.”

호스트인 이영일 동문은 남가주의 올드 타이머. 제 1호 공인회계사(1971년), 남가주 CPA 회장을 지낸 유명인사다. LA 폭동 때는 한인으론 처음으로 연방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복구에 힘썼다.

‘이목회’의 19번 홀 전통은 김상찬 동문에서 비롯됐다. 골프는 LA의 외곽도시 다운타운에서 거의 매번 열리는데 마침 김 동문의 누님댁이 인근에 있었던 것. 누님이 이목회 회원들을 집으로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동문 누님의 배려에 감격한 박정모(사회학 66) 동문이 ‘멕시코 카드’를 꺼냈다.

멕시코 바다낚시를 가 19번 홀 파티에 싱싱한 횡감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 공교롭게도 당일 풍량이 거세게 일었지만 낚시배를 탔다.

박 동문이 잡아온 횡감은 30여 명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 박 동문의 멕시코 낚시는 지금도 문리대에서 거의 레전드급으로 통한다.

곧바로 바통을 이어 받은 이는 김순길(외교학 61) 동문. 건강이 허락하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19번 홀을 호스트하겠다고 공개선언해 놀라움을 안겼다. 김 동문은 허리 수술을 두 번이나 해 골프를 못한다. 오래 서있기도 불편한데 ‘동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호스트를 자청한 것.

“(음식을) 준비하는데 1주일 가량 걸려요. 그래도 이목회 열리는 날만 생각하면 기분이 ‘업’돼요. 너무 신나지요.” 랍스터와 왕새우, 갈비, 고급 와인... 눈이 휘둥그레진 어느 동문이 ‘찬조금’을 내자 김 동문은 엄포를 놔다. “앞으로 돈 내는 동문은 우리집 출입금지령을 내릴 겁니다.”

김 동문은 지난 5월에도 19번 홀을 호스트했다. 벌써 세번 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김 동문과 이견희 삼성 회장과의 이루지 못한 인연.’



김순길(외교 61) 동문 자택에서 열린 문리대 이목회 19번 홀 모임.

사연은 이랬다. 6·25 때 경주 감포란 곳에서 피란 생활을 했던 김 동문은 몇년 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서울사대부중 편입시험을 치렀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기성회비가 발목을 잡을 줄이야.

김 동문의 아버님은 의사로 성품이 올곧은 분이였다고 한다. “국립학교에서 왜 기성회비를 건느냐”며 화를 내곤 김 동문의 손을 낚아챘다. 전차를 타고 대방동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성남중학교 앞을 지나게 됐다. “아, 여기도 학교가 있네” 아버님 말씀 한마디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김 동문이 성남 중·고교를 나오게 된 배경이다.

“아버님이 기성회비만 냈으면 서울사대부고를 나왔을텐데. 이견희 회장과 고교 동기가 됐을거예요.” 이 말에 여기저기서 아쉽다는 코멘트가 이어졌다. “인생이 바뀔 뻔 했겠네요.”

어느새 한여름 밤이 송알송알 영어어 가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자 박정모 동문이 끝맺음을 했다. “정확히 9시 39분에 해산입니다. 선배님도 주무셔야지요.”

모두들 일어서자 이날의 호스트인 이영일 동문이 손전등으로 어둠을 환히 밝히며 후배들을 배웅할 준비를 했다. 이 모습을 본 한 동문이 “30년은 젊게 보이신다”며 큰선배의 손을 꼬옥 잡았다.

“The age is clearly just the number. 89 is the new 59.”

산악자전거 ‘철벽지’ ‘잔차질’하다보면 ‘산뽕’에 흠뻑 빠져

샌프란시스코-LA 500마일을 자전거로 달려
백정현 동문은 로드바이크로 LA-뉴욕 대륙횡단



태평양 비치도 철벽지들의 놀이터다.

2009년 송정우(83)를 비롯한 남가주 관악연대의 83학번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모여 산악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이상대(80)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른바 ‘철벽지’ 동호회가 발족된 것이다.

첫해 LA 지역에서도 대거 참여하여 모두 30여 명의 회원이 가입, 산악자전거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철벽지는 2대 회장 김성수(80), 고정범(79), 서치원(69), 유혜연(79) 회장에 이르기까지 매달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 신나게 산길을 달렸다. 30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달리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철벽지는 많은 부러움을 사고 관악 연대 스포츠 동호회의 꽃이 되어가면서 남가주 대부분의 산악자전거 트레일을 점령하다시피 했다. 회원간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잔차덕후’ 송정우와 함께 자전거

의 물리학을 고민하면서 자전거 페달질로 “공공” 산을 오르내리고 나면, 푸짐한 뒤풀이가 기다린다. 회원들의 허기진 에너지를 달래주고,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피로를 날려보내며 잡학수다의 꽃이 만발한다.

뒤풀이 식사 선택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간 차재운 동문 담당. 회원들은 자기들만의 속어 “잔차질”(자전거를 잔차로 부름), “산뽕에 빠졌다”(산악자전거 매니아가 됨) 등으로 대화하면서, 개울물에 빠지고 풀썩에 나가떨어져도 서로를 ‘전사’라 부르면서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시들해진 열정과 잇따른 사고, 또 한국으로 귀국한 회원들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이 줄어들어 관악연대의 쇠퇴와 맥을 같이하여 막을 수 없었다.

2015년 뒤늦게 참여한 양수진(80) 동문은 가입 두 달만에 한국에서 놀러온 동기생 이은정(80)을 트릭 운전사로 앉히고 백정현(66), 서치원(69) 선배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해안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장장 500마일을 로드바이크로 달리게 된다.

여세를 몰아 철벽지 회장을 맡은 양 동문은 정기모임과 특별모임을 만들어 매주 모임으로 바꾸고 새로운 트레일을 찾아내어 모임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제2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때 남가주의 1만4000피트가 넘는 화이트 마운틴을 산악자전거로 정복한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겨울엔 스키장으로 여름엔 산악자

전거 파크로 바뀌는 맴머스 마운틴 리조트에서 멋진 다운힐을 즐기기도 했다.

기나긴 오름길을 땀을 뻘뻘 흘리고 페달질을 하면서 “왜 이 짓을 하니?” 하고 서로 마주보며 한탄하다가 정상에 오르고, 다시 핸들을 바꿔 내려가는 길은 “이맛에 산 잔차질을 한다” 소리치며 일명 ‘죽음의 산뽕’을 맞기도 한다.

2000년대 학번인 진석호(일명 ‘철동자’)가 나타나 즐거움을 더해주었는데 그는 미친듯이 자전거에 심취하여 매일 타다가 근육이 녹아내리는 건강의 위험도 겪었다. 60년대 학번으로 젊음을 과시한 김홍목(60), 김상찬(65) 전사의 뒤늦은 가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겠다.

산악자전거의 험한 특성상 여성 전사가 많지 않았는데 유혜연, 양수진, 이상실(88) 동문들이 멤버였으며, 그중 양수진과 이상실은 30일 동안 알래스카 로드트립을 하면서 그랜드 티톤과 여름 바이크 팩인 캐나다의 휘슬러를 비롯하여 산악자전거를 만끽하였다는 후문이다. 또 양수진 동문은 한국에서 서울 부산간 자전거 국토 종주를 홀로 끝냈다고 하니 정말 인생을 즐기는 멋진 여성들이 아닐 수가 없다. 양 동문의 자전거는 다투어도 있다. 이른바 ‘철부지’다.



기차길엔 철벽지들의 쉼터.



철벽지 회원들이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산길을 오르고 있다.

송정우는 처음 철벽지를 시작한 잔차 덕후이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자전거의 모든 것은 송정우로 통하는 동문이다. 기계 물리학적, 기술 물리학적 관점으로 자전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대사부’라는 호칭을 수여받았고 험한 암벽도 어렵지 않게 오르내리는 유일한 잔차꾼이다.

백정현 동문은 로드바이크로 미대륙 횡단을 하여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가끔씩 산악등반과 기술 훈련을 주도하면서 ‘대장’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멋진 로고와 유니폼을 입고 뽐냈던 철벽지는 지금은 회장 없이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 비디오와 사진 촬영을 담당한 박철민(81), 밤새 일하고도 아침에 거뜬히 잔차를 타러 나오는 김영주(88)를 중심으로 일반인도 포함돼 잔차를 즐기고 있다. 김용규(83), 송호찬(80), 김자성(79) 동문들도 간헐적으로 나와 참여하고 있다.

글: 양수진(간호대 80)

‘55학번’ 동기회 매달 마지막 화요일 만남의 시간

공대출신이 문리대 회장을… 폭소 공동 관심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남가주에는 ‘55+UCLA’라는 모임이 있다. UCLA에서 수학한 55학번 동문들을 일컫는다. 1960년대 중반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일본 도쿄에 들러 미국 땅을 밟은 학번들이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이면 부에나팍의 소스몰에 모여 화제의 꽃을 피운다.

최근 주재현·이항기·박인석·김덕만·이채진 동문 등이 부부동반해 모였다. 정치학을 전공한 문리대의 이채진(클레어몬트 매키나대 석좌교수) 동문만 빼고는 모두 공대 출신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주재현 동문의 ‘입담’. 트로피까지 들고와 ‘무용담’을 들려줬다. 1995년 문리대동창회 골프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그런데 공대출신이 어떻게 문리대 동문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서 메달리스트가 됐을까.

이 교수가 곁에서 궁금증을 풀어줬다. 문리대 모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다보니 누구나 주 동문이 문리대 출신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문리대 회장 추대까지 받았으며 비화를 공개, 모임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주 동문은 문리대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어 결국 이실직고하고 말았으며 멋적은 표정을 지었다.

왜 공대 동창회에 나가지 않고 문리대에 나갔느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이날 공동된 관심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필기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져 혼쭐이 났다는 얘기에 저마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올해부터 문제가 거의 모두 바뀌어 ‘열공’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항기, 주재현, 강미자, 김덕만, 이채진, 박인석 동문.

“금년말 즈음 나도 갱신해야 하는데…” 시력이 약한 이 교수가 끌탕을 하자 누군가가 즉석에서 처방을 내렸다. 1주일에 두 세번 장어를 먹으면 정상 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아내 강미자 여사가 반색을 했다. “맞아요. 오늘 말씀 잘 하셨네요. 이 양반은 워낙 고집이 세서 내 말을 안들어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는데…” 이 교수를 쳐다보며 눈을 흘겼다.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 교수 부부는 동문이다. 음대 62학번인 강 여사는 미국에 유학, 줄리아드에서 수학한 소프라노다. ‘카네기 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한때 정상을 달렸던 분이다. 한국인 성악가로서는 처음으로 카네기 홀에서 데뷔했는데 빛바랜 당시 포스터를 지금도 ‘가보’처럼 간직하고 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올드타이머 한 분은 UCLA

박사과정 공부를 하던 중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장어를 거의 매일 3개월 가량 먹고나서 신문의 작은 글씨까지 읽게 됐다는 얘기에 이 교수는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오늘 저녁부터 장어구이 먹는 거예요.” 강 여사의 채근에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동문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 여사의 ‘피난열차’도 이날 화제가 됐다. 평양이 고향인 그는 1·4 후퇴 때 부모를 따라 피난열차 지붕 위에 올라탄 채 남쪽으로 왔다. 잠시 머무르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휴전이 되는 바람에 강원도 영월의 탄광촌에 정착하게 됐다. 가난이 그를 짓눌렀으나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부모의 재정적 지원없이 강원도 산골을 벗어났다.

이화여중,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 음대까지 거침 없이 혼자 힘으로 내달렸다. “언어와 음악으로 감정의 깊이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성악가는 아주 드물다. 강미자는 재능과 지혜를 겸비한 흔치 않은 소프라노다.” 줄리아드 음대시절 사사한 오렌 브라운 교수의 평이다. 모임에선 사공일(전 재무장관) 동문 등 함께 수학했던 동문들의 추억담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국립외교원에서 강의 일정이 잡혀있어 곧 출국할 예정이다.

“그럼 오늘이 자네 환송식이네.” 이항기 동문이 짐짓 섭섭한 표정을 짓자 이 교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다음달 모임에 참석하고 비행기 타겠네. 모임에 빠질 수야 없지. 걱정 마시게.” 이 교수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브라보!

50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축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

정 신
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대학원 92

DGE
ESCROW

DIAMOND GLOBAL
ESCROW, INC

홍 훈 정
음대 70

Cell. (818) 402-2005
Tel. (909) 860-3333
Fax. (909) 860-3330

audra.hong@diamondage.com
22632 Golden Sprints Dr., Ste160
Diamond Bar, CA 91765

‘58학번’ 동호회 “우리는 4·19 의거 민주혁명 주도세력”

등록 회원만 40명, 단톡방 만들어 소통
젊은 세대 동문엔 ‘꼰대’ 아닌 ‘롤모델’

가장 자부심이 강한 학번을 꼽으라면 단연 1958년 입학 세대다. 50~60년대의 격동기를 한 몸으로 겪어낸 58학번 세대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사를 압축해 놓았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특히 대학 2학년 때 일어난 4·19 학생 혁명 때는 시위의 선봉 주축이 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온천하에 드러냈다. 학생이 주도한 시위가 민주혁명으로 승화된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족적을 남겼다.

“우리가 모이면 4·19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그때 나는 무엇을 했나’ 되돌아보며 지금 이 나이에 가슴이 뻘뻘



LA한인타운내 강남회관에서 열린 58학번 동기회 모임.

다.” 서울대 58학번 동기회의 박상길(농대) 회장의 회고다.

58학번은 남가주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가장 숫자가 많다. 동기회가 파악한 숫자만도 90명에 이른다.

58학번이 공식 모임을 가진 것은 2024년 2월 임춘택 동문이 남가주 총동창회장에 취임하고 나서다. “선배님들을 모시고 동창회의 진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며 58학번을 LA 한인타운의 강남회관에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모임에서 박상길 동문

을 만장일치, 회장으로 추대해 이후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박상길 회장은 모임을 꾸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4·19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우리 58학번이 이제 손주나 돌보는 뒷방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말이 됩니까. 의기투합해 만든 것이 58학번 동기회예요.”

동기회는 회원 전용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다. 등록된 동문은 모두 37명.

동문들의 경조사는 물론 갖가지 건강 생활정보도 올라와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명선(상대)

동문 등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분들도 적지 않다. 58학번이 동창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양민(공대 77) 동문의 아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사건때다. 한 아시아계 단체가 거주마켓에서 개최한 추모집회에 박상길·한효동 두 동문이 ‘근조 서울대 58학번 동기회’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한 것.

“동기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돼서 근조 플래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플래카드를 사용한 것이 양민 동문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마흔



양민 동문의 아들(양용) 제단에 58학번 근조기를 걸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는 박상길(왼쪽) 한효동 동문.

해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착잡했어요.” 한효동 동문은 못내 아쉬운 듯 고개를 떨궜다.

이 플래카드는 그러나 양민 동문동기에 앞장섰던 관악세대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50년대

학번에 대한 인식이 ‘못말리는 꼰대’에서 ‘우리의 롤 모델’로 바뀌게 된 것이다.

58학번 동기회에 앞서 57학번들도 강신용(사대 73) 당시(2018년) 총동창회장의 도움으로 정기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다. 정동구(공대) 동문이 이끌었는데 김병완·한효동 두 58학번 동문도 ‘준회원’으로 참석했다. 57 동기회는 그러나 얼마 안가 문을 닫았다.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분들이 늘어나고 또 운전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우리 모임이 꼭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문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해요.” 박상길 동기회장은 다음달 모임 참석자들을 확인하느라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축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

김 영 도
공대 67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찬 용 치대 72
장 난 희 간호대 7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안 재 업 (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제7장

인물 50년사

- | | |
|-------|------|
| 박윤수 | 유재환 |
| 벤자민 흥 | 유의영 |
| 정재훈 | 한귀희 |
| 이명선 | 박창규 |
| 임낙균 | 임천빈 |
| 이태로 | 김동석 |
| 하기환 | 이창신 |
| 이기준 | 정인환 |
| 차종환 | 김 영 |
| 김병연 | 김홍묵 |
| 박종수 | 현혜명 |
| 김택수 | 오문성 |
| 백양희 | (무순) |



박윤수(문리대 48) 미주 동창회 초대회장 반도체 박사가 시집 4권 낸 ‘문인’으로

실비치 은퇴마을 문예부 편집위원장 맡아
커뮤니티 봉사로 ‘노먼 빈센트 필 어워드’상

취재는 한 동창회 임원의 전화가 계기가 됐다. 박윤수(문리대 48) 초대 미주 동창회 회장이 얼마전 타계한 윤광식 박사의 외동딸 크리스틴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분은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대 예과시절부터 절친이었다. 동창회보에서 윤 박사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는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크리스틴은 앞서 인터뷰에서 “이제 아버지와 연결고리는 LA의 (박)윤수 아저씨와 애틀랜타의 (김)종건 아저씨 밖에 없다”며 두 분을 몹시도 그리워했다.

셋은 모두 경성대 동기생이다. 앞의 두 분은 화학, 박 회장은 물리학 전공이다. 특히 윤광식 동문과의 인연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주립대학에까지 이어져 함께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득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박윤수 회장을 만나 보고 싶었다. 90대 중반의 고령이어서 대화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섰다. 주변으로부터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지금이라도 오세요.” 그러면서 집 찾기가 쉽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9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었다.

살고 있는 곳은 실비치의 리저월드(Leisure World). LA에서 바닷가쪽으로 약 15마일 가량 떨어진 은퇴 빌리지다. LA에는 연고가 없는 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왔느냐고 여쭙었다. “친구가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어요. 놀러 오라고 하도 성화를 해서 와 봤지요. 비치가 가까워 공기도 좋고, 겨울도 없고... 아 내가 스트로크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박재영 박사. 역시 예과 동기생이다. 마침 앞집에 살고 있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친구가 열린 그 집을 짬해 냈다. 그리고는 연락을 해온 것. “즉석에서 ‘I'll buy it’ 말해줬어요.” 박 회장 부부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

박 회장은 창넘어 친구가 살던 집을 가리키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늙으막에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잠시 깊은 상념에 빠지는 듯 했다.

미주 동창회는 어떤 계기로 탄생했을까. “1990년 홈커밍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했는데 예과 동기생인 조완규 총장을 만났어요. 대뜸 ‘윤수야, 돌아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동창회를 만들어봐’ 하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제의를 받은 박 회장은 귀국 즉시 동창회 조직에 착수했다. 그의 노력과 집념이 결실을



시인으로 데뷔한 박윤수 물리학 박사.

맺어 1년후인 1991년 11월 창립총회를 열 수 있었다. 남가주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주요 5개 도시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동창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창립 총회에는 한국서 조완규 총장과 최주호 총동창회장 등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미주 동창회의 출범을 축하해줬다.

박 회장이 태어난 곳은 경북 김천이다. 부모는 그러나 평남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도운 탓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천에 터를 잡게 된 것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의 부모는 일찌기 기독교로 개종한 독실한 장로와 권사였다. “저희 형제(7남매)는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유행가도 부르지 못했고... 찬송가와 동요가 아는 노래의 전부였습니다. 화투도 못쳤어요.” 박정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박 회장의 동생이다.

박 회장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그의 표현을 빌자면 당시 경성대 예과에 들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모험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전국서 내로라하는 수재들과 당당히 겨뤄 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선망의 대상이 됐다. “경성대 망토를 걸치고 김천여고 교정을 한바퀴 돌곤 했는데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고향 처녀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박현주 여사는 이화여고 출신이다.

경성대가 서울대로 흡수 편입되면서 문리과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한다. 예과 출신은 자신이 원하는 전



박윤수·박현주 부부.

공을 맘대로 택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대학 재학중에도 강원룡 목사가 설립한 전국기독교학생회 총무를 맡아 열심을 냈다. 틈만나면 기독교 강좌와 기독교학생회 행사에 참가하느라 창경원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가 유학의 길에 오른 것은 1952년.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기독교학생회가 한국의 장학생을 한 명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응시를 했는데 다행히 선발됐다. 알버타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신시내티에서 고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는 미 공군 연구소에 취업, 반도체를 비롯해 당시 최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해 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와 후배, 과학계를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험장비 등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거의 매년 최소 한 명쯤은 자신의 연구실로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연구를 하도록 도왔다. 이 같은 그의 서울대 사랑은 해군 연구소 프로그램 디렉터로 직장을 옮겨 와서도 계속됐다. 그의 연구실은 늘 한국인들로 북적였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Korean Ambassador’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박 회장의 커뮤니티 봉사 또한 동창회 못지 않게 다양했다. 반세기가 넘는 한미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아 기금 확보에 힘을 쏟았다. 그 자신 장학금으로 유학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장학재단에 대한 애착과 긍지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세딸(지니·미미·리사)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 회 장 윤 수 현 (환경대학원 84)
- 부회장 오 경 식 (행정대학원 73)
- 총 무 최 진 영 (환경대학원 85)
- 총 무 김 수 지 (사회대학원 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남가주 동창회

도 아버지의 고회를 기념,
2만 달러를 장학재단에 출
연해 재단내에서 두고 두
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인생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워싱턴 지역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2002~2003)으로 선임된
것. 일제에 빼앗긴 대한제
국 주미공사관(Old Kore-
an Legation) 건물을 한국
정부와 함께 되찾는 캠페
인을 펼쳤다.

공사관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으며 3층은 전시공
간으로 꾸며져 일반에 공
개하고 있다.

이민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
념만찬을 열었다.

무려 1500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 같
이 많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조국에 늘 빛진 마음이 있
었는데...”

박 회장의 섬없는 커뮤니티 봉사는 지난 2014년
‘보상’을 받는다. ‘노먼 빈센트 필 어워드(Norman
Vincent Peale Award)’ 수상자가 된 것. ‘적극적 사
고(Positive Thinking)’의 저자 필 박사의 이름을 따
제정된 상이다. 과거 수상자 중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엘리자베스 2세
왕비의 원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뜻밖의 대상을 받은 박 회장은 벤저민 프랭클린을
인용,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

보슬비

늙은이에게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 밤에 보슬비가 내리네.

꽃밭이 그리워 찾아온
보슬비야,
나도 너처럼 그리운 이 찾아가 볼까.

앞마당 연못에도 찾아와
둥그라미 그리네.
내 마음에도 둥그라미 그려다오.

풀밭에도 찾아왔네.
푸름이 그리웠던가?
더욱 푸르러지는 내 마음.

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정
부도 국민훈장 모란장
을 박 회장에 수여, 한
국 과학계에 대한 기여
와 헌신을 잊지 않았다.

박 회장의 인생 이모
작은 남가주 이주 후 빛
을 발한다. 시작에 전념
해 벌써 4권의 한영 시
집을 냈다. 첫 시집 ‘실
비치에 뜬 달’을 펴낸
그는 ‘보슬비’와 ‘맨해
튼의 별들’ 그리고 ‘소
나기’ 등 3편으로 해외
문학상 시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평생 과학과 물리학
을 공부했지만 시의 세
계에 들어오니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고 어지러운
세상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첫 시집에는 ‘현모양처’ 박현주 여사를 백합에 비유
한 시 ‘지나간 세월’이 담겨있다. 60년을 훌쩍 넘기
며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 한 편의 시로 뒤늦게 사랑
고백을 해 아내를 울렸다.

박 회장은 실비치 리저월드 문예부 편집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해변문학’이란 창작집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현주 여사가 한마
디 거들었다.

“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참 대단한 분입니다.” 거
의 두시간 가량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의 아이콘’ 벤자민 홍(문리대 53) 은행장 LA 폭동 때 무담보 대출, 타운재건에 기여

SBA론, 주식공모, 인수합병, 여성발탁 ‘최초’
‘베풀고 살아야’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

“홍병각 동문님을 소개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1일 오세정 총장이 LA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발전기금 고액 기부 동문들을 초청해 오찬을 베풀었다. 사회자가 홍 동문을 소개하자 대부분 어리둥절했다. ‘홍병각’ 동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사회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문리대 53학번 벤자민 홍 행장님이십니다.”

그제서야 박수가 쏟아졌다. 한인사회에서 줄곧 ‘벤자민 홍’으로 불렸으니 홍병각이란 한국이름이 낯설 수밖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그는 한인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베풀’.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5만 달러를 내놔 동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베품의 철학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A 한인커뮤니티는 참혹한 현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이른바 ‘사이구(4·29) 폭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타운 업소들이 약탈을 당하고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가 됐다.



벤자민 홍·비비안 부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홍 동문은 당시 한미은행장이었다. 상당수 은행고객들이 피해를 입어 재기가 불투명했다.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무리 궁리해도 보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불현듯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성장사가 떠올랐다. BoA가 세계 굴지의 은행으로 태어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할까.

1906년 강진이 샌프란시스코를 덮쳤다. 규모 8.3이었으니 ‘빅원’에 가까웠다. 신생 커뮤니티 뱅크인 BoA 창립자 마다테오 피터 지아니니는 복구자금에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줬다.

기록에 따르면 지아니니는 마차에 1만달러를 가득

신크가 거리에서 ‘묻지마’ 대출을 해줬다. 돈을 뿌렸다고 해야 옳지 싶다.

“다음날 아침 벌떡 일어나 은행으로 달려가 이사들을 설득했어요. 무담보 용자를 해주자고요.”

대부분 부실위험이 크다며 반대의사를 냈다. 홍 동

문은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영철학을 피력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은행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반성장을 할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난지 나흘 후 한미은행은 대출을 시작했다. 업소 당 10만달러까지 무담보로 빌려줬다. “도박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업소가 살아야 우리 은행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10만 달러 용자를 받은 고객은 모두 50명. 이 가운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적이랄 것도 없었다. 은행이 우릴 믿고 돈을 빌려



한미은행 이사들은 1년 여간의 공을 들여 벤자민 홍 행장의 영입에 성공했다. 왼쪽부터 홍 행장, 고 정원훈 초대 한미은행장, 고 안응균 전 이사장.

줬으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한다는 정서가 고객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베풀어야 보상이 따른다’는 그의 신념은 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발했다. 한미은행도 지난 2009년 몰아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일부에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우려했다. 한미은행은 그러나 살아남았다. 그것도 건재



FIB 대만지점 개설 축하 자리에서 벤자민 홍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내빈을 맞고 있다.

한 상태로. LA폭동 때 ‘은혜’를 입었던 고객예금주들이 은행을 받쳐줬다.

이들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배신할 수 없다며 홍 동문과 은행을 지지해 준 것이다.

그의 소신과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쟁이 그를 강하게 키웠다. 6·25가 터졌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 통역장교가 됐다.

소속부대는 강원도 인제의 9사단. 부대가 인민군에 포위돼 퇴로마저 끊겼다.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에 국군병사들이 쓰러져갔다. 민씨라고만 기억하는 특무상사가 그를 살려냈다. 그 상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홍 동문도 없었을 터다.

죽음의 공포는 잊지 못할 충격으로 그의 뇌 한 칸에 입력돼 있다. “그때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쟁이 그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다.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육의 힘이다. “교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유학와서 절감했어요.”

홍 동문은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땀다. 그가 39세 때다. 처음엔 나이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나오지 않았다.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는 그의 진정성이 인정돼 UCLA의 높은 문이 열렸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김 경 숙 (70)

총 무 엄 인 숙 (78)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남가주 동창회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을 도입한 벤자민 흥 행장(맨 왼쪽)이 한인 마켓 앞에서 한미은행을 홍보하고 있다.

혼란기, 전쟁으로 인해 그는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없다. 하루 3~4시간 쪽잠을 자며 책과 씨름했다.

졸업 후 그가 입사한 곳은 퍼스트 인터

스테이트뱅크(FIB). 입사 5년만에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고속승진했다. 임원회의에 참석하면 혼자 유색인종이었다고 한다. “너는 흰 벽에 붙은 파리 한 마리 같다”는 한 백인 임원의 농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은행장 시절 그는 ‘공포의 빨간 펜’으로 불리기도 했다. ‘교육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의 소신이 빚어낸 조크였다.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일일이 빨간 펜으로 고쳐서 되돌려 줬다. 직원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개인시간을 할애한 것.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은행감독국의 지적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뭐니뭐니해도 그가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SBA 용자 도입이다. 소상공인에게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흥 동문이 처음으로 SBA 론을 보급해 한인 비즈니스가 도약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가 이룬 또 다른 성과는 여성의 과감한 발탁이다. ‘페미니스트’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역시 특유의 소신으로 밀어붙였다.

처음으로 여성 지점장에 이어 은행장도 배출하는 등 그에겐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한인 은행 중 처음으로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켜 뉴욕에까지 지점망을 넓혔다.

주주 공모도 그의 또 다른 성공사례로 꼽힌다. 문단기 직전의 나라운행 구원투수로 등판, 주식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았다.

“1,200 달러로 나라 은행의 주인이 되세요” 캠페인을 벌여 순식간에 200만 달러 증자 목표를 달성했다.

그에게 붙은 별명은 ‘마이더스 터치’. 그가 손을 댈 것치고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다.

은퇴후 어바인에서 지냈던 흥 동문은 얼마전 거주지를 하와이 호놀룰루로 옮겼다. 하지만 LA는 그에겐 제2의 고향이다.

지난 9월에는 자신이 멤버로 가입해 있는 조나단 클럽에서 LA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기금모금 파티를 성대하게 치러줬다. ‘베품’의 삶은 그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LA 폭동 때 업소가 불에 탄 피해 한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흥 동문은 피해 업소에 10만 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을 해줘 재기를 도왔다. <사진=중앙일보>

‘수퍼맨’ 정재훈(공대 64) 박사의 아메리칸 드림 도전기 국무장관이 극찬 ...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규명

딸 줄리는 스리랑카 대사, 일본 과장 및 남북미 총괄 차관대행 역임

“닥터 제이 청(Jay Chung) 가정은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이자 한미우호의 상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워싱턴 DC의 국무부 대연회장을 가득 메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은 토니 블링컨 장관의 이같은 소개에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제이 청이 누구길래 미국의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이 소개한 제이 청은 바로 정재훈(공대 64) 박사다. 정 동문의 딸 줄리는 당시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 부녀는 그러나 이날 연회 초청자 명단에 없었다. 그런데도 장관이 정 동문 가정의 이민사를 길게 소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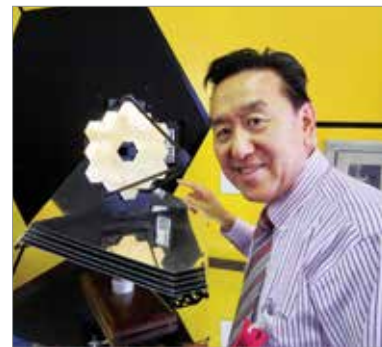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특별 만찬을 베풀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의회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연회는 성황을 이뤘다.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계 줄리 대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아버지 정 박

사를 집중조명했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비극적인 폭발과 그 원인을 규명해 해결한 정 박사 덕분에 미국은 다시 우주 탐험에 나

설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제야 “브라보~” 박수가 쏟아졌다. 장관은 정 박사가 CEO로 있는 회사가 나사 달 탐사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주공학자 정재훈 박사, 화성탐사에 크게 기여했다.

줄리가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왔을 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5살짜리 소녀에 불과했다고 말한 블링컨 장관은 이어 정 동문 부부의 초창기 이민생활을 가감없이 알렸다.

그가 취업한 회사는 테이코 엔지니어링(Tayco Engineering). 특수가열장치와 온도 측정센서를 제작하는 소규모 개인기업체에 시간당 4.25 달러를 받으며 말단 청사진 제도사로 취직해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입사 후 남다른 근면성을 가진 그는 사장의 눈에 띄어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아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내장된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정재훈 박사. 상단 오른쪽은 정재훈·정정숙 부부.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중 한미우호의 상징으로 소개된 정재훈 박사 가족.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줄리 정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

성공시키면서 인정을 받아 고속 승진하게 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오던 세계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 주경야독으로 풀타임 일하면서 석사에 이어 박사학위까지 취득한다.

UCI에서 우주 열공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회사 창업자 찰스 테일러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그는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실감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미국의 우주공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계기는 1986년 챌린저호의 공중폭발 대참사. 챌린저호에는 현직 여교사가 탑승해 전세계 어린이들과 실시간으로 우주와 관련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륙직후 폭발해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재훈 박사는 폭발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로켓 이음부 오링의 결빙을 방지하는 열보호 장치를 개발해 나사가 중단없이 우주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여했다.

정 박사의 이같은 성과는 당시 LA타임스에 2개면에 걸쳐 대서특필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일약 우주공학계의 ‘라이징 스타’가 된 그는 미국의 초일류 방위산업체들이 고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에 열을 올렸지만 모두 거절, 회사에 남았다. “나를 키워준 회

사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정 박사는 회사 사장이 조기 은퇴를 결정하자 지난 2000년 CEO 자리에 오르게 됐다. 최저시급 노동자에서 입사 22년만에 최고경영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무장관은 “정 박사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상징적인 존재”라고 치켜세웠다. 장관은 “정 박사 가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엮여져 협력하는 실타래의 한 예가 됐다”며 “(앞으로) 수많은 기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굳건하게 ‘같이 갑시다’라는 모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딸 줄리 대사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 시절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해 국무부내에서 몇 안되는 북핵통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부 중요보직 중 하나인 일본과장과 남북미 총괄 차관대행을 지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리랑카 대사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그는 “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바탕”이라며 “민주주의 가치관과 인권, 그리고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해 감동을 줬다.

정 동문은 자신이 직접 롱비치 한인상공회의소를 창립, 회장을 지내며 한국기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아내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학을 공부한 그는 우주탐험 못지않게 해외선교 복음전파에도 열심이다.

정 박사의 책상에는 직원들이 만들어준 명패가 놓여있다. ‘Dr. Jay Chung, Superman’. 직급이 CEO가 아닌 수퍼맨이어서 눈길을 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 박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수퍼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명선(상대 58) 동문의 골프 예찬기 경영에 접목 성공한 기업인으로 '우뚛'

IRS도 인정한 그의 정직... 세무조사 '0'
PGA·LPGA 대회에서 '마셜'로 자원봉사

이명선(상대 58) 동문은 서울대 커뮤니티에선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PGA와 LPGA에선 그러나 깐깐한 '마셜(marshal)'로 정평이 나왔다.

마셜은 골프진행요원이다. 'Be Quiet' 손팻말을 들고 갤러리를 통제하며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주임무다. 팔로스 버디스에서 처음으로 열린 박세리 챔피언십(2024년 3월 21~24일)에서도 마셜로 봉사했다.

이 대회에는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이기준·오홍조·한효동·노명호·박정모 동문 등 말수회 골프 동호회 멤버들도 참여해 경기진행을 도왔다.

이 동문은 남가주에선 한인으로선 유일한 PGA와 LPGA 마셜이다. 그래서 가끔 TV 중계 카메라에 모습이 잡혀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모든 마셜의 꿈은 18번 홀에 배치돼 경기진행을 돕는 것. 막판 버디 퍼트로 역전 드라마가 종종 펼쳐지



'Quiet' 손팻말을 든 이명선 동문. 남가주에선 한인 유일의 PGA·LPGA 마셜이다.

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회 주최측의 배려로 18번 홀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문은 밝게 웃었다. “마셜을 할 때면 ‘나이들’이 왜 좋은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나이를 묻지는 않지만 내가 최고령 마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18번 홀은 대개 이 동문의 몫으로 남겨둔다. 나이 차별은커녕 오히려 특혜를 받는다.

LPGA 참가 선수 중 태극 남자들은 거의 15%나 차지할만큼 이제 ‘코리아’가 빠진 대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동문은 리디아 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고 했다. 뉴질랜드 국적의 리디아

는 한때 세계랭킹 1위. LPGA에서는 가히 독보적인 존재다. 그런데도 사진촬영에 흔쾌히 응하는 등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리디아 고는 현대가 재벌 3세와 부부의 연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마셜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대회를 치르는데 최소 100여 명의 마셜이 필요하다. 마셜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그린. 스코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어서 에티켓이 중요하고 또 잘 지켜야 한다. “골프의 매력은 200m드라이브샷이나 50cm 퍼트나 똑같은 1타의 가치를 갖는데 있어요.”

그린에서는 갤러리들에게 팻말을 살살 흔들어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린에서는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이 동문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대회 갤러리를 적극 권유한다. 골프가 에티켓을 중요시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언제나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고 예의를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것이 골프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매너가 좋지 않은 갤러리는 즉시 퇴장시키는 골프장도 있어요.”

LPGA 뿐만이 아니다. 팜스프링스의 PGA웨스트의 스테디움 코스에서도 팻말을 든다. 김주형(탐 김) 선수는 그가 제 2의 타이거 우즈로 꼽는 PGA의 샛별. 2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우승컵을 2개나 커리어에 담았다. 실력과 흥행성을 담보한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는 앞서 열린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세계랭킹 1위 스코

티 셰플러와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미국 여자골프의 간판선수 렉시 톰슨과 함께. 2024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PGA 웨스트에선 왠지 기를 느껴요. 마치 애리조나의 세도나에 온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전세계에서 볼텍스 기운이 가장 세다고 하

는 곳인데 여기서도 그걸 느껴요. 인근 돌산에는 빅혼(big horn) 양떼가 수백마리 무리져 살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좋아 가끔 이곳에서 몇주 묵혀 살아요. 자연과 함께요.”

골프가 왜 좋으냐는 질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 둘째 정신집중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클럽을 손에 쥐면 마음에 잡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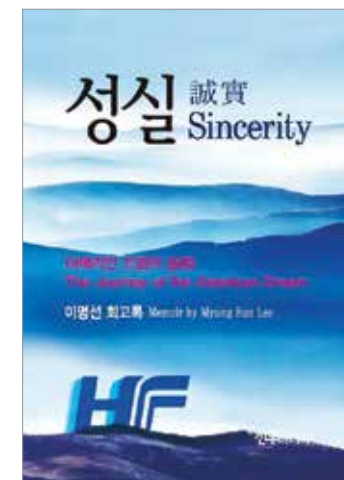
한국서 공군장교시절 그의 주 임무는 미군으로부터 군수지원을 얻어내는 일이었다.

그의 매일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방대한 양의 문서 작업을 도맡아 처리했다.

당시의 순발력과 성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그가 펠런 자서전의 타이틀도 '성실'이다.)

전역과 동시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USC에서 MBA와 컴퓨터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문계 전공자가 그것도 1960년대 당시엔 무척 생소했던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으니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도 컴퓨터를 모르면 미국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한다.



지난 2023년 펠런 자서전 '성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김자성 (79)
회계 안상훈 (86)
이사장 김성환 (6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이명선 동문이야말로 골프를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골프에서 익힌 집중력으로 하워드 휴즈가 창업한 'Houston Fearless 76'를 인수, 굴지의 중견 기업체로 키워냈다. 특수 마이크로 필름과 영화필름

이명선 동문 가족사진. 뒤 왼쪽이 해군 예비역 대령인 큰아들 제임스.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다.

이후 자동차 충돌 테스트 필름현상 시스템, 지문검색 마이크로 필름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해 1987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인상(Entrepreneur of the Year)'을 받았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이다.
이 동문은 지금 경영 2선으로 물러나 큰아들 제임스에게 회사를 맡겼다.

장남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스탠퍼드대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그는 해군예비군 대령으로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베테랑이다.

이 동문은 골프의 '신사도'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듯 하다. "지난 1976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소송을 당한적도, 소송을 해 본적도 없어요. 골프로 정신수양이 된 덕분이겠지요."

골프는 한마디로 정직한 운동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기업도 정직하게 운영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죽 투명한 경영을 했으면 IRS 감사관이 '당신네 회사는 앞으로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거의 0%'라고 했겠어요."

이 동문은 몇해 전 한 번 욕심을 내봤다. 팔로스 버디스 친선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했다. 3등은 했지만 양쪽 어깨에 무리가 가 수술을 해야 했다.

"겸손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1주일에 대여섯번은 필드에 나가요.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서지요. 내 인생에 불만은 없습니다. 골프 덕분에 '원더풀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이 동문은 엄지척을 해 보였다.



이명선 동문의 기업가 정신을 크게 보도한 LA 비즈니스 저널. 그가 인수해 키운 '휴스턴 피어리스 76'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을 고속으로 현상하는 기업이었으나 경영부실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인수했다.

임낙균(약대 64) 회장의 ‘쓰죽회’ 스토리 담임교사의 ‘선행 나누기’ 가르침이 평생 모토

한국 다문화 가정 어린이 초청해 미국체험 제공
‘살이 끝날 때까지’ 모교에 매년 1만달러 장학금

임낙균(약대 64) 동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pay it forward’다.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도와주라는 의미다. ‘선행 나누기’라고 할까. 그는 ‘pay it forward’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체험으로 익혔다.

임 동문은 고향 전북 익산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터 이같은 삶의 지혜를 배웠다.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 이어서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교란 곳을 가게 됐다. 담임선생님이 한글은커녕 기초 산수도 몰랐던 그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냈다.

선생님은 매일 방과 후 한 시간 씩 과외지도를 해줬다. 그가 반에서 1등을 할때까지 다. 가끔 학용품을 사주고는

“너는 해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임 동문이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내성적인 그에게 학생회장에 출마하라며 연설문까지 직접 써줬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그에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됐다.

훗날 대학에 진학해 약대 학생회장에 당선되는 등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경험이 삶에 큰 영향을 끼

쳤다.

담임교사는 어린 임 동문에 이런 말을 했다. “애야,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마라. 훗날 네가 성공하면 남에게 똑같이 도움을 주면 된다.” 선생님은 그에게 ‘pay it forward’의 가르

침을 준 것이다.

임 동문은 대학 졸업후 한 대형 약국에서 근무할 때 동료 약사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다.

미국유학길에 오른 부부는 앨라배마 샘포드대 약대에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남가주로 이주했다.

가디나에 임약국을 오픈한 데 이어 1986년에는 LA에 진출, 웨스턴과 베벌리에 위치한 당시 유대인 소유의 베벌리 약국을 인수했다. 5천 피트 규모에 약사 2명과 직

원 4명이 근무한 당시로선 보기드문 대형 약국이였다. 90년대 초엔 LA 한인타운에 시민약국과 나성약국까지 오픈하는 등 약국 4곳을 운영할 만큼 성공가도를 질주했다.

임낙균 동문은 예순 즈음 은퇴를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꿈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에 옮기기 위해 비영리 법인



초등학교 담임선생으로부터 ‘선행 나누기’ 가르침을 배워 평생의 모토로 삼았다는 임낙균 동문.



지난 2016년 전남지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 미국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엠 파운데이션’(IM Foundation)을 만들었다.

아이엠 파운데이션은 지난 2016년 여름 전남지역의 한국 다문화 가정 6학년 학생 20여 명을 초청, 미국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호남은 농촌지역이어서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많아요. 농촌 총각에 시집 올 한국 여자들이 많지 않아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지의 여성들을 신부로 맞아 들이는 수밖에요.”

임 동문은 순혈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2세대가 성장했을 때 인종차별을 당해 아이들이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게 되면 한국사회에서도 인종갈등이 야

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넓은 세상구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좋은 멘토가 돼 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바스토 인근 헬렌데일에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집을 사들이고 학생들이 숙식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초등학교에 요청해 학생들에 영어를 가르쳐줄 자원봉사 교사들도 확보했다.

예산은 총 20만 달러.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 초청과 관련해 전남 교육청과 MOU 각서를 체결한 임낙균 동문.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룬 부를 세상에 환원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지요.”

그는 3주간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 했다. “한 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도 한국에 돌아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라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은 써야 돈을 번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면 ‘오른쪽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쌓인다는 것.

그러면서 대학동기 조경일 동문이 창업한 하나제약의 예를 들었다. 언젠가 친구의 서울집을 방문한 임 동문은 친구가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넌지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썼는데 이자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김희경 (8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남가주 동창회



것이다.

임 동문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친구에게 쥐어줬다.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위로의 말과 함께. 이후 몇차례 돈을 더 보내줬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줬다. 친구 사이인데 차용증이 있을리 없었을 터.

몇년 후 느닷없이 한국의 한 증권회사에서 송금이 왔다. 무려 700만 달러! 이게 웬일인가 싶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임 동문이 준 돈을 투자로 여겨 회사 주식으로 대체했다.

하나계약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자 주가가 폭등하는

오면 집이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것. 우연히 임 동문을 만나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했는데 이게 웬일. 며칠 후 집으로 6만달러 짜리 체크가 우송돼 왔다.

이번에도 차용증 한 장 받지 않고 돈을 보내준 것이다. 최 동문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임 동문은 제 27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60년대 학번으로는 처음이자 최연소 회장이었다.

“서울대 동문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사기를 치지, 우리 동문들은 다 정직해요. 서울대 나왔다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임 동문은 자신을 '쓰죽회' 골수 회원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쓰'고 '죽'자는 모임을 말한다.

그는 삶의 뿌리인 서울대에 매년 1만 달러씩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면 10만 달러, 20년을 더 살면 20만 달러가 추가로 모교에 기부된다.

미주 동창회에도 운영에 보태쓰라며 조건없이 1만 달러를 보냈다.

“열심히 번 돈 좋은 일에 다 쓰고 가려고 해요. 베풀 줄 모르고 혼자

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임 동문의 평생 파트너인 아내 임경렬 여사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임낙균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바람에 임 동문의 주식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했다. 임 동문에 따르면 거액이 자기도 모르는 새 '오른쪽 주머니'에 쌓인 것이다.

그와 서울대 동기인 최진석(법대) 동문은 빚보증을 잘못 서 당장 6만 달러가 필요하게 됐다. 갚지 않

“북창동 순두부는 이제 미국 식문화의 주류” NYT, 이태로·이희숙 부부의 창업스토리 게재

K-팝과 K-푸드의 협업... ‘세븐틴 메뉴’ 순식간 매진돼
‘스탠퍼드대’ 장남이 가업 이어받아, “의사가 더 쉽네요”

“매콤하고 붉은 소뼈 육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 남편과 어린 세 아들이 잠든 사이 부엌에서 양념실험을 하며 긴 밤을 보냈다. 두부는 손가락이 아니라 혀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 고춧가루는 국물에 딱 좋은 화끈함을 더 한다.”

뉴욕타임스(NYT)가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를 창업한 이희숙 대표의 부고 기사를 실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18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다.

이태로(법대 56)·이희숙 부부가 1996년 LA 코리아타운의 버몬트 애비뉴의 한 식당에서 오픈한 북창동 순두부 체인은 이제 미국 전역 12개 도시에 지점을 오픈했다.

신문은 “제대로 된 순두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그렇게 탄생한 음식은 미국의 문화현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밤샘 영업에서도 늘 대기줄이 늘어났다.

신문은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자 해고 직원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기 위해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지에도 애썼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의 부고기사(obituary)는 인물선정에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들만

쓰다보니 문장이 유려하다.

특히 고인이 삶에 대해 어떤 통찰력을 지녔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해 부고는 신문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인기 칼럼 중 하나다. 심지어 부고 기사를 보기 위해 신문을 구독한다는 독자들도 있을 정도다.

뉴욕타임스가 식당, 그것도 한국 레스토랑 창업자의 부고 기사를 게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신문은

한국음식이 이제는 K-팝과 함께 미국문화의 주류에 편입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븐틴’ 공연은 K-팝과 K-푸드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꼽힌다. LA의 월서점은 세븐틴 전용 메뉴를 판매했다.

부부의 큰아들 이승세(에디) CEO는 “순두부와 LA 갈비를 세트 제공해 주는 메뉴를 1천개 준비했는데 예상과 달리 당일 매진돼 버렸다”며 K-팝의 인기 여세를 내들었다.

이날 북창동 식당에는 ‘세븐틴 메뉴 품절(Seventeen Coaster Sold Out)’이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걸렸다.

이태로·이희숙 부부는 미국에 오기 전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식



북창동 순두부를 창업한 이태로·이희숙 부부.



북창동 순두부 월서점 그랜드 오픈. 한인커뮤니티의 유명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당을 한다는 얘기가 입소문을 타자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판·점사치고 이 부부의 식당을 안가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한다.

부부는 자녀교육을 위해 1989년 LA로 이주했다. 순두부 음식점을 열겠다는 생각은 1990년대 중반 교회 예배를 보던 아들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길 건너편 순두부집에 가고 조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름은 이모 할머니의 두부 음식점이 있던 서울 북창동에서 따왔다. 새벽같이 시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고르며 사업에 매진했다. 아들은 “어머니는 식탁에 내놓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며 “밥의 온도, 김치의 색깔, 두부 양념의 염도까지 신경썼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LA 타임스는 “한국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와 북창동 순두부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관광객은 물론 스포츠 스타,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 북창동 순두부가 꼭 들려야 할 맛집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처럼 북창동 순두부가 한국에까지 알려지자 곳곳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이 생겨났다.

그래서 ‘북창동 순두부의 원조는 LA 북창동’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

북창동 순두부의 본점은 LA의 월서 식당이다. 월서와 킹슬리 코너에 위치해 한인타운의 노른자위나 다름없다. 부지가 1에이커에 달해 주변에선 고층빌딩으로 재개발, 고수익을 올릴 것을 권유하기도 했으나 ‘고객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금싸라기같은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태로·이희숙 부부는 슬하에 아들 셋을 두고 있다. 장남이 북창동 순두부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원래 그는 명문 스탠퍼드대와 UCLA 메디컬 스쿨을 나온 의사다. USC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타계와 부친이 연로해 가업을 이어 받은 것이다.

“의사와 북창동 중 어느 쪽이 더 힘드냐”는 질문에 “식당이 훨씬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12개 직영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무려 800여 명. 월서점만해도 아침 7시에 오픈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영업한다.

“별써 아이들 픽업하러 갈 시간이네요. 아내(의사)는 예약 환자가 있어 낮에는 꿈쩍 못해요. 아버님도 봐드려야 하고...” 한 집에서 부친을 모시고 살고 있어 주변에선 아들·며느리의 효심이 지극하다며 칭송이 자자하다.

‘비즈니스 승부사’ 하기환(공대 66) 박사 “델러스에도 코리아타운 만들겁니다”

LA 폭동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담판’
버몬트와 월셔길에 ‘닥터 하’ 표지판

하기환(공대 66) 동문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자 며칠 후에나 답장이 왔다. “지금 콜로라도 스키장에 있는데...” 70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스키라니 믿기지 않았다. 몇 번이나 큰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모굴’이나 ‘트리’와 같은 난이도 높은 스키를 즐기고 있다. “스키협회 회원 50명과 함께 갔는데 내가 최연장자였어



한인회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하기환 동문.

요. 하지만 아무도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못해요. 기술로 날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깐(웃음).”

승부사의 기질이 비즈니스에서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진하게 묻어났다. 어렵사리 하 동문을 LA 한인타운에서 만났다. 강한 햇살이 흰눈에 반사된 탓인지 얼굴이 붉으스레 타 있었다.

하 동문의 사무실은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은 순두부 식당에 세를 줬다. 미주 한인사회의 ‘수퍼리치’ 답지 않게 오피스는 초라했다. 천으로 된 소파는 나이가 족히 20살도 넘어 보였다. 스키는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몸을 곧추 세웠다.

- 지난해(2023년)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았다. 한상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상(韓商)은 한인기업인, 재외동포 경제인을 아우르는 말이다.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상이다. 이 한상

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비즈니스 컨벤션이 바로 세계한상대회다. 한상이 왜 중요한지는 화상(華商), 곧 화교상인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이 G2로 급부상한 숨은 세력이 바로 화상 아닌가. 유대상인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로스차일드, 모건, 록펠러 등 유대상인집단이 인류경

제에 끼친 영향력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 무엇보다 하기환 하면 LA폭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한인 이민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겪었다. 1992년 4월 29일, 이른바 ‘사이구’는 하기환이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터다. 당시 한인회장은 내부 분열로 공석이나 다름없었다.

총영사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내가 만장일치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자행됐다. 자칫 우리가 맨손으로 일군 타운이 잿더미가 될 상황에 내몰렸다.

라디오에선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빨리 문닫고 귀가하라’는 방송이 반복돼 나왔다. 나는 방송국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일터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고는 (집에 가지 말고) 우리가 타운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 나도 권총을 챙겨 쌀포대와 자동차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는 지붕에 올라가 공

포탄을 마구 쏘아댔다.

타운 상인들도 모두 무장한채 나를 따라 폭도들과 대치했다. 결국 시위대는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소방 당국은 날이 어두워지면 폭도 수백명이 공격을 할 거라며 대피를 권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군이 투입돼 혼란한 상황이 다소 진정될 기

미를 보이자 ‘평화 대행진’ 아이디어를 내놨다. 안전 문제로 반대가 심했지만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만명의 우리 동포들이 쏟아져 나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에 참여, 주류사회에 깊은 울림을 줬다.

폭동이 진압된 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타운을 찾았다. 나는 연방차원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대부분 관철시켰다. 피해 복구가 빨리 이뤄진 배경이다. 나는 지금도 폭동에서 타운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 LA 한인회장도 두 번씩이나 했다.

“폭동을 경험한 나로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결속은 물론 주류사회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2000년 처음 출마한 회장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물리쳐 ‘직선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16일 한인타운의 버몬트와 월셔 불러바드 코너에서 열린 ‘하기환 박사 광장’ 명명식에서 하 동문이 표지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라는 명예를 거머지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스테이플스 센터(프로농구 LA 레이커스 홈구장으로 지금은 Crypto.com Arena)를 빌려 한인 수만명이 참가해 응원전을 펼친 것도 내 이력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시 관계자들을 설득해 단돈 1달러를 주고

그 큰 실내 경기장을 빌렸다. 폭동으로 얼룩진 한인들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신한다.”

- 뒷말 많은 단체장을 두루 섭렵했다. 욕 많이 먹고 적이 생기는 커뮤니티 활동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전화 한 통 넣어서 도움을 청할 곳이 하나도 없었다.

한마디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 정치력을 키워야 하는데 내가 30년 넘게 각종 단체 활동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커뮤니티 힘을 기르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

- 왜 사서 욕을 먹는가. 적당히 타협하면 될 텐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말을 가끔 듣지만 나는 성격적으로 그러질 못한다. 손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하고 의리있는 사람들하고만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배 재 현 (75)

부회장 백 사 훈 (72)

총 무 박 운 섭 (7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어울린다.

한인타운의 노숙자 쉼터 경 우만해도 그렇다. 우리만 잘 살고 주변의 타인종이나 소 외된 계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숙자들에게 점퍼와 담요, 텐트 등 도움의 손길을 주던 우리가 정 작 이웃에 홈리스 쉼터가 들

어온다고 하니 거의 광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 한인사회가 '넘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인식될까 두려워 쉼터의 입주를 지지한 것이다."

- 하 동문의 이같은 노력이 결국 보상을 받았다. LA 한인타운 한 복판에 '하기환 박사 광장(Dr. Ki Hwan Ha Square)'이 생기지 않았는가. 훈장도 받고...

"지난 2013년 LA 시의회 결의로 내 이름을 딴 광장이 생겼다. 이 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거 같다. 우리 동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2020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포장 가운데 가장 훈격이 높다고 들었다.

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내 이 민생활을 결산한 셈이라고 할까."

- 박사학위 소유자다. 공학박사, 그것도 명문 UCLA 에서 받았다.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교수로 임용되기 직전 방위산업체인 '휴스 항공사'에서 잡 오피를 받았다. 그래서 경험을 쌓고 귀국하겠다는 것이 그냥 미국에 눌러 있게 된 것이다.

1년 남짓 일했는데 매우 '보링' 곧 무료했다. 일에



지난 2017년 6월 미셸 스틸(오른쪽) OC 수퍼바이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서신을 받고 있는 하기환·하경희 부부.

흥미를 잃고는 집어치웠다.

힘들게 공부해 학위를 땀을 흘려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하는데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후회했다면 지금의 부를 쌓았겠는가.

부동산 투자와 개발사업에 뛰어 들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얼마안돼 LA의 노른자위인 월 서가의 고층빌딩을 두개나 사

들이는 등 큰 돈을 벌었다.

'하 회장이 만지면 돌도 노다지로 변한다'는 우스개가 돌아다녔다. 소위 '마이더스 터치(Midas Touch)'라는 것이다. 1988년인가. 대형 수퍼마켓인 한남체인을 인수했다. 당시 80만 달러 쯤 준 것으로 기억한다."

- 한때 '폭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웃음). LA폭동과 지진, 불경기 등이 겹쳐 부동산이 거의 모두 내 수중에서 떠나버렸다. 그런데 우연히 사들인 한남체인이 재기의 발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은 매장이 7개로 늘어났다. 내겐 '캐시카우'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와 개발이 본업이다. 얼마전 텍사스 델러스의 초대형 쇼핑몰을 사들였다. 6,30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다. 이 몰을 제 2의 한인타운으로 만들 꿈에 부풀어있다."

하 동문은 지난 2024년 4월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매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관악대상을 받았다.

서울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물론 UCI 총장 일행도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기준(법대 54) 동문의 ‘참치어장 정복기’ “한국인 최초로 ‘퍼세이너’ 원양어선 띄웠어요”

투망식 최첨단 ... 샌디에고 조선소에서 3척 건조
라스 팔마스 어업기지엔 한국인 1만5천명 ‘복적’

1989년 8월 18일. 샌디에고에 소재한 조선소 캠벌 인더스트리스(Campbell Industries)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게양됐다. ‘신라 익스플로러(Shilla Explorer)’가 진수하는 날이어서 양국 국기가 펄럭였다. 흰 장갑을 낀 여성이 삼페인병을 힘껏 내리치자 로프가 풀리며 거대한 몸집의 배가 태평양 바다로 미끌어졌다. 밀려오는 파도에 바닷물이 흰 포말을 일으키자 ‘브라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기준(법대 54)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배를 바다에 띄운 여성은 이옥지 여사. 이기준(법대 54) 동문의 부인이다. 진수식은 건조를 마친 배를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진행되는 의식으로 이때 배의 ‘대모(godmother)’로 정해진 여성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며 로프를 끊어낸다. 보통 선주의 아내가 대모가 된다.

신라 익스플로러는 1,500톤 급 원양어선으로 당시엔 최첨단으로 알려진 ‘튜나 퍼세이너’(tuna purse seiner) 참치잡이용 선망어선이다.

진수식을 지켜보며 이 동문은 지난 4반세기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스치며 깊은 감회에 빠졌다.

5·16 군사혁명 이듬해인 1962년 군에서 갓 전역한 그는 최고회의 내각수반실(행정부)에 특채, 곧바로 ‘이·불(이태리와 불란서) 어업차관위원회’ 창립 멤버가 돼 바다와 인연을 맺는다.

“박정희 장군의 군사정부는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며 맨먼저 어업 육성에 눈을 돌렸어요.”

당시 어선 건조능력이 없고 또 일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정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현물차관을 받아 원양어선 92척을 건조해 들여왔다. 그래서 발족한 국영기업체가 한국수산개발공사(수공)다. 이 동문은 6개월 동안 두 나라의 조선소를 돌아보며 실무를 익혔다.

그는 수공 근무 10년도 안돼 연소 부사장으로 고속 승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수공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의 임원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고위직이었다. “한밤중 청와대에서 VIP가 결재서류에 서명했다고 알려왔어요. 얼마나 흥분했던지...” 사장은 실무경험이 전무한 군 출신이어서 이 동문이 실질적인 사장이나 진배없었다.

수공은 대서양 최대 기지인 라스 팔마스 등 여러 곳에 전진기지를 세웠다. 라스 팔마스는 한때 원양어선 210척, 선원 1만여명, 교민 5,000명 등 한국인 1만5,000명이 복적거리는 불타운이 됐다. 이 덕분에 수산물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거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

“수많은 해외기지 건설과 조업규모, 우수한 인력의 양성은 훗날 우리나라가 원양대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기준 동문의 부인 이옥지 여사가 ‘신라 익스플로러’호를 진수시키고 있다.

수공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또 동종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수공의 민영화 방침을 굳혔다. 정부가 보유한 200여 척의 어선과 장비를 민간기업에 넘겨 한국은 어업강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민영화 작업을 끝낸 이 동문은 1974년 신라교역과 오양수산의 미국 현지법인 대표가 돼 LA에 자리 잡았다.

종전까지 한국의 어업은 ‘롱라인’(long line) 이른바 연승이 주를 이뤘다. 일명 ‘주낙’이라고도 불리는 데 한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낚았다. 반면 퍼세이너는 투망식 선망어업이다. 그물의 길이는 2~3km, 깊이는 무려 250m나 된다. 넓이는 서울의 63빌딩 30층이 들어간다고 한다. 퍼세이너에는 소형 헬기도 탑재해 태평양의 이곳 저곳을 날며 어군을 탐지한다.

이 동문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의 어업을 낚시 연승에서 미국식의 퍼세이너로 전환하는 것. “퍼세이너를 투입해 어군을 찾으면 하루에 연승으로 한달치 잡는 어획량을 올릴 수 있어요. 혁명적인 방식이지요.”

신라 익스플로러는 한국 최초의 퍼세이어 원양어선이었다. 일본에도 없었다고 하니 이 동문의 감회가 남다른 수밖에.

이 동문은 캠벌에 신라교역 명의로 퍼세이너 3척을 주문했다. 가격은 당시 한 척당 무려 3,000만 달러. 요즘 가치로는 2억 달러가 넘는다.

명태를 비롯한 소련의 생선이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게 된 것도 이 동문의 비즈니스 수완 덕분이다. 소련의 유력 업체인 ‘넵툰’의 대표 빅토르를 시애틀에서 만나 담판을 벌였다. 소련어선이 잡은 물고기를 캄차가 연안에서 한국 선박이 해상에서 건네 받아 국내로 반입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벌여 관철시킨 것. 90년대 초 소련과의 관계가 냉랭했던 시절 거둔 성과여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강의 기적에는 이처럼 원양어업, 수산업도 큰 몫을 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이 동문은 7·8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1~6대는 이미 타계해 그가 최선임이다. 그래서 동창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좌장’이라 부른다. 그의 한마디에 무게와 권위가 실려있다고 해서다.



진수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기준 동문.

‘최다 집필 기록 보유’ 차종환(사대 54) 박사 335번째 책 출간, 논문 220편 ... 65년째 집필중

한국판 기네스북 한국기록원에 등재 인정받아
해직교수 출신, ‘꿈나무 장학생’ 매년 선발

지금까지 펴낸 책이 무려 335권. 학술논문도 220편이 넘는다. 남들은 평생 책을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주인공은 제 10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낸 차종환(사대 54) 박사다. 서울사대부고 생물 교사 시절 교과서 집필을 시작으로 지난 65년 동안 저술에 몰두했다.

지난 2013년에는 한국인으로는 가장 많은 저서(당시 250권)와 학술논문(180편)을 보유한 기록을 인정받아 한국판 기네스북인 한국기록원에 공식 등재된 바 있다. 이후에도 꾸준히 저술작업을 펼쳐 불과 10년만에 85권의 책과 40편의 논문을 추가했다.

가장 최근에 펴낸 335번째 책은 김명현 국립통일교육위원 LA협회 수석 부회장 등과 공동집필한 ‘독일의 통일과정.’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단 45년만에 통일을 이룬 동서독 사례를 함께 분석했다.

지난 2022년에는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332번째 저서인 ‘대사건과 일지로 본 한미관계 200년사’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의 역저로 꼽힌다.

책은 △제1장 한미관계의 태동 △제2장 한·미 수교 △제3장 미주 한인 이민과 한미 관계 △제4장 1910



한미교육연구원(원장 차종환 박사)이 주최한 페스타로씨상 및 꿈나무 장학생 시상식.

년대의 독립운동 △제5장 1920년대의 독립운동 △제6장 1930년대의 재외한인 사회 △제7장 1940년대의 독립운동 △제8장 6·25 전쟁과 휴전 △제9장 4·19와 군사혁명 △제10장 1970년대의 한국 정세와 미주한

인사회 △제11장 민중항쟁과 올림픽 대회 △제12장 민주화 및 통일운동과 인권운동 △제13장 21세기를 맞이하여 △제14장 21세기를 맞이하며 △제15장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의 정상회담 등 2부,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가 첫 출간한 책은 고입준비서인 ‘고입생물’(조문각). 이후 여러 권의 대학교재를 펴냈다. 미국에 와서는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명문고교와 명문대학’ ‘이민자녀의 교육’ 등을 잇따라 출간했다.

첫 영문저서는 1972년 출판한 ‘Radioecology and Econology of Desert Plant at Nevada Test Site’. 미국의 네바다 핵실험으로 인한 사막 식물의 생태계를 연구해 방향을 일으킨 책이다.

차 동문은 해직교수 출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절 한 잡지에 정부가 공해예방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투고한 것이 결정적인 빌미가 됐다. 북한의 대남방송이 차 박사의 글을 인용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찍혀 동국대 교수직에서 쫓겨났다. 그 시절 김동길(연세대), 한완상(서울대) 교수 등이 차 박사와 함께 해직교수의 명단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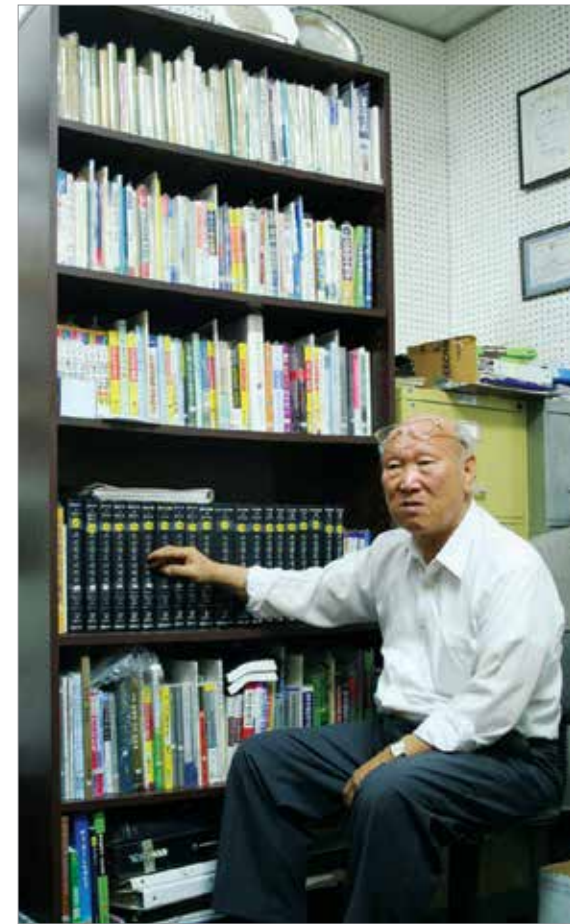
당시 차 동문은 UCLA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있었다. 해직되는 바람에 귀국해도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다. 자의반 타의

반 미국에 눌러앉게 된 것이다. UCLA 연구교수(식물영양학)로 22년 동안 재직했다.

차 박사는 한미교육연구원을 설립, 한인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매년 꿈나무 장학생(올해 46회째)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차 동문에 따르면 기금이 140만 달러가 넘어 이자 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다.

LA평통회장과 인권문제연구소 LA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차종환 동문은 지난 2005년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다.

전공이 식물학인 차 동문은 백두산의 식물생태계를



최다 집필기록 보유자인 차종환 박사. 335번째 출간을 해 한국판 기네스북인 한국기록원에 공식 등재됐다.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여러번 찾았다.

남한의 식물분포는 연구가 거의 마무리 됐지만 북한은 자료가 없어 현지 실태 조사가 꼭 필요했던 것. 남북한의 식물도감을 펴내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중복좌파’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는데 주동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25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 승소로 차 동문은 그에게 덧씌워진

‘중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인이 황해도 재령 출신이어서 남북통일에 특히 관심이 많다. 그의 저서 가운데 통일과 관련한 책자는 60여 권에 달하지만 북한을 찬양한 대목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이다.

차 동문은 거의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이상을 책쓰기에 할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스텐트 수술을 받은 후부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는 차 동문은 “남은 시간 더 책을 써내 한국기록원에 공인된 ‘최다 저서 집필자’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즘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

서울대의 사랑방 ‘작가의 집’ 김병연(공대 68) 박사 한인타운에 오픈, 일년 연중 동문 행사 열려

남가주 동문들에게 ‘작가의 집’(Writers Hall)은 사랑방으로 통한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제임스 우드와 후버 코너에 위치한 이 건물은 김병연(공대 68) 동문이 15년 전 구입해 1년 여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문을 열었다.

전시장은 물론 회의실도 갖추고 있어 동문들의 크고 작은 행사가 일년 연중 이곳에서 열린다.

250명은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 건물에는 미주 총동창회(회장 이상강, 의대 70)와 서울대 미주재단(사무국장 김인종, 농생대 74)이 입주해 있어 거의 한 블럭을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서울대의 ‘메카’라 불려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

건물주 김병연 동문은 남가주 총동창회장(제 41대)을 지냈다. 작

가의 집을 동문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개방해 매년 회장으로 통한다.

그가 처음부터 동창회 일에 관여한 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날 동창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송년모임에 경품 하나를 기부해 달라는 청탁이었던 것. 5천 달러 상당의 컴퓨터 세트 일체를 특상으로 내놨다. 김 동문의 통 큰 기부에 다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왕복 항공권의 몇배나 되는 고가의 상품이어서다.

“사실, 선물 때문에 코가 꺾였어요.” 이후 김 동문은 동창회 일에 신바람을 냈다.

동문들의 경조사는 물론 최근의 근황도 작가의 집에 들르거나 문의하면 금세 알 수 있다.



‘작가의 집’에서 포즈를 취한 김병연 동문.

지난 9월 초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를 발간한다는 얘기를 듣고 몇 분이 작가의 집을 찾았다. ‘58학번 동기’ 박상길(농생대)·한효동(공대), ‘마당발’ 최진석(법대 64), ‘공대 작곡과’ 홍선례(음대 70) 동문 등이 모였다. 음대 작곡과를 나온 홍 동문은 작가의 집 간사나 다름없다. 공대 동문들의 출입이 잦다보니 ‘공대 작곡과’란 닉네임으로 불리게 됐다.

좌장격인 한효동 선배가 운을 뗐다. “동창회에 삼총사가 있는 거 알아요?” 박상길·김병연·장준철 3인을 일컫는다. 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이다. 셋은 의형제를 맺은 바나 다름없는 사이다. 장준철(공대 56) 동문은 안타깝게도 10여년 전 급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 동문은 1960년대 초 서독광부 1진과 함께 통역으로 파견된 분이다. 당시 정부는 독일어 통역사 2명을 공개 선발했는데 공대, 그것도 기계과를 나온 장

동문이 100점 만점을, 외대 독일어과 출신이 70점을 받아 온통 화제가 됐다.

1965년 미국에 이민온 장 동문은 김병연 회장이 창업한 컴퓨터 회사에서 매니저먼트를 담당해 회사가 궤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박상길 동문이 동창회장이 되자 사무총장을 맡아 동창회 안정에 일등공신이 됐다. 보스가 후배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

정관 개정의 사연도 처음 공개됐다. 대학원 출신 A씨가 총동창회 회장이 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어났다. A씨는 동창회장 명함을 갖고 한국에 나가 국회의원에 출마,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동문들이 놀란 것. 일부 동문들이 A씨에 동조해 사태가 더욱 꼬이게 됐다.

알고 보니 관련된 동문들이 개인 비즈니스에 연관된 것. ‘삼총사’가 총대를 땀다. 정

관을 개정해 회장은 4년제 학부과정을 졸업한 동문에겐 자격을 부여했다.

권길상(음대 46) 제 11대 회장에게는 ‘참 점잖으신분’ ‘인격자’라는 존칭이 따랐다. 홍선례 동문은 이화여고에서 정명화·정경화를 가르쳤으며 장례식에는 그야말로 수백명이 ‘운집’해 그분의 타계를 애석해했다고 추모했다.

서울대 배구팀의 활약상도 조명을 받았다. 1968년 LA 거류민회(지금의 한인회) 주관으로 대학 동창회 대항 배구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공대팀이 서울대를 대표해 참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당시 대원들의 이름을 어렵사리 기억에서 소환해냈다. 장준철(주장)을 비롯해 김영기(53), 장동호(53), 이재점(57), 한효동(58), 손학식(61) 등은 황금컵비를 이뤄 서울대 배구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2010년대 이후 작가의 집이 동창회의 구심점이라면 초창기엔 (고)김영기(제 5대 회장) 동문의 자택이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했다. 특히 김영기 회장은 자비로 동창회보를 만들어 미주 전역의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데 큰 공헌을 했다.

동창회 흑자기조의 발판은 김병연 회장이 마련했다. 2011년 동문합창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이사를 35명이나 유치, 무려 12만 달러를 모금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디즈니 콘서트홀 공연을 위해) 실컷 쓰기도 몇 만 달러가 남아 동창회에 기금으로 적립했다.”

당초 공대의 연례행사였던 원로선배의 밤을 총동창회로 주관처를 옮겨 규모를 키운 것도 김 회장이었다. 산악회도 처음엔 공대 동호회로 출발했다. 이를 서울대 전체로 확대해 첫 행사를 2박3일 맴머스

레이크 동문가족캠핑으로 치렀다.

동창회에서 ‘이어북’이 처음 만들어진 건 지난 2016년이다. 그 전까지는 기록이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이때부터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김병연 회장은 ‘동창회를 가장 사랑하는 동문 중 한 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미국에서의 삶이 동창회 활동과 대부분 맞물려 있어 그의 집 거라지에는 지금도 관련 서류와 사진첩 등이 수북히 쌓여있다.

“이를 다 정리해야 할 텐데...” 엄두가 안나는 듯한 표정이다. 사실 그는 요즘 많이 아프다. 그런데도 동창회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작가의 집으로 향한다. 예나 지금이나 작가의 집은 그에게 동문 손님을 맞는 사랑방이다.

미주재단도 이웃해 있어 서울대 ‘메카’ 장준철·박상길·김병연 ‘삼총사’는 널리 회사

‘앤아버의 대부’ 박종수(수의대 58) 동문 유학생들에 학자금 대주고 함께 살기도

서울대 생명공학연구동 ‘박종수홀’ 명명
부의 사회환원, 선교와 후학양성에 힘써

지난 2010년 9월 무렵 수의대 동창회장인 신동국 박사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보낸 이는 서울교육대학 장기범 교수. 박종수(수의대 58) 회장 부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썼다고 했다.

장 교수가 박종수·허정윤 부부를 만난 건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교수는 앤아버의 미시건 대학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었다. 장 교수는 서울대 음대 출신.

교회에서 박종수 부부를 만나 동문인 걸 알게 됐다. 이후 장 교수 부부를 친동생처럼 각별히 챙겨줬다고 했다. 교수의 세 자녀도 박종수 회장 부부를 친할아버지·친할머니처럼 따랐다.

40명이 넘는 교회 찬양대원들을 매주 집으로 초대해 점심을 대접하고 찬양연습을 하게 도움을 줬다. 유학생들 가운데 누가 어렵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 물질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박 회장 부부의 이같은 베품과 보살핌은 미시건 대학에 유학온 많은 학생들에게 변함없이 이뤄졌다.

어느날 장 교수는 학비가 부족해 크게 낙담을 하고 있었다. 학위를 못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 내몰린 것. 그 많은 돈을 장만할 길이 없어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



‘기부 큰손’으로 알려진 박종수·허정윤 부부.

하루는 교회 담임목사가 누군가가 장 선생의 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으니 돈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다.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학비를 대준 이가 궁금해 채근해봤지만 목사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장 교수는 귀국해 서울교육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장 교수의 궁금증이 풀린 건 10여년이 지난 뒤였다. 교회 목사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주인공은 바로 박종수 부부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편지에서 “박종수 박사님 내외는 남들처럼 유별나게 밖으로 선행을 내세우는 분들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라고 썼다.

박종수 부부가 한국에 오면 대전 울산 등 곳곳에 흘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연천 총장(오른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박종수·허정윤 부부.

어져 있는 미시건대 동문들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환영연을 열고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한다.

장 교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박종수 박사님 내외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끝을 맺었다.

박종수 동문이 미국에 이민 온 해는 1967년. 미시건대 보건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의 과대학에서 미생물학, 임상병리학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면서 박사후 과정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의 부동산 투자는 부친의 영향이 컸다. 아버님이 캠퍼스 인근에 집을 한 채 구입,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는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다. 1977년 대학병원 근처에 42유닛짜리 아파트를 구입, 이것이 부동산 사업의 씨앗이 됐다. 부의 축적이 시작된 것이다.

앤아버는 대학촌이어서 유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이 낯선 환경의 캠퍼스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줬다. 심지어 자신의 집을 개방해 유학생들과 함께 살기도 했다.

그가 앤아버에 거주한 기간은 27년이나 된다.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앤아버 한인회장을 지낸 박동문은 특히 한인만을 위한 묘지 5,000기를 조성해 그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버지니아주의 에버렛 대학 워싱턴 캠퍼스 학장으로 부임해 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LA에 이주한 것은 장남으로서 부모에 효도하기 위



수의과 대학은 박종수 동문의 모교에 대한 공적을 기려 생명공학연구동 1층을 ‘박종수홀’로 명명했다.

해서다. LA에서도 그의 부동산 투자는 계속됐다. UCLA 캠퍼스 인근에 32유닛 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파트 관리가 쉽지 않았다. 처음 몇년은 늦

은 밤 흠디포로 달려가는 일도 많았다. 청소와 수리를 손수 담당해야 했다.

서울대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을 받고 나서다. 평생장학금·수의대 도서관·서울대 중앙도서관·선한인재 장학금·생명과학연구동 건축 등 ‘기부 큰손’으로 통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선행 실천 장남으로 부모에 효도하기 위해 LA로 이주

지난 2018년 수의대는 박 동문의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에 감사를 표하며 생명공학연구동 1층을 ‘박종수홀’로 명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모교 발전을 위해 경기도 시흥 소재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서울대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등 그의 공적을 기려 오연천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 총장은 인사말에서 “박종수 박사는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며 평생을 선교와 수의학 분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며 “출연해 주신 기금은 수의과대학의 생명과학연구 역량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종수 회장이 남기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세계의 비전이 되어 세상을 인도하는 횡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곡계의 노벨상 ‘발로우’ 수상 김택수(자연대 99)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 은메달 딴 ‘화학영재’

자연대 졸업 후 음대 편입 ‘가지 않은 길’ 걸어
‘빨리 빨리’ ‘짠’ ‘더부산조’ 등 한국어 제목도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김택수 동문(자연대 99)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대표작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 떠오른다.

김 동문은 현대음악계에서 널리
알려진 작곡가다. 지난 2021년 8
월 전세계 내로라하는 574명의 작
곡가들이 겨룬 ‘발로우(Barlow) 국
제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뽑혔다.

하지만 그는 원래 전공이 음악이
아닌 화학이다. 서울대학교 3학년
때 국제 화학올림피아드(호주)에
국가 대표로 참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참가 55
개국 중 종합성적 2위에 올라 세계
과학계의 강자로 났다.

‘화학영재’로 인정받은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
울대 화학과에 진학한다. 그에게 화학은 ‘이미 가봤
던 길’이다. 그때만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듯 했
다. 그런데 불현듯 화학이 ‘내 길’이 아니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틈틈이 음대 청강생이 돼 음악의 기
초를 익혔다. “(화학과는 달리) 음악이 재밌었고 신이
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화학과를 졸업하고는 아예 음대 3학년으로 편입해

본격적인 음악의 길로 나섰다. 프로스트의 시 제목처
럼 ‘가지 않은 길’을 택한 것이다.

왜 쉬운 길(화학)을 가지 않고 안 가본 길(음악)을 가
려했을까. “철이 없었어요.”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3학년이 되면 실험실 투어를 하며 장래 전공을 결정
해야 했는데 흥미를 못느꼈다고 했다. 어쩌면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작곡계의 떠오르는 별 김택수 동문.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가 화학에
흥미를 못느끼다니... “올림피아
드는 문제풀이 위주예요. 수학문제
잘 푼다고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
잖아요.” 생화학은 암기를 못해서
진즉에 포기했고, 유기화학은 그나
마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분야여서
음악과도 일맥상통했다.

사실 김 동문의 음악에 대한 관
심은 초등학교시절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또래의 친구들마냥 그
도 정 트리오(정명훈·정경화·정명
화)의 활약에 매료된 나머지 음악

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서울
예원증을 지원했는데 쓴 잔을 들이켜야 했다. 제2의
정경화가 되고 싶은 나머지 바이올린을 갖고 심사위
원 앞에 섰으나 역부족이었던 것. 그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배경이다.

“아마 예중-예고-음대 코스를 밟았다면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과학고-화학과를 거쳐
음악으로 되돌이표를 찍은 것이 세인의 흥미를 유발



김택수 동문의 신작 ‘스핀 반전’(Spin-Flip)을 초연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난뒤 김택수 동문이 관중들
에 인사하고 있다.

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화학과 재학시절 그는 각종 동아리에 들어가 다양
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특히 선교 동아리가 가장
와닿았다고 한다. 인도, 중국, 태국, 칠레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언어와 문화에 관심
이 많아졌다는 것. “음악을 안했다면 언어학을 전
공했지 않나 싶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알고 보
면 언어잖아요.”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끝내고는 미국 유학에 올라
인디애나 주립대학(블루밍턴)에서 음악(작곡)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그가 쓴 곡은 70여 곡에 이른다. 1년에 몇
곡이나 쓰냐는 질문에 작은 것은 7~8개, 큰 곡(15분
이상)은 2~3개가 고작이라고 했다.

내친김에 작곡료를 얼마나 받느냐고 단도직입적
으로 물어봤다. 보통 천(달러) 단위와 만 단위로 나
뉘는데 입지가 탄탄해야 만 단위를 받는다고 했다.
“저는 이제 만 단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며 멋
적게 웃었다.

김 동문은 자신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었
던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작지 않은 역할
을 했다고 털어놨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싸
이의 강남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곧 식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진짜 한류 붐이 일어난 거
예요. BTS, 미나리, 오징어 게임...” 덩달아 자신도
작곡계에서 이름이 알려져 ‘한국 붐’의 수혜자가 됐
다는 것이다.

그가 닦고 싶은 작곡가는 프랑스의 모리스 라벨이
다. “예를 들어 ‘볼레로’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흥이
나고 화사한지.” 음악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나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라벨은 둘 모두를 갖췄다는
것이다. “내 음악도 라벨처럼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작품 가운데는 한국어 제목이 적지 않다. ‘빨
리 빨리(Pali, Pali)’ ‘참살떡(Chapsaltoek)’, 잔을 부
딛칠 때 나는 ‘짠(Zzan)’도 있다. 한국적인 정서를 담
아내기 위해서다.

호평을 받았던 곡 중 하나가 ‘더부산조(Dub-San-
jo)’다. 우리 전통음악인 산조를 기반으로 한 클래식
이다. “어느 평론가가 바로크 시대의 춤곡을 떠올리
게 한다며 매우 신난다고 했어요. 산조에도 흥이 있
으니까 이해는 되요.”

한국의 무속신앙인 ‘굿’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써볼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곡계에서 ‘떠오르는 별’이 된 김택수 동문. 프로
스트의 시 처럼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모든 것
이 바뀌었다’고 할까.



지난 1998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호주)에 한국대표로 출
전, 은메달을 딴 김택수 동문(오른쪽).

‘라엘’(Rael) 백양희(경영대 98) 동문은? 관악연대 ‘컬리 프라이즈’ 보컬리스트 출신

유기농 생리대, 불과 5개월 만에 아마존 1위 ‘우뚱’
한국 역진출해 뷰티, 건강기능식품 등 ‘폭풍성장’

“이번 공연은 작년말 살짝 선을 보였던 컬리 프라이즈(Curly Fries·컬프)의 새 얼굴, 확끈한 학벌(하버드 MBA), 확끈한 직장(디즈니사 이사), 확끈한 미모(사진 참조), 확끈한 노래와 춤 실력(와 보시면 확인됨)을 다 갖춘 경영대 98학번 백양희 양이 공식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물론 저도 잠깐 나오구요.”



오개닉 생리대 ‘라엘’을 창업한 백양희 동문. 관악연대에서 컬리 프라이즈 보컬리스트로도 활약하는 등 다재다능한 여성 기업인이다.

고정범(법대 79) 전 관악연대장이 컬프 공연에 앞서 동문들에 띄운 초청의 글이다. 백 동문의 공식 데뷔 공연은 지난 2016년 4월 23일 LA 한인타운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무대는 소개의 글대로 정말 ‘확끈’했다. 연신 환호가 터졌다. 다들 연내 앙콜 공연을 기대했지만 웬일인지 소식이 끊겼다. 궁금증이 증폭될 수 밖에. 알고보니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이듬해 그가 세상에 내놓은 스타트업은 ‘라엘(Rael)’. 여성 생리대, 그것도 유기농 순면 커버로 만든 제품이다.

백 동문은 고정범 연대장의 소개대로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한 다음 동종업계 최고권위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디즈니사로 직장을 옮겨 영화배급 전략팀에서 7년 넘게 근무했다. 엔

터테인먼트에 관심을 쏟았던 그에게 디즈니사는 꿈의 직장이었다.

그런 백 동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한인언론을 통해 여성작가와 디자이너를 알게 된 것이 라엘을 창업한 계기가 됐다. 셋은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을 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디즈니사에서 ‘무형’의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했던 그는 이제 생리대라는 ‘유형’

의 콘텐츠를 접했다.

“생리대는 여성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 약 4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꼭 쓰는 제품이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유기농 생리대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심했죠.

당시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생리대 시장을 주도하던 상황이었지만 관련해서 특별히 기술혁신이 이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시장에서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든다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제품의 우수성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문제는 브랜드 인지도였다. 아마존 론칭으로 마케팅 전략을 굳혔다.

“저희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론칭할 때만 해도 유

명한 브랜드는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존의 장점은 인지도가 높지 않아도 상품평 리뷰가 좋으면 잘 팔려요. 아마존에서 리뷰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거

든요. 정말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상품평만 올려요. 처음엔 저희도 리뷰를 쌓는게 쉽진 않았지만 점점 별 다섯개짜리 리뷰가 쌓이면서 랭킹도 올라갔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백 동문의 아마존 마케팅 전략은 대박을 쳤다. 불과 6개월만에 오개닉 생리대 부문에서 톱에 올랐다. 2019년부터는 전체 생리대 카테고리에서도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확신은 현실이 됐다. 그 후 라엘은 클린뷰티로도 확장하여 타겟, 월마트, Ulta, CVS, 월그린 등 대형 유통사를 포함해 약 2만 개의 미국 리테일 매장에 입점했다.

미국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라엘은 한국으로 역진출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미국으로 가져왔던 라엘은 2018년 한국지사(라엘 코리아)를 열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셈이다.

라엘은 창업자부터 상품개발자까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됐다. 덕분에 라엘은 여성의 고민에 진심어린 공감 가능성이 가능했다.

이는 라엘의 성공요인이기도 했다. 그 결과물로 여성들의 편안하고 청결한 생리주기를 돕는 ‘라엘’, 생리주기와 호르몬 변화에 따른 피부 트러블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엘 뷰티’, 여성들의 건강고민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엘 밸런스’까지 론칭했다.



보컬그룹 ‘컬리 프라이즈’의 리더싱어인 백양희(가운데) 동문.

백양희 ... 그는 시켓 말로 엄친딸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은행원이었던 부친이 뉴욕지사로 발령이나 8학년부터 뉴저지주에서 살았다.

귀국해서는 고교 2학년으로 편입, 서울대에 들어갔다.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더 열중했다고 한다.

“제가 어려서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유년시절엔 발레리나나 성악가가 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고교시절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열심히 쫓아다녔죠. 대학시절엔 노래패,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하고 싶은 것들은 맘껏 했죠.”

그렇게 놓고도 최우등 졸업을 했다. 이어 하버드 MBA, 디즈니사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그런 와중에도 관악연대 동문들이 주축이 된 컬리 프라이즈의 보컬리스트로 마이크를 잡았다.

라엘은 이제 그의 인생 최대의 승부처가 됐다. 여성의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홀리스틱(holistic)’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백 동문은 최근 주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포부를 밝혔다.

“LA본사를 중심으로 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지로 사업확장을 계획중이에요. 한국지사를 통해선 일본과 동남아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죠. 생리대 분야에 집중했던 한국시장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미국시장은 위생용품과 뷰티 스토리를 만들어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A의 달인’ 유재환(상대 67) 동문 BoA에서 두각, 한국서 외환은행장 1순위

‘컨설팅회사 면접’ 통과해 한미은행장 취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어머니 가르침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줄 알고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 중에서

유재환(상대 67) 동문이 평생 잊지 못할 분은 국민(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다. 방과후 특별과의 수업을 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지도를 해준 것은 아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지낸 그에게 어쩌면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냈을

니까요.” 그 인연 덕분에 서울 중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에 진학, 인생 최고의 금자탑을 쌓아올릴 수 있었다.

첫 직장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 지점이다. 5명을 뽑는데 수백명이 몰렸다. 미국계 은행이어서 당시엔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석합격. BoA에선 또 다른 인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다.

은행 직속 상사는 대학 후배였다. 4년5개월이나 공군장교로 복무해 사회진출이 또래에 비해 크게 늦어진 탓이다. 그래도 후배를 ‘진심을 다해’ 모셨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나중엔 또 다른 인연을 맺게 됐다.

은행 초년병 시절 그는 필리핀에서 경영 연수를 받았다. 미국 본토에서 온 대학교수들과 BoA 본부 간부들이 지도한 연수에서 그는 ‘올 A’를 받았다. 영어가 모국어 아님에도 연수생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그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1981년 1월 2일, 그는 결코 이날을 잊지 못한다. 김포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세계금융의 메카... 꿈에 부풀었지만 이번엔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이 안됐다.

그는 미국인이 가야할 자리에 왜 한국인이 발탁이 됐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 그저 마닐라 연수에서 1등을 해 장차 BoA를 이끌 재목으로 키울 생각이었던 것 같다는 게 그의 짐작이다.



가주외환은행(PUB)을 인수한 뒤 데이비드 워너 PUB 행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유재환 동문.

지도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인연은 담임 선생님과 만났던 것이었어요. 그 분의 지도로 1등은 늘 내 차지였



월셔은행장 시절의 유재환 동문. ‘인수합병의 달인’으로 꼽혔다.

그에게 배정된 업무는 대기업 여신관리였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 모터스(GMC)였다. “GMC 한해 매출이 무려 750억 달러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GNP가 650억 달러에 불과했으니 실감이 안났어요. 주눅이 들 수밖에요.”

유 동문은 뉴욕에서 혹독했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 선진금융기법을 자본주의 본고장에서 익힌 것이다.

뉴욕에서 2년여를 보낸 그는 귀국을 결심했다. 은행 측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겠다고 ‘당근’을 제시했으나 정중히 고사했다. 그에게는 장남으로서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었던 것.

BoA 서울지점으로 복귀한 그는 얼마 후 다시 시애틀에 소재한 시애틀 퍼스트 내셔널 뱅크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은행 역시 BoA가 인수한 बैं크다. BoA에서의 통산 근무연한은 15년이 넘는다.

이어 한미은행(현 씨티뱅크 코리아)으로 옮겨 LA 지점장, 부행장에 오른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때 외환은행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최종 2명으로 압축됐는데 유 동문이 가장 유력했다. BoA에서의 화려한 경력이 위기의 외환은행을

살려낼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았다. 고위당국자는 그에게 취임사를 준비하라며 그의 행

장 취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그의 외환은행장 취임은 막판에 없던 일이 됐다. 김대중 정부시절 특정지역의 인맥이 그를 막아선 것이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그 후에 ‘헐값매각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

유 동문은 2003년 6월 한미은행장에 선임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외환은행의 LA 현지법인 PUB (Pacific Union Bank-전 가주외환은행)을 인수한다. 그의 한미은행장 선임은 한인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한미는 1982년 순수 교포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001년에는 나스닥에 상장돼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은행 측은 행장을 이사회에서 뽑지 않고 미국 컨설팅 회사인 ‘카펜터(Carpenter)’에 일임했다. 공

정을 기하기 위해서다. 내로라 하는 한인 금융계 거물들이 출사표를 냈으나 당시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 동문이 선임된 것이다.

한미은행장에 선임된 지 2개월도 안돼 한국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설’이 확인되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과거의 ‘인연’을 총동원해 외환은행 본점과 긴밀한 교섭을 벌였다. 당시 공개입찰에는 나라은행과

세계굴지의 기업 GM 여신관리 맡아 선진금융기법 월스트리트에서 익혀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김 창 욱 (79)

부회장 송 두 일 (82)

이사장 신 정 식 (64)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론스타 매각’ 확인하자 발 빠르게 대처 공개입찰 3파전 끝에 외환은행 인수 성공

서울의 하나은행도 참여,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인연’이 두터운 유 행장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당시 규모 2위(한미)가 한인사회 최대의 은행(PUB)을 삼켰다고 해서 뒷말이 무성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유 행장의 치밀한 계산과 배짱의 결과물이었다고 할까. PUB의 성공적인 인수로 한미은행은 자산 30억 달러의 명실공히 한인사회 제 1위의 은행으로 발돋움한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의 불화로 한미은행을 떠나 중앙은행으로 등지를 틀었다. 여기서도 장기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한국수출보험공사와의 소송(1억달러 피해보상 건)을 해결해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정부기관과의 소송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2009년말 금융감독 당국이 요구한 증자시한이 막판에 몰려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도 그가 쌓은 ‘인연’으로 중앙은 기적적으로 증자에 성공, 회생하게 됐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은행 사외이사 근무시, 동료 이사의 후배 한 분이 미국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해 신규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사가 유 동문을 소개한 것이다.

그 덕분에 중앙은행은 감독 당국이 요구한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 경영이 예전보다 더욱 탄탄해졌다.

중앙과 나라은행의 대등합병을 추진, 당시 최대인 BBCN은행을 탄생시킨 것도 유 동문의 배움을 수 없는 성과물 가운데 하나다.

월서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새한은행을 성공적으로 인수 합병한 데 이어 BBCN 은행과 대등 합병을 성사시켜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 은행을 선보였다. 한인사회 최대규모의 은행이다.

그는 은행가의 ‘마이더스 터치’(Midas Touch)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손을 대면 이처럼 덩치가 커



월서은행장 시절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유재환 동문.

진다고 해서다.

유재환 행장은 한인금융권의 도약을 위해선 M&A(인수합병)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는 현역시절 M&A에서 6승2무를 기록했다. 전무후무한 성과를 낸 것이다.

무엇이 그를 M&A의 달인으로 만들었을까. “인연입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인연을 늘 소중한게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유재환 동문은 피천득 선생의 에세이에서 처럼 ‘웃기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내는’ 마술사인지도 모른다.

유의영(문리대 56) 교수의 LA 예찬 “한인들이 많아 살기가 제일 편해요”

흑인갱에 목숨 잃은 오빠 대신 아내가 유학
‘김씨성 표본’은 인구학계의 고전으로 꼽혀

유의영(문리대 56) 동문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날 때마다 각종 언론매체에 단골로 소개되는 사회학자다. 그래서 한인 이민사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불린다. 유 박사는 매년 4월이 되면 착잡해진다. 4월 29일, 이른바 ‘사이구’ LA 폭동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흑 갈등 때문이었어요.” 대체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길래...

1950년대 중반 무렵 부인 오옥실 여사의 사촌오빠가 필라델피아에서 흑인청년들한테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돈을 달라는 흑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심하게 얻어맞았다.

유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당시 뉴욕타임스 등 주류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필라델피아 시장이 서울의 오빠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용서해 달라”며 사죄할 정도로 미국사회에 주는 충격이 컸다. 시장은 유가족 측에 가족 중 누구라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면 시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다.

가족회의를 연 끝에 아내가 낙점됐다. 당시 경기여고를 나와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던 오 여사는 오빠의 ‘죽음 값’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것.

그 무렵 펜실베이니아 대학(유펜)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었던 유 동문은 교회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다. 템플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아내는 방위산업체 맥도넬 더글러스에 스카우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흑인(과 관련된 사건)이 아내를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됐으니 ‘사이구’만 오면 지나 집 사람이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요.”



원로 사회학자 유의영·오옥실 부부

유 교수는 LA 폭동을 몸으로 겪었다. 구호대책본부 위원장을 맡아 한인들은 물론 심지어 흑인 주민들까지 챙겼다. 폭동의 외중에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자 교회(LA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 구호센터를 오픈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돌봤다.

한흑 갈등이 폭동의 빌미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갈등이란 말을 쓰면 안 되요.” 그는 단호했다. “한인들이 흑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 뿐이에요.” 흑인들의 한인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심 때문에 한인업소들이 타겟이 됐다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유 교수는 이른바 ‘두순자 사건’도 폭동의 원인이 됐다고는 믿지 않는다며 불행한 사건일 뿐이라고 했

다. 두순자 사건은 흑인밀집 동네에서 마켓을 운영했던 두씨가 흑인소녀를 절도범으로 오인, 총으로 쏘 숨지게 한 사건이다. 판사는 두씨의 정당방위를 인정, 사회봉사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에게 인종문제는 ‘가정사’와 겹쳐 늘 풀어야할 숙제다.

어떻게 타인종과 잘 지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박사는 세 단어로 압축해 답을 내놨다. “One of Us.” 쉽게 말해 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일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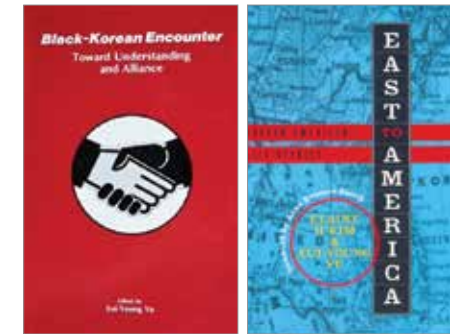
그러면서 편견(prejudice)과 선호(preference)는 구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정 인종에 대한 선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편견이 끼어들면 갈등이 불거져 나온다는 것이다.

유 동문은 한인들의 단점으로 ‘편견’을 꼽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인들 만큼 ‘정’이 많은 민족도 드물다며 정이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봤다.

폭동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번엔 2세들이 한인타운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하버드나 스탠퍼드 등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사우스센트럴(흑인 타운)에서 무보수 교사를 자원했어요.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입니까. 그 모습에 울컥했어요.”

유 동문은 LA 근교의 몬터레이 파크에서 50년째 살고 있다. 1972년 3만8,500 달러를 주고 산 집이다. 직장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캘스테이트 LA) 한 군데서만 평생 가르쳤다. ‘왜’냐고 물어봤다. “LA가 편해요. 한인들이 많고...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한인



LA폭동과 한인 이민역사를 다룬 유의영 동문의 저술은 학계의 ‘고전’으로 불린다. 유 박사는 구호위원장을 맡아 ‘사이구’ 폭동을 몸으로 겪었다.

LA 폭동 때 구호대책 본부장 맡아 ‘정’이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

사회에 기여도 많이 했지만 실은 한인사회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유 동문은 ‘김씨 성 표본(Kim Sample Method)’을 처음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주에서도 김씨 성 가진 사람이 전체 커뮤니티의 21~23%에 달한다는 연구다. 그가 추산한 한인인구는 연방센서스 결과와 거의 일치해 놀라움을 줬다. 이처럼 유 박사는 한인 연구에 관한 한 늘 ‘프런티어’다.

1세대가 이민의 무대에서 사라져도 코리아 타운은 존속할 것인가. 사회학자로서의 견해를 물었다. “걱정마세요. 2세대도 살기가 편해 더 발전할 겁니다. 백인들만 사는데는 불편해서 못살아요.” 대답이 시원시원했다.

인종화합에 정답은 있는 걸까. “간단해요. 우리(한인들) 잘 살잖아요. 못사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도와줘야 해요. 그럼 돼요.” 복잡한 학술 이론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처방을 내놨다.

부부는 동창회 모임에는 늘 ‘개근’이다. “우선 편해요. 동문들이어서 세대차이도 거의 못느끼고, 역시 늙으면 옛 친구들이 최고예요.” 유 박사와의 인터뷰는 동창회 예찬으로 끝을 맺었다.

유의영 박사는
1963년 도미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사회학 박사
캘스테이트 LA 교수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 객원교수

한귀희(미대 68) 전 동창회장 80~90학번 대폭 기용, 세대교체 이뤄

큰 행사때 마다 접수 맡아 '수금' 임무 완벽 수행
미술에서 건축 디자인과 설계 전문가로 변신

50년이 넘는 역사를 일궈온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역대 회장들의 리더십과 많은 동문들의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동창회의 역사 속에 뚜렷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기며 여러 동문들에게 모범과 귀감이 되어 온 분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동문들 중 한 명으로 한귀희(미대 68) 전 회장을 꼽을 수 있다.

한 전 회장을 접해본 동문들은 여러 여리한 외모와 따뜻하고 화사한 웃음과 함께 특유의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를 기억할 것이다.

졸업후 전공을 미술에서 건축으로 전환해 건축 디자인과 설계 전문가이자 디벨로퍼로서 경력을 쌓아왔다. LA 한인타운 주요 건물들 상당수의 설계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부군과 함께 아파트 개발 등 건축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건축 전문가다.

동창회 일에도 적극 헌신하며 2017년과 2018년 미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미대 회장 임기 중 남가주 총동창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대 동문 작품전과 옥션 행사가 크게 활성화됐던 것은 한 회장의 리더십이 이뤄낸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자신이 설계, 시공한 'S-빌리지' 내 건물에 'S-갤러리'를 만들어 미대 동문들의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커뮤니티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동창회



한귀희 44대 회장.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2019년 제44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을 맡아 봉사한 1년 간은 총동창회가 세대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27년 만의 미대 출신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한 일성은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의 조화를 통해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재미있고 신명나는 동창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회장 재임시 임원진에 70년대 학번들은 물론, 80-90년대 학번들까지 대폭 기용해 이같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2019년 당시 총동창회 임원진은 ▲최용준(수의대 81) 총무국장을 필두로 ▲박제환(문리대 75) 재무국장 ▲이종호(문리대 81) 사업국장 ▲한석란(미대 71) 문화위원장 ▲신호근(문리대 81) 행사위원장 등 국장급 임원들과 함께, 실무 임원들로는 ▲조용국(사대 94, 부총무) ▲손영아(음대 85, 부총무) ▲이윤종(미대 93, 부재무) ▲김경애(미대 83, 부재무) ▲양수진(간호대 80, 부사업국장) ▲김종하(문리대 85, 부사업국장) ▲김옥권(미대 76, 문화위원) ▲김양희(음대 77, 문화위원) ▲유혜연(음대 79, 문화위원) ▲이호(음대 02, 문화위원) ▲김유은(음대 07, 문화위원) ▲김준환(문리대 81, 행사위원) ▲지창열(83, 행사위원) ▲모원균(공대 89, 행사위원) ▲김용진(92, 행사위원) ▲이완구(93, 행사위원) ▲최경석(사대 80, 감



한귀희 동문은 종합예술공간인 'S-갤러리'를 커뮤니티에 오픈,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공립예술고등학교인 'LACHSA' 학생들과 갤러리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 ▲강호석(상대 81, 감사) ▲홍선례(음대 70, 미주 동창회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동문들과 후배들을 아우르는 그의 리더십은 바로 '세심한 정성과 사랑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함께 일했던 임원진을 포함한 동문들은 모임 때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후배들을 늘 그냥 동문회의 일원이 아닌 실제 가족처럼 챙기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마음에 감탄하곤 한다.

이같은 후배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지난 2022년 여름 실시됐던 서울대의 제1회 '이음 장학금'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음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특히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해외 체험의 기회를 쉽게 가지기 어려운 우수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지난 2022년 첫 시행 당시 15명의 이음 장학생들이 약 한 달 간 LA로 와 미국을 배우고 체험했다.

당시 이음 장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본인 소유 아파트 단지 내의 S-빌리지에서 아파트 2베드룸과 1베드룸 등 6개 유닛을 제공, 13명 학생들이 남가주에 머무는 동안 무료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또

학생들 모두를 자택으로 초청해 1박2일 동안 바비큐 파티도 하고 일일관광과 독립기념을 불꽃놀이 체험을 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공부할 시간도 빠듯하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힘들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이음 장학생의 사정을 듣고, 이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적극 나서서 장학금 기회와 모교 내 일자리를 알아봐주기까지 했다. 개인적으로도 크리스천으로서 박애와 봉사 정신 실천을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 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골프대회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비 등 접수 실무를 맡아 특유의 철저한 업무처리와 세심함을 바탕으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수금(?)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역대 회장들마다 한귀희 동문을 꼭 행사에 모시려고 하는 이유다. 또 미대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 행사 때도 자주 초청되어 교류하는 등 많은 동문 그룹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글: 김종하(영문 85)
문리과 대학 동창회장·한국일보 편집국장

‘배뱅이 굿’ 사랑한 박창규(약대 59) 올림피아 약국은타운의 사랑방 구실

‘순수 교포자본’ 한미은행 이사장 지내
다루 미주예술원 설립, 창 보급에 열심

박창규(약대 59) 동문은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고맙다는 인사를 못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 요즘도 여기저기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1971년 이민 온 그는 USC 약대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학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가난한 나라’ 코리아에서 온 젊은이에게 1만달러나 되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은행은 없었던 것.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른 은행(Security Pacific Bank)에서 대출담당 오피서와 마주 앉았다. 그 미국인 직원은 한 눈에 박 동문의 잠재력을 알아봤다. 그의 열정을 높이 산 것. 지금은 무일푼이지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성공해 용자금 상환은 물론 은행의 큰 고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직원과의 만남 이후 박 동문은 한인사회에서 역사를 써 내려갔다.

USC에서 3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 동문은 LA 한인타운에 ‘올림피아 약국’을 열었다. 한인사회 최초의 약국이다보니 어떤 날은 문밖에서 줄을 설 만큼 손님들이 몰렸다. ‘문전성시’는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일 터.

“손님이 길게 줄을 서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할 정도였지요. 옆에 식당



‘창 전도사’ 박창규·김벌리 부부.

이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밥 먹으로 오지 않는다고 불멘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약국 오픈한지 2년쯤인가. 벨리의 우드랜드힐스에 아담하고 멋진 집을 장만했지요.”

약국은 날로 번창해 웨스턴과 올림피아 인근에 2호점 웨스턴 약국, 세라노와 3가 코너에 3호점 세라노 약국을 오픈해

3곳을 운영했다.

“한인 약사가 있다고 하니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가족 이야기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끔 영어 번역도 해주고, 이민상담도 해주는 등 약국이 사랑방 기능도 했어요. 되돌아보면 참 정도 많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 동문은 이어 은행경영에도 참여한다. 1982년 설립된 한미은행 이사가 된 것. 순수 한인자본으로 창립된 한인 커뮤니티 최초의 뱅크다.

“정원훈 선배님이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자본만으로 은행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시더군요.”

정원훈 회장은 상대 38학번. 제 9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내 당시 서울대의 아이콘이나 다름없었던 원로다. 한미은행 창립이사 가운데는 안응균(음대 54) 동문을 비롯해 서울대 출신도 적지 않았다.

“정 선배님이 초대행장이 됐는데 그때는 매주 이사

회를 열었어요. 은행장사는 ‘손톱 끝 남는 장사’라며 경비절약으로 이익을 남기자고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찌면 유학시절 그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을 해줬던 은행 론오피서의 고마움이 계기가 돼 한미은행에 투자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40여년 전 당시로선 거액인 25만 달러를 은행 설립에 보냈다.

한미은행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인 2002년에는 이사장직을 맡았다. 은행은 나스닥 상장을 비롯해 성장계도에 본격 진입, 한인커뮤니티의 대표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스타트업으로 받은 주식은 10~15배까지 오를 정도로 은행은 호황을 누렸다.

은행은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책임을 느낀 그는 용단을 내렸다. 이사직을 사퇴한 것.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세대교체가 필요할 때라고 봤지요.”

이사장 사퇴 2년 후 그는 모든 현업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박 동문은 자신을 은행 이사장이 아닌 약사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가 약국을 경영한 햇수는 33년, 평생을 몸바쳐 일한 곳이다.

박 동문은 한인사회에서 늘 ‘아름다운 퇴장’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통한다. 한인사회 최초의 약사로서 일을 그만 둘때도 그랬고, 누구나 놓기 싫어하는 은행 이사직을 떠날 때도 그랬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들은 죽을 때까지 놓고 싶지 않은 자리를 왜 그렇게 미련없이 그만 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어흥 문화예술축제 포스터.

그가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은 한국의 열이 담겨있는 소리, 곧 창 의 보급이다. 어릴 때부터 창을 좋아했다는 그는 이은관의 배뱅이굿, 강옥주의 회심곡을 듣고 또 들었다. 이민을 때도 두 곡의 LP판을 들고 올 정도로 창은 지금도 그의 핏속에 살아 꿈틀댄다.

“창을 하다보면 머리가 비워지며 무욕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요.” 그

의 창 예찬은 끊이지 않는다.

박 동문은 비영리법인 ‘다루 미주예술원’ 이사장을 맡아 국악보급에 열심을 내고 있다. ‘다루’는 창 하는 사람들의 농익은 소리를 일컫는 말이다. 미주예술원은 후계자를 양성, 우리 소리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매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024년 12회째 대회를 치렀다.

김한슬 양(UC 리버사이드)은 ‘다루’가 배출한 기대주. “6살 때 창에 입문할 만큼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박 동문은 척박한 국악계에서 보석을 캐냈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23년 풀러튼의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처음 열린 어흥문화예술축제도 다루 미주예술원이 주관하는 대형 이벤트 중 하나다.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풀러튼의 대표적인 연례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박 동문은 열정을 삶의 가장 위대한 덕목으로 꼽는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욕심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창은 아들같은 존재다. 창은 평생을 따라 다니는 피붙이다. 그러니 그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코노미의 삶’ 임천빈(문리대 61) 박사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 수상 ‘영예’

맨손으로 부를 일군 부동산 투자의 달인
“I Will Work for Nothing” 삶의 좌우명

임천빈(문리대 인류학, 61) 동문은 지난 2017년 5월 뉴욕 공항에서 겪은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비행기 탑승 직전 공항 보안요원들이 그의 손가방에 의심적인 눈초리를 보내며 ‘무엇이 들었느냐’고 물었다. 가방엔 어젯밤 받은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Ellis Island Medal of Honor)이 광채를 내고 있었다.

메달을 보자 보안요원들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려붙였다. 보안요원들의 경례에 되레 임 동문이 놀랐다. 문득 ‘내가 정말 축하받을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보안요원이 또다른 질문을 던졌다. 역만장자가 분명해 보이는데 왜 이코노미 석을 타나는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들(economy class people)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삶에 관한 한 상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죠. 나는 이코노미로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코노미석을 탈 겁니다.”

임 동문의 말에 감동을 받은 듯 보안요원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자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임 동문에 경의를 표했다.

임 동문이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샌디에고 주류언론에도 비중있

게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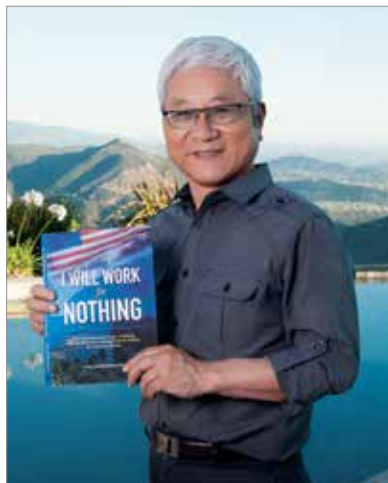
엘리스 아일랜드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관문이었다. 이 섬의 이름을 따 제정된 명예훈장은 이민자들의 도전과 꿈, 성취를 대변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그와 함께 명예훈장을 받은 이들의 면면은 모두 화려했다. 아폴로 11호 우주인으로 사상 두번째로 달에 착륙한 버크 올드린을 비롯해 오하이오 주지사 존 카시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여성인권운동가인 말라라 유사프자이 등이 포함됐다.

임천빈 동문은 이들과 함께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메달 하나로 그의 반세기가 넘는 이민 여정이 보상을 받았다고 할까.

그가 처음 미국땅을 밟은 것은 1967년이다. 평화봉사단 공개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 미국에서

한국파견을 앞둔 단원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가르쳤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그가 훈련시킨 평화봉사단원들은 영어교육은 물론 현대식 농법을 전파하는 한편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봉사의 손길을 폈다. 임 동문은 자신이 훈련시킨 단원들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지금도 뿌듯해한다.



임천빈 동문의 영문 자서전 ‘I Will work for Nothing.’ 반세기에 걸친 그의 이민 여정을 담았다.

평화봉사단에서의 역할이 끝나자 샌디에고에 등지를 틀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회계학 석사에 이어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부를 일궈다.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임 동문은 30개가 넘는 기업을 운영했고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한 것도 50건이 넘는다.

업계에선 그의 사업수완을 일컬어 ‘임천빈의 중력원리’라고 부른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다. 쉽게 얘기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비즈니스의 기본원칙이다. 한 예로 은행차압 샵핑센터를 헐값에 매입, 입주자에게 1년 무료리스를 줬다. 얼마안가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 10배 넘는 가격을 받고 팔았다.

종업원들에게는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다. 임 동문은 한때 홀마크 카드 매장을 8개나 갖고 있었다. 종업원들에게 경영을 책임지도록 맡겨 언젠가는 그들이 자립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세상은 아무리 운이 좋아도 혼자서는 살아낼 수 없어요. ‘함께한다’는 연대를 심어주고 말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임 동문은 영문 자서전 ‘I Will Work for Nothing’을 출간했다. 돈이 한푼도 없던 시절,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작정 어느 식당을 찾아갔다. 불경기가 미국을 덮쳤던 때여서 막노동이라도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영어도 짧았으니... 서툰영어로 “I will work for nothing” 돈 안받고도



지난 2017년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의 훈장’을 받았다.

일할 수 있으니 기회를 달라는 읍소였다.

매니저는 먼저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일을 준 것만도 고마워 화장실을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매니저가 와서 보고는 어깨를 꼭 잡으며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때 ‘아, 이 자세면 되겠구나’ 깨달은 그는 이 말을 평생의 모토로 지켜왔다. 무모하리만큼 용기 넘치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열정적이었던

젊은 시절의 그 자신을 지금까지 가슴 뛰게 하는 삶의 좌우명이 된 것이다. 주류사회에서도 ‘동기부여 강사’(motivation speaker)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혁신의 마인드를 갖게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수출자유지역) 홍보다. 샌디에고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한국과 일본 등지를 돌며 마킬라도라 세일즈에 나섰다. 그 결과 삼성, LG 등 한국의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임 동문은 샌디에고 한인사회에서 올드타이머로 존경받는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한인회 명예회장을 지내며 기부는 물론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퇴역군인의 복지를 위해 100만 달러를 선뜻 도네이션해 주류사회에서 ‘기부 큰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나는 출발도 이코노미, 지금도 이코노미의 삶을 살고 있어요.” 8년 전 뉴욕공항에서 보안요원들에게 해준 말을 지금도 되뇌인다. 그에게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경구나 다름없다.

김동석(음대 64) UCLA 교수 수강생 300여 명 ‘아미’ 군단으로 불려

주정부 예산삭감 조치로 한국음악과 폐과 ‘비운’
우리 음악의 전파에 평생... 공연·강의 5천여회

‘뎅터쿵~ 쿵 덕~’
매주 목요일 UCLA 음악대학 강의실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어설프지만 장고, 가야금을 끌어안고 가보지 못한 동방의 나라 가락을 익히기 위해 학생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뻘뻘했다.

김동석(음대 64) 교수가 지도하는 한국음악과의 풍경이다. 김 동문은 2010년대 초 UCLA 음대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꼽혔다.

한국음악과는 UCLA 민족음악대학(Ethnomusicology Dept.)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다. 일본음악과가 90년대 말 수강생 미달로 폐과가 됐으나 한국음악과는 이처럼 수강생들이 몰려 대학에서 아미(Army) 군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UCLA 학생들은 실기에 앞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 음악 무용 등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미국에 온 건 1971년. UCLA에서 민족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였다. 김 동문이 우리가락을 주류사회에 알리기는 1973년부터다. 한국음악무용단을 만들어 자주 공연을 가졌다. 초기에는 연방정부로부터

한해 3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20여 명의 단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1989년에는 평양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다. 이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그동안 단절됐던 남과 북의 우리 전통음악의 변화된 과정을 연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동석 동문이 UCLA 한국 음악과 전임교수로 부임한 것은 1997년이다. 한때 300여명까지 수강생이 몰려 한국음악과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다.

그러나 200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육예산 40% 삭감조치에 따라 대학 측은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음악과는 폐과 수순에 들어간다고 발표, 비상이 걸렸다.

한국음악과가 폐과를 면하려면 연 13만 달러, 영구 존속하기 위해선 200만 달러의 기금확보가 필요했다. 한국음악과는 그동안 국악인들의 성금과 한인단체 및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몇해를 버텼다.

김 동문은 “한국음악과가 사라지면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도 큰 손실”이라며 한국정부와 기업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끝내 기금확보에 실패, 한국음악



국악 보급에 평생을 헌신한 김동석 동문.



지난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친 김동석 동문의 한국전통음악무용예술단.

과는 2013년 폐과되는 비운을 맞았다.

김 동문은 UCLA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국악 클래스를 개설해 우리 음악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LA의 페어팩스 고등학교에 ‘Korean Drumming Class’를 운영한 것. 1999년부터 2014년 은퇴하기 전까지 20년이나 클래스를 맡았다.

1974년 한국의 날 퍼레이드에 농악대를 만들어 참여한 것도 김 동문이다. 이후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88년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연례 ‘로스 퍼레이드’에 꽃차와 농악대를 조직해 참가, 88서울올림픽을 홍보한 것에 대해 지금도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오렌지카운티의 대표 오케스트라인 퍼시픽 심포니 초청으로 공연을 펼친 김동석 동문의 국악팀.

음대 재학시절에는 연극부를 창설, 초대 회장을 맡아 ‘Our Town, Bus Stop’ 등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당시 연극 동아리 회원 중에는 가수 조영남도 포함돼 있었다.

동창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제 32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김 동문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대 동문합창단 공연에 국악프로그램을 넣어 호평을 받았다.

지금까지 김 동문이 공연을 한 횟수는 무려 5,000회가 넘는다. 그런데도 공연요청이 들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은퇴는 그의 사전에 없는 글귀인 지도 모른다. 우리 음악의 향기에 푹빠져 살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 사셔야 서울대가 돈 더 많이 챙겨요” 이창신(법대 57) · 이은수 부부의 나눔 실천

부동산 유증(遺贈)해 ‘은창 장학기금’ 만들어
금혼식 맞아 전 재산 사회환원 결심 굳혀

“선배님이 오래 오래 사셔야 서울대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오래 사시겠다고.” 그 순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참석자들이 ‘뺑’ 터졌다.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난 2021년 9월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LA를 방문해 남가주 지역 고액 기부자들 및 동창회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가졌다.

김인중(농생대 74) 미주재단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면서 이창신(법대 57)·이은수 동문 부부를 소개한 것이다. 이 동문은 이날 ‘Man of the Luncheon’으로 불릴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동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울대에 기증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부동산을 매각, 총액의 40%가 서울대 발전기금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 말하자면 유증(遺贈)을 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 측이 확보할 기부금은 100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됐다. 사회자는 그러나 이 동문 부부가 오래 살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앞으로 10년 후쯤엔 기부액이 두배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한 것이다.

이 동문은 오 총장으로부터 “선배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자 “별일도 아닌데...”하며 머쓱해했다.



이창신·이은수 부부.

이 모습에 감동한 미주 동창회보 편집인이 이 동문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의 모교애가 여느 기부자와는 남달랐기 때문일 터. 기업을 크게 일궈 천만장자가 된 것도 아니다. 소매업으로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서울대에 환원한 것이다.

이 동문은 그러나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절대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안심이 안됐는지 전화를 걸어와 기부얘기를 절대 쓰

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래서 이 동문의 기부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2년 후 우연히 이 동문 부부를 만나게 됐다. 동창회의 ‘마당발’인 최진석(법대 64) 동문과 함께였다. 반갑게 인사를 건넨 이 동문은 “그때는 미안했다”며 정중히 사과를 했다.

동석한 최 동문이 설득을 하자 그제서야 기부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털어냈다.

부부는 지난 2015년 금혼식을 맞아 나눔을 실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전 재산의 사회환원이다.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숙고하다가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산 중 40%를 모교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신학대학,

이민자 봉사기관 등에 기부된다.

이 동문은 김인중 사무국장을 만나 이같은 의사를 전달해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그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 등 주로 부동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 남가주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핫해 앞으로 10년후 쯤엔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뻔할 터.

김인중 사무국장의 우스개처럼 이 동문 부부가 오래 살아야 서울대가 더 많은 기부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총장 오찬 참석자들이 ‘뺑’ 터진 것이다.

이 동문 기부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지급, 식비와 숙박비 지원에 전액 쓰여지며, 학생 개개인이 학비에 구애받지 않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부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이 살아남아 기적의 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난과 전쟁 속에서 인재들을 키워냈던 것은 머리속여 감사할 일”이라고 했다.

부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있고 부부가 함께 별의별 고생도 다 했지만 지나간 모든 삶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며 “많지는 않지만 재산을 이렇게 환원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신·이은수 부부의 서울대 장학기금은 부부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은창 장학기금’으로 명명됐다. 장학기금도 아내 이름을 앞세워 남다른 부부애를 느끼게 한다.

50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축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

이 서 희
제39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법대 70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 천 택 공대 68
최 영 희 사대 70
happy mother's

‘지산’(智山) 정인환(법대 54)의 수석·서예 세계 삼라만상의 현상이 기이한 형태로 새겨져

‘항심’(恒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글귀
해병 대위로 파병 ... 월남전서 사선 넘어

‘지산’(智山) 정인환(법대 54) 동문은 수석 수집과 서예로 동문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지명도가 높다. 지난 2015년에는 동문들이 그의 팔순생신을 맞아 LA 작가의 집에서 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지금까지 수집한 수석은 300여 점, 서예 글씨는 500점이 넘는다. 코비드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매주 화요일 서예반을 열어 동문들을 지도했다.

첫 인상은 준수한 용모의 옛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목향이 배어있는 듯한 분위기다. 그런 정 동문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험상궂은 얼굴을 떠올리며 성질도 우

락부락할 것 같지만 말 본세가 의외로 조곤조곤하다. 서울대 법대 출신에 얼굴도 곰상해 해병대의 전형적인 스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왜 해병대를 자원했을까. “이왕 군대 갈 바에 훈련이 딱 세기로 악명높은 해병대에 가서 내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장교로 임관한 그는 이후 12년의 세월을 ‘귀신잡

는 해병’으로 보냈다. 1969년 베트남전에 투입되는 1년 2개월이나 전투 현장을 누볐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그는 국가 유공자로 분류돼 한국 보훈처에서 연금을 받는다.

그에게 위기는 있었다. 평소 해병대 선배로 가깝게 지냈던 정인환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으로부터 경호실 근무 제의가 들어온 것. 출세에 무뎠던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만일 (경호원) 제의를 내가 수락했더라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 동문은 수석에 관한 한 자타가 인정하는 프로다. 미국인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아 그의 작품은

고가에 팔린다.

“수석은 자연이 수천년의 세월로 빚어낸 자연 조각 예술품입니다. 조그마한 자연석 속에 삼라만상의 현상이 기이한 형태로 새겨져 있지요.”

정인환 동문에 따르면 돌에도 음양의 법칙이 적용된다. ‘양석’이 있는 곳엔 그 주변에 반드시 ‘음석’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이처럼 오묘하



지난 2015년 ‘지산’ 정인환 동문의 8순을 맞아 작가의 집에서 열린 서예 수석 전시회.



정인환 동문이 쓴 글씨는 500점이 넘는다. 반야심경을 붓으로 담아냈다.

다고 할까.

수석이 작품이 되려면 흙때와 물때, 그리고 끼인 모래알 따위를 말끔히 닦아내어 수석 본연의 때깔과 자연미를 살려내야 한다. 다음에는 좌대를 정교하게 제작해 돌을 받쳐 놓는다. 그래서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300달러 가량은 족히 필요하다.

“아마 지금까지 집 몇채값은 날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석을 배우면 잡념이 없어져 심적인 편안함과 즐거움, 관찰력 향상에 도움이 커 수석이 야말로 건강한 취미가 아닐 수 없다며 그의 수석 예찬론은 끝이 없다.

그가 꼽는 수석의 성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머시드 리버(Merced River)다. 강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해병대 출신답게 그는 전투수영에 능하다. 그때마다 급류와 싸워 강 건너 ‘상륙’에 성공한 것. 덕분에 귀한 돌을 남보다 더 많이 챙길 수 있었다.

‘사막돌’도 희소가치가 있어 인기가 높다. 그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돌 수집은 30년 전 데스밸리에서



정인환 동문이 아끼는 문방사우.

의 2박3일 캠핑이다. 타고 간 픽업트럭이 한밤중 모래밭에 빠졌다. 액셀을 밟을수록 바퀴가 더욱 깊숙히 박혀버렸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일단의 라이더들이 일렬횡대로 나타났다. 구세주가 따로 없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그는 갖고 있던 현금 600 달러를 미국인 리더에 건넸다. 목숨값이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다. 그 미국인이 정중하게 사양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물질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며... 당시 너무 흥분해서 전화번호 묻는 것을 깜박했다며 지금도 후회된다고 했다.

그의 서재에는 각종 수석 뿐 아니라 서예 작품도 벽면에 빼곡하게 장식돼 있다. 그가 소유한 벼루 가운데는 1천달러를 호가하는 것도 있다.

충청남도 남포가 원산지인 오석(까마귀 돌) 벼루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문방사우’(文房四友, 종이·붓·먹·벼루) 중 하나다.

그가 가장 아끼는 글귀는 ‘항심’(恒心)이다. 늘 변치않는 선한 마음을 일컫는다. 노 선배는 동문들에게 ‘항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김영(수의대 63) 총동창회장·합창단 이사장 “동창회에 들어와 내 인생 더욱 풍성해졌어요”

‘땅끝마을’ 전남 해남이 고향, 졸업 후 수의장교 고시 합격했으나 미국에 이민 “원하는 삶 살아”

김영(수의대 63) 회장에 대한 동문들의 평은 ‘평화’에 방점이 찍힌다. “그 분을 만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느릿한 말투, 항상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의 얼굴에선 아기 동자의 얼굴이 오버랩된다”는 것이다.

김 동문은 2005년 제 30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그가 취임하면서 관악패의 첫 연극 공연이 이뤄졌으며 합창단 창단의 기초를 닦았다.

회장직을 마친 이듬해 합창단 이사장을 맡아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끝내 지금의 자랑스런 합창단의 초석을 놓았다.

고향은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이 위치한 전남 해남이다. 졸업 후에는 수의장교로 임관했다. 그것도 육군이 아닌 공군으로? 사연이 무척 흥미를 끈다.

“내가 수의장교로 갔을 때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침투한 그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시설물에 경비가 강화됐어요. 주요 시설에는 군견을 배치했는데 바로 그 군견을 위해 수의장교가 필요했던 거죠. 나는 수원 공군기지에 배치돼 그곳의 경비 군견 수의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제대 후 개업을 했지만 요즘처럼 애완견을 키우던 시절이 아니어서 돈벌이가 안됐다. 그래서 젓소 쪽으로 전공을 바꿔 광주에서 오픈했다.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고시를 볼 생각이 있어서 수의사를 그만

두고 공부에 전념했다. 당시 몇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이 있었지만 1년반 공부해서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의과 나왔다고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식품위생과 사무관으로 일하게 됐는데 낯발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독과점 기업 가격 산정을 담당했는데 기업들 로비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내가 탄 마음 먹었다면 아마 감옥에 가서 폐인이 됐거나 큰 부자가 됐거나 했겠죠. 하하하.”

그가 이민을 오게된 계기는 1976년 미국의 FDA(식품의약청)를 견학하고 나서다. 수의사가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 미국행을 결심한 것. 마침 아내가 간호사여서 이민비자가 쉽게 나왔다.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는 1979년 미국에 왔다.

수의과 병원에서 5년 정도 일하다가 87년쯤 샌퍼낸도 벨리의 카노가 파크에서 ‘Roswinn Pet Hospital’을 개업했다.

“나는 정말 내 직업에 대해 만족합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의료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도전적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무언가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가 동창회에 참여한 것은 미국에 온 직후인 1980년 초반. 수의대 총무를 맡아서 처음으로 총동창회



제 30대 남가주 총동창회 김영 회장 부부.



지난 2015년 7월 25일 열린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 회장.



왼쪽부터 김영도(공대 67), 김경무(공대 69), 조수영(공대 61), 김영 회장.

에 나갔는데 40~50명 모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 다음엔 발걸음을 끊었다가 90년대 초반 수의대 회장을 하면서 다시 총동창회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엔 이런 데 왜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지금과 곰곰히 생각하니 내가 동창회에서 얻는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 인품있는 분들, 재능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에서 어디 친구 만들기가 쉽나요? 그런데 우리는 동창이라는 울타리로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특히 재능있는 후배들이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났다고 하면 아버지가 흐뭇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꼭 그런 기분을 느끼니까. 동창회가 내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해요.”

김 동문의 취미생활은 틈만나면 등산이나 낚시 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냐’는 말도 듣는다고 했다.

버는 걸 저축하기 보다는 그냥 쓰는 타입이라서 그런 말을 듣는단다.

골프는 배울 생각조차 못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딱 차는데 골프 배울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지난 2006년 서울대 개교 60주년을 맞아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합창공연을 가졌다.

김 동문은 슬하에 아들 셋을 뒀다. 큰 아들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검사로, 둘째는 예일과 UC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UCSF 의대 교수로, 막내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돈을 많이 들이며 아이들을 사립 학교에서 공부시켰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부러 공립학교를 보냈다”고 했다.

이유인 즉, 그래야 사람을 더 알게 되고, 세상을 더 폭넓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

그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의외로 심플했다.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를 좇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해 주고 싶네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순 없습니다” ‘아크로 인문산책’ 김홍묵(문리대 60) 박사

김동근 산악대장의 해박한 한시 강의를 계기
문학과 함께 인생의 재미 찾기, 커뮤니티 오픈

“영미문학, 한시, 한국문화 강좌가 이보다 재미있을 순 없습니다.”

‘아크로 인문산책’은 딱딱한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작품중심의 친절한 해설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교양강좌다.

인문산책은 역사가 10년(2024년 현재)이나 된다. 줌을 통한 온라인강좌는 대체로 수명이 5~6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처럼 장수를 누리고 있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 기획자의 끈질긴 집념과 열정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김홍묵(문리대 60)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전공은 원래 물리학이다.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가 어떻게 인문학에 심취하게 됐을까.

“서울대 산악반에 가입해 등산을 하면서 인문학에 푹 빠졌어요.” 산악대 대장은 김동근(공대 60) 동문. 한시, 특히 당나라 시인들의 작품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휴식시간에는 김 대장의 ‘적벽부’를 비롯한 한시 강의를 대원들의 지적욕구를 채워줬다.

“하이킹 동호회 동문들과 산에 가서 한시 읊고 한문 이야기 하다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너무 가까워 시작한 것이 바로 아크로 인문산책입니다.”

알고 보면 아크로 인문산책의 출발점은 산 정상이었던 것. 아크로(Akros)는 그리스어로 ‘높다’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종교

문화 철학의 중심지였다.

김동근 동문을 비롯해 산악반 고정 멤버였던 김지영(사대 69) 변호사가 영문학 강의를 맡겠다고며 선뜻 강사를 자원했다. 신라 향가부터 해방 이후의 문학 연극에 전공인 못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김학천(치대 69) 동문 역시 무보수 강사를 자원했다. 해양 생물학을 전공한 이원익(문리대 73) 동문도 종교·역사·언어와 관련한 학문적 깊이가 남달랐다. JPL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한 박영호(공대 65) 동문은 화성탐사에 대한 강의로 인기가 높았다.

오인환(문리대 61) 동문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를 컴퓨터를 응용, 시간을 역으로 돌려보며 분석해 흥미를 끌었다.

이외에도 김자성(의대 79) 동문의 Re-incarnation 및 임사체 시험, 배성욱(문리대, 작고) 동문의 불문학 강좌,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국악의 진수, 장소현(미대 65) 동문의 일제 강점기 한국 미술

가들 등 다양한 강좌가 열렸다.

최근 2년 동안은 안경나 시인이 한국의 시와 문인들을 소개하는 강좌를 맡아 진행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24년 마지막 강좌는 지난 12월 20일 한반도 영세 중립국 통일론을 주장한 강종일 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아크로는 이날 461회 강좌를 끝으로 겨울방학을 맞았다.

아크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줌으로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한인타운내 월서 불러바드와 버몬트 에비뉴



아크로를 10년째 이끌고 있는 김홍묵(문리대 60) 박사.



지난 2016년 7월 26일 아크로 창립 2주년을 맞아 강의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한 강사들. 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설희(공대), 장철호(치대), 이원익(문리대), 김동근(공대), 김지영(사대), 김홍묵(문리대), 김학천(치대).

코너의 거주대학교 강당을 빌려 대면 모임으로 진행됐다. 건물주 부부가 마침 서울대 동문이어서 강당을 거의 무상으로 빌려줬다.

매주 열린 강의는 40여명 가량이 참석해 한인타운내 규모가 가장 큰 강좌로 인기를 모았다.

김지영 동문은 샌타모니카의 셰익스피어 극단 공연을 단체로 관람, 현지에서 해설을 해 유명세를 탔다. 김 동문은 특히 불교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개해 회원들의 문학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엔 수강생들이 서울대 동문들이었으나 점차 아크로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비서울대 수강생들도 늘어났다.

김홍묵 박사는 지금도 ‘황진이’라는 여성을 잊지 못한다. 아크로에 매료된 그는 수강생들의 저녁을 책임졌다. 김밥 등 식사를 준비해와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 1년넘게 아크로의 저녁 당번을 자청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회원들을 칼라바사스의 자택으로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아크로는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채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나중엔 한의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원영(정치학 81, 전 중앙일보 편

집국장) 동문이 자연치유 요법을 강의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아크로를 10년째 이끌고 있는 김홍묵 동문은 “강사들이 해박한 식견에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녹인 강의

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인문학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에 필요한 교양과 지혜를 갖추고, 삶의 주도성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동문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샌타모니카 야외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아크로 인문산책 회원들.

아크로는 재정이 부족해 김 동문이 사비를 털어 운영하고 있다. 아크로는 그러나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회비나 기부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

현혜명(미대 61)이 걸어온 삶의 여정 주류화단에서도 인정... 개인전만 40회 넘어

“남녀노소 불구, 도무지 싫어하는 사람 없어”
신비와 경이, 기쁨과 놀라움이 담긴 작품 내놔

다음은 지난 2024년 9월 14일 샹토 갤러리에서 개막한 현혜명(미대 61) 동문의 회고전에 즈음해 한국일보 정숙희 논설위원이 신문에 게재한 칼럼이다. 회고전엔 ‘체리 블러섬’ ‘여명’ 등 작가의 초기부터 신작까지 50여 점이 걸려 남가주 문화계에 풍성한 ‘가을’을 선사했다. - 편집자.

처음 문화부 기자를 맡았던 1980년대 후반, 남가주 한인미술계는 열악했지만 따뜻하고 순수한 무공해 서클이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돕고 밀어주던 작은 예술 공동체, 살기 팍팍하던 이민초기였기에 전업화가는 드물었고,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거나 그림공장, 페인트, 만화영화사에서 일하며 자기 그림은 짬짬이 그려야했던 시절이다.

그때 만나고 취재했던 분들, 화단의 1세대 올드타이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안영일 한우식 황하진 박영국 님은 타계하셨고, 김봉태 이익태 심재현 송재광 작가는 한국으로 작업무대를 옮겼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운을 지킨 원로들- 강태호 김소문 유제화 김휘부 선생은 이제 모두 팔순 무렵이지만 아직도 붓을 놓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현혜명은 조금 다른 여정을 걸어왔다. 그는 앞서 언급한 동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엘리트 수업을 받았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자마자 어렵기로 유명한 문교부 유학시험을 통과해 1966년 미국으로 건너왔고,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츠를 졸업한 후 커네티컷의 하트포드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미국에 와있던 작가들은 김환기, 백남준, 김병기, 안영일 등 손에 꼽을 정도였고 여성은 그보다 훨씬 적었으니, 현혜명은 한국서 일찍이 해외로 나온 선구적인 작가의 한사람이었다.

“1960년대 유학 와서 무서운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는 그는 대학 졸업 때 받은 작품 상금으로 혼자 배낭 메고 두 달 동안 유럽을 쏘다녔을 만큼 겁 없고 도전적이었다고 회상한다. 80넘은 나이에도 ‘소녀 같다’는 말을 듣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다.

하지만 결혼 후 1973년 LA에 정착했을 때 그의 시작은 조용하고 미미했다. 당시 한인화단에서 현혜명은 수채화 화가라고들 했다. 다들 오일 추상화를 그리던 시기였으니 주류에서 빗겨나 있었고, 시몬슨 화랑(구 삼일당) 중심으로 모이던 화가들 회동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그때 그가 화가이기에 앞서 두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 “그림이 너무나 그리고 싶은데 애들이 어려서 수채화밖에 그릴 수 없었다”는 사정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같은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제화 박혜숙 조현숙 같은 이들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화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행히 또 당연히, 그 시기는 지나갔고 현혜명은 자신의 길 위에 우뚝 올라섰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쉬지 않고 그림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오래도록 전성기를 누리는 작가가 되었다. 한인화단 뿐 아니라 주류화단에서도, 남가주 만이 아니라 뉴

욕과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동안 쉴 새 없이 열려온 개인전이 무려 40회가 훌쩍 넘는다.

현혜명처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작가는 흔치않

다. 작가로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그림이 한결같이 따뜻하고 맑고 섬세하기 때문이다. 하나도 안 어려워하면서도 세련된 그의 작품은 도무지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어린아이의 마음, 테스칸소 가든을 오가며 체화시킨 풍경이 계절 따라 자연의 색채로 되살아난다. 화폭을 가득 채운 꽃과 나무와 새와 말, 선과 점과 원은 보는 이의 마음에 평화롭게 닻을 내린다.

그 현혜명 화백이 세 번째 회고전을 연다는 소식에 미술계가 기뻐하고 있다. 그는 2017년 LA ‘아트코어’와 2021년 뉴욕의 ‘월 아트 스페이스’에서 회고전을 가졌으니, 9월 14일(2024년)부터 ‘샹토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축복의 여정’(Blessed Journey) 회고전은 세 번째가 된다. 남들 한번 하기도 힘든 회고전을 다시 또 열게 된 이유는 ‘나누고 싶다’는 작가의 소원이 화단과 콜렉터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이나 명성 같은 것은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평생의 삶과 예술을 나누는 일만 남았죠. 이 많은 그림들, 모두 자식같이 귀한 작품들이지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애 세번째 회고전을 연 현혜명 작가. 수익금은 비영리단체에 기부, 나눔을 실천했다.

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쓰다가 버려질 수도 있겠죠. 자식 입양 보내듯 잘 맞는 가정,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걸리면 그보다 감사한 일

이 없겠습니다.”

회고전 수익금의 일부는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단체들에 기부된다. 불우한 싱글 맘들을 재활시키는 ‘여성회복공동체’(Accompany Worldwide, 대표 이경미), 세계 곳곳에서 여성회복사역을 펼치는 ‘가정의 희망’(Hope For Families, 대표 고경호), 니카라과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엘트란시토 아트센터’(ETCA, 대표 줄리 심)가 수혜단체들이다. 모두 여성이 여성을 돕는 선교단체라는 점에서 이민 1세대 여성작가가 베푸는 회고전은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진정한 ‘나눔’이요 ‘축복의 여정’이다.

60년 가까이 변천해온 현혜명의 작품을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50여점이나 볼 수 있다. 유명한 시리즈들인 ‘체리 블러섬’ ‘하도’ ‘여정’ ‘숲’ ‘내 마음속의 정원’ ‘조상들의 정원’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관되게 노래해온 맑고 투명한 작품들이 모두 걸린다. 매일의 일상을 통과하며 그가 걸어온 신비와 경이, 기쁨과 놀라움이 담긴 그림들이다. 그리고 현혜명이 걸어온 여정은 우리 각 사람이 통과해온 시간과 공간, 그 여정과도 닿아있다.

글: 정숙희(한국일보 논설위원)

한인 MBA 1호 오문성(법대 56) 교수 반세기를 코넬-인디애나-캘스테이트에서 보내

장수비결은 유머 감각... 'fly 사건'은 오래 회자돼
커뮤니케이션 중요, 부부싸움에도 채널 열어놔야

“1962년 미국에 유학 와 2010년 교수로 은퇴했으니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 셈이네요.” 오문성(법대 56) 동문은 한인으로는 드물게 거의 반세기를 캠퍼스에서 살았다. 한 눈 한번 판 적도 없다. 코넬-유펜-인디애나 주립대-노팅엄 트렌트(영국)-캘스테이트 주립대(LA).

그가 교수로서 장수한 비결은 뭘까. 소수계인데다가 영어도 액센트가 있었을텐데. 오 동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만의 비결을 털어놨다.

“유머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사회에서 버텨내려면요.”

그러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줬다. “어느날 강의 중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쪽지 하나를 슬쩍 건네주는 거예요. ‘Professor, your fly is open’이라고 쓰여있지 뭐니까. 그래서 내가 열린 답장을 써줬어요. ‘Would you please close it?’이라고요. 그 순간 여학생은 싱긋 웃으며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당황해 어쩔 줄 몰라했으면 뒷말이 많았겠지요.”

‘fly에는 바지 앞부분의 덮개, 곧 지퍼라는 뜻도 있다. 그 여학생은 “교수님, 남대문이 열렸어요”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건넨 것이다. 열린 뒤로 돌아서 바지 지퍼를 올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네가 (지퍼를) 닫



지난 40여 년을 대학에서만 보낸 오문성 동문.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자문도 해줬다.

아 주겠니” 되물었다. 학생들 사이에 ‘fly 사건’은 꽤나 오래 회자됐다. “오 교수님, 알고 보니 유머감각도 ‘짱’이네”라고.

오 동문은 일찌감치 유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듣거나 책에서 읽은 조크는 꼭 파일을 만들어 저장했다. 가끔 하나씩 꺼내 들려주면 강의실에선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난다.

“미국 대학에선 학생들도 교수를 평가하잖아요? 내가 늘 1등이에요. 연봉도 올라가고, 가끔 총장한테 상도 받고. 하하.”

오 동문은 1962년 9월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타고 미국에 왔다. 김포공항엔 일가친척 5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 배웅을 나왔다. 당시 미국유학은 가문의 경사나 다름없었다.

문교부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코넬대로 배정됐다. 정부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미국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전공에 맞는 대학을 정해줬다. 김 동문은 경영학 전공 예정자여서 코넬이 당첨된 것.

“코넬이 유명학교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지요. 아이비리그 대학인줄도 모르고...”

코넬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고는 귀국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말렸다고 한다. “이왕이면 박사를

따고 오라고요.” 그래서 코넬대 교수 추천으로 와튼스쿨(유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마 제가 한국인으로는 제1호 MBA였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비교적 생소한 학문이었으니까요.”

그가 대학에 남게 된 것은 유의영(문리대 56) 교수 부부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유 교수와는 서울대 동기, 부인끼리도 고등학교(경기여고) 동기여서 친하게 지냈다.

“유 동문 부인이 당시 필라델피아의 이스트 뱍티스트 칼리지에 있었어요. 경영학 파트타임 교수를 구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운 좋게 받아들여요. 이후 평생을 학교에 남게 됐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 재임중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영국의 노팅엄 트렌트대에서 1년간 가르쳤다. 캘스테이트(LA)에는 유의영 교수가 먼저 와 자리잡고 있었다.

“남가주는 날씨도 좋고 한인들도 많으니 LA로 오라고 해서 이곳에 마지막 등지를 틀었지요. 1980년 부임해 2010년 은퇴했으니 꼭 30년 일했네요.”

LA에서는 한인상공회의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한인업체들에 경영지도를 해줬다. 고객확보, 제품, 가격, 판촉, 유통과 관련해 수시로 세미나를 열고 경영 자문을 했다. 대학부설 세계무역교육연구소



지난 1991년 대만에서 열린 국제경영학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오문성 교수.

소장을 역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온 연수단을 위해 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진 경영기법을 전수했다.

경영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유머 한 토막으로 말을 맺었다.

“부부싸움하면 며칠 얘기 안하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 아내에게 ‘내일 아침 5시 30분에 꼭 깨워줘요’ 쪽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일어나보니 7시가 넘었어요. 화가 났는데 침대 옆에 아내가 보낸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보니 헐, ‘여보 5시 30분이야. 일어나.’ 아무리 화가 나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늘 열어놔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신정자 사대 63

신경자 사대 60



한 귀 희

제44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미대 68

S - VILLAGE

1015 N.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29



S - GALLERY

5151 ROMAINE ST., LOS ANGELES, CA 90029 - S-Gallery@4swansea.org

50TH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협회

제8장

관악논단

남북대립과 중국의 역할 - 이채진

테슬라 투자할 가치 있는가 - 한홍택

한류의 파워 - 김미란

지진 조기경보 가능한가 - 박선영

지구 온난화 현상 - 김대현

미국 수의학 교육 인증 - 편집부

미국의 Nurse Practitioner - 양수진

한인경제의 50년 - 최운화

중국몽은 치킨 게임인가 - 주준희

인류의 기원 - 이상희

SI의 추론능력 - 송명국



남북 대립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한반도의 전면전에 중국은 개입할 것인가



이재진

정치학 55
클레어몬트 맥키나대 석좌교수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는 최근 수년동안 천양지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상주의적인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을 표방하고 북한과는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한해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차례 만나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대립의 완화를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평화적 공존과 상부상조를 약속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군중 앞에서 연설도 했으며 김정은의 안내로 백두산 천지를 구경하였다. 문화, 경제,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로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2022년 5월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문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을 북한의 교활한 술수에 사기당한 환상에 불과했다고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거에 서명한 남북 공동성명과 군사합의 협정의 실효성을 불신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서 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언하였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동토의 왕국'과 우호적인 대화를 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같은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적대적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악취나는 오물 풍선을 서울까지 날려 보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국경을 영구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군사경계선 지역에서 대북 선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합동 방위 연습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혹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워싱턴선언에 서명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상의하기 위한 협의기구(NCG)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김정은과 푸틴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상호 방위조약에 서명하였고 만일 북한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러시아는 유엔헌장 51조와 자국 헌법에 따라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였다(제4조).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적 전략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러조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옹호할 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

는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탄하였다.

북한의 노동인력과 소수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을 여러번 방문한 바 있는 Robert Carlin 전 미국국무부 북한분석관과 Sigfried Hecker 스탠퍼드 대학교 핵물리학 교수는 북한은 남침할 준비를 2023년에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규모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나는 판단하지만 오산이나 우발적으로 소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북의 대립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중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세력 균형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건국 이래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 6.25 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 주한미군과 한국 군대의 움직임을 막아줄 수 있는 완충지대, 불가분의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교역국,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세차레나 만나 긴밀히 협의하였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지난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을 위해 싱가포르로 갈 때 중국 비행기를 제공해 주었다. 2019년 1월 시진핑은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하여 그의 35

세 생일을 축하하는 파격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그해 6월 시진핑은 평양을 방문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양국의 대를 이은 협력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조중우호탑'에 헌화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한반도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했을 것이다.

중국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십여년만에 처음있는 중요한 행사였다. 코로나로 봉쇄되었던 북중 국경이 점차 열리게 되면 변경무역도 재개되고 위축되어 있는 북한의 장마당도 활기를 찾을 것이다. 김정은은 푸틴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상호 방위 조약을 서명한 다음 러시아는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

이라고 발언하는 등 시진핑의 심기를 자극했을 수도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분야에서 너무 밀착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중국은 1992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에서 균형외교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1997년 황장엽 비서가 주중국 한국영사관에 나타나 서울로의 망명을 신청했을 때 중국은 평양으로 돌려달라는 북한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하고 필리핀으로 '축출'하여 한달이 지나 서울에 갈 수 있도록

평화유지는 전쟁보다 더 어려워 남·북·미·중 4자회담 모색해야

록 한국과 합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기념일 열병식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반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여 시진핑과의 특수한 우정을 과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는 축복된 위치에 있다고 자랑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한 평론가는 중국의 북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여 북한을 완충지대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중국은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술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목적은 변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AD) 배치

를 허용하자 격노하여 경제와 예술 분야 등에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은 중화사상과 대국주의 경향을 보일 때도 있다.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를 만나 한반도는 과거 중국영토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날로 성장하는 한국의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은 점차적으로 제재정책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양국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만일 남북대립이 악화되어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중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주은래 총리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서명한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제2조를 알고 있

북·중 우호조약 제2조는 '공동화'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 대화해야

다. 만일 북한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약속했다. 이 조항은 북러조약 제4조와 유사하지만 철차상의 조건은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중국학자들에게 "제2조는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질문하면 대다수는 이미 "공동화되었다"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대답하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조약이 폐기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한반도에 전면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제2조를 발동하여 6.25 전쟁 당시와 같이 수십만의 군대를 참전시키기 보다는 당사국들이 신속한 휴전을 수락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동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파괴력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군사동맹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면전쟁을 기피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면 중국은 남북의 대립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본을 추가한 6자회담을 재개하여 포괄적인 합의를 유도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실행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냉전'이 완화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이 성사되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

남북의 대립에 관한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남북의 대립은 남북정부 스스로가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방식으로 제3국의 도움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한국정부가 남북의 대립에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은 한국의 국가 이익(안보, 외교, 경제, 문화)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2강국으로 부상하였고 한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참고하여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을 책임있는 국가가 되도록 지원하며 남북의 대립이 완화 되도록 노력하는 선의의 조력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 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한국정부도 남북의 갈등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평화 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양분된 국내정치를 잘 대처하고 대외정책에 관한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다.

미국대선 후보였던 Adlai Stevenson은 판문점을 시찰한 다음 "평화를 유지하기는 전쟁을 시작하기 보다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에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뿐만 아니고 중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

**아주투어가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www.usajutour.com
www.usajutour.com
www.usajutour.com

당신의 미서부!
장거리 여행, 편안한 놀방여행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아주는 최신형 대형 리무진 운용
넓은 좌석 간격으로 프라이빗하게! | 의자 높이를 10cm 줄여 특별 주문제작
와이파이로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 뒷사람 신경 쓸 필요없는 편안한 놀방좌석
발이 닿아서 덜 피곤하다 | 다양한 디바이스 충전 가능

10cm 차이
편안할 좌이
100% 편안하게
타는 100% 편안하게
타는 100% 편안하게
타는 100% 편안하게

행복은 여행으로, 여행은 아주로!!!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에
1등 US아주투어 213-388-4000
서울지사 T 02-522-8886 E secul@usajutour.com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제니 리 부동산전문인
에너하임, 플러튼, 얼바인 **오픈지카운티 전문**

성실하고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집 장만, 투자용 알찬 매물
풍부한 경험의 Jennie Lee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주십시오

- 새집분양
- 주택매매/렌트
- 사업체
- 상가

리스팅 대항영!
렌트, 용지, 항공 상담

제니 리 Jennie Lee
DRE#00975064
www.teamsportrealty.com

이종묘 문의전화 **714.396.0624**
간호대 69 jennielee@gmail.com

머스크의 기술혁신 뛰어나 자율주행 등 선도 반도체 희토류 사용 줄여 경쟁력 대폭 강화

테슬라 투자는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것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통해서다. 하지만 머스크가 처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다. 2003년 창업 이후 2017년까지 테슬라는 무려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생존 가능성마저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테슬라 모델 3의 안정적인 생산에 성공하며 흑자로 전환했고, 현재는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한때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다음은 UCLA 석좌교수인 한홍택 박사가 2024년 3월 9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기 포럼에서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우선 전기차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현재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결과이다. 따라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면 돌이키기 힘든 온난화를 너무 늦기 전에 완화할 수 있다.

인류는 연간 약 165 페타와트(PW)의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중 3분의 1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낭비되고 있다(1 페타와트는 1천 조 와트). 더구나 그 중의 80%인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3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배



한홍택(공대 60)·백훈(미대 61) 부부. 서울대에 100만 달러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터리를 사용한 240TWh의 에너지 저장 능력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의한 30TW의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10년간 10조 달러의 생산 투자로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1TWh의 에너지 저장, 2TW의 재생 에너지 생산, 그리고 0.8조 달러의 생산 투자가 있을 뿐이다. 이 중

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화석연료 사용을 총 21%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 산업에 약 7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확산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기차 비중은 일본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



테슬라 로고.



캘리포니아 쇼핑몰 등 곳곳에 설치된 테슬라 수퍼충전기.

이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약 1천2백만 대에 이른다. 2030년에는 전기차 점유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필요성은 환경 보호에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이 더 중요한 요소다.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영비용과 제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테슬라의 경쟁력을 살펴보자. 타 전기차 메이커에 비해 기술적 혁신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디자인, 모터, 배터리, 전기 설계, 소프트웨어(자율주행 등), 충전 인프라, 공급망 관리, 제조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관행대로 실행하지 않고 근본원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자동차 디자인은 모델 S로 시작되었다. 디자인 후 엔지니어링을 진행했고, 이후 모델 3부터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조 과정을 동시에 수행했다. 앞으로는 이 모든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제조 단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의 조립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비박스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부품을 통합하여 조립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 밀도를 44% 증가

시키고, 공간과 시간을 30%가량 절약하며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는 초기 모델 S가 포르쉐보다 빠르면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했고, 모델 Y는 4마일/킬로와트라는 우수한 효율을 보인다. 테슬라는 모터에 필요한 희토류 사용을 줄이고 공장 면적을 축소하면서 생산 비용을 2017년 대비 65% 절감했다.

최근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테슬라는 비용 절감과 이익 확보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부분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홀리스틱 사고' 접근 방식을 통해 가능해졌다.

다음 모델에서는 전자 아키텍처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컨트롤러 수를 모델 Y의 61% 수준으로 줄이고, 차세대 모델에서는 이를 100%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사용을 75% 줄이고 배터리 소재는 구하기 쉬운 자재로 대체하며, 생산 공정을 50% 단축할 계획이다. 희토류 사용도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사이버트릭의 경우 자체 디자인한 컨트롤러를 8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이 병 준

제19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 상대 55

2100 Main Stree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지난 2012년 모델 S의 첫 출고 장면. <사진=위키피디아>

사용하고, 12볼트에서 48볼트 시스템으로 전환해 전력 소비를 줄였다. 이로 인해 전선의 무게는 4분의 1로 감소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리콜 대신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자율 주행 부문에서도 테슬라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차량 대수가 많아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의 훈련과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AI 모델과 컴퓨팅 파워가 필수인데, 테슬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자율 주행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허가도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초기부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었다. 테슬라의 충전 스테이션은 높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국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슈퍼차저의 경우, 호주에서는 35%, 캘리포니아에서는 50%, 뉴욕에서는 75% 저렴하게 설치되었으며, 가정용 충전기는 북미에서 20%, 유럽에서 50% 저렴하게 보급되었다. 미리 생산된 모듈을 사용해 설

치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 시간과 비용도 계속 낮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상장 이후 무려 145배 상승했다. 현재 주가가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로 평가받는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로보트' 행사에서 테슬라는 그동안 인공지능/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발전된 기술이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나와 테슬라의 수익을 올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는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주식이 상승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홍택 박사는

서울대 공대(기계공학 60)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공학 박사

미 공군 재료연구소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 교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석좌교수

미 공군 과학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KIST) 원장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회장

미국 복합재료학회 회장

국제 복합재료위원회 위원장

복합재료 학술지 편집장

UCLA Raytheon 석좌교수

UCLA 명예교수

로제의 '아파트' 세계음악차트 최상위권에 진입 K-컬처에 중독된 미국, '오겜' 시즌 2&3 기대치 90%



김미란 교수
농생대 88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영화로는 '오징어 게임'(77%, 복수 응답)이 꼽혔다.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 중 90%이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보겠다고 응답했다.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도 시상식에서 시즌 2 제작을 시사한 바 있다. '오징어 게임'의 연령대별 시청자는 18세(74%), 19~30세(75%), 31~40세(63%), 41~50세(48%), 50세 이상(27%)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로제의 '아파트' 뮤직 비디오 섬네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영화로는 '오징어 게임'에 이어 '기생충'(34%), '부산행'(30%), '지금 우리 학교는'(29%)이 꼽혔다.

이외에도 '킹덤'(18%), '꽃보다 남자'(16%), '사랑의 불시착'(12%), '파친코'(10%), '고요의 바다'(10%),

'고요한 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 한국이 요즘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K팝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바야흐로 'K 컬처'가 세계 무대에서도 '메인 스트림'으로 인정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블랙핑크(Black Pink)의 로제가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앞서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의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K팝의 성공과 인기 요인은 뇌리에 각인되는 노래와 포인트 안무, 현란한 뮤직 비디오가 소셜 미디어에 최적화되고 팬덤의 열성적인 활동 문화 등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미시건 주립대 김미란(농생대 88) 교수가 지난 2022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함께 미국내 K 컬처의 현주소를 조사했다. 김동문은 미국의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켈트릭스'로부터 제공받은 성인 3,218명의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K컬처의 위상과 트렌드를 분석했다. - 편집자.

'기생충' '부산행' '지금 우리학교는' '킹덤' 순으로 선호 10명 중 5명은 BTS 음악 즐겨, 최애 배우는 이정재

'곤지암'(10%)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최애' 한국 배우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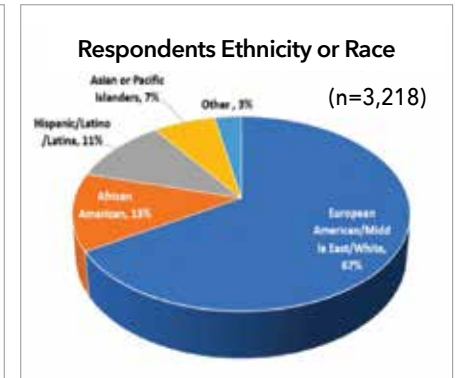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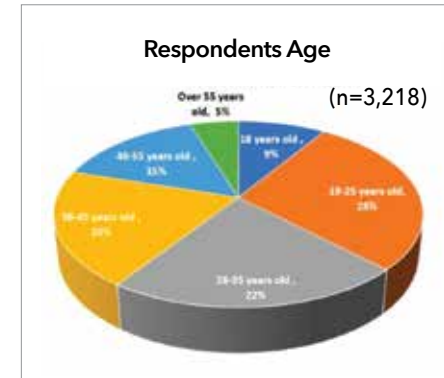
조사결과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52%, 복수 응답)가 선택됐고 이어 정호연(45%), 송강호(25%), 공유(24%), 이병현(21%), 마동석(15%), 현빈(14%), 윤여정(14%), 손예진(14%), 전지현(13%), 주지훈(11%), 비(11%), 배우나(10%) 순이었다.

K컬처 중에는 K팝(36%, 복수 응답)을 가장 즐기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34%), 한국음식(34%)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선호하는 K팝 가수는 BTS(70%, 복수 응답)가 압도적이었으며 블랙핑크(33%), 싸이(21%)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트와이스(15%), 엑소(13%), 지드래곤(13%), 세븐틴(12%), 몬스타엑스(12%), 슈퍼주니어(9%), 아이유(7%) 등이 좋아하는 K팝 가수로 이름을 올렸다.

BTS와 관련해 '완전히' 좋아한다는 응답자는 10%나 됐다. 이른바 '아미' 수준의 광팬들이다. 이어 매우 23%, 적당히 37%, 약간 23% 등으로 호감을 나타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K푸드는 라면(71%)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59%), 바베큐/불고기(57%), 비빔밥(37%), 잡채(31%), 떡볶이(23%), 전(19%), 짜장면(16%) 순이었다.



미국인들은 유튜브(62%)를 통해 K컬처에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넷플릭스(50%), 틱톡(37%), 인스타그램(20%), 친구(20%), 페이스북(18%), 한국인 친구(15%), 스포티파이(13%), 트위터(12%) 순이었다.

K컬처 노출 빈도도 눈길을 끌었다. 거의 매일(8%), 일주일에 두 세번(14%), 일주일에 한번(19%), 2주에 한번(17%), 한달에 한번(13%), 2개월에 한번(10%), 3개월에 한번(20%) 등이었다.

K컬처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관심을 끈 항목은 K컬처가 한국의 호감도에 미친 영향이다. 응답자의 약 70%는 K컬처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K컬처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hate crime)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했다.

K컬처의 인기가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항목에 약 70%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를 나타냈다.



세계 음악차트의 정상을 휩쓴 방탄소년단(BTS)멤버들이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유럽(53%), 이어 북아메리카(44%), 아시아(33%), 남아메리카(23%), 호주(22%)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을 고려할 때 일본(50%)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 한국(40%), 태국(31%), 중국(24%), 홍콩(21%), 싱가포르(20%), 인도(14%), 대만(14%), 인도네시아(11%) 등이었다.

중국이 여행 선호지에서 후순위로 뒤쳐진 것은 통상·안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며 현대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자 진정성 있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호감이 가고, 감탄스러우며, 평판이 좋은 국가라는 설명에 동의했다.

향후 한국 방문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약 60%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적지와 고궁이 가장 흥미로운 방문장소였으며 전통문화 공간, 국립공원, 한국 자연관광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학습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약 40%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약 55%가 한국사 학습 의향에 대해 '적극 동의' 또는 '동의'를 했다.

김미란 교수는 이번 조사의 목표가 ▲오징어 게임의 트렌드와 BTS의 인기를 이해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K컬처의 인기와 트렌드 파악 ▲K컬처가 한국의 이미지 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켈트릭스 패널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한 3,218명의 응답자들은 미국

전역에 거주하며 연령·성별·소득 및 교육 수준 면에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성이 56%, 남성 44%, 연령대는 19~25세(28%), 26~35세(22%), 36~45세(20%), 46~55세(15%) 등 비교적 젊은 세대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인종별로는 백인(6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프리카계(13%), 라틴계(11%), 아시아계(7%)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구구성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구당 연소득은 10만 달러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다.

K푸드는 라면, 프라이드 치킨, 바베큐 순 K문화가 한국, 아시아계 호감도 높여줘

김미란 교수 미니 인터뷰

“한류가 이 정도인줄 몰랐어요” 화장품·게임·웹툰으로 확대 예상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60%가 오징어 게임(오겜)을 시청했다는 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대략 25~30%를 예상했었거든요.”

조사를 진행한 김미란(농생대 85) 미시건 주립대 교수는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류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더구나 90%가 ‘오겜’ 2탄을 기대한다고 답해 미국내 K-컬처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BTS와 관련해서도 예상밖 결과가 나왔으며 놀라워했다. BTS의 히트곡을 들었다는 미국인들이 50%나 됐는데 이는 기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K-팝 다음의 K-드라마/K-영화와 동일하게 나와 한국음식이 이미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돼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K-푸드 가운데 라면과 프라이드 치킨을 가장 선호하는 식품으로 꼽은 것도 의외였다. 당초 불고기(갈비)와 비빔밥을 기대했었는데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것.

김미란 교수는 K-컬처가 한국의 이미

지와 국격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관심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기회로 급격히 일기 시작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hate crime)가 K-컬처의 보급으로 많이 완화돼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란 교수는 앞으로 K-컬처가 K-화장품/K-게임/웹툰/웹툰으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지사장 박재석)로부터 연구 그랜트를 받아 진행됐다.

김미란 동문은 현재 미시건 주립대(the School of Hospitality Business,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수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하스피텔리티는 일종의 서비스 경영학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 클럽, 이벤트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하는 신생 학문이다.

미시건 동창회에서도 홍보국장을 맡는 등 동문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지진은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 LA는 좌우, 시애틀은 아래 위로 흔들려

다음은 지난 2021년 10월 줌으로 진행된 남가주 총동창회 포럼에서 박선영(공대 06) 동문이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에너지자원공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박 동문은 하버드대 박사, LA의 칼텍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시카고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박 동문은 LA에서 5년을 지내 지진에 관한 한 권위자로 꼽힌다. - 편집자.



박선영
공대 06

오늘 포럼에는 동부에 살고 계시는 동문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일 것 같다. 정말 그럴까.

1755년 12월 4일자 펜실베이니아 가젯 1면에 지진과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다.신문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흔들림이 있었다"며 "굴뚝이 무너지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기사만 읽어봐도 당시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문기사를 근거로 추측하면 당시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은 규모 6.0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지진이 서부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300~500년 주기로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고 가정하면 지진안전대는 사실 없다고 봐야 한다.

지진학자들은 역사적 기록을 중시한다. 몇 백년 전에 일어난 지진을 이 보다 더 정확히 기술한 것은 없

기 때문이다.

쓰나미(항구를 덮친다는 뜻)의 본고장 일본에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이른바 전조증상, 즉 흔들림이 없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고아 쓰나미'(orphan tsunami)도 1700년 일본의 문헌에서 유래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수십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쓰나미도 알고 보면 '고아 쓰나미'다.

왜 이같은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1800년대 중반 산업혁명이후 지구의 온도는 1도 가량 올라갔다.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캘리포니아와 시애틀 등 서부지역을 휩쓸다시피한 2020년 산불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 탓이다. 미 전역은 물론 유럽에서까지 연기가 관측됐더니 그 규모를 짐작할만 하겠다.

그래서 요즘 지구과학은 학문적 배경이 아주 다양하다.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 행성과학, 대기 및 해양과학 등의 여러 학문이 어우러져 연구를 한다.

지진을 연구하려면 맨 먼저 지구내부구조를 알아야 한다. 시추(drilling)를 해서 샘플을 획득, 분석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구멍을 뚫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현재 기술로는 아무리 파봤자 지표면에서 고작 7.6마일까지다. 아직 절반도 못 뚫은 것이다.

지진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엔 여러 개의 판

기후변화 탓 '지구가 뜨거워졌다' 조기경보 고작 10초 내외, 대피 불가능

(plate)이 있는데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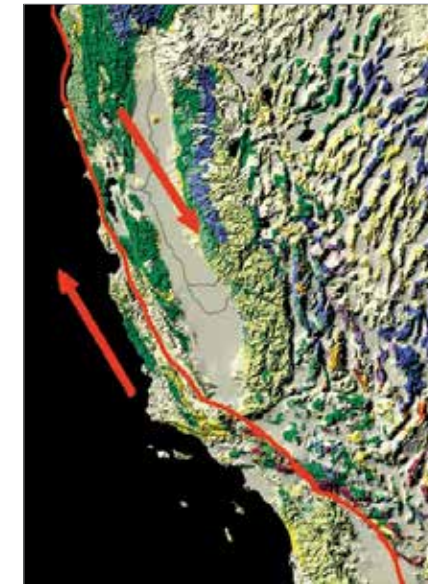
시애틀 서쪽에서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반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선 판이 어긋나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애틀 등 북서부쪽에선 과거 화산이 많이 폭발했다. 그런데 화산이 많은 곳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자연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마운트 레니어 국립공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진의 파동은 세 종류로 나뉜다. 맨먼저 P파(Pressure Wave)가 오고 곧 이어 2차파동인 S파(Shear Wave)가 밀어 닥친다. 마지막이 표면파(Surface Wave)다.

그런데 P와 S파에 이어 표면파가 덮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진원지와 예측지간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거리가 멀면 조기경보가 가능하지만 가까우면 거의 불가능하다. 조기경보가 10초 내외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

또 흔들림은 수평(좌우)과 수직(상하)의 두 종류로 나뉜다. 지난 1994년 LA의 노스리지 지진은 좌우 양쪽으로 흔들렸다. 규모 6.7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후 캘리포니아의 고층빌딩은 좌우 흔들림을 감안해 지진대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샌앤드리아스 단층(San Andreas Fault)이 관통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대체로 LA처럼 분지(soft sod site)에 살고 있는 사람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샌앤드리아스 단층.

들이 지진을 더 느끼고 피해가 크다.

반면 시애틀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아래 위, 곧 수직으로 땅이 흔들린다. 수평과 수직, 어느 쪽의 흔들림이 더 위험한지는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다. 진원지와 방향 등에 따라 파괴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엔 지진계가 설치되어 흔들림이 감지되면 즉각 기록한다. 요즘 지진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학계에서 회자되는 우스개가 있다. 몇해 전 시애틀의 프로풋볼(NFL) 구단 시혹스

의 경기에서 발을 구르는 등 홈팬들의 광적인 응원이 지진계에 잡혔다는 것이다. 얼마나 과격한 응원을 펼쳤는지 알만 하겠다.

지진계는 꼭 지진을 감지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산사태도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지진계가 이를 측정해 위험을 알려주기도 한다.

지진계는 지구 뿐 아니라 행성의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데도 긴요하게 쓰인다.

지난 2018년 발사된 '인사이트 미션' 화성탐사선에도 지진계가 장착돼 있다.

전세계에서 규모 6.0 정도의 지진은 1주일에 한 번 꼴, 규모 7 이상은 연 20개 정도 발생한다.

나는 3D 프린팅으로 지구구조를 100만분의 1로 축소해 미니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연구역량을 쏟아부을 작정이다. 내 연구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 온난화 현상으로 100년새 1도씩 올라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LA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다. 폭우와 폭염, 가뭄이 지속돼 산불이 일어나는가 하면 홍수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갈지도 모른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김대현(자연대 99) 대기과학 교수가 동창회 포럼에 연사로 나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강의를 했다. 김 동문의 강의 내용을 간추려 신는다. - 편집자.



김대현
자연대 99

최근들어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기후 위기가 아닌가 싶다. 기후위기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기후에 문제가 생겨 인류가 위협에 처했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후에 어떻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의 온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2021년까지 관측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씩’이나 올랐다.

겨우 1도에 불과한데 무슨 큰일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체온에 빗대 설

명하면 이해가 쉽겠다. 우리의 정상체온은 섭씨 약 36.5도인데 갑자기 37.5도 올라가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고장이 났다는 의미이며, 고열에 시달리는 등 인체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지구의 기온은 전 지구적으로 여러 기상 현상들의 특징을 바꿔 놓는다. 이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자연 법칙들에 비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녹



기후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 호수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위키피디아>

눈 빨리 녹아 남가주 산불 시즌 길어져 ‘재앙’ 기후난민 전세계적 현상, 3천800만 명이나

고 물은 팽창하기 마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된다. 온도가 올라 봄철에 눈이 빨리 녹으면 여름에 물부족 사태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인 눈이 여름내내 천천히 녹아야 풍부한 수자원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빨리 녹아버리면 강제로 절수를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 눈이 빨리 녹으면 산불시즌이 길어진다. 바짝 마른 나무와 풀이 여름철 산불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80년대 140건, 1990년대 160건에서 2000년대 들어서 무려 25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산불은 거의 번개를 통해 자연발화로 일어난다. 건조한 상태에서 번개가 한 번 치면 불이 나게 되어 있어 사전 차단하기도 어렵다.

지구상에 많은 얼음은 바다 위에 해빙의 형태로 존재한다. 여름철 북극의 얼음면적은 100년 전에 비해 50%나 줄어들었으며, 망망대해 위 작은 얼음 조각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깡마른 북극곰은 기후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육지에도 빙하(육빙)가 있는데 육빙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역시 상황이 심각해진다. 바다에 떠있는 빙하는 녹아도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 콜라에 넣은 얼음이 다 녹아도 컵이 넘치지 않는

원리와 같다. 그러나 육지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수면이 올라간다. 산업혁명 이후 전 지구의 해수면의 평균 높이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20cm나 상승했다.

겨우 20cm에 불과한데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고 가우뚱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70%나 된다. 해수면이 20cm 올라갔다면 무려 1경8,200조 갤런의 물이 바

다에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엄청난 양이 아닌가. 과거 25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이처럼 빨리 변화한 적은 없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폭풍해일(storm surge)의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 폭풍해일은 강한 저기압이나 허리케인이 육지 쪽으로 바닷물을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종종 해안가 도시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한다. 과거보다 높아진 해수면 고도는 폭풍해일로 모인 물이 더 높이



떨떨 끓는 지구.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쌓이도록 만들어 그 피해를 증폭시킨다. 201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폭풍해일로 인해 농경지가 바닷물에 침수돼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후재난으로 난민이 되는 것이다.

기온이 올라가며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되면서 비구름이 한번에 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년 사이 지구 대기 중 수증기 양은 1mm가 더 많아졌다. 작은 양이라고 치부할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홍 성 선

약대 72



수도 있겠으나 전 지구적으로 보면 무려 130조 켈런에 해당된다.

일례로 파키스탄은 몬순 기간 내 내 지속된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전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이 바람에 수많은 농민들이 목화 농사를 망치고 당장 이듬해 봄부터 먹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말라리아가 창궐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1mm만 더 머금어도 이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100년간의 급격한 온도 증가로 인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여러 기상 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물적 피해와 함께 인류의 웰빙을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후 난민은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21년 현재 전세계 난민은 3,80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기상재해로 인해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은 무려 2,230만명이나 된다.

수많은 기후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지구에서 관측된 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이산화탄소를 위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임이 밝혀졌다.

지구의 온도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되는 데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열 방출의 효율을 낮추면서 원래의 균형이 깨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다시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지난 1960~2020년 사이 이산화탄소는 310에서 420ppm으로 크게 늘어났다. 온도 변화처럼 19세



2007년 10월 발생한 오렌지카운티 샌티에고 캐년 산불. (사진=위키피디아)

기 후반부터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100 ppm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전기차 테슬라의 고속 충전기 20억대와 맞먹는 막대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지구에 공급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화학자 John Tyndall은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상상했다.

그의 상상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인류도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오늘 당장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향후 몇 십년간은 계속 되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시급하다.

김대현 동문은

서울대 자연대(대기과학) 학·석·박사
컬럼비아대 포스트닥
워싱턴대학 부교수(테뉴어)

수의대 졸업은 '서울대 프리미엄' 아시아 최초로 미 수의대학 교육 인증받아

2019년 이후 서울대 수의과대 입학경쟁률이 크게 뛰었다. 그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 수의사회(AVMA)로부터 수의학 교육인증(accreditation)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 수의대 출신은 미국 수의대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미국 수의사면허시험(NAVLE)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의사로 활동하려면 ECFVG나 PAVE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보통 준비부터 합격하기까지 3~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둘 다 모두 영어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ECFVG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한번에 합격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지만 임상경험을 쌓기 힘들다. 반면 PAVE는 미국내 수의과 대학 중 한 곳에서 1년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임상경험을 쌓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미국에서 1년 이상 살



지난 2019년 6월 10일 열린 미국 수의사회(AVMA) 수의학인증 축하기념식. 아시아에서 AVMA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것은 서울대가 최초다.



앤드루 매카베 미국수의과대학 협회 사무총장과 서강문 수의대 학장.

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안하면 1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 들어간다.

위의 두 과정을 통과하면 비로소 미국 수의사 국가시험에 해당하는 'NAVLE'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서울대를 졸업하면 별도 과정없이 바로 NAVLE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대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수의학 인증을 받기 위한 서울대의 노력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미국내 동문들의 역할이 컸다. 서울대 교육 커리큘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를 한 것.

미국내 동문들의 자문을 받아 AVMA 인증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서울대는 ▶생명공학연구동 설립 ▶반려동물병원 증축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 ▶수의생명자원연구동 설립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및 대동물병원 준공 등을 실행에 옮겼다. 교육목표, 발전전략, 교육

10년 노력 끝에 성사, 조정현 등 동문 역할 커 NAVLE 응시 자격, 합격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과정 편성과 운영 등도 개선했다.

미국에서는 조정현(58) 동문의 역할이 컸다. 뉴올리언스의 톨란드에서 보건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펜스테이트 의과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이후 뉴저지주의 카운티 보건국장을 지내는 등 34년이나 공직에 있었다.

은퇴 후 귀국해 보건대학원과 수의과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미국 수의학 교육인증 준비 작업에 관여했다. 조 동문은 자신의 미국내 커넥션을 활용해 수의학교육 인증 실무담당자와 면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증준비작업에 참여해 결국 서울대는 미국수의사회로부터 인증을 받게 됐다. 이같은 그의 공적이 인정돼 지난 2019년 6월 오세정 당시 총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조 동문은 현재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을 맡아 서울대 동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미국 수의학회 인증을 받은 대학은 아시아에선 서울대가 처음이다. 일본이 자랑하는 도쿄 대학도 못한 것을 서울대가 해낸 것이다.

2019년 이전까지는 서울대를 나왔더라도 사실 미국 진출을 염두도 못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 출신은 NAVLE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미국에 와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수의학회 인증을 받은 대학은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통틀어 50개에 불과하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영국과 덴마크 등 서구권 대학들이다.



조정현 동문 부부.

서울대가 50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니 대단한 성과를 낸 것이다.

미국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수의대는 전국에 33개 뿐이다. 캘리포니아에는 UC 데이비스와 웨스턴 대학 두곳이 있다.

이 두 대학에서 매년 각각 150명과 100명 정도를 뽑고 있다. 수의대 입학이 의대 들어가는 것 만큼 바늘구멍이라는 얘기가.

미국의 수의대는 4년 과정이다. 학부 4년을 마쳐야 입학자격이 주어지 수의사가 되려면 최소 8년을 공부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수의사는 한해 평균 3,000명이 은퇴를 하고 있다. 신규 수의사도 3,000명이 배출돼 숫자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갓 졸업한 수의사들은 주 3~4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

더구나 신규 수의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85%에 이른다. 출산 등의 이유로 임상을 떠나는 인력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무려 1만 5,000명의 인력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 반려동물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33%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수의사는 미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꼽힌다. 5년 후에는 '루키' 수의사라고 해도 연소득 1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테랑 수의사는 15만 달러, 시니어 임상의 경우 22만 달러가 보장된다. 앞으로 더 많은 서울대 동문들의 미국진출이 기대된다.

한국의 의료대란, 간호법 통과가 답일까 미국선 Nurse Practitioner가 1차진료 담당

양수진
간호대 80
Nurse Practitioner

다음은 필자가 지난 2024년 10월 26일 서울 대 대학병원 초청으로 '한국의 간호법 통과와 미국의 Nurse Practitioner(NP) 제도'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최근 한국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예상과 달리 여야 거의 만장일치여서 의료개혁의 물꼬를 틀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간호법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전문 간호사 또는 진료지원간호사라 불리는 Physician Assistant(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다.

PA는 사실 간호사에게 붙일 수 없는 명칭이다. 진료지원간호사나 전문간호사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한국처럼 의사영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미국서는 'Nurse Practitioner(NP)'라 부른다.

NP는 예를 들어 마취 간호사 등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APRN) 직군에 포함되는 상급 수준의 간호사를 일컫는다. 진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NP를 차용한다면 일반 간호사나 다른 전문간호사와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또 세계화시대 공통의 용어로 사용하기에 좋을 듯 하다.

일각에서는 NP의 법제화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간호학과 의학은 철학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의학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반면 간호학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이처럼 두 영역은 의료접근에 큰 차이가 있고 관심사도 다르다.

그러나 두 영역은 서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간호학과 의학의 의료행위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그동안 부족한 의사인력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제는 수련의의 부족으로 의료대란이 초래돼 간호계와의 협업이 없이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Affordable Care Act'(흔히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갑자기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

이에 미국의 권위 있는 비영리 독립기관인 Institute of Medicine(IOM)은 해결 방안으로 간호인력의 활용을 제시했다. IOM의 제안을 수용한 정부는 간호사

들에게 필요한 교육(석사 이상)을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 결과 미국의 NP는 급속히 성장해 현재 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두배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P는 월남전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크게 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양수진 동문.



족하자 보건복지부가 고급 간호인력을 1차 진료 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로 하자는 안을 공식 제의, 이를 의료계가 수용함으로써 정착된 것이다.

NP가 일반 간호사(Registered Nurse, RN)와 차별화되는 점은 의사의 감독없이 약 처방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NP의 권한과 업무는 주에 따라 다르다. 뉴욕을 비롯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 등 27개 주는 독립적으로 환자의 처방과 퇴원수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NP는 가정의학(family practice), 시니어(adult-gerontology), 신생아나 소아(neonatal pediatric), 정신질환(psychiatric-mental health), 여성건강(women's health)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NP 라이선스(가정의학 부문)를 취득한 필자는 클리닉에서 하루 평균 15~20명의 환자를 만난다.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주치의)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즉 환자화 소통하고 진료하며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주문하고, 치료계획을 세우고 약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린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NP들도 의사와 계약하에 환자들을 돌보고, 응급실에서는 주로 병원과의 계약하에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NP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NP가 없는 병원이 이상할 정도다.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NP에 대한 만족도도 기대 이상으로 높다.

NP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과 고도의 임상경험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UC 어바인의 NP 프로그램은 전체 응시자의 6%만이 합격할 만큼 입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의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의료법주, 의료 표준, 시험제도와 자격증 관리(Credential), 보험과 보상 등과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체계가 형성돼 있는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벤치마킹하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현지의 NP나 대학 NP 프로그램

교수들의 도움을 구해도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에 석사과정을 포함, NP 프로그램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던 이른바 PA/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해 2~3년간 특별 전형혜택을 주어 이들에게 석사학위와 필요한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이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

비드 팬데믹을 이겨낸 나라다. 간호계 리더들의 대의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동안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한국 간호계가 이제는 능동적인 간호철학을 세워 나아갈 때라 생각된다.

양수진 동문은
House Supervisor
at Whittier Medical Center
Family Nurse Practitioner
Master in Biblical Studies
at Westminster Seminary

가정의학, 노인, 소아, 정신질환 등 세분화 뉴욕 등 27개 주는 NP가 약 처방 등 시술

한인경제의 50년 - 과거와 미래 소매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진출



최운화
경영대 78

너무 거창한 주제라 전체적인 방향을 너무 방대해 질 수 있는 시간적 흐름보다는, 지난 50년의 한인 경제와 앞으로의 50년의 전망을 대략 다음과 같이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한인 이민자 급등 시절로 시작해, 의류업이 주도하고 금융업이 뒷받침한 상업자본의 축적기, 부동산 자본으로 확대되는 시기와,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큰 성장동력은 없었으나 성숙한 모습으로 점진적 발전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시기로 나누어본다.

이민급등과 상업자본 축적기

개인 별로 미국에 진출한 한인 이민사회는 80년 대 초를 기점으로 대규모 이민으로 한인사회 자체가 커진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과 신군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배경과, 신자유주의 물결로 개방정책을 키운 미국의 이민정책이 합쳐진 결과로 추정된다.

물결처럼 늘어난 한인 이민사회는 리커스토어, 마켓, 세탁소, 청소 등 소매서비스업으로 진출했다. 지역별로 흩어진 개별 사업들과 함께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의류업계는 노동집약형 사업인 봉제를 시작으로 커졌으나, 이를 바탕으로 더 고부가가치 업종인 의류제조업과 의류브랜드 사업으

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한인사회의 젓줄이 되었다.

동부지역은 야채청과상을 중심으로 성장해나갔고, 전문직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서부와 동부의 한인사회가 커지면서 타 지역의 한인들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은 미주 한인상권의 결집지가 되었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상권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금융의 필요성이 나왔고, 70년대 진출한 한국 본국의 지점과 현지법인들이 금융계를 개척한 이후, 80년대에 들어 한인들 스스로의 금융업 진출이 시작되었다. 한인상권의 발전과 한인사회의 확대를 바탕으로 금융권도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부동산 축적기와 시련들

상업자본의 성장과 금융업의 기반은 곧바로 한인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키웠다. 사업용 건물도 필요했고, 축적된 저축을 키워나가기 위한 투자용 건물 시장으로 한인들의 진출이 늘어났다.

규모가 커지자 사회적 혼란의 타격도 받게 되었다. 4·29 폭동은 서부지역 한인 소매상권을 초토화했고, 그 여파를 겨우 벗어나자 한국의 외환위기와 닷컴거품, 9·11 사태 등 연이은 대형 악재가 한인경제에도 타격을 주었지만, 이미 주류로 자리잡은 의류업과 성숙해져 가는 금융 및 부동산업의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인 경제는 더욱 커져나갔다.

서브프라임 사태라 부르는 금융위기로 한인 사회도 큰 위기를 맞았다. 많은 부가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결과인데, 부동산업계는 물론 부동산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계도 휘청거렸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한인 경제계를 침몰시키지는 못

4·29폭동과 금융위기도 견뎌내, 부 축적 '괄목할만' 산업자본화 단계진입...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해야

했다. 비록 외상은 입었지만 여전히 한인 사업의 경쟁력이 강했고, 축적된 자금규모가 커진 덕에 은행권은 자본 영입을 통해 살아날 수 있었다.

본국 경제의 위상 격상

금융위기를 넘어선 2010년대는 다변화시대라고 할 만 하다. 뚜렷한 업종의 약진은 없었어도 다양한 분야에 한인사업가들이 진출했고, 본국의 경제가 완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이와 함께 여성 골프, K-Pop의 약진에 힘입어 한류문화의 경쟁력도 커졌으며, 한국 대기업들의 자동차, 가전제품의 미국 소비시장 확대로 한인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지역적으로도 애틀란타와 델러스 등 본국 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이 커져나갔다.

팬데믹은 한인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 폭망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선진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아주 빠른 기간에 극복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80년대 이민의 물결과 함께 시작된 한인 경제는 이제 괄목할 만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면에서 연방 의원들도 배출해내는 성숙한 사회로 올라섰다고 자부할 만 하다.

2세대의 전문직·정치권 진출

상업자본의 성장, 부동산 부의 축적과 금융업이 큰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법률, 회계, 보험, 의료 등 전문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한인들의 전문직 진출이 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데, 2세대의 진출은 전문성을 매우 높였다. 이 덕택에 한인 경제계는 사업확장에 필요한 전문직 서비스로 보호를 받게되었다.

또한 가장 거시적 힘인 정치권에 도전하는 한인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제는 경제력, 전문 서비스, 정

치적 영향력을 다 갖춘 확실한 미국 내 주요 소수 민족사회로서 성숙했다고 자부할 만하다. 실로 40년만의 큰 성취다. 본국의 경제선진국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한인사회의 성장도 그에 못지 않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자본으로의 기대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본다고 하면 그 동안 축적된 부, 든든한 한인 금융권, 전문직 서비스, 정치적 힘과 본국 경제의 선진국화를 바탕으로 한인 경제가 산업화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LA 한인타운의 상징물.

산업자본이라 함은 생산과 소비 분야에서 미국 전체를 시장으로 하는 산업군을 만드는 것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구조 면에서도 개인 소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 회 장 김 용 진 (91)
- 부회장 최 용 준 (81)
- 총 무 안 형 준 (97)
- 회 계 김 호 진 (94)
- 대외협력 심 호 철 (00)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한인 경제는 모국의 경제력과 합쳐져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족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기업공개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주류 자본과의 접목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아쉽게도 금융계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성공사례는 미진하다. 대표적 의류업체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고, 부동산의 대표기업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주춤한 상태다.

산업화로의 전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부통제와 준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최근 들어서는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다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결코 도입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한인 사회가 그냥 미국 사회의 한 구석에서 미국의 혜택을 보며 자라는 소수민족의 존재로 멈추지 않고 당당한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기업경영의 투명화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성을 지켜야 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후 문제는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다. 당장 자연재해의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식량문제로 연결되는 절실한 사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긴 해도, 기후 문제에 참여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되어야만 일류 기업이 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의 미래

자체적 성장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국기업들과의 협력관계다. 세계 10대권의 한국 경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한인 기업가와 전문가들, 금융계, 정치계가 본국 기업들의 미주 시장 확대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시대가 다가왔다. 과거 어느 역사보다 지금 한인의 능력이 넘치는 때인 만큼, 주류의 역할로 격상하는 한인사회에 대한 노력은 희망이면서 또 의무라고 하겠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강한 모국의 경제력과 문화력, 스스로 만들어 낸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력과 전문성 및 정치력이 합쳐진 미국 내에서의 글로벌 수준의 기업과 문화를 갖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또 기대해본다.

최운화 동문은

- 경영대(78학번)
- MBA(Pepperdine Univ.)
- Graduate Certificate in Banking Management (Pacific Coast Banking School)
- CEO, Quantum Advisors LLP
- CEO, Uniti Bank
- CEO, Commonwealth Bank
- Senior Vice President, Hanmi Bank

아메리칸 드림과 중국몽은 ‘치킨 게임’인가 트럼프의 ‘MAGA’와 시진핑의 e-독재 충돌



주준희
문리대 72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중국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는 그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들은 지난해 5월 Foreign Affairs지 기고문에서 미국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서구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며 봉쇄정책으로 중국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집권 후 중국이 미국의 보스가 되었으며 미국이 마치 중국의 자회사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중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뉴트 킹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의 베스트셀러 ‘트럼프와 미국’(역서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주준희 역)을 일독하기를 추천한다. 이 책에서 킹리치는 트럼프의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Make America Great Again)정책과 시진핑의 ‘중국몽’을 비교하면서, 이 두가지 꿈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이 감시, 통제, 속임수, 부정행위를 사용하여 자유주권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막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보다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에 대해 좀더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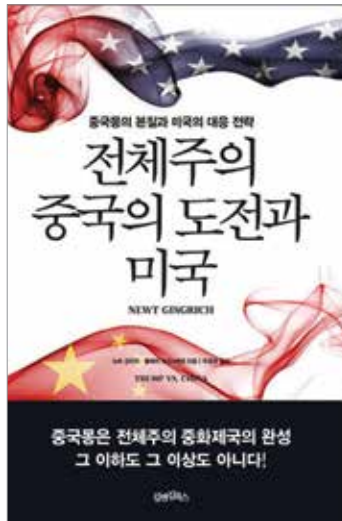
1기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인의 용기와 선함과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듯이 트럼프는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독창성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미국인들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오늘날 미국은 계속 번영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더 강해질 것이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올 것이다.

중국인들은 마오쩌둥 밑에서 중국인이 일어섰고, 덩샤오핑 밑에서 부자가 되었고, 시진핑 밑에서 강해졌다고 말한다.

중국을 강하게 만든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한 비전은, 2049년까지 강력하고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선진 중국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중국공산



주준희 동문의 역서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뉴트 킹리치 전 하원의장의 저서를 번역, 한글판으로 출간했다.

봉쇄정책으로 정권교체, 완전한 승리 거둬야 체스와 바둑의 차이 ... 전략적 접근이 중요

당 전체가 중국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중국사회주의의 경로, 이론, 체제 및 문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과 국가의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중국의 인민보다 우선시하고 삶의 개선을 위해 그 체제를 추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궁극적으로 중국공산주의가 승리하고 자본주의가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다.

킹리치와 트럼프는 이 두 개의 꿈은 상호배타적이라고 믿는다. 둘 중 하나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한 비전이 성공하면 다른 비전은 실패할 것이다. 중국과 그 공산당 지도부가 자유 미국에 대한 위협 중 최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과 다양한 경합을 시작했고 공산주의 독재에 맞서는 전략을 개발했다.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이 상대했던 소련 등 그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공산당 지배하의 중국은 무역, 첨단기술, 문화, 해상력, 우주개발 등의 영역에서 교묘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절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침

단기술을 산업스파이를 통해 훔쳐가 악용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이버 해킹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총수출액보다 많은 3천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미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e-독재를 하고 있고, 공자학원을 통해 설득과 선동의 기술로 미국 젊은이들에게 침투하고 대중문화 선전선동을 위해 중국의

영화 애호가들을 이용하여 할리웃의 영화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고 있다.

중국은 종교에 대해 다른 어느 국가에도 견줄 수 없는 규모로 종교를 탄압해왔고 조지 오웰 식 전쟁을 벌여 왔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어떤 섬의 모래가 정보라고 한다면, 미국은 위성으로 섬의 수천개의 고해상도 영상을 찍어 워싱턴 DC 주변의 여러 기관에 전송한다.

러시아는 한밤중에 잠수함을 투입하고 잠수부를 보내 모래를 몇 양동이 훔쳐서 잠수함에 가져와 분석하지 모른다. 한편 중국은 수천명의 관광객으로 가득한 유람선을 그 섬으로 보낼 것이다.

관광객들은 유유히 바닷가 모래 위에서 일광욕을



1기 대통령 재임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트럼프. (사진=위키피디아)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 장 정 병 혁 (70)
부회장 엄 동 해 (74)
총 무 김 형 렬 (83)
이 지 은 (88)
간 사 김 인 종 (74)

서울대학교 농생대학 남가주 동창회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유람선에 돌아오면 몸에서 모래를 떨어낼 것이다. 그렇게 유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다양한 기술정보를 훔쳐갔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을 보면 군대의 이동능력은 첩자에 달려 있으므로 첩자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기술돼 있다.

“교묘하게 행동하라. 모든 종류의 일에 첩자를 사용하라”며 스파이의 역할을 중시한다. FBI에 의하면 3만명이 넘는 인민해방군 사이버 스파이, 15만명의 민간 컴퓨터 전문가가 미국의 군사 기술 기밀을 빼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2017년 ‘국가정보법’은 개인, 조직, 기관에 중국정보요원을 도울 의무를 부과했으니, 법적으로 중국인은 스파이 활동을 도와야 한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운전기사가 운전 중 엿들은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왔던 것이 적발되어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김리치는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두 가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관점의 바탕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체스와 바둑에 대한 김리치의 통찰력이었다. 서양의 체스는 직선적인 힘 대 힘의 대결이다. 반면 바둑은 균형이 미묘하고 점진적인 승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시점에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바둑을 둘 때 판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전술 상황에 생각이 간히면 상대방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하나의 돌을 잡는 것 보다는 영토 획득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더 큰 판을 보고 중국의 모든 돌과 각각의 작전이 함께 연결되는 방식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작고 점진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고, 각각이 어떻게 더 큰 장기전략의 일부인지 보지 못하고, 게임이 끝나고 질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주준희 동문은
문리대 외교학과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에모리대 국제관계학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김 동 석

음대 64
제32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네안데르탈인’ 부정하는 백인들의 인종감정 한민족이 동남아에서 왔다면 거부감 들지도



이상희
고고미술사학과 85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의 조상인가?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최초로 발견된 당시에는 괴이한 병을 앓아서 이상해진 두개골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곧 진화론에 의거해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

그후 지난 150년간 고인류학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의 조상인지, 현생인류와 같은 종인지의 여부다. 전통적으로 화석자료는 네안데르탈인이 현생인류의 조상이라는 입장을 더 강하게 받쳐주었다.

1990년대에 네안데르탈 화석에서 직접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현생인류의 유전자에 전혀 기여를 안했으므로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인류화석이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화석에서 직접 추출한 DNA에 근거한 주장은 영화 ‘주라기 공원’과 같이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환영받았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세상이 뒤집히는 연구가 발표됐다. 더욱 혁신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인을 비롯한 현대인의 조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인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자신들의 조상이 아니기를, 그리고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가 아주 적어 무시할 정도이기를 바란다. 네안데르탈인이 자신들의 혈통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기 싫은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 조상이라는 주장은 구미인들의 민족감정을 해친다. 왜일까? 20세기 초에 프랑스 라사펠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 화석은 구부정한 개체였다. 나이와 험난한 인생으로 관절이 짓물러져서 그랬던 것인데, 모든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구부정하고, 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수만년 전에 살고 있었지만, 20세기에 그려진 모습은 바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유럽에 의해 식민지가 됐던 수많은 ‘미개한 원주민’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자신들의 자랑스런 조상이 그런 뒤떨어진 모습을 가진 사람일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초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 유적이 있는 곳이자, 인종우생학 등 인종주의의 폐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을 조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은 흥미롭다.

우리도 조상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조상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조상으로 삼고 싶은 멋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한민족의 조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의 민족감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동북아 쪽으로 향한다. 한

민족은 시베리아쪽에서 왔다고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한민족의 조상이 남쪽에서 왔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일본에서 왔다고 한다면 당장 ‘식민사관’이라는 딱지가 붙을지 모른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한다면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거부감 중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재 동남아인들에게 갖고 있는 인종편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학문에서든, 사회에서든,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편견은 알아보기도, 없애기도 어렵다.

이상희 동문은
미시간대 고인류학 박사
UC 리버사이드 인류학 교수

이상희 동문의 두 번째 저서 ‘인류의 진화’ 커버. ‘네 이름은 호미닌’ ‘몸이 말하는 인류의 진화’ ‘뼈에 남은 칼자국’ ‘상상의 고인류 데니소바인’ ‘단군의 자손’ 등 모두 19장으로 구성돼 있다.

‘인류의 기원’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교양서적. 미국, 중국, 그리스, 일본, 러시아 등 8개국에서 번역 출판돼 공전의 히트를 쳤다.

축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

박 제 환
제47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문리대 75

SENIOR를 위한 모든것

어뉴이티	평생 연금
메디케어	65세 이상 필수 보험
롱텀케어	요양원 비용 준비

로이스 김
(송미선 음대 89)
213-500-0841
loismkim@gmail.com

챗 GPT는 과연 추론 능력이 있을까 분노한 세종대왕이 신하들에 노트북을 던져?



송명국

인문대 90

인공지능(AI)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언어 번역 등의 영역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파괴적 기술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약한 또는 좁은 AI라 불렸다. 바둑에서 이세돌 프로를 꺾은 알파고와 같이 특정한 영역의 과제만을 수행할 수 있는 좁은 AI는 그동안 어린이 수준의 추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그림에서 사람과 동물 중 누가 더 많은가, 블록탑에서 가장 위쪽 블록을 제거하면 탑이 무너질까 등에 대한 질문에 AI는 답을 하지 못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인공지능연구소. 기술이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현대 딥러닝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 중의 하나인 제프리 힌튼은 이러한 AI의 한계를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규칙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머신러닝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챗GPT의 기반기술인 GPT-3가 1,750억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100조개가 넘는 시냅스를 가진 인간의 뇌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숫자이다.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와 매개변수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 딥러닝의 개선을 통해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AI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데이터와 매개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인간 지능을 모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언어모델의 역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화를 찾아 볼 수 있다.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의 언어학 교수였던 크리스 브로켓을 영입한다. 브로켓은 6년

“현재의 언어모델은 주어진 단어를 기반으로 가장 적당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

넘게 인간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단어와 구문을 어떻게 엮어 문장을 만들어 내는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팀이 통계적(머신러닝) 방법을 기반으로 언어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즉, 두 언어에서 특정한 단어들(동일한 문맥에서 동일한 빈도로 나타날 경우, 그것이 바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인 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팀은 불과 6주 만에 번역 시스템의 기본 원형을 완성했다.

브로켓은 자신의 접근 방식이 곧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머신러닝 방식이 곧바로 빛을 볼 수는 없었지만,

2022년 11월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이제 AI가 인간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언어모델은 텍스트를 숫자로 변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인간 언어의 일종의 통계적 지도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놀랍게도 컴퓨터는 단어의 의미와 문맥을 파악하여 인간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 것이다.

2023년 3월에 출시된 GTP-4는 챗GPT의 기반기술인 GPT-3.5보다 훨씬 많은 수의 파라미터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T-4는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는데 아이폰 충전포트에 VGA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 주면, 작고 현대적인 스마트폰 충전 포트에 크고 오래된 VGA 커넥터가 꽂혀 있다는 부조리함이 재미있다고 답해 한층 발전된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들이 책, 아홉개의 달걀, 노트북컴퓨터, 병, 못을 안정적으로 쌓는 방법을



지난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의 포스터. AI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촉구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자 GPT-4는 책 위에 달걀을 3×3 격자로 배열하고 노트북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노트북의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이 다음 층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해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다. GPT-4가 물리적 세계에 대

한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공지능능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AI의 능력은 놀랍기는 하지만 AI가 추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챗GPT와 같은 현재의 언어모델은 주어진 단어를 기반으로 가장 적당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인다”는 문장이 “바람을 나무 사이를 속삭인다”는 문장보다 문법

제9장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샌드 페블즈의 디아스포라 - 김인종

산간마을에 목공예 공방 - 문병길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 박혜란·백시환

암투병 도제가 - 손인숙

한국무용 알리미 - 유희자

남편의 신장이식 - 이정아·이병성

남태평양 이야기 - 이홍표

역학 간호사의 삶 - 이호진

경성제대 졸업증서 - 신경자·신정자

나의 북한 방문기 - 이방은

좌충우돌 이민기 - 박주현·이지은

아프리카에 상록수의 꿈을 - 임현진

마담 퀴리의 꿈을 접고 - 주선희

노래냐 서울대냐 - 홍광식

한인회장이 된 사연 - 박학선

적으로 올바를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고, “별들이 밤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문장이 “태양이 밤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문장보다 상식에 부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프로를 집어 던진 사건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챗GPT의 답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문장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뉴욕의 변호사는 챗GPT가 생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문서에 인용된 법률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판사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따라서 AI가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데, AI는 “단지” 다음 단어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일 뿐, 추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단어나 문장을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은 추론 능력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실존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의 능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생성AI와 같이 복잡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가 블랙박스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대규모 AI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언젠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을 수도 있는 AI를 인간의 통제 하에 적절하게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편 AI의 추론 능력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학습 데이터의 오염 문제이다. AI 알고리즘을 훈련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누어, 학습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훈련된 알고리즘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검증용 데이터를 사용한다.

검증용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데이터 오염이라 부르는데, 챗GPT와 같이 수천억 또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와 다양한 언어의 대규모 텍스트에 기반하여 학습된 AI의 경우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소스에서 비롯된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눈다 해도, 검증 데이터의 일부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AI 모델이 변호사 시험, 수학 시험, 코딩 대회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지만 테스트 문제들이 이미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었음이 드러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AI의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에는 과장된 면이 있고 아직은 그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나날이 발전하는 AI가 제기하는 인간 사회의 미래에 대한 함의들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송명국 동문은
인문대 철학과
텍사스 A&M 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롱비치) 경영학 교수

샌드 페블즈 50주년 기념 ‘디아스포라’ 발매 “멋지게 살고 싶어 미국으로 날라왔어~”

김영민 작곡·김인중 작사, 이민자들의 애환 담아
‘나 어떡해’는 한국 대학가요제 불후의 명곡

“멋지게 살고 싶어 미국으로 날라왔어
800달러 들고왔지 캘리포니아 USA
스노우보드 좋아서 눈 속에서 살았어
우리는 디아스포라
내딸은 평창 올림픽 금메달이야
지금은 이땅 태극기 휘날리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요즘 유튜브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라는 노래의 한구절이다(유튜브 ‘디아스포라 스토리’). 당초 9절에 이르며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스토리를 담았는데 현재는 첫번째 판으로 1, 2, 3절을 노래한다.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들이 서울대 농생대 미주동문들이다.

김영민(72학번)이 곡을 짓고, 김인중(74학번)이 노랫말을 썼다. 두 동문은 서울대 농생대의 전통있는 그룹사운드 샌드 페블즈(Sand Pebbles)출신이다.

김영민이 2대에서 1st기타, 김인중이 4대에서 1st기타를 맡았었다. 샌드 페블즈는 6대(76학번)에 이르러서는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나 어떡해’라는 자작곡으로 대상을 거머 쥐며 서울대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평생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샌드 페블즈가 올해(2022년) 50주년, 즉 1년도 거르지 않고 50년 동안 새 후배들로 계속 ‘학생 판따라’를 이어갔고 50대까지 내려간 것이다. 1970년 윤장배(베이스), 김동만(기타), 장세권(기타), 정학상(색소폰, 키보드), 주대명(보컬), 이남묵(드럼) 5명이 창단을 한 것이 50대 샌드 페블즈에 이른 것이다. 멤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샌드 페블즈.

는 이제 260여명에 이른다. 그 기념으로 CD를 제작, 발매하기로 했는데 미주팀도 한 곡을 넣으라는 요청이 왔다. 샌드 페블즈 미주팀이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멤버들을 말하며 궁수균(2대 보컬), 조경희(2대 기타), 이학진(2대 드럼), 김영민(2, 3대 기타), 손치훈(4대 베이스), 김인중(4대 기타), 이상호(10대 베이스), 임대현(25대 보컬) 등이 미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해서 이번에 제작된 곡이 ‘디아스포라’이다.

“알고는 사랑얘기보다는 전세계로 뻗어나가 코리아로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같은 이민자로서 전해 보고 싶었다.” 작사자의 말이다.

작곡가 김영민은 한국에서도 음악 활동을 많이 했다. 광고기획사에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스타킹은 반달표’ 등 70·80년대 유행하던 광고송들을 제작해 광고 대상도 여러차례 받은 재주꾼이다.

샌드 페블즈에는 재주꾼들이 많다. 김창훈(5대 베이스), 김창완(서울대농대 72), 김창익(고려대) 3형제가 ‘산울림’ 그룹사운드를 구성해 한국 록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했다. ‘나 어떡해’는 김창훈이

작사·작곡을 해 김영민의 편곡으로 빛을 낸 곡이다.

1대 김동만의 아들 김정우는 2010년대 한국 록그룹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타 드럼만의 2인조 하드록 ‘Toxic’의 리드 기타리스트 겸 보컬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타를 들고 샌드 페블즈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고 록무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에는 13대 멤버들이 유니세프 가요제에서 ‘넌 영원한 소녀’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때의 보컬이 역대 샌드 페블즈에서 가장 가창력이 뛰어났다는 김성수다. 그는 ‘집으로 가자’같은 주옥같은 복음성가를 남기고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

샌드 페블즈는 대학 1학년때 멤버들이 오디션을 통해 구성돼 1년간 활동한 뒤, 2학년이 되면서 후배들에게 장비와 ‘실력’을 모두 물려주며 후배들을 키운다. 이 과정에서 선후배들간의 ‘군대 문화’같은 유대관계가 이어졌다. SM의 이수만씨도 학창시절부터 또래의 샌드페블즈와 깊은 친분을 유지했었다.

왜 농대에서 이런 재주꾼들이 많이 나왔을까. 농대 출신들은 스스로 안다. 수원 서둔동 캠퍼스의 문화와 ‘끼있는 아이들’이 그 이유라고들 한다. 아늑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뒷동네 딸기 농장들, 넓은 수목림의 울창한 나무들, 목장, 그리고 집을 떠나 의무적인 기숙사 생활에서의 갖가지 사연 등... 특히 70년대 학번들은 이런 놀이터에서 여러 기발한 생활방식을 즐겼었고, 주유야음(낮부터 술, 밤에도 술)은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캠퍼스의 풍속도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여학생들이 대거 멤버로 진출하면서 각 대마다 1, 2명씩의 여학생들이 선발됐다. 신입 멤버 선발도 현재는 농생대에 국한하지 않



지난 2015년 샌드페블즈 41대 멤버 6명이 남가주를 방문,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공연을 가졌다. 행사 전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고 자원하는 학생들이면 모두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될 수 있다.

한편 남가주 샌드 페블즈 멤버들은 지난 2015년 농생대 동창회와 함께 샌드 페블즈 41대 재학생(당시 대학 2학년생) 6명을 초청, 코리아타운의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공연을 가졌다. 샌드 페블즈 남가주 동문들이 재학생들의 여비, 항공비,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이 공연에는 UCLA, USC, UC 리버사이드의 한인재학생 밴드들도 참여해 서울대 동문들과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첫 종합 음악축제로 기록됐다.

그런데 왜 ‘Sand Pebbles’라는 이름이 됐을까? 창단멤버들의 말을 빌면 1966년의 명작 영화 ‘San Pablo’에 나오는 배 이름 The Sand Pebbles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스티브 맥퀸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탄 이 영화는 양쯔강에서 모택동과 장개석의 군대 사이에서 싸우는 미 해군 군함의 스토리이다.

샌드 페블즈의 미주동문들이 그 군함의 50주년을 맞아 출시한 ‘디아스포라’가 한국역사의 새로운 원동력으로서의 이민자들의 스토리들을 담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인중(농생대 74)

산간마을에 공방차린 문병길(문리대 61) 동문 “목공예와 썸타는 중~ 나만의 취미공간”

3개월이면 초보 면해, 손주들에 생일 선물
느긋하게 인내심도 기르고 도전정신 북돋아

“공방을 한 번 구경하고 싶은데요.” 동창회 신년하례식에서 만난 문병길(문리대 수학과 61, 공대 자원공학과 69) 동문에 넋지시 말을 걸었다. “오늘 저녁 가는데요. 같이 가요.” 처음엔 집 거라지가 공방인줄 알았다. “조금 멀긴 한데... (공방이) 러닝 스프링스(Running Springs)에 있어요.” 세상에, 해발 6,000 피트가 넘는 고산지대 아닌가.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선 명소로 꼽히지만 산길(14마일)이 무척 가파르고 꼬불꼬불하다. 운전이 겁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폭설이 내리면 어렵지만 ...”



남가주의 산간마을 러닝스프링스에 있는 문병길 동문의 공방.

머무르며 작업합니다. 자연경관도 뛰어나요. 멋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할까요.

(러닝 스프링스는 인구 4~5천에 불과한 마운트 리조트로 남가주에선 처음으로 스키장이 들어선 곳이다. 깨끗한 공기와 고즈넉한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예술가들이 정착해 삶을 꾸렸다. 할리우드의 기념비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한 데이비드 O. 셀즈닉도 이곳에 등지를 틀고는 꿈을 키웠다. 실제로 가까운 빅베어 레이크를 ‘바람과 함께~’에 담았을만큼 이곳을 사랑했다.)

- DIY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도 없지만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 등록해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Woodcraft나 Rockler 같은 회사에서 강의와 실습(주로 8시간 코스)을 겸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코스에 4~5명이 수강하는데 실습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 등은 회사 측이 모두 제공해요.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수강료도 싸요. 100달러 정도. 3개월 정도면 초보는 면해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탓인지 목공예 클래스가 없다.)

- 목공예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지

만 필요한 몇몇 power tool을 알려드릴게요. (괄호안은 대략적인 가격).

* wood turner(lathe)(\$400~\$1,000)

* band saw(\$300~\$1,000)

* disc & belt sander(\$100~\$300)

* oscillating spindle sander(\$100~\$300)

* scroll saw(\$200~\$500).

가격은 정밀도와 내구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우 Woodcraft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버 톨스, 홈디포와 로스, 시어스, 홈디포와 로스 등지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 목재는 어디서 구하나요?

주로 우드크래프트나 목공재료 전문점을 찾습니다. 때로는 가정집에서 버리는 오랜 가구 중에서도 좋은 재료를 발견할 수 있지요. 버리는 가구(scrap)로부터도 좋은 나무가 발견돼 쓸만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 자원사랑을 몸소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 초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두께 1/2 또는 3/4인치, 가로 세로 6인치 정도의 널빤지에 나뭇의 디자인을 해 그린 종이를 임시로 붙인 다음 band saw나 scroll saw로 잘라 뜨거운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요. 색다른 나무를 포개어 자른 후 섞어서 짝을 맞추면 두 개의 조화된 hot pot 받침이 제작됩니다.

-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손주 생일 선물로 만든 자명종 시계예요. 지름 3.5인치, 길이 4인치 정도의 birch통나무 속에 시계와 트리플 A 배터리, 스피커, 알람 버튼 등을 장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워낙 좁은 공간에 많은 부품을 넣다 보니 힘은 들었지만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딸의 호들갑 찬사를 받고 나면 들인 공 몇 배의 보상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아들의 지휘봉을 만들어 준 것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막대기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길이, 무게 중심의 위치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문 동문이 만든 소품들. 손주들이나 친척들에 나눠준다.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사리 만들어냈는데 손잡이 쪽이 약간 가벼웠어요. 궁여지책 끝에 손잡이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미세한 쇠구슬을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주 흡족해했어요. 그러나 지휘봉 안에 쇠구슬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어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 동문들에게 목공 레슨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직까지 주변에 목공을 하는 동문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취미를 공유한 동문과의 협업은 시너지 효과와 함께 즐거움이 배가 되겠지요.

목공은 각종 기계를 다루며 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제 적성에 아주 잘 맞습니다. 작업에 몰입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상상의 목표물이 점점 윤곽을 들어낼 때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희열을 맛볼 수 있지요.

또한 나무를 다루는 과정 중 접촉을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인내심도 기르게 되며 각종 기계 점검 및 도구들의 정리 정돈과 함께 노후의 심신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Instagram.com/moonbyungk123:

문의: moonbyungk@gmail.com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의학도 예술, 음악이 진료에 도움돼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 해야 후회없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은 의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명언이다.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의술이 예술에 속했다고 한다. 예술을 의술로 해석하는 것이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하는 의술과 정신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예술이 사람을 살린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음의 두 동문은 프로필이 무척 독특하다. 의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음악이란 예술의 장르에서 만난다.

박혜란

작곡 73
소아과 전문의

- 전공을 음악에서 의학으로 바꾼 계기는?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도 있지만 ... 나는 언니 따라 의대에 간 경우다. 언니가 먼저 불티모어의 병원 레지던트로 왔다. 나 역시 피바디 음대(Peabody Conservatory of Music)에 유학와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됐다.

언니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의학에 흥미를 느꼈다. 문득 어렸을 적 공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아버지를 따라 실험실을 구경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었다.

- 언니도 음대 지망생이었다는 얘길 들었다.

“맞다. 언니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쳤다. 언니 자신도 음대 갈 생각이 있었다. 언니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로 진로를 바꿨다.(서울대 의대를 나온 언니는 현재 일리노이대학 소아 알러지과 교수다).

- 음대 출신이 어떻게 의대에 들어갔나?

“피바디에서 1년을 보낸 후 학부과정부터 다시 공부했다. 샌디에고 대학에서 의대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며 4년을 보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롯해 물리 화학 수학, 심지어 신학 등 평소 관심이 많았던 과목을 수강해 교양의 지평을 넓혔다.

- 의대는 어디를 갔나?

“다시 동부로 가 조지 워싱턴대 의대에 들어갔다. 첫 해는 정말이지 고생이 많았다. 엄청난 양을 외우며 공부하느라 힘들었다. 특히 인종간의 편견이 예상외로 심각했다. 흑인 환자가 흑인 의사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백인 의사를 고집하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불편했다.

- 음악이 의대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물론이다. 의사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의학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art)이기도 하다.’ 나도 이 말에 공감한다. 의사는 같은 병이라도 환자에 따라 약을 다르게 처방한다. 환자의 증상 뿐 아니라 감정의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같은 약이라도 환자에 따라 부작용과 반응

이 다르다. 1+2=3이 아니고 4도, 5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음악을 전공한 나의 입장에서는 인간 바탕에 깔린 감정을 남보다 더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점이 의대에서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 ‘음악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지?

“곡을 멋지게 쓰는 작곡가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음악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아쉬움을 내려놓기로 했다.

오랜 기간 성당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편곡까지 한다. 내가 음악을 전공했기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음악은 의술 못지않게 내겐 중요한 삶의 일부다.

-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에도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커뮤니티 클리닉인 리빙스톤에서 자원봉사했다. 지난 2016년 기금모금 자선음악회를 기획, 공연해 큰



박혜란·김충현 동문 부부. 오렌지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성과를 거뒀다.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한다.

리빙스톤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지난 2010년 문을 연 비영리재단이다. 자선 음악회에는 우리 동문들이 다수 출연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주일엽 교수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제갈소망 등 출연진은 화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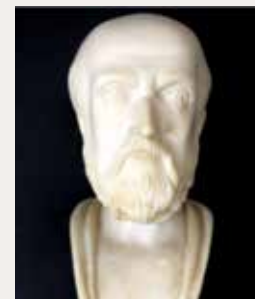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직업을 여러번 바꿔보는 사람들이 많다.

의대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과가 무엇인지 알기위해 레지던트를 여러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부군 김충현 박사는 문리대 72학번으로 부부가 동문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나의 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킨다.
나는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있는 전통을 지키며, 동료는 나의 형제자매처럼 여긴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 생명을 그 수태된 때부터 최우선의 것으로 존중하며, 위협을 받더라도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의술과 예술 사이에서]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에 담아 스패니시 등 다중언어로 불러 '공감'

백시환

의대 93
싱어송라이터

“언젠가 나를 버릴거야/ 언젠가 나를 잊을거야/ 기억은 흐려지고/매일 똑같지만 한테/ 지새우는 발길에도/ 갈 곳없는 이곳에/ 거울 속에 누군가가/ 날 바라만 보네/ 난 있다고 생각지마/ 이미 맘은 떠났네.” ‘리브송’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작사 작곡은 놀랍게도 신경내과 전문의. 바로 백시환(William S. Baek) 동문이다.

백 동문은 지난 2018년 1집(Walk Again)에 이어 2020년에는 2집(Humanity)을 냈다.

첫 앨범에는 치매를 비롯해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졸중 환자들의 마음을 담았다. 장르도 여러가지다. 중풍환자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슬픈 발라드. 반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노래는 테크노 댄스곡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백 동문은 팝 컨트리, 라틴 레게, R&B, 재즈 등 다양하다. 노래도 영어와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로도 부른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논문이 아닌 노래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백 동문은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더 치유와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냈다.

백 동문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 싱어송라이터를 꿈꿨다. 하지만 아버지와 삼촌, 사촌까지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가수의 길을 가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싱어의 꿈은 의사가 된 뒤로 미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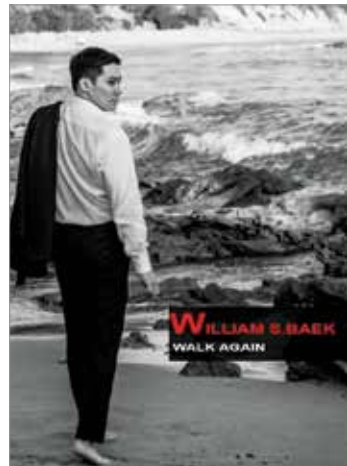
대학에 진학해 선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다.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틈틈이 곡을 짓고 노랫말을 다듬었다. ‘언젠가 꼭 꿈을 이루겠다’면서다.

지난 2005년부터 다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1집에 수록된 ‘리브 어게인’은 그때 쓴 노래다.

백 동문은 다중언어에 능통하다. 미국서 태어난 그에게 영어와 한국어는 모국어나 다름없다. 4년 동안 공부한 스페니시는 이제 통역없이도 대화가 가능하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 쉽게 배웠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혼자서 노래 연습을 하고 특히 외국어 공부할 때가 너무 좋아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번갈아 가며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달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를 체코어로 연습 중이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알아가는 기쁨이 크면서다.



백시환 동문의 제 1집 '워크 어게인'.

암 투병후 도예가로 변신한 손인숙(생과대 85) 흙물이 튀어 머리에도 묻고... 자연 치유돼

OCMA에도 전시, 고객이 별 다섯개 최고 등급 매겨
터스틴 스튜디오에서 화·금 이들은 도예 지망생 지도

백년은 족히 돼 보이는 고택이다. 구태여 GPS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퍼시픽 스트리트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여기구나’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스패니시 스타일의 건축미와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어느 시골집같은 느낌을 준다. ‘cookie cutter’의 집장사 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자기를 굽는 투박한 손을 떠올렸는데 앞마당 정원부터 손질이 잘 돼있는 걸 보니 집 주인의 ‘green thumb’ 재능도 예사롭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손인숙(생과대 85) 동문의 주거를 겸한 도자기 스튜디오는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의 올드타운에 자리하고 있다. 6년 전 이집이 매물로 나오자 한눈에 반해 그날로 짐해왔다고 한다.

뒷마당에 들어서면 돌담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세상에, 미국에도 돌담이 있구나... 한국의 정취가 흠뻑 묻어나 웬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직접 쌓았느냐고 물으니 원래 있던 거란다. 돌담은 정겨운 공간을 만들어내 멋스럽고 정갈하다.

전시실은 리빙룸을 개조해 만들었다. 투박한 듯 아기자기하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개성 넘치는 찻주전자와 찻잔, 머그잔 등 손동문이 손수 빚어 만든 작품이다. 이제는 취미수준을

넘어 온라인 샵까지 오픈한 명실상부한 ‘도예가’가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1주일에 이들은 도예 지망생을 지도한다. 그의 변신, 그 스토리를 듣기 위해 손동문의 공방을 찾았다.

- 도예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저는 전공이 의류학인데 학과 공부에 충실치 못해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학창시절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컴퓨터 언어를 좀 배웠습니다.

졸업 후 CAE(Computer Aided Education)와 e-Learning을 하는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직해 일을 했지요. 지금까지는 주로 컴퓨터 관련 일들을 해왔다고 할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은

저에게 큰 일이 생기기 이전의 일들이고요. 지난 2008년 무렵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해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있을 거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꽤나 위험한 단계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되도록이면 접어두고



손인숙(의류 85)·정종선(물리 84) 동문 부부.

아니면 잊어버리려 애를 쓰고,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일상화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도자기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 직접 그릇 만들고 구우니 뭐가 좋나요?

물레를 돌리다보면 어린 시절 흥장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흙물이 튀어서 머리에도 묻고 옷에도 묻는 꼴이 완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죠.

사실 저는 도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투박하고 다른 그릇들과 어울리지 않아 시작하고 일 년여가 지날 때까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할 따름이었죠. 물레를 돌리고 흙을 만지는 그 순간은 아무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4시간 5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심취하게 되는 ... 그 매력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날 내가 직접 써보지 않고는 내가 만든 것의 장단점을 도저히 알 수가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부터 요리 접시까지 제가 만든 것들로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도자기를 시작한지 3년이 되자 웬만한 그릇이나 차 주전자, 화병 등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죠. 하지만 갈증은 갈수록 커지네요. 정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취미로 시작을 하여 테크닉에



자택 리빙룸에 전시돼 있는 작품들.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 아직은 갈 길이 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 길이 멀어서 좋습니다. 더 알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몇 년 만에 성취될 수 없는 일이라서 좋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재택 근무중인 남편

정종선 동문이 2층에서 내려와 취재팀을 반갑게 맞았다. 물리학과 84학번이다. 안 동문에 따르면 남편은 외조의 끝판왕이다.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다. 작품에 대한 평가도 잘 해준다.)

- 가장 큰 보람은? 또 어려운 점은?

도자기를 통해서 내 나라의 전통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옹기도 만들고 김치병도 만들고 차주전자도 만들면서 전통과 현대를 오갈 수 있어 좋습니다. 단지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이곳의 방식을 적당히 접목시켜 나의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예가들에게 일본 도자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도예가들이 시노니 테모쿠니 하는 일본에서 시작된 유약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제 주위 동양분들의 반 이상이 일본분들입니다. 그들의 도자기 사랑이 남다른 듯 합니다. 이러한 힘이, 제가 그러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볍고 편한 그릇만을 선호하여 우리 도자가 우리의 반상에서 사라져 갈 때 그들은 아기자기하고도 알록달록한 자기들의 모양, 자기들의 색채를 개발해 내며 일반인의 밥상에서도 꽃꽂이하게 버텨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 수강생도 있다고 들었어요. 몇 분이나 되나요?

물레가 4대예요. 그러니 한번에 4명이 와서 공부해요. 일주일에 화 금 이틀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공방은 거라지를 개조해 쓰고 있다. 물레와 전기



손인숙 동문의 도자기.

가마가 설치돼 있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뒷마당이 널찍해 수업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 직접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샵도 운영하신다는데.

Etsy라는 핸드메이드 온라인 쇼핑몰에 저의 샵을 오픈했습니다. 이름이 저의 이름 앞부분

을 따서 만든 InsCeramics.Etsy.com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물건이 많지 않아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도자기가 오크마 (Orange County Museum of Art)에도 전시돼 있어요. 반응요? 좋아요. 이제야 비로소 도자기 작가의 대열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InsCeramics 온라인 몰에는 손 동문이 만든 도자기를 구입한 고객 135명이 후기를 남겼다. 거의 모두 최고 등급인 별 다섯개를 매겨 제품의 완성도를 입증했다.)

취재: 김옥권(미대 76)



공방에서 물레질에 열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한국무용 알리미’ 유희자(음대 68) 동문 난치병 극복, 디즈니랜드 등 450여 회 공연

LA 뮤직센터 초청 ‘Y 난타’ PBS 생중계 ‘호평’
김백봉 등 국보급 무용가들로부터 춤사위 익혀

매년 음력설이면 디즈니랜드 초청으로 전통무용공연(13년째), 각급 공립학교에서 한국음악 소개, LA 카운티 미술관(LACMA) 공연, 아시아 태평양 축제 고정 출연 등. LA카운티의 웅만한 규모의 페스티벌에는 꼭 그가 자리한다.

포터랜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8년이나 한국춤을 가르쳤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소환되는 예술인 중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유희자(음대 68) 동문이 이런 예술인이다. 7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이다. 실 줄 모른다. 대체 그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유 동문은 원래 ‘메니에르 병(Meniere’s Disease)’ 환자다. 어지럼증과 귀울림, 청력감소, 귀 먹먹함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느날 간병 할머니도 떠나고 집안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너무 어지러워 운전대를 잡는 것도 감히 엄두를 못냈다. 우연히 벽에 세워 놓았던 가야금을 건드렸다. “디잉~ 하고 울리는 가야금 소리에 감전이 된 듯 온 몸에 전율이 스쳤어요.” 가야금을 끌어 내려 무릎위에 올려놓고 한 줄 한 줄 타기 시작했다. 잊었던 옛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유 동문의 고향은 평양이다. 1.4 후퇴 때 전 가족이

월남해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 전쟁이 터지기 전 아버지는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상무부 장관 자리를 제의 받았지만 거절하고는 ‘남행’을 택했다.

옥수수에서 포도당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부친은 미국에서 20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천일곡산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1950년대 중반 20만 달러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런 관계로 아버지 회사엔 미국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외국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어린 딸에게 한국무용을 보여드리라고 했다.

“아버님은 문화를 통해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시로선 선각자였지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4살때부터 스페인 무용을 배웠다. 이어 15년동안 김백초, 김백봉, 강선영, 이매방 등 대한민국의 국보급

무용가들로부터 춤사위를 익혔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파견한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경기여중고를 나온 유동문은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지망했다. 전공은 가야금. 오빠의 서울대 ROTC 동기생인 김동석(음대 64) 동문으로부터 6개월 가량 가야금을 배웠다. 실기 점수는 꼴찌였지만 아마 학과 성적이 우수해 합격했을 것 같다.



유희자 동문은 고전무용을 통해 한국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6일 샌제이브리얼 세라톤 호텔에서 열린 ‘팬 아시아 댄스’ 경연대회에서 각 부문 최우수상을 휩쓸은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 단원들.

대학 3학년 때는 그러나 우등생으로 뽑혔다. 유 동문에 따르면 국악과에서 처음으로 우등생이 나와 음대에서 온통 화제가 됐다.

미국에 와서는 캘스테이트 노스리지대학에서 작곡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무용과 가야금은 그에게서 멀어졌다.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를 한 집에서 동시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유 동문의 예술혼을 깨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메니에르 병’이다. 가야금 줄을 잘못 건드린 것이 그의 열정을 되흔들어 냈다고 할까.

다시 가야금을 잡으니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미친 듯 가야금을 붙잡았다. 얼마안가 그 어렵다는 산조를 눈 감고도 완주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몸 상태도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한국에서 삼고무와 장고, 북, 징, 팽과리 등을 들여와 본격적으로 고전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벨리에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원을 오픈한 그는 모든 장단을 서양악보로 표기해 2세는 물론 미국인들이 빠르게 익힐 수 있게 했다.

디즈니랜드 공연에 이어 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엔 LA 뮤직센터에서 열린 제 64회 LA카운티 연례 할러데이 축제에 초청받아 ‘Y 난타’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PBS 공영방송에서 생중계했다.

그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매사추세츠주 젠크스 센터(Jenks Centre)가 주최한 ‘댄서스 데이얼로그 프로그램’ 출연이 계기가 됐다.

영어로 진행된 생방송으로 유 동문이 직접 작곡한 가야금과 무용을 주류사회에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유 동문이 지금까지 공연한 횟수는 450여회가 넘는다.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동문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유 동문은 오늘도 주류사회에 한국의 예술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그의 길을 걷고 있다.(www.hizakordance.com 또는 유튜브에서 Hiza Yoo를 치면 유 동문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 소속 청소년 합주단이 공연하고 있다.

이정아(수필가)의 덤으로 사는 삶 남편 이병성(공대 74)의 신장기부로 이식

UCLA는 고령 이유 거부, 아산병원서 수술
“우리 모두는 기적을 이루며 사는 중”

신장이식 수술을 한지 10년이 되어온다. 죽음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다가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식해야겠는데요?”하는 날이 마치 사형선고 받는 날 같았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조금씩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긴 해도 죽음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나도 이런 큰 수술이 없었다면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았을 것이다.

게으른 내게 정신 번쩍게 한 사건이었고, 남편(이병성, 공대 74)에 대해,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멀리 사는 동창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치료를 위한 장기체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우렁각시 같았던 도움의 손길들 - 형제자매 친구

교우 스승을 생각 하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였다.

도움을 받은만큼 그분들에게 바로 되갚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라도 돌려 주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던데 조금은 철이 든 듯 살고 남은 인생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의사로부터 신장이식을 해야한다는 선고를 받고 서는, 세상이 다 끝났다 싶어 울며불며 지냈다. 친구들도 교인들도 위로차 방문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남편은 나를 달래려 자신의 신장을 줄테니 염려말라고 위로했다.

그말을 듣고 나니 몸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닌데 마음이 점차 안정이 되어갔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면 그냥 받아들이자고 생각을 바꾸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생김새, 부모, 형제, 선천적인 질병 등의 타고 난 것은 수단을 써서 변경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나의 병도 그랬다. 선친과 같은 약한 신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유전자 변이로 인해 선천적으로 신장이 나뻐는데, 다낭성 신장

질환이었다.

중세가 초기엔 안 나타나서 모르고 지내다가 2011년에 이식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고 무척 놀랐다. 주치의를 내과주치의에서 신장주치의로 바꾸고 UCLA 병원에서 이식준비검사를 시작했다.

신장기증자를 형제나 자매 가운데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데 나의 남동생 셋은 모두 나와 같이 좋지 않은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가질 형편이 되질 못



이식수술한지 10년이 넘었다. 건강을 되찾아 '부부 일심동체'란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

하였다. 다행히 혈액형이 같은 남편의 것을 받기로 하고 일단 큰 걱정을 덜었다 싶었는데, 이곳 UCLA 의사와 상담을 하니 50세 넘은 사람의 신장은 받지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나?

내가 다급한 마음에 “같은 50이 넘어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속은 젊다”고 의사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니 내가 생각해도 우스웠다. 토끼간을 빼먹으려는 거북이가 된 듯 별주부전이 생각난 탓이다.

같은 학번으로 생일이 늦을 뿐인 남편을 어리다고 타박하고 종종 놀리곤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영계와 결혼할 걸 그랬다”는 푸념이 나왔다. 가족중에서 찾지못하면 신장센터에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 기간이 평균 5년 이상이라니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는 혈액형이 O형이어서 그 기간이 더 걸려 7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참을성없는 나를 이번 기회에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려 작정한 듯 싶었다.

6개월을 소비한 끝에 UCLA 신장센터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남편의 신장을 안받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장을 주는 사람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데 고령의 Donor는 건강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낙담했다.

대체없이 집에 박혀 울며지내던 내게 한국의 여고 동창들이 연락을 했다. 신장이식은 한국이 훨씬 잘하니 일단 한국으로 나와 길을 알아보자며 병원과 의사를 다 수소문해 놓았다고 한다. 의사인 친구들의 배려였다.

바로 한국으로 나가 아산병원의 한덕중 교수님이 주치의가 되셔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한덕중 선생님은 신장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알려진 분이신데 마침 여고동기가 그분의 아내여서 더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툭니바퀴 맞듯 척척 진행이 되어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안도감이 들었다. 남편을 검사한 결과는 건강하고 혈압도 정상이어서 기증자

로 적합하단 소견을 받고 조직검사에서는 80%가 맞아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맞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좋은 소식을 받았다.

준비기간 6개월 동안은 투석을 받으며 기다리다가, 2013년 1월 3일 새해 드디어 첫 환자로 남편과 내가 동시에 입원하여 A수술실의 남편의 신장을 받아 B 수술실의 내게 이식한 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남편은 이식 후에 나머지 신장이 오히려 더 활발히 작동을 하여 정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수영, 마라톤, 자전거에 경비행기 조종까지 아무 문제없이 즐기며 살고 있다.

이식을 받은 나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으며 스테로이드로 내게 이식된 신장을 달래며 살살 살고 있지만 덤으로 사는 삶을 감사하며 살고있다.

평생 성격도 취미도 식성도 안맞는 부부였다가 막판에 신장하나 맞아서 만루 홈런 친듯 추앙을 받고 있는 남편.

남편의 동창들은 부부 일심동체되었다며 덕담을 하면서도 뒤에선 너때문에 부부 애정도를 테스트 받는다면 푸념도 한다. 아내들이 모두들 질문한다나? 당신도 콩팥 하나 기꺼이 떼어줄 수 있느냐고.

병을 알게 되고 수술받고 돌아오기까지 주변의 친지와 교인들은 새벽기도로 중보기도로 혹은 단체로 순번을 돌아가며 나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의 기도 사슬도 든든했다.

내 뒤에서 돕는 많은 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하루 한시간도 허투루 살 일이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이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인생에는 두가지 삶 밖에 없다.

한가지는 기적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또 한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이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이루며 사는 중이다.

성격, 취미, 식성도 안맞는 부부 이제 ‘일심동체 됐다’ 부러움 사

이흥표(의대 58)의 '남태평양 이야기' 안식 휴가 맞아 사모아에서 3개월 의료봉사

'300 파운드' 추장에 페이스메이커 응급시술
원양어선 선원 아들 심장병 완치시켜 부듯해

저녁에는 20여 분 산책을 한 후 태평양이 훤히 보이는데 뒷마당 안락의자에 앉아 깊은 상념에 빠지곤 한다.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태평양 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붉은 석양에 물들어 있는 바닷속에서 하나씩 건져내어 회상해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나는 50여년 전 디트로이트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마친 후 LA의 카이저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후엔 바다가 가까운 하버 시티의 카이저로 옮겼다. 카탈리나 섬과 태평양이 막힘없이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의 집으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호박색 붉은 석양이 매일 찾아온다고 해서 집 앞길 이름도 'Amber Sky Drive'다.

나는 흥남 해안 가까운 곳에서 7살까지 살았다. 내 처는 여수 언덕위의 집에서 바다와 섬을 보며 자라 우리 둘 다 바다에 대한 연민이 깊었다. 그래서 군대도 해군 군의관을 지원했다.

저녁 노을 속으로 태평양 서남쪽을 보면서 40여년 전 여기서 4,836마일 떨어진 사모아 섬에서 지냈던 때를 회상해 본다.

카이저 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바쁘게 일하던 나는 젊은 나이였는데도 10년 후엔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때 카이저에서는 5~10년에 한 번씩 3개월간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안식휴가를 신청했다.

내가 처음 이스턴 사모아에 도착한 때는 1981년이다. 린든 존슨 메디컬 센터 심장내과 자원봉사 의사가 된 것이다. 병상 100개도 안되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규모가 컸다.



부부는 고향이 각각 흥남과 여수여서 바다를 보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는 하와이, 사모아, 통가, 타히티 등 1천여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몸집이 크다. 남태평양에 기지가 필요한 미국은 1872년 이스턴 사모아를 합병한 후 원주민들에게 무상배급을 줬다. 놀면서 많이 먹은 탓인지 체중이 늘어 보통 250파운드가 넘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

독립한 웨스트 사모아는 무상배급이 없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체중이 우리 정도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주민들을 교화시켜 지금도 부락마다 교회가 있고 일요일이면 거의 모든 주민들이 흰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 그런데 백인들은 바닷가에 수영복 차림으로 놀고 있어 내겐 매우 역설적으로 보였다.

사모아에 있는 동안 위급한 환자들을 여럿 살려내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부듯해진다. 하루는 300파

운드나 되는 거구의 추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으로 페이스메이커를 시술하고 비행기에 태워 하와이 병원으로 옮겼다. 덕분에 추장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한국선원과의 만남도 소중한 인연으로 기억에 남는다. 원양어선 어부인 그는 현지 원주민 여자와의 사이에 7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선천적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소아심장내과로 보내 완치시켰다.

사모아를 떠나기 일주일 전 소년의 가족이 큰 파티를 열어줬다. 돼지를 통째로 땅밀에 야자수로 싸고 위에서 오랫동안 불을 때워 익힌 다음 땅에서 꺼내 먹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1996년 타히티의 Papeete 항구에서 당시 의과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하던 아들과 함께 Aranui라는 화물선을 타고 3주일에 걸쳐 항해를 한 일도 떠오른다. 화물선은 프랑스 선박이었는데 부수입원으로 여행객을 받아줬다.

화물선이 선적과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느긋하게 관광을 즐겼다. 이 여행에서 아들을 더 잘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음은 물론이다.

'모비딕'의 저자 허만 멜빌이 살았던 Nuku Hiva,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눈을 감은 Hiva Oa 등 많은 섬들을 답사했던 일이 생각난다.

타히티는 이외에도 영화 '바운티호의 반란(Mutiny on the Bounty)' 배경무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



지난 2006년 크루즈 여행중 이스터 아일랜드에서 '모아이' 돌상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부 선원들이 지상낙원인 타히티를 떠나기 싫어 반란을 일으키는데 영국은 반란자들을 모두 체포해 처형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영제국 해군의 철저한 군율을 보여주고 있다.

내 취미의 하나는 밤하늘 별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스터 아일랜드로 개기일식을 관찰하러 갔었다. 이곳은 800개가 넘는 'Moai'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상으로도 유명하다.

이 근처를 항해하면서 일식을 경험했다. 아침 11시경 해가 달에 가려져 깜깜한 밤이 되고 수많은 별들이 별안간 나타나 반짝였다. 처음 경험한 완전 개기일식이었다.

태평양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와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의해 서구의 식민지가 됐다. 역사엔 그러나 중국 명나라의 해군제독 정화제가 이들보다 100년 앞선 1405년 대함대(52개 함정에 병사 2만 8천여 명)를 이끌고 원정길에 나섰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명나라 황제가 그 함대를 중국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태평양의 서구세력은 미미하게 끝났을 것이고 세계역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기도 한다.

우리집 뒷마당에서 보는 석양이 오늘따라 멀리 남태평양에까지 닿는듯 하다. 내게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기억이 된다.

이호진(간호대 74) LA 역학 전문가 '송촌'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 '공중보건'에 관심

카운티 보건국 30여년, '아웃브레이크' 해결사
레지오넬라·A형 감염 등 전염병 예방에 기여

창궐(猖獗)은 '미쳐 날뛰' 창과 '일어날' 궐의 합성어다. 풀이하자면 미친개가 날뛰듯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남을 뜻한다. 어려운 한자어이지만 필자의 평생 직업과 관련된 낱말이어서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 영어로 표기하자면 'Outbreak', 전문인들은 이를 OB로 줄여 표기한다. 전염병이 세차게 일어나 견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세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아웃브레이크'다.

더스틴 호프만, 모건 프리먼 등 특급 스타들이 출연한 '아웃브레이크'는 감염병의 창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려준 영화다. 아프리카의 한 용병 캠프에서 의문의 출혈열이 발생해 병사들이 죽어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미군은 혈액만 채취한 뒤 캠프에 폭탄을 투하, 몰살시켜 버린다는 재난 스텝러다.

아웃브레이크는 역사에도 기록돼 있다. 16세기 인디언 원주민들이 폐죽음을 당한 것도 알고 보면 스페인 정복군이 갖고 온 천연두나 홍역 등 병균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자 면적이 없던 인디언들이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찌보면 인류 역사는 '아웃브레이크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필자는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30여 년을 일했다.

특정 인구집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유행병처럼 번지면 이를 추적해 병인을 밝혀내는 것이 맡은 일이었다.

역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재학 중 '송촌' 의료동아리에 가입해 봉사를 간 것이 계기가 됐다. '송촌'은 지식영 선생의 호다. 조선시대말 문신이자 한의사 겸 국어학자다.

'중두법'을 시행해 천연두(마마)를 예방, 한국 근대 의료사의 새 장을 연 분이다. 서울대 의학역사박물관에 그 분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마마야, 물렀거라. 지식영 대감 나가신다'라는 타이틀로 지식영 특별전이 열린 적도 있었다.

'송촌'에서의 가장 큰 활동은 계절의료봉사로 여름 겨울 연 2회 1주일간 진행됐다.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에 가서 일손돕기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한 어르신 건강체크를 해드렸다. 송촌에서의 활동을 통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대학졸업 후 보건대학원에 진학해 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됐다. 공중보건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생소했던 시절이었다. 미국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역학과 함께 공중보건을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미국에서 보건간호사(public health nurse)로 일하려면 RN에 더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했다. 한국에서 대학원과정까지 마쳤는데도 학점인정을 못 받아 미국대학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 보건간호사



감염전문가 이호진 동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자 동료들과 함께 백신접종 업무에 긴급 투입됐다. 상단은 감염통제자격증 배지.

가 될 수 있었다. 나중에는 '감염통제 및 역학(Certified in Infection Control & Epidemiology)' 자격증까지 취득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처음 일한 곳은 전염병관리를 하고 있는 ACDC라는 부서였다. 주 및 연방정부와도 연계돼 있어 내가 배우고 싶은 역학의 실

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 맡은 과제는 '가와사키 증후군'이라는 소아질환이었다. 봄 가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급성 혈관염으로 이제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정부관리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필자가 처음 맡은 케이스여서 좋은 경험이 됐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아웃브레이크'도 카운티 보건국이 개입해 규명해 낸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샤가스'(Chagas)다. 기생충 '트리파소마 크루지'에 의해 발생하는데 세계보건국(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700만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

심장이식수술 환자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동료들과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이미 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발견해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보고해야 할 전염병 리스트에 올랐다.

한번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원인 모르게 열이 나며 위독해져 보건국이 조사에 나섰다. 추적한 결과 수술에 참여한 의사 한 분의 상처난 손에 있던 바이러스가 환자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밝

혀졌다. 이후 손세척의 중요성을 보고서에 담아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스파에서 감염성 질환인 '레지오넬라' 소동이 벌어진 것도 기억에 새롭다. 면역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폐렴으로 오염된 물이 미스트 형태로 분사되는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스파와 같은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사망률이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다.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결핵과 성병 등 전염병을 조사하며 교육하고 예방과 치료를 도와주는 것도 필자의 역할이었다. 지난 2017년 A형 간염 아웃브레이크도 잊지 못할 사례다.

추적한 끝에 인덱스 케이스(index case, 최초 감염자)가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빅 OB'와 연관된 것을 알아내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줬다. 샌디에고의 홈리스 집단에서 발생했는데 600여 명이 감염돼 그중 20명이 사망한 대형 아웃브레이크였다.

카운티 보건국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요즘은 전염성이 없어도 다발성 질환이면 역학조사를 한다. 암이나 뇌졸중도 이 범주에 속한다.

되돌아 보면 20대시절 '송촌'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었지 싶다. 지난 반세기를 온갖 바이러스와 맞서 싸움을 벌여왔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단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졌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경성제국대 법문학부 신면식 선생 ‘창씨개명’ 거부, 졸업증명서 등 기증

김성수·김연수 형제와 교우 ... 경제에 눈돌려
“후배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어머님이 평생 가보처럼 지니고 계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때도 품에 안고 오실 정도로 애지중지 간직하셨지요.”

신경자(사대 60)·신정자(사대 63) 동문 자매가 꺼내 보인 물건은 빛 바랜 고문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증이다. 서울대 법대의 전신이다.

졸업증명서의 주인은 자매의 부친 신면식(1912~1960) 선생이다.

발급날짜는 일본 연호로 쇼와(쇼화) 13년. 서기로 환산하면 1938년이다.

모든 시험에 통과해 법학사(학사) 자격을 취득, 이에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고 쓰여있다. 증서에는 법학과 과장, 경성제국대학 총장의 이름과 직인이 붉은 인주로 찍혀있다.

가장 눈에 띄인 점은 졸업생의 이름이다. 일제 총독부가 ‘창씨개명’(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꿈)을 강요했던 시절인데도 신면식 선생은 한국이름을 고집했다. ‘불령조선인’으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다.

“아버님은 고등문관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어요. 창씨개명을 거부했으니 애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로 추측해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증명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경성제국대학시절의 신면식 선생.

경성제국대학은 구한말 한반도 최초의 대학기관이다. 일제 강점기 민간인들이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막으려고 1924년 일본의 6번째 제국대학으로 설립됐다.

법문학부는 법학과와 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4개 과가 설치됐는데 법학과는 입학이 무척 어려웠다.

조선인 학생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고급관리 양성기관이나 다름없어 법학과는 일본인들의 차지였던 것.

신 동문의 부친은 경성제1고보(경기고의 전신)를 나와 경성제대를 나온 수재다. “어렸을 때 유진오 박사도 가끔 집에 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른바 ‘건국현

법’을 만든 유 박사 역시 경성제1고보를 나와 경성제국대를 졸업, 신 동문의 부친과는 선후배 사이다.

신면식 선생은 일찌기 경제에 눈을 돌렸다.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집념이 강했다. ‘인촌’ 김성수(전 부통령, 고려대 설립)·‘수당’ 김연수 형제와 친분을 쌓은 그는 수당이 중국에 남만 방적 회사를 설립하자 함께 회사를 키웠다.

6·25가 터지자 부친은 ‘남북인사’ 리스트에 올랐다. 피신 중 인민군에 붙잡혀 모진 매질을 당했다. 온몸이 뽕뽕 묶여 북으로 끌려가던 중 한 인민군 병사의 ‘탐욕’이 그를 살렸다.

부친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신기했던지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얼른 낚아 채고는 밧줄에 묶였던 부친



신면식 선생의 딸 신경자(사대 60, 오른쪽)·신정자(사대 63) 동문 자매.

의 손을 슬쩍 풀어주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당시 경성제대 동기생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에 심취,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님은 공산주의를 증오했어요.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인민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니 곧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자매는 부친의 유품인 경성제국대학 졸업증서를 서울대학 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해방의 혼란기에 이어 전란까지 겪었으니 경성제대 졸업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면서다.

“이 증서는 식민지 시절의

치욕과 6·25의 비극을 견뎌낸 기록물이예요. 서울대 후배들이 이 증서를 보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50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강호석 CPA
상대 81

714-530-3630 · 213-380-5060

50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신응남
제15대 미주동창회 회장
농대 70

첼리스트 이방은(음대 62)의 북한 방문기 “이복동생과의 평양 공연은 내겐 한풀이였어요”

아버지 찾아 북한 방문, 생면부지 동생들 만나 ‘왈칵’
전쟁이 찢어놓은 가족의 비극, 화해의 감동 선사했지만...

1990년 가을, 사진 한 컷이 한반도는 물론 미주한 인사회에까지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와 맞물려 이 사진은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장소는 평양의 모란봉 극장. 그해 10월 20일, LA를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방은(음대 62) 동문이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초청을 받아 무대에 섰다. 북한 측 파트너는 피아니스트 리민섭(당시 33세). 이 동문의 부친이 북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처음 만난 이복남매가 함께 공연을 했으니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일부 외신은 ‘세기의 공연’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전쟁이 찢어놓은 가족의 비극...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화해의 감동을 안겨주었다며 이복남매의 공연에 호평이 잇따랐다.

이 동문의 부친(이인형)은 6.25 사변때 북에 남았다. 당시 부친은 서울대 음대 교수로 유명 피아니스트였다. 이 동문은 부친의

생사여부를 알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측 동생들로부터 아버지가 이미 10여년 전에 작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 동문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함께 연주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평양에서(이복) 동생들을 만

난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남매는 북측 유명 작곡가인 김영걸의 ‘노을 비긴 바닷가’를 첼로와 피아노에 담아 부친의 영전에 바쳤다.

다음은 이 동문이 지난 2019년 미주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평양방문 소회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동생들을 처음 만나면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생은 아버지처럼 피아니스트였기에 우리는 같이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음악회에서 우리 남매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한풀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평양을 방문한 것은 2001년. 평양 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비롯해 10여 차례 공연을 가졌는데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이젠 동생들과의 연락도 어렵게 됐다.

이 동문은 서울대 출신의 음악가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버지는 피아니스트, 동생 이방희(음대 67) 동문은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노 전공인 사촌언



지난 2010년 12월 6일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열린 음대 정기연주회에서 첼로 독주를 하는 이방은 동문.

니 이방숙(음대 61)은 연세대 음대학장을 지냈다.

이 동문은 동아일보 주최 전국 음악콩쿨에서 우수, 일약 차세대 첼리스트로 유명세를 탔다.

1965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약한 그는 1974년 뉴욕 Mannes 음대에 진학해 클라우스 애덤 교수를 사사했다. 졸업 후에는 미국의 우수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며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 대만에서도 연주자겸 교수로 초청받아 3년여를 지내 글로벌 감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팔순의 나이에도 베토벤의 첼로 작품 완주에 도전하는 등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왕성하다. 이외에도 이 동문은 솔레네(Solene) 앙상블을 창단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생생한 기억은, 내가 (어릴적) 무대 위로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드린 꽃다발의 국화꽃 향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연주 후 꽃다발을 받으



평양에서 만난 이복동생들.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방은 동문이다.

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음악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의 은총이고, 아버지의 숨소리이며, 내게는 한 없는 영광입니다.”

그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준 첼로. 그래서인지 이 동문에게서는 첼로의 향이 은은히 피어난다.

English-Korean “Newbie” Dictionary

이원택의 영·한 [신세대]사전



아직도 전자사전을 보십니까?



정가: 30불

구매처 [IT용어 등 신조어 대폭 수록]

반디서점 (213)389-8885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Kyung Hee Lee
Attorney at Law

Los Angeles Tel: (213) 385-4646
E-mail: iminusa@iminusa.net
Irvine Tel: (949) 551-4646
Website: www.iminusa.net
Seoul Tel: (02) 565-9881

박주헌·이지은 부부의 좌충우돌 이민생활기 식품공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코넬대에서 박사

취업장벽 높아 약대 도전, 25년만에 '소프트랜딩'
뉴욕, 텍사스, 뉴저지, 미시건에서 남가주 정착

저희 부부는 농생대 식품공학과 '캠퍼스 커플'입니다. 저는 86학번, 아내는 88학번이지요.

제가 유학을 온 해는 1995년입니다. 뉴욕의 아이비리그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밟았지요. 아내도 이듬해 역시 코넬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받는 대학원생 월급으로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주하게 됐지요. 그러나 휴스턴은 도시의 특성상 제 전공에 맞는 회사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시 뉴저지로 유턴하게 됩니다.

휴스턴과는 달리 뉴저지는 집값이 꽤 비쌌습니다. 당시 부동산 버블

로 인해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였지만 세상물정(경제관념이 없었다고 할까요)을 몰랐던 저희는 무리하게 2차 모기지까지 얻어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둘 다 직장을 갖고 있어 열심히 모기지 갚아가며 살았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은 여행을 하면서 미국생활을 즐겼지요. 더구나 신앙이 저희 부부 삶의 중심이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박주헌·이지은 동문 부부. 농생대 캠퍼스 커플인 이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2차 모기지를 다 갚고 난 바로 그때 쯤 저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교회에서 가깝게 지냈던 지인의 부탁으로 그분의 비즈니스를 돕게 됐지요. 물론 제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의 중심이 신앙생활에서 비즈니스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미시건으로 옮기는 초강수를 뒀지요.

아내는 훗날 제가 신학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미시건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미시건에는 우수한 신학교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건 이주는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뉴저지 집값이 폭락해 그 집을 팔면 12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시건에서의 제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옆친테 대친 격으로 뉴저지에서 입은 허리 부상도 아직 치료

끝나지 않아 상황이 암울했지요.

그 때 제 나이 이미 44세. 어정쩡한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새 도전은 바로 약학대 진학이었지요.

약학대 진학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학점이 하나도 인정을 못받아 결국 6학기 동안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와 정규 일반대학을 오가며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했습니다. 약학대진학 자격시험을 치러 드디어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두 시간이나 운전해서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무려 7년이나 지속됐지요. 이 기간 동안 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와 집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모두 아내 혼자 떠맡았습니다. 우리 부부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대를 다니는 동안 한 체인 약국의 인턴으로 취업이 됐고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의 약사로 채용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의 약국을 배정받아 기쁨이 배가됐지요.

제가 약사 일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돼 아내와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일했던 회사에 그동안 대규모 정리해고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무관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결국 아내는 새 직장을 찾았는데 LA 인근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미시건과 LA에 떨어져 살면서 한 두달에 한 번 볼까말까 했는데 코비드가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는 반년이나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이산가족처럼 살았지요.

마침 아내가 교회에서 우연히 서울대 동문 선배 한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뵙고 동창회에도 참석하는 등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남가주로 이주해 오렌지카운티에 정착하게 됐지요. 그새 미시건 집값이 많이 올라 뉴저지에서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또 없지 싶습니다.

뉴욕(코넬대)에서 시작한 미국생활이 텍사스 휴스턴을 거쳐 뉴저지로 유턴, 다시 미시건으로 옮겨다가 이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주하게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좌충우돌, 저희 부부의 27년 이민생활이 이제는 '소프트랜딩'으로 마무리돼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www.snuaa.org

동창회는 삶의 쉼터 만나서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입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213-215-0446 • choontaiklim@gmail.com

임헌진(간호대 74) 동문의 생명 살리기 아프리카 차드에 '상록수'의 꿈을 펼칩니다

사막에 벼농사 수확 ... 굶주림 해결할 터
풍요에 젖어 현실에 안주한 삶 '부끄러워'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생활을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을 꿈 꾸어야 옳은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명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의 몸으로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친 최용신 선생이 대의를 역설한 말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직접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명없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은 최용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임헌진(간호대 74) 동문은 소설 속 여주인공 못지 않는 꿈을 갖고 있다. 멀리 아프리카 차드에서 살며 척박한 그곳을 '에텐의 동산'으로 만들려는 그런 꿈이다.

“고등학교 시절 '상록수'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부터 여주인공 채영신은 제 평생의 롤모델이 됐지요.” 임 동문이 간호대를 들어가게 된 것도 언젠가 '상록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였다.

그가 LA에 온 해는 1983년 말. 병원에서 일하며 멕시코의 가난한 동네를 매달 한 번씩 찾았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곳은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했지만



현지 주민과 함께 포즈를 취한 임헌진 동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찬용(치대 72) 동문 등이 동행해줬다. “이웃사랑의 정신이 없었다면 그 멀리 위험한 곳에서 봉사할 엄두를 못냈겠지요.”

임 동문은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자 여고시절의 꿈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이라 불리는 차드가 그의 선택지였다. “평소 봉사하던 자선단

체에서 차드를 소개받았어요. 그곳에 우물을 하나 팔 돈을 기부하면서 인연이 시작됐지요.”

오염된 물을 마신 탓에 삼십 넘겨 살기가 쉽지 않다는 절박한 사정을 듣고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우물을 파달라며 선뜻 수천 달러를 내놨다.

주민들은 호수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야생 동물도 함께 와서 목을 축인다. 짐승과 인간이 물을 공유하니 각종 수인성 질환과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남편(권홍량 목사)과 차드 현지를 찾아가 봤어요. 사진을 전공한 딸과 함께요.” 현실은 미국에서 듣던 것보다 더 참담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내가 풍요에 젖어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이곳에서 '상록수'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부부는 프랑스에서 1년여를 체류하며 언어를 익혔다. 차드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어가 아랍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펌프.

어와 함께 공용어로 쓰인다.

임 동문 부부가 '차드 사역'을 한 지는 10년째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말바(Madba). 맞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주민은 약 800명 정도다. 그러나 주변의 10개 마을을 합치면 인구 1만 5,000~2만명에 달해 제법 큰 규모다.

주민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거나 밭농사를 지어 소위 '입에 풀칠 하는' 정도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나 낙타 등의 마른 톱을 모아 팔기도 하는 등 마치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도로도 나있지 않아 한 번 이동하려면 고통이 따랐다. 상황이 이렇진대 학교나 보건소, 약국이 있을리 만무였다. “처음엔 선교관을 렌트해 살았는데 나중에 현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관계 중심인 현지 사회에서 추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지냈다는 것이다.

이랜드의 재정지원과 미국내 동문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준 돈으로 땅을 샀다. 35에이커에 이르는 농장 겸 주거지다. 수도 은자메나를 벗어나면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없다. 그래서 태양광과 발전기를 이용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 쓰고 있다.

임 동문은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굶주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이른바 '요셉의 창고'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기근이 들자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

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성경 속 이야기다.

“차드는 7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철이에요. 이때 한 번의 천수답 농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비 한방울이 없는 건기철이 계속된다. 따라서 건기에는 특별한 농사기술이 필요했다. '궁즉통'이라고 했던가. 필름에 범씨를 붙이고 필름 밑에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최대한 적게(약 20~30%) 사용하는 농법을 개발해냈다. 물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펌프로 지하에서 끌어올려 쓰고 있다. 이같은 농법이 성공해 마을엔 '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벼 농사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도해봤다. 0.5에이커 논에 모를 심었으나 비가 영글지 못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한국에서 벼농사의 일인자인 신진철(농생대 72) 동문이 와서 농업전문학교를 오픈했다. 8명의 지도자급 학생들을 선발해 농업이론 강의와 함께 7에이커의 논에 벼농사를 짓게 했다. 역시 결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은 동문들이다.



임헌진 동문의 논에 모심기가 한창이다.

차드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전 국토의 약 60%가 사막이다. 부족간의 대립으로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 민생이 파헤쳐진 나라다. 워낙 가난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세계 거의 모든 NGO가 다 모여 있다. 하루 한끼 해결하기도 어려운 만큼 굶주림이 일상이 돼 있는 나라다.

‘물리학도’ 주선희(문리대 66)의 인생유전 ‘마담 퀴리’의 꿈을 접고 화가의 길로

‘메타버스’에 예술인들 집을 짓고 싶어
우주의 신비 풀려했지만... 오리무중

늘 궁금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주선희 동문은 문리대 66학번. 과학자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그가 답을 줄 것 같았다.

“과학과 예술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두 분야는 접점이 있을 것 같았다. 돌아온 대답은 그러나 예상을 한참이나 벗어났다. “전혀요. (공통점이) 없어요.”

주 동문은 전공이 물리학이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 한 학년 정원은 30명 정도다. 입학할 때 여학생은 경기여고 동기생 합쳐 딱 2명이었다. 나중에 화학과에서 여학생이 전과해 와 3명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했으니 스트레스도 많았을 터다.

물리학과 예술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데 그는 왜 지금 화가가 돼 있는 걸까.

“어떻게 전공을 물리학으로 정했나요?” 주 동문의 답변은 이랬다. “원래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는 했습니다. 문제 푸는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물리를 가르친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입학시험 때 수학문제 몇개 맞았는지 물어보려다 그만됐다. 아마 10개 중 최소 8개는 맞았을거라 지레 짐작을 했다.

주 동문의 그림그리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시작됐다. “연필로 주변 사람을 스케치하고 만화처럼 그려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리는 것보다 좋은 그림 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대학진학 후엔 공부가 바빠 그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대학원에 진학해 물리학 공부를 더 했다. 석사학위를 따냈는데 딱 거기까지였다.

“1980년대 초 즈름 내가 과학자의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를 성찰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 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샌타모니카 칼리지의 미술강사를 만났다. 진 발로우 선생의 드로잉 클래스를 택한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다.

“유대계 선생이었는데 그 분이 제 눈을 열어주셨지요. 말하자면 제 멘토나 다름없어요.”

이후 칼리지에서 많은 아트 클래스를 수강해 미술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주 동문은 UCLA 대학원에 포트폴리오를 제출, 마침내 입학허가를 받아냈다.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처음엔 추상화를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 즈름 구상 쪽이 자신에게 더 맞다고 생각해 졸업전시회는 ‘반추상 풍경화’로 했다.

“물리학을 왜 포기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첫 애를 낳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물리학이 우주의 신비를 풀어줄 거라 기대해 빅뱅 이론을 섭렵했어요. 그런데 배울수록 오리무중이더



주선희(문리대 66)



Madonna in the Garden



겹겹의 사랑

라고요. 솔직히 대학 다닐 때 실망을 좀 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반대는 없었느냐고 묻자 “(물리학을 포기한 데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망을 하셨지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어쩌면 주 동문의 어머니는 딸이 훗날 ‘마담 퀴리’가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물리학이 미술인생에 도움이 된 적은 없었는지 물어봤다. “물리학에서는 자연현상과 이론, 실험결과를 갖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미술에서는 무의식에 있는 감정과 미술적인 구성요소를, 의식 중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과정과 비슷해서 도움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

거 같아요.”

주 동문은 1985년부터 LA는 물론 뉴욕, 이탈리아,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수십번의 그룹전을 가진 중견 화가다. 가장 최근엔 9번째 개인전인 ‘멀리서 보내는 사랑’이 호평을 받았다.

“팬데믹 동안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어요. 내면의 풍경속에서 끝없이 샘솟는 사랑의 샘터를 발견했지요.”

자신의 그림세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연을 좋아하고 하느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요. 요즘은 디지털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물리학도 다운 비전이 묻어났다. “메타버스(Metaverse)에 예술인들의 집을 짓고 싶어요.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 동문은 남가주미술가협회, 가톨릭미술가협회, TAG 갤러리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리학을 계속 공부했다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주 동문은 흘깃 미소를 흘렸다. “아마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취재: 홍선례(음대 70)

“공부나, 노래나” 서울대 택한 홍광식(공대 62) 서수남과 듀오, 동양방송 콩쿨 대상 거머쥐어

공전의 히트 ‘동물농장’ 노랫말 만들어 새바람
KBS ‘TV는 사랑을 싣고’ 출연, 둘의 인연 회고

“닭장 속에는 암탉이 - 꼬꼬댁
문간 옆에는 거위가 - 껍딱
배나무 밑엔 염소가 - 매에
외양간에는 송아지 - 음메
깊은 산속엔 삐꾸기 - 삐꾸삐꾸
높은 하늘엔 종달새 - 종달종달
부뚜막 위엔 고양이 - 야옹”



홍광식(가운데) 동문은 서울대 남가주합창단 단장을 맡는 등 동창회 일에도 적극적이다.

대부분 서수남·하청일 듀오가 불러 히트한 ‘동물농장’을 떠올릴 것 같다. 트로트가 절대강자로 군림하던 시절, 이 노래는 한국 가요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일부 팝음악 평론가들은 “통기타 포크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여서 역사적으로도 꽤 의미있는 작품”이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이 노래를 처음 부른 가수는 그러나 서수남·홍광식이다. 1962년 두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장난삼아 불렀다고 한다. 당시 서수남은 한양대 공대, 홍광식은 서울대 공대 재학생이었다.

서수남은 자신의 블로그에 둘의 인연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홍)광식은 내가 처음으로 만난 음악 친구다. 공부도 엄청 잘했고 기타도 잘 쳤다. 우리 둘은 만나자마자 화음을 맞춰 동아방송 콩쿨대회에 나가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어떻게 서수남·하청일로 듀엣 멤버가 바뀌었을까.

“광식이 어머님께서 아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고 제대후

복학, 졸업한 후 미국에 갔다.”

영원한 ‘노래 짝꿍’이 될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 만년지 불과 1년만에 헤어지게 된 것이다.

‘동물농장’은 작곡자 미상이다. 노래에 가사를 붙인 건 홍광식이다.

‘꼬꼬댁’ ‘껍딱’ ‘음메’ 등 의성어를 넣어 누구나 쉽고 재밌게 부를 수 있게 했다. 요즘은 어린이들 사이에 동요처럼 불려지고 있다.

서수남은 미국에 간 친구가 그리웠다. 지난 2002년 KBS의 인기프로그램인 ‘TV는 사랑을 싣고’에 친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둘은 서울의 KBS 스튜디오에서 만나 부둥켜안고는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홍광식은 “하숙집에서 (서)수남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곡을 썼다”고 60년대를 돌이켰다. 인연이 다시 이어지자 홍광식은 서수남에게 자신이 미국서 만든 곡을 보내줬다.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풀어봐라
하늘로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단다
힘든 것은 잠깐이나 그 열매는 너의 것이니
시련에 부딪쳐도 주저앉지는 말아라”

서수남은 이 노래(아들이)가 맘에 들었다.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여러 차례 불러 한때 가요랭킹 상단에 오르기도 했다.

1971년 미국으로 이민,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는 엔지니어가 됐지만 홍 동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2010년대 초 한국서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중앙일보 서울 본사가 펼치는 ‘멈춰! 학교폭력’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자신이 작곡한 노래 5곡을 보냈다. 왕따지만 날개를 펴고 극복하겠다는 ‘왕따라서



지난 1962년 서수남과 함께 동양방송 콩쿨에서 대상을 거머쥔 홍광식 동문.

미안해’와 자살을 택한 16세 여학생의 넋을 위로하는 ‘내 친구 지나’ 등이다.

홍 동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한국의 인성교육, 역사교육이 실패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이득을 얻는 법만 가르치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독자들의 공감을 샀다.

미국에 와서 처음 15년 동안은 음악을 잊고 살았지만 85년 할머니와 어머니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추모곡을 만들었다. 이후 틈나는 대로 가족과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을 음악으로 담아냈다.

홍광식은 온가족이 서울대 동문이다. 최근 작곡한 형 홍용식(공대 51)은 박정희 정부시절 한국 최초의 탄도유도탄 ‘백곰’을 개발한 국방과학자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UCLA 공대교수)은 그의 조카다.

누나도 서울대를 나와 형제자매가 모두 선후배 관계다. 홍 동문은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 단장을 지내는 등 음악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농장

공전의 히트를 친 동물농장. 국민애창곡이 됐다.

박학선(미대 54) 동문의 이민수기 초대 LA 한인회장 된 사연, 두고두고 화제

특수부대 요원으로 베트남 파병된 최초의 미군병사
CBS '이 주의 인물' 선정, 두 번이나 정계진출 시도

어느 해인가, 서동성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A 초대 한인회장은 '김호'가 아닌 '박학선'이라고 밝혀 한인사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서 변호사는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증손.

김호 역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애국지사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털없는 복숭아, 곧 '천도복숭아'를 개발해 백만장자가 된 김호는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냈다.

박학선은 그러나 무명인사였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증폭됐다.

사정은 이랬다. 1962년 김호가 설립한 남가주 한인 센터는 LA 한인회의 전신이다. 그런데 김호와 송철(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이 회장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했다.

그러자 김호는 영어가 능숙한 박학선에 급히 정관을 만들어 거주 총무처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회장 박학선' 명의로 해서다. 덕분에 박학선은 서류상 일지라도 줄지에 초대 회장이 된 것이다.

박학선은 서울대 동문이다. 미대 54학번으로 1957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공부했다. 초창기 유학시절 그는 영어 때문에 하마트면 쫓겨날 뻔 했다.

그를 구원해 준 이는 어느 여교수. "내가 목숨걸고 영어를 가르쳐줄 테니 내 말을 따르라"고 해 낯담으로 책을 읽었다. "아마 1천권쯤은 읽었을 겁니다." 그가 '영어 박사'가 된 배경이다.

그는 애리조나에서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을 만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에게겐 구태여 설명이 필요없는 분

이다. 그의 제자가 돼 건축 디자인을 공부했다. 라이트에게 배운 한인은 아마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 일지 모른다. 라이트는 1959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59년 박 동문은 뜻하지 않게 미군에 징병된다. "그때 영어로 된 육이란 육은 다 배웠어요." 그 정도로 훈련은 혹독했다.

100여명이 함께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두 동양계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 파병 부대였던 것.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기 전이어서 아시아 출신만 별도로 모아 부대를 꾸린 것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 파병됐는데 현지인들과 생김새가 비슷한 동양계만을 차출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지요."

박 동문은 이렇게 베트남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군 병사가 됐다. 그러나 그의 군 복무기록은 없다. 베트남에 불법으로 침투시킨 부대여서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훗날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군 복무기록을 되찾게 된다.)

사실 그의 미군과의 인연은 6.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의 8군사령부에서 하우스보이로 돈을 벌어가족의 생계에 보탬다.

그때 만난 제임스 밴 플리트 유엔군 사령관은 그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매우 인자했어요.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했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전쟁을 지휘한 참 군인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한 분이셨어요."

2년의 현역과 4년의 예비역 근무를 마친 박 동문은

LA에 와 본격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된다. 건축 사무실을 차렸으나 동양인에 설계를 의뢰할 고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박 동문은 인쇄출판회사(Park's Brothers Printing & Publishing)를 차려 돈을 모았다. 그의 인쇄소는 운전기를 갖추고 있어 당시 갓 LA에 진출한 한국일보를 찍었다.

이어 영문주간지(Hollywood Newspaper)를 만들어 발행인이 됐다. "19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특파원을 보내 취재했는데 LA 타임스보다 먼저 보도해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박 동문은 아시아계 처음으로 CBS 방송사의 '이 주의 인물'(Person of the Week)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CBS는 1년에 한번 '이 주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들을 초청, 만찬을 열었는데 그때 만난 한 흑인 여성의원(Yvonne Burke)의 권유로 정계진출을 결심했다.

1974년 제 22지역구(글렌데일, 패서디나, 버뱅크)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첫 도전에서 3만2천표를 획득, 나름 성과를 올렸다. 2년 후 재도전에 나섰으나 인종의 높은 벽에 막혀 그의 정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출마하느라 재산을 거의 모두 날렸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동양계로서는 물론 귀화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도전한 것이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김창준씨에 이어



박학선 동문은 요즘 글래스 아트에 심취해 있다. 유리가루와 한지를 특수처리해 물감으로 사용하는 예술이다.

지금은 전국에 4명이나 되잖아요. 한인의 정계진출에 씨앗을 뿌렸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박 동문은 '아들 9, 딸 3'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다.

대부분 의대 등 서울대를 나왔다. 이모 석정보는 부부는 물론 '아들 5, 딸 1'가 모두 서울대를 나왔고 사위, 며느리들도 서울대 출신이다.

박 동문에 따르면 54학번은 명실상부한 '서울대 1기'다. 휴전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입학했고, 또 4년 정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다. '물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안영일 화백이 그의 동기생이다.

몇해 전 '이화여대 메이퀸' 출신의 아내와 사별했지만 귀도, 눈도 정정해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다. 비타민류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는 처방약도 없다.

요즘 박 동문은 'Glass Art'에 심취해 있다. 유리가루와 한지를 특수처리해 물감으로 사용하는 예술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여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의 어바인 자택 리빙룸은 스튜디오나 다름없다. 크고 작은 작품이 여기저기 걸려있어 그의 끊임없는 예술혼을 엿볼 수 있다. "작품이 완성되면 전시회를 한 번 가질 생각입니다."

박학선 동문은 성령을 체험한 뒤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고나서부터 요즘은 제 2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임춘택** (상대 68)

LIM AND LIM ACCOUNTANCY CORPORATION

HELPING CREATE THE FINANCIAL
FUTURE YOU DESERVE
SINCE 1988



제10장

삶과 추억

리사이클링의 선구자 - 김영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 이송희

동요 '꽃밭에서' - 권길상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 - 김진형

'서독광부' 대변인 - 장준철

'백곰 탄도미사일' - 홍용식

삼각함수는 나의 수호천사 - 이중희

경평 축구의 산증인 - 오재인



삶과 추억

김영기 회장 (공대 51, 1932~1999)

리사이클링은 ‘도시채광’, 폐기물 수거 분리
‘베스트웨이’ 창업해 부 일귀... 아낌없이 사회 환원

‘4·29’ 폭동 때 주민들이 사업장 지켜 피해 전무
동창회보 발행은 최대 업적, ‘수십만 달러 사재 털어’

지난 1992년 이른바 ‘4·29’ 폭동 때 가장 피해를 본 커뮤니티는 한인들이었다. 무려 2,500여 업소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됐거나 약탈 대상이 돼 한순간에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으로 변했다.

지금은 작고한 원로 언론인 이선주 선생의 회고다. “그 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는 폭동의 진원지에 있었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평소 회사 대표에게 은혜

를 입었던 인근 주민들이 총을 들고와 사업장과 종업원들을 지켜줬지요. 참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김영기(공대 51) 동문. 1980년대 초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LA를 비롯해 글렌데일 등지에 6개나 되는 사업장을 갖고 있었다.

김 동문의 사업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다. 그



김영기 회장.

가 생활폐기물 재생사업에 뛰어든 해는 1973년. ‘베스트웨이 리사이클링’을 창업했다. 당시 리사이클링은 유대계가 독점하다시피했다. 아시아계가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에 처음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는 생일이 3월 23일이다. 이날 고객 사은대잔치를 벌였다. 픽업 트럭과 TV 등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놨다. 인근 주

민들에게는 이날이 ‘대박 터지는 날’이다. ‘한인 사장님’의 넉넉한 마음씨에 칭송이 자자했다. 폭동이 일어나자 인종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모여 폭도들을 쫓아냈다.

그 뿐이 아니다. 언젠가 조선족 할머니가 한국에서 사기를 당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는 선뜻 3천달러를 보낸 적도 있었다. 이선주 선생은 김 동문의 추모문집 서문에서 “김 사장은 인종의 벽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웅변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술회했다.

그의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는 1995년 한해 매출액이 3,500만 달러가 넘을 만큼 성업을 이뤘다. 성공의 원천은 그가 개발 제작한 분리운반시스템(elevated sorting conveyor system). 대형 트럭에 실려오는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하루 40대 트럭 분의 각종 폐기물을 거뜬히 분리해서 한 달 평균 3천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계로 각광을 받았다.



플로런스의 리사이클링 센터. 아시아계 최초로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개척해 성공한 기업인이 됐다.

폐자원 분야에서 그의 뛰어난 경영방식과 기술개발은 미국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은 물론 지난 1988년 아시아경제인협회가 주는 경영자대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70년대 초반만해도 환경보호는 매우 낮은 구호였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지구를 폐기물 오염에서 살리자는 캠페인에 동참,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성공한 사례다. 리사이클링을 통한 환경보호에 포커스를 둔 그의 사업모델은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재생산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지구의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52억 인구가 써대기만 하면 자원이 곧 고갈되고 말 겁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재생산업입니다. 둘째, 계속 쓰지만 하면 쓰레기로 인한 오염은 어쩔수니까. 쓰레기를 재생하면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셋째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폐지를 재생해 쓰지 않고 나무를 계속 잘라 만들어 쓰면 몇년 못가 산림지대는 민둥산이 되고 말아요.”

리사이클링은 폐기물 더미에 묻혀있는 ‘도시의 광산물’을 종류대로 분리해 채광해 내는, 이른바 ‘urban mining’이다.

김 동문은 화공학이 전공이다. 미국에 이민오기 전 한국에서 처음으로 합판용 카본 메탈(carbon metal)을 개발했다. 이어 1964년에는 가발을 개발 생산해 수출하는 데 성공한 것. 특히 가발수출은 한국의 무역입국에 크게 이바지 했을 뿐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쌓는 데도 대들보 역할을 했다. 외화 획득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 1회 수출기념일에 공로상을 받을 정도였다.

그는 만능스포츠맨이기도 했다. 주 종목은 배구. 대학시절부터 주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미국에 와서도 동창회 대항 배구대회에 서울대 대표로 출전해 우승컵을 쓸어담았다. 고교시절엔 ‘평행봉의 귀재’로 널리 알려져 한때 체조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을 꿈꾸



아시아경제인협회 수상자들과 함께. 왼쪽이 김영기 동문.

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전국의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를 하나로 엮어낸 인물로 존경을 받았다. 1992년 재미서울대 동창회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동창회보 발행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각 지부별로 미미하게 존재했던 동창회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주소록을 만들었다.

1993년 6월 15일 드디어 모두의 숙원이었던 ‘재미서울대동창회보’가 첫 선을 보였다. 매달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됐지만 재정은 김 동문이 사재를 털어 해결했다.

그와 오래 교우했던 한 지인은 김 동문을 진한 진보주의자, 강력한 민족주의자로 기억한다. 김 동문은 조국분단을 극복하는데 무언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한다.

1994년 그는 서울대와 김일성대학의 자매결연을 맺기위해 평양 방문을 준비했다. 결연의 목적은 학술연구와 체육교류. 남북이 직접 대화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동창회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평양방문 계획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아 무산되고 말았다.

그는 펄프용 식물재배와 인조장기개발 등에 관심을 쏟으며 연구에 몰두했지만 3년여의 병마와 싸움 끝에 1999년 향년 67세로 눈을 감았다. 아내 김남숙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뒀다.

삶과 추억

이송희 (간호학 46, 1928~2024)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 수훈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지구촌 국가에 도움의 손길
중국 연변, 동남아, 아프리카에 간호대학 설립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1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은 모두 5명이 받았는데 이중 최연장자가 이송희(간호학 46) 동문이다. 이 동문의 이력이 특이해 가장 눈에 띄인다.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서울대병원 재건 및 글로벌 간호인력 양성 등... 이 동문의 공적사유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전투 장교가 아닌데도 무공훈장을 받았으니 이 동문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부상 군인들을 돌봤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터다.

근대의 간호학은 크리미아전쟁(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벌인 전쟁) 때 중군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로부터 비롯됐다. 이송희 동문 역시 역사의 한 증인으로 6·25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 동문은 평북 신의주에서 기독교 가정의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해방이 됐지만 북에 김일성이 주도한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온가족이 38선을 넘는다.

혼란한 시기에도 공부에 관한 열정은 남달라 서울대 의과대학 부속 간호학교(간호대 전신)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취업이 됐지만 얼마 안돼 전쟁이 터졌다.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해 병원에 머물러있었던 그는 어느날 자고 나니 대학병원

시계탑 앞에 국군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놓여있었다고 증언했다. 국군 부상병들이 총살을 당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의 수도 서울 진입이 임박하자 인민군은 모든 의료인력을 청량리역에 집합시켜 북으로 끌고 가려 했다.

이 동문은 강제 북송되기 직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병원에 복귀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국군간호장교에 지원한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곳은 마산의 육군병원. 부상병을 살리기 위해선 많은 양의 수혈이 필요한데 대부분 미국인들이 헌혈한 피가 병원으로 공수돼 왔다. 그걸 보고 미국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훗날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다.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그는 미국연수프로그램

시험에 당당히 합격, 4개월 가량 텍사스의 브루크 육군 메디컬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의 경험이 전역 후 서울대 병원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문은 대학병원 근무 중 서울대 재건 복구사업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선발돼 1년간 미네소타대에서 유학하며 간호 행정을 공부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당시 열악한 간호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썼다. 그가 미국 이민길에 오른 것은 1975년.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자녀 셋을 키웠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저 믿음을 심어준 것 밖에는 없다”고 회고했는데 모두 훌륭히 성장했다. 아들은 예일대에 입학, 의사가 됐고 사위 둘도 UC 버클리를 나와 선교사의 길을 걸었다.

이 동문이 본격적으로 봉사의 길에 나선 것은 1997년 은퇴한 후다. 이듬해 4월 LA에서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을 창설,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가 맨먼저 한 프로젝트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간호대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 총 소요경비는 200만 달러가 넘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걱정 안한다”고 했다.

이 동문은 2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간호대 건축비 전액을 지원했다. 연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다음엔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 간호대(2006년)와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2007년) 설립을 지원한 것.

아프리카에도 도움의 손길을 폈다.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학교(2013년)를 개설했으며 교수진을 파견하고 실습기자재를 지원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시상식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과거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어려운 지구촌 가족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해 감동을 안겼다.

이 동문은 2024년 7월 10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을 기리는 추도식이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서울대 간호대학과 간호대 동창회, 연변과학기술대 간호학부 동창회,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2024년 8월 17일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송희 전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 총회장 추도식에 참석한 간호대 동문들.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총영사관에서 대통령 근조 조기를 보내와 그의 타계를 애도했다.



지난 2015년 10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이송희 동문.



2017년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설명회에 참석한 이송희 동문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삶과 추억

권길상 (음대 45, 1927~2015)

‘꽃밭에서’ 불후의 명곡, 모르는 한국인 없어
전쟁에 상처입은 동심에 꿈과 희망을 심어줘

60년대 초 LA 이민, 남가주 총동창회장 지내
‘무궁화 학원’은 미주 최초의 한국학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 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지구촌 어느 곳에서 살든 이 노래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 노래에 많은 추억을 담고 산다.

동요 ‘꽃밭에서’를 작곡한 이는 권길상(음대 1회) 동문이다. 그가 LA 초기 이민자이고 더구나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동문들 사이에도 그리 많지 않다.

‘꽃밭에서’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상처입은 동심에 희망을 안겨주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은 노래다. 부산 피란시절 어린이 잡지 소년세계에 실린 어효선의 시를 읽고는 즉석에서 곡을 부쳤다. 불후의 동요 ‘꽃밭에서’가 탄생한 배경이다.

그의 부친은 장교로 목사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고 깨면 풍금에 매달려 지냈다. 그의 나이 18세 때 안병원(음대 1회)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인 ‘봉선화 동요회’를 만들어 꿈을 심어줬다. 동네 친구이자 대학동기이기도 한 안병원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노래 ‘우리의 소원’을 작곡한 분이다.

‘꽃밭에서’를 비롯해 매년 5월이 되면 전파를 타

는 ‘스승의 은혜’,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과꽃),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달’(둥근달), ‘푸른 푸른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푸르다) 등 모두 우리 귀에 익은 동요들이다.

한국정부는 1991년 ‘꽃밭에서’의 악보와 예쁜 그림을 넣어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 ‘아름다운 음률과 밝은 가사로 당시 전후으로 얼룩진 동심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동요’라고 설명을 붙였다.

그가 작곡한 동요는 200곡이 넘는다. 그 많은 작품 중 그가 가장 아낀 노래가 ‘바다’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신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신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 가요
저녁바다 갈매기는 행복을 신고
고기잡이 배들은 고기를 신고
넓고 넓은 바다를 노저어 와요”

9.28 서울 수복 후 어느날 우연히 손에 잡힌 프린트물을 뒤적이다가 이 글을 읽었다. 아침 햇빛에 반



권길상 동문의 ‘꽃밭에서’ 동요 모음곡.



(고) 권길상 선생은 제 11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내는 등 동문 커뮤니티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짝이는 드넓은 바다의 수면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고기잡이에 희망을 걸고 있는 순박한 소년의 얼굴도 보였다. 그는 곧 곡을 붙이기 시작했다. 물론 작사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고 구태여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뭔가 애잔한 멜로디에 실린 ‘바다’는 곧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YMCA 빌딩에서 이 노래를 가르쳤고 합창단 어린이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노래를 불렀다. 전국민 애창곡이 된 것이다.

작사자는 노래가 나온지 거의 40년만에 밝혀졌다. 그 역시 서울대 동문으로 문명호(문리대 59)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지은 동시라고 했다.

하마트면 휴지가 돼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인쇄물에 쓰여진 글이 그의 손에 의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노래로 남은 것이다.

그가 LA에 삶의 등지를 튼 건 1964년이다. 넓은 세상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어 형이 살고 있는 LA로 이민왔다. 아직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전이었다. 미국에 와서도 어린이들을 모아 노래를 지도하고 한글을 가르쳤다.

그가 1972년 20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무궁화 학원’은 미주 최초의 한국학교였다. 이듬해 무궁화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모국을 방문, 방송에 출연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등록학생이 폭증하면서 무궁화 학원은 발전적 해체를 맞는다. 남가주한국학원으로 개편되면서 등록학생이 3천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졌다.

1982년에는 가주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어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갖고 4년마다 해외공연도 다녀왔다.

권 동문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노래를 좋아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다보니 평생 어린이 노래를 만들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한 평생을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온 것이 내게는 큰 축복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보고 배우며 내 자신이 세파에 크게 물들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름답고 은혜받은 삶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박상길(농생대 58) 전 회장은 권 동문을 한마디로 ‘신사’라고 요약했다. 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았다.

권 동문은 2015년 3월 13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음악동지 안병원도 한달 뒤 눈을 감았다. ‘바다’의 작사자 문명호 동문도 지병이 악화, 아쉬운 나이에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권길상 동문 부부는 각지의 교회를 순방하며 찬양모임을 이끌었다.

삶과 추억

김진형 (문리대 불문 55, 1934~2024)

‘LA 한인타운의 전설’ 한글간판 달기 캠페인 축제와 퍼레이드 ... 오늘의 K타운은 그의 꿈이 이룬 결실

올림픽과 버몬트 코너에 ‘Dr. Gene Kim Square’ 표지판
LA 시의회도 그의 공로를 인정, 코리아타운 공식 지정



1974년 11월 3일. 김진형(문리대 불문학 55) 동문은 자신의 생일보다 이날을 더 소중히 여긴다. 반세기 전의 일인데도 이날의 ‘사건’이 기억의 한켠에 또렷하게 입력되어 결코 잊지 못한다. 이날은 제 1회 한국

국의 날 축제가 LA한인타운의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막을 올린 날이다.

퍼레이드는 이날 오후 3시로 잡혔는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리는 한산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차량이 띄엄띄엄 눈에 뜨일 뿐이었다. 거의 1년여, 주변의 반대와 무관심에도 뚝심으로 밀어붙였는데... 온몸에 땀이 흘러 땅바닥에 털썩 주저 앉고 싶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퍼레이드 시작 불과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주일 예배를 막 끝낸 한인들이었다. 3만여명(경찰추산)이 발디딜 틈 없이 퍼레이드 구간을 꽉 메웠다. 김 동문에 따르면 ‘운집’이란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LAPD측이 엄청 화를 내더군요. 기껏해봤자 3천명이 올 것으로 예상해 경찰관 대여섯 명을 배치했는데 10배가 넘게 왔으니...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탓이지요.”

김 동문은 대형 태극기 6장을 만들었는데 이를 본 한인들이 감격에 겨운 나머지 눈물을 펄펄 흘렸던 장면을 잊지 못한다.

당시 LA 한인인구는 5만명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해프닝이 적지 않았다. 축제를 왜 11월 3일로 잡았을까. 김 동문에 따르면 이날을 개천절로 잘못 알고 내린 결정이었다. 원래 개천절은 10월 3일인데 행사준비에 경황이 없다보니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이다.

그가 LA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68년, 페퍼다인대학에 유학하기 위해서였다. 한인타운이 없던 시절이어서 잠깐 리틀 도쿄에 머무르며 지냈다. 이때 ‘닛세이(2세)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을 보고 ‘언젠가 우리



LA 시정부가 올림픽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김진형 박사 광장(Dr. Gene Kim Square)’ 표지판을 부착, 코리아타운의 번영을 위해 애쓴 김 동문의 공로를 기렸다.



‘인간 김진형의 꿈’ 출판 기념식엔 동문들도 다수 참석, 축하했다.

도...’ 하며 머릿속으로 ‘한국의 날 축제’를 그려봤다. 그 꿈이 6년 후 현실이 될줄이야.

앞서 1972년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만든 김 동문은 맨 먼저 한글간판 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처음엔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일부에선 미국에서 왜 한글타령이냐며 비아냥대기도 했던 것.

그러자 김 동문은 미국인 가게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간판에 한글을 병기하면 한국인들이 많아 찾아와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 아니냐”며 설득했다. 미국인들이 앞장서 한글간판을 내걸자 그제서야 한인들도 뒤따랐다. ‘코리아타운’의 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자신을 얻은 그는 한국의 날 축제를 밀어붙였다.

처음엔 돈키호테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독불장군, 심지어 정신이상자로 매도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진대 축제 후원금이 건힐리 만무였다. 전 재산 5천 달러를 아무 조건없이 내놨다.

뒷담화를 서슴지 않았던 단체장들이 인파가 몰려들자 오히려 서로 오픈카를 타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졌다.

왜 축제를? 김 동문은 애국심 때문이라고 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그의 대답엔 소탈한 그의 꿈이

묻어있었다. “그저 한국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인들이 미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으려면 한인들의 힘을 과시할 큰 잔치가 필요했어요.”

1981년, 김 동문은 미주 한인이민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친다. 올림픽 거리를 ‘코리아타운’으로 공식지정해 달라는 그의 청원이 LA 시의회를 만장일치 통과,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18일, 제 41회 LA 한인 축제가 시작되는 날, 올림픽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지점에 그의 이름을 딴 표지판(Dr. Gene Kim Square)이 부착됐다.

LA시가 코리아타운 개척자로서의 그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LA시장을 비롯한 시 고위 관계자들과 한인 인사들이 모여 그의 40년 이민생활의 노고를 치하했다. 마침내 ‘김진형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2017년에는 ‘LA 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 - 인간 김진형의 꿈’(저자: 민병용)이 출판돼 그의 공적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김 동문이 뿌린 축제의 씨앗은 싹이 터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매년 10월 코리아 타운내 서울국제공원에서는 나흘에 걸쳐 장터가 열린다.

축제 기간중에는 300여개의 부스가 설치돼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 공연도 펼쳐진다. 요즘은 한류붐과 맞물려 주류 방송매체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어 여러 인종이 함께 즐기는 한마당 문화잔치로 업그레이드됐다. 축제기간중에는 셔틀버스도 운행돼 연인원 40만명의 인파가 몰린다.

그의 혼과 열정이 버무려져 탄생한 한인타운을 보며 문득 김 동문의 말을 떠올린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김진형 광장의 표지판이 후대에 주는 교훈이다.

김 동문은 2024년 7월 26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삶과 추억

장준철 (공대 56, 1937~2001)

60년대초 서독광부 '대변인'으로 파견돼 원어민 수준의 독일어 구사, 대형 교회 성가대 지휘

'한국의 밤' 개최, 슈라인 오디토리엄 6천석 짝 메워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 1983년 '화제의 인물'로 등장

지난 2001년 5월 초 LA의 한 언론매체에 부고기사 (obituary)가 실렸다. '어느 올드타이머의 부음'이란 헤드라인이 달렸다. 부고 치고는 기사가 꽤나 길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술 담배까지 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그가 사업차 애리조나를 방문했던 길에 급환으로 사망했다"며 "아쉬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했다. 향년 64세이니 이른 나이임에 틀림없다.

타계하신 분은 장준철(공대 56) 동문이다. 많은 이들이 동창회 50년 역사에 꼭 기록되어야 할 '다재 다능한' 인물이라는 데 동의, 그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부고 기사를 발견한 것이다.

그의 전공은 기계공학이다. 그런데 기사엔 뜻밖에도 그의 잡 타이틀을 '서독광부'로 표기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가 1960년대 초 서독파견 광부들과 생활한 건 맞다. 광부들의 '입'이 되어 그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서독에 파견된 통역 겸 카운슬러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지 싶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공대 동문들에 따르면 그의 독일어 구사능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고 기억한다. 공대 출신인 장 동문이 어떻게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는지 아는 이는 없다.

장 동문은 서독 근무가 끝나고는 귀국해 3년여 한독실업학교 교무주임을 지냈다. 한독실업학교는 서독 정부의 원조로 설립된 직업기술학교다. 독일 정부

가 당시로서는 큰 돈인 5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해 한국 청소년들의 기술 습득을 도왔다.

미국에 이민 온 해는 1965년. 대학시절 전공을 살려 타이어 및 자동차 수리공장을 오픈해 처음엔 돈을 많이 벌었다.

장 동문은 서독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광부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서독광부 대변인' 역을 자청해 그들을 도왔다.

한인역사박물관이 발행한 한인인명록에는 그가 LA의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한 것으로 나온다.

1968년부터 15년이나 지휘봉을 잡은 것이다. 내로라하는 음대 출신들을 제치고 공대를 나온 그가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장 동문의 음악적 자질 또한 뛰어났다.

1970년엔 '공연 기획자'로 변신한다.

'한국의 밤'(Korean Night)을 슈라인 오디토리엄 (Shrine Auditorium)에서 개최한 것. 사회자는 필립 안. 도산 안창호의 장남으로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날렸던 명품 배우다.

슈라인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 유명 팝스타



장준철(공대 56) 동문. 다재다능한 동문으로 기억된다.

들이 공연하는 LA의 유서깊은 콘서트홀이다.

좌석이 6천석에 이르는 대형 공연장인데도 미어 터졌다. 아마 남가주의 한인 어른들은 거의 모두 공연을 관람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유명 트로트 가수들은 물론 코미디언 서영춘도 출연해 익살을 떨었다. 모처럼 이민생활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준 행사였다.

미국에 이민온 이듬해부터 남가주 거류민회 총무, 부회장이 돼 한인 커뮤니티에 깊숙이 관여한다. 거류민회는 한인회의 전신이다.

장 동문은 1983년 한인사회에서 '화제의 인물'로 각인된다.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다.

사실, 1983년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다.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007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사망했고 버마의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엘리트 각료들이 폐죽음을 당했다.

LA 한인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샌프란시스코 중국계 두목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씨가 한국과 일본 커뮤니티의 끈



1960년대 파독광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통역 겸 카운슬러로 활동했다.

질긴 구명운동 덕분에 풀려났다.

그러나 뒤편이 해도 그해 LA 한인회장 선거는 단연 압권이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열기가 대단했다.

당시 한인 언론은 '서독광부' 장준철 vs. '오투기' 잔 문 두 후보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표현했다. 잔 문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부정이 드러나면서 장준철 후보가 소송을 제기했다. 장 동문은 한인회장 선거와 뒤이은 소송비용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훗날 그는 "한인사회 대표가 부당한 절차로 뽑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소송까지 갔던 것"이라며 "재산을 다 털어넣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강직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장 동문은 이후 서울대 동창회 일에 전년,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지내며 동문 화합에 힘썼다. 장 동문과 가깝게 지낸 이들은 "그가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며 "좀더 오래 살았더라면 동창회의 오늘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라고 애석해했다.

서울대 공대-서독광부-성가대 지휘자-공연 기획자-한인회장 후보 등 다재다능 못지않게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삶과 추억

홍용식 (공대 51, 1932~2022)

한국 최초 '백곰 탄도미사일' 개발 보잉장학금으로 유학, 박정희 초청으로 귀국

'엔지니어링 명가' 차남 데니스 홍은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
남가주 공대 동창회 창립... 대학 대항 배구대회 우승 못잊어

홍용식(공대 51) 박사 가족은 '엔지니어링 명가'로 불린다. 큰아들 홍준서(준) 역시 공대 기계학과를 졸업해 서울대로부터 '기계과 부자 동문상' 기념패를 받기도 했다. 작은 아들 홍원서(테니스)는 UCLA 기계공학 교수.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 단장을 지낸 홍광식 역시 공대 출신(61학번)으로 일가족이 서울대 공대와 연결돼 있다.

홍 박사는 1968년 남가주 공대 동창회 창립 멤버로 제 4대 회장을 맡았다. 당시 LA에서 가장 큰 행사는 대학대항 배구대회였는데 홍 박사가 회장일 때 우승, 서울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의 미국유학은 일제 패망직전 미군의 B-29 폭격기의 서울 상공 출현이 동기가 됐다. 일본군이 고사포를 쏘아댔지만 B-29 고도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폭발,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꿈은 미국에 유학해 B-29 제작사인 보잉에 취직하는 것이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는 꿈에 그리던 보잉에 취직이 됐다. 어느날 한 중국계 엔지니어가 한 말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왜 공부를 더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보잉사의 말단 엔지니어로 만족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는 그 말을 듣고는 고압전선에 감전된 듯 했다고 털어놨다.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보잉의



대한항공 기술연구소 부소장 시절.

장학금을 신청했다.

박사장학금은 그러나 하늘의 별따기. 1년에 단 1명에만 주어진다. 부서 상사의 강력한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게 돼 보잉 본사가 있는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냈다.

이후엔 직장을 보잉에서 정부출연연구소인 'Aerospace Corporation'으로 옮겨 대륙간탄도탄(ICBM)과 위성운반체 등 주로 군사용 미사일 제작연구에 몰두했다. 'Hong & Childs Model'은 홍 박사와 그의 지도교수 이름을 따 만든 것으로 로켓제작에 귀중한 가이드라인이 됐다.

홍 박사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과학자 유치에 호응해 귀국,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선보인 백곰 미사일.

서 근무했다. 당시 심문택 소장으로부터 함께 일하는 제의를 받은 것. 유럽의 방위산업계와 연구소를 시찰한 뒤 ADD 부소장으로 부임했다.

심 소장과의 홍 박사는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 사저



말년의 홍용식(맨 앞) 박사. 뒷줄 왼쪽부터 데니스 홍, 줄리 홍, 민병희 박사, 존 홍.

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바스 리걸을 직접 따라주며 격려했다고 한다. 당시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식사에 함께 자리했다.

홍 박사는 당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목표는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이었으며, 최종 목표가 핵탄두를 운반하는 로켓 개발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로켓 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됐다.

그가 개발에 참여, 성공했던 백곰 미사일은 1978년 박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200km를 날았다. 당시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이었다. 백곰 미사일은 이후 연구가 이어져 오늘날 현무 미사일로 진화했다.

홍 박사는 28년의 한국생활을 청산하고 2002년 미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갑자기 건강악 말기 진단을 받는 홍 박사는 2022년 1월 24일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차남인 데니스 홍 교수는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으며, 삶에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유언을 전했다.

삶과 추억

이중희 (공대 53, 1931~2019)

석유재벌 모빌 환경파괴 밝혀내 산업 폐기물 방출, 추적 끝에 벌금 물려

총무무공훈장 받은 장교에 병역기피 누명 ... 미국행 결심
영어와 삼각함수는 나의 수호천사... USC에서 공학박사

(고) 이중희(공대 53) 박사는 1970년대말 LA 카운티 R&D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메이저 석유재벌 모빌에 벌금을 물려 주류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다음은 이 박사가 생전 구술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 박사는 지난 2019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 편집자.

‘영어와 삼각함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인생의 고비 고비 마다 곁을 지켜줘 내겐 ‘수호천사’나 다름없다.

삶의 ‘공식’을 가르쳐주신 분은 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셨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영어로 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다. 훗날 영어에 주눅들지 않고 말하고 쓸 수 있게 된 건 오로지 선생님 덕분이었다. “영어와 수학, 화학 세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뇌이셨다. 선생님 말씀이 나를 미국으로까지 이끌줄이야 그땐 상상도 못했지만.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뵙게 되면 ‘고맙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

공대 1학년 재학시절 육이오가 났다. 영어와의 첫 대면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전쟁통에서였다. 피란길에서 만난 미군장교가 내게 통역자리를 제의한 것이다. 미 제 7사단 31연대. 거의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기억 한 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영어할 줄 아느냐”는 미군장교의 질문에 “just a little bit”이라고 말해주자 그 자리에서 채용됐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한국인 노무자들을 통솔하려면



자신의 연구소 ‘스탠더드 테스팅 & 엔지니어링’에서 포즈를 취했다.

계급장이 있어야 한다며 ‘중위’를 달아줬다. 허리에 권총까지 채워주고. 줄지에 팔자에도 없는 ‘미군장교’로 신분이 급상승됐다. 그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최전방에까지 가서 통역노릇을 하려니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목숨은 하나 뿐인데. 다시 피란민 대열에 끼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때 우연히 육군본부 공고문에 눈길이 갔다. 운명이라고 해야할지. ‘포병장교 모집.’ 눈에 확 들어왔다. 잠깐이나마 ‘미군장교’도 해 봤는데.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삼각함수.’ 내겐 ‘식은 죽 퍼먹기’였다. 갑종장교 19기로 당당히 합격한 나는 수도사단 포병 관측장교가 됐다. 포병출신이라면 관측장교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를 알 터. 포 사격을 유도하려면 적진 아주 가까

이 가야 한다. 그러니 목숨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고급장교들은 후방에서 ‘핑까핑까’하는데 내 처지가 참으로 초라했다.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복무에 충실했다. 그런 내게 정부가 보상을 해줬다. ‘총무무공훈장’을 받은 것.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 훈장에 대해 알아봤다.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등 네가지다. 이 중 충무는 세번 째 등급. ‘직접 전투에 참가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그 공적을 군 내외적으로 선양

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기술대 있다. 내 스스로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생과사를 술하게 넘나들었지 않은가.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미국 연수.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시험과목 역시 ‘영어와 삼각함수’였다. 그렇게 미국과 연을 맺었다. 두번 째 연수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준장)과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겐 지금도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입력돼 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자 내게 ‘무조건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 그때 만일 귀국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글썸~.

대위로 예편한 나는 조폐공사에 취업했다. 시험과목 또한 ‘영어와 삼각함수.’ 참으로 끈질긴 인연이 아닌가. 조폐공사 시절은 내겐 악몽 그 자체였다. 미국행을 결심한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당시 모두 14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던 걸로 기억한다. 응시자격은 공대졸업자와 군필자로 제한됐다. 입사하고 보니 부정이 군대보다 더 심했다. 공대 출신은 극소수, 심지어 군미필자도 여럿 됐다. 결국 내 ‘입방정’이 탈이 됐다.

공정치 못한 처사에 항의했다가 그만 ‘잘리고’ 말

았다. 그것도 군기피자로 내몰려. 무공훈장까지 받은 장교에게 누명을 씌우고 치욕을 안긴 대한민국이 저주스러웠다.



지난 2007년 출간한 저서 ‘미국 와서는 안될 사람, 미국오면 행복한 사람.’

군복무 시절 두 번이나 밟았던 미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결심했다. 그 때가 1965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진 돈은 달랑 45달러. 막상 LA에 오고나니 막막했다. 빌딩 청소 등 막노동을 하며 1년 여를 거지들과 섞여 홈리스로 살았다.

처음 잡은 일자리가 플린트코트(Flintkote)라는 종이회사다. 몇 블럭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엄청 컸다. 기능공으로 들어갔는데 운 좋게 사장 눈에 띄었다.

당시 종이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는 등 하자가 생겼는데 아무도 원인을 발견 못한 걸 내가 찾아냈다. 조폐공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문제를 해결해 낸 것이 ‘발탁’의 계기가 된 것이다.

웁슨 하비. 사장 이름이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른다.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로 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의 부관을 지냈던 분이다.

어느날 사장이 내게 “미국 대학에서 더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뿔뿔이 기뻐서나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데 무슨 공부~.

사장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봉급은 그대로 줄테니 너는 그저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의 감격이란. 내게 미국은 마음이 넉넉한 그런 나라였다.

내게 평생직장은 LA카운티 위생환경청(Sanitation District)이다. R&D 담당 엔지니어가 돼 드디어 내 원래 전공을 찾은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쫓는 자에게 문이 열려있다고 했는가. 이곳서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다. 사학 명문 USC에서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내 돈 한 푼 안들이고 정부 돈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 병 연

제41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 68

PARKVIEW Gallery
www.houseofwriters.org

로 박사학위를 땀다.

하지만 내겐 박사보다 더 소중한 자격증이 있다. 그 어렵다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E), 시빌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두 부문에서다. 정부기관에서 내가 PE라고 하면 다들 경의를 표한다.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카운티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메이저 석유회사인 모빌에 벌금을 물린 '사건'이다. 1970년대 말 토런스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무 이유없이 설사 구토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카운티의 연구인력이 총동원됐으나 도무지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내 생각엔 모빌이 주범인 듯 했으나 물증이 없었다. 궁리 끝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헬기 지원요청을 했다. 내가 PE라고 신분을 밝히자 선뜻 헬기를 보내줬다. 밤낮으로 정유소 주변을 비행하며 사진을 찍었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모빌이 밤에 몰래 유해 산업폐기물을 방출하는 현장을 잡아낸 것. 결국 거대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회 컨퍼런스에 초청돼 주제발표를 하는 영광도 안았다. '부상'으로 미스 아메리카 여성들과 사진을 찍는 기회까지 잡았으니.

내겐 '부업'이 하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인 LACC에서 야간 클래스를 맡아 수학을 가르쳤다. 그땐 미국 대학 학위가 없었는데 그래도 칼리지 측이 내 실력을 인정해 선뜻 자리를 내줬다.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동양인에 차별없이 기꺼이 기회를 준 대학 측의 처사가 고마울 뿐이다.

낮에는 카운티 엔지니어, 밤에는 칼리지 수학선생. 그런 '이중생활'을 무려 27년 동안이나 했다면 누가 믿을까. 미국선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 않나 싶다. 돈에 대한 집착보단 성취욕이 더 앞섰다고 자부한다.

사실 내게도 '금의환향' 기회는 있었다. 카이스트(KAIST)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수진과 의견을 나누며 대학 측이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봤다. 맘에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를 만날줄이야.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못되네. 당장 떠나게." 그의 호통에 다음날 군말없이 가방을 싸들고 떠났다.



미국 연수시절 미군장교부인들과 함께.

카운티에서 정년 퇴직한 후 평생의 꿈이었던 나만의 연구소(Standard Testing and Engineering, Inc.)를 차렸다.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구소를 꾸렸다. 하수도 부식과 방지, 토양조사, 산업폐

수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했다.

이제 내 나이도 '졸수'(90세)에 가까워온다. 지난 해말 연구소를 닫을 요량으로 클라이언트 회사들에 서비스 종료 편지를 보냈으나 '항의'가 빗발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상태다. 그래도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은 아니구나 싶어 한편으로 내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미국에 등지를 튼 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는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정직, 근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꼭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다. 지난 내 삶이 이를 입증해준다.

삶과 추억

오재인 (치대 32, 1912~2015)

동창회 발족 기틀마련 ... 2·3·4대 회장 한인치과협 창립해 미국 라이선스 취득 길 열어

조선축구대표팀 선수로 일본에 '20-0' 통쾌한 승리
'청운 장학회' 불우청소년 도와, 박사 100여명 배출

초대 남가주한인치과협회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최고령 치과의사, 4대 의사 집안, 일제강점기 경평축구선수 등등. 오재인 박사는 이처럼 수많은 수식어를 달았던 분이다.

1969년 LA에 이민온 오 박사는 미국면허를 따지 못해 봉제공장 등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던 한국치과의사들을 위해 재미한인치과협회를 창설, 로비를 통해 미국면허를 취득하는 길을 열었다. 당시 장기열, 오수남 등 동문들이 미국 라이선스를 취득해 한인타운에 개업할 수 있었다.

지난 2005년 남가주 한인치과협회장(회장 김학천·71학번)은 초대 회장으로 협회의 기틀을 마련한 오 박사에게 협회가 출간한 '35주년사'를 헌정했다.

1932년 서울대 치과대 전신인 경성치과대학에 입학해 1938년 졸업한 그는 "당시 120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됐는데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인은 20명에 불과했다"고 술회했다.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와 대한치과협회장 등으로 재직하며 열악했던 초창기 한국 치과계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박사는 4대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가문이다. 부친 오명량은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의 내과 의사

였고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장남 오홍조, 장손과 손자 머느리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 박사는 한국축구의 산 증인이다. 일제강점기 유일한 조선축구팀이었던 경성치과의전 축구단의 멤버로 이름을 날렸다.

"경성치전을 다닐 때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로 일본에 가서 원정경기를 가졌는데 2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상대 팀이 일본을 대표하는 강팀이었지만 우리에게 주눅이 들어서였는지 제대로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놀란 기록을 세웠지. 20대 0으로 이겼어요.

축구사상 유례가 없는 진기록이었고 특히 일본을 그렇게 큰 스코어차로 이겼다는데 대한 자부심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경성과 평양을 오가는 경평축구대회 선수로도 맹활약했다.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붙잡혔지만 재판관이 함께 뛰었던 평양 측 선수여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화는 유명하다.

LA에 와서도 재미한인축구협회를 창설했으며 월드컵에선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할 정도였다.

지난 1992년에는 재미한인축구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주 땅에 둥근 한국인 축구'(260페이지)를 펴내기도 했다. 화보만 3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오재인 박사.

미주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의 현주소까지 기록했다. 앞서 1991년에는 은혜한인교회 운동장에서 '청운 오재인 박사 사회공헌 기념 축구대회'가 열렸다.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는 선수와 가족, 응원단 등 거의 1천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그의 호를 따 1983년 만든 청운 장학회는 20여 년간 한인 불우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고 한국학교 설립을 지원했다. 이 장학회를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은 400여 명으로 이 중 교수와 박사가 100명이 넘는다.

1974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발족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오 박사는 2·3·4대 회장을 연임해 동창회의 기틀을 잡았다.

오 박사는 "초창기 동창회는 총회를 겸한 신년회를 가졌고 송년회, 학술강연회, 골프대회, 회보 발행 등

많은 일을 했다"며 "특히 학술 강연회는 동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거나 유명인사를 초청해 열었는데 호응이 매우 컸다"고 회고했다.

오 박사는 지난 2015년 2월 7일 만 10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 최초의 '수퍼 더비'인 경평축구대회.

KYUNG MOO KIM
CPA

김 경 무
제48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 공대 69

KYUNG MOO KIM

Tel: (213) 616-1390
Fax: (888) 811-9490
Cel: (213) 210-1110
Kyungmookim@yahoo.com
114 Washington Blvd. #C
Marina Del Rey, CA 90292

50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양 은 석 음대 70

Pacific Testing Laboratories

50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박 혜 란
음대 73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50TH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제11장

우리는 동문부부

신건호 · 방효신

조만연 · 김옥동

백정현 · 박혜옥

정만영 · 이인전

나천택 · 최영희

김경무 · 최정희

이찬용 · 장난희

이규상 · 오정은

독고량 · 서정화

아울러 공대 입학 60주년을 기념하여...

공대 64학번

강충원(전기) · 김희창(원자) · 박영호(섬유)

박홍근(전기) · 위종민(자원) · 이용한(전기)

오계환(응물) · 오세혁(화공) · 정재훈(금속) · 진성호(금속)



신건호 법대 53 · 방효신 약대 56

1963년 결혼과 동시 LA 주재 영사 발령 박정희 대통령 부부에 콩나물국 대접

외조부가 서울대 총장 최규동 박사, 6·25때 남북
150여개국 여행, 카메라에 담아 사진 전시회 열어



신건호·방효신 부부.

요즘은 서울대 전체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거의 40%선에 육박하고 있지만 50~60년대만 해도 여학생은 아주 드물었다. 그래서 여학생을 일컬어 우스개로 '희귀동물'이라고 불렀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캠퍼스에서 만나거나 소개팅으로 동문끼리 부부의 연을 맺는 확률은 600대 1로 매우 낮았다. 이같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백년가약을 맺은 동문부부들을 만나 이들의 달달한 러브스토리나 삶의 애환을 들어봤다. - 편집자.

신건호(법대 53)·방효신(약대 56) 부부가 LA로 이주한 건 1963년이다. 이때부터 남가주를 떠난 적이 없다. 서울대 동문은 커녕 한인도 찾아보기 어려울 때다. 아마 남가주 제 1호 서울대 동문이 아닌가 싶다.

부부의 삶을 지배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꼽으라면 '세계로'가 될 터. 틈만 나면 훌쩍 어디든 떠난다. 지금까지 150여 개국은 족히 다녀왔다.

방 동문은 15년째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최소 한 차례는 전시회를 열 만큼 그의 사진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나요?

"당시는 여자가 먼저 그런 말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예요. '남녀칠세부동석' 시대여서 같은 동기끼리라도 경어를 썼으니까요. 졸업 후 제약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법대 선배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미혼인줄 알고는 법대 동기생들 중 가장 '스마트'한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요즘말로는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할까요.

- 결혼은 언제 하셨죠.

"1963년 미국에 오던 해에 했어요. 남편이 외무부(외교통상부)에서 근무했는데 LA 영사로 발령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식을 올렸지요.

- 그럼 시집살이는 안하셨겠네요.

"하하. 시부모님께 인사 몇번 드리고 비행기 탔어요. 남편이 장남인데 시댁에 참 면목이 없어요. 친구들은 제가 '복받은 여자'라고 부러워들 했어요. 그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방효신 동문의 그룹 사진전시회에 참석한 내빈들.

서 남편한테 평생 잘 하며 살고 있습니다."

- 신 선배님은 법대 수석입학했다고 들었는데...

"(쓱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언제쩍 얘기인데... 난 청주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운이 좋아 수석을 했나 봅니다. 주변에선 시골에서 용이 났다고 놀려댔는데 사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학은 자신있었거든요."

- 1960년대 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LA를 방문했어요. 콩나물국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한국식품점(제퍼슨 스트리트)에 가서 장을 봐 해 드렸어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육영수 여사께서 100달러를 주고 가셨어요. 영사관 살림에 보태 쓰라고. 당시는 큰 돈이었어요. 나라 살림이 무척 어려웠던 시절인데..."

- 형제 자매 중 서울대 동문이 있나요?

"남동생 부부(방효준·이정은)가 의대 58학번 동기예요. 동생은 글렌데일 애드벤티스트 메디컬센터 병원장을 지냈는데 서부에선 손꼽히는 심장내과 전문의예요.

저희 집은 서울대 총장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제 4대 총장을 지낸 최규동 박사가 제 외조부세요.

6·25 때 피란을 가지지 않고 대학을 지키다가 남북돼 평양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을 수복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 평양에 입성하자 외삼촌들이 유해를 수습해 경북 성주의 선산에 모셨습니다.

외조부는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를 인수해 교육사업에 전념하셨지요.

196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아주 올곧은 학자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 여행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몇개국이나 다녀오셨나요?

"여행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몇개국이나 다녀오셨나요?"

"어림잡아도 150개국은 넘을 것 같네요. 유엔회원국은 거의 모두 섭렵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문 기네스북에 올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남극도 두번... 최근에는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도 갔다 왔어요. 결혼 60주년 기념으로요. 저희 부부는 평생 직장생활을 해서 2주 휴가를 해외여행에 맞춰 썼어요. 아마 지구를 10바퀴는 넘게 돌았을 것 같아요."

- 두 분이 워낙 금슬이 좋아 평생 부부싸움은 안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지내는 비결이라면.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싸움 틈이 없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는 문제가 있는 부부라네요. 피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고 머지않아 갈라설 수도 있다는 거지요. 틈틈이 싸우고 화해해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갑니다. 하하하."(신건호)

우리는 동문부부

조만연 상대 경제학 58 · 김옥동 사대 화학 58

문과생 남편, 이과생 아내의 '인생 드라마' 충청도 농촌계몽운동 현장에서 만나, 연 맺어

‘문학부부’로 평생 살아 ... 수필집 ‘부부’ 펴내
“남편은 최고의 휴머니스트이자 로맨티스트”



조만연·김옥동 부부.

남편은 문과(경제학), 아내는 이과(화학). 전공이 너무 달라 접점이 없어 보인다. 직업도 남편은 CPA, 아내는 의대 연구원(UCLA 메디컬 스쿨 생리학 연구실) 출신이다.

공인회계사가 의대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가 없을 터다. 그런데도 부부는 대화가 늘 끊이지 않는다.

‘문학부부’여서 그렇다. 남편은 수필가, 아내는 등단 시인이다. 고회기념문집으로 ‘부부’라는 수필집도 함께 펴냈다.

- 두 분이 만난 것도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1960년 대학 3학년 여름방학때 충청남도로 농촌계몽운동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는 잠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저이가 ‘동생이 화학과를 지원하려는데 조언을 부탁한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핑계를 댄 거지요. 하하하(김옥동).

1964년에 집사람이 쓴 시가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너무 반가워 편지를 띄워 데이트를 신청, 다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드라마틱했지요. 만난지 7년만인 1967년 5월 6일 결혼했습니다.(조만연).”

- 동문이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동질감, 동등의식이 있어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58학번 동기잖아요. 첫 만남부터 평생을 친구이자 연인으로 살고 있어요.

“동생이 화학과를 지원하려는데
조언을 해달라며 접근했어요.”

요즘은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상대에게서 ‘내 자신’을 느낍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걸 실감해요.”

- 가장 기뻐던 순간은?

“1967년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2008년 우리 부부의 7순기념으로 책을 펴냈을 때.

제가 쓴 수필 70편과 신문에 게재됐던 아내의 에세이 30편을 담았습니다. 타이틀이 ‘부부’예요.”

- 언제부터 글쓰기를 하셨나요.

“여니 가정처럼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1남2녀) 교육과 뒷바라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우리 부부의 공동관심사인 글쓰기에 몰두했어요.

일하고, 여가시간을 글쓰기에 매달리느라 사실 싸울 틈조차 없었어요. 특별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공허라든가 아픔도 서로의 글을 읽고 알아차려요.”

- 서로 작품평도 하나요. 자칫 지적질을 한다고 화를 낼텐데...

“우린 글을 쓰고 나면 다듬기 전에 먼저 서로 보여 줘요. 그리고 돌아오는 평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지요. ‘제 2의 나’가 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듣는 따끔한 지적을 듣고 있노라면 진정한 생의 감사가 느껴져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점을 솔직하게 일깨



조만연·조옥동 동문이 칠순 기념으로 함께 펴낸 에세이집 ‘부부’.



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 말고 누가 있겠어요. 이것이 저희 부부의 축복입니다.

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칭찬보다 눈에 거슬리는 점을 잡아내 지적을 해줍니다.”

- 이과생이 시를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문인으로서 아내가 제 선배지요. 고등학교 때 선생

님이 시인이 되라고 했을 정도로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이미 일간지에 시가 실렸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김옥동 동문은 1997년 미주한국일보가 주관한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다. 조만연 동문 역시 지난 1999년 순수문학으로 등단, 부부가 함께 문학의 길을 걷게 됐다.)

- 아내가 본 남편은 어떤 분인가요.

“남편은 최고의 휴머니스트이자 로맨티스트예요. 동감내이지만 수필가로 살아가는 남편이 늘 자랑스럽고 선배대접을 하고 싶어요.”

- 가족 중 동문들도 있나요?

“형 조화연(법대 56)은 물론 사촌 김태동(상대 65), 김정진, 김경한, 김승한 등 꽤 많아요.”

- 인생 선배로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가운데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부가 ‘친구’로 대하고 살아간다면 다툼이 일어날 까닭이 없어요.”

백정현 음대 66 · 박혜옥 간호대 69

‘Friday the 13th’에 결혼, 축복 두배로 받아 비행기 티켓 외상... 300불로 시작한 이민

충청도 고향에서 대학물 먹은 건 처음... 공주의 자랑 ‘찰떡 금슬을 원하세요? 탠덤 바이크 한번 타보세요’



백정현·박혜옥 부부.

- 두 분의 만남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KBS에서 PD로 근무할 당시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했어요. 각 대학을 순례하며 제작했는데 대학마다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등 인기가 대단했지요. 이왕이면 모교인 서울대를 출연시키려고 간호대 동창회를 접촉했어요.

- 처음부터 불꽃이 튀었나요?

“한눈에 반했지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저 덤덤한 인상이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집사람은 졸업하자 제주대학 간호대로 발령이나 훌쩍 떠났어요. 그래서 전화로 안부나 물을 차지였습니다. 이리다가 우리 사이가 식어질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청혼을 하고 서둘러 예식장을 잡고...”

KBS 방송국 바로 아래에 있는 LCI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는데 하루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 황재’하며 짹짜게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놓칠세라 선금까지 지불하고요.

며칠 후 정신을 차려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날 하루가 비어있는 거지? 문득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날이 알고 보니 바로 ‘Friday the Thirteenth,’ 기독교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이른바 ‘13일의 금요일’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날. 그러

박혜옥 동문은 제 40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처음으로 원로동문초청 오찬 모임을 개최하는 등 회장 재임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백정현 동문 역시 동창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도울만큼 열성적이고 또 열정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자전거를 타고 대륙을 횡단, 한인사회에 ‘바이크 열풍’을 일으켰다.



가족이 모두 산악자전거 마니아다.

니 어느 누가 그 날짜에 혼례를 올리겠어요?

처음엔 결혼식을 연기할까봐도 생각해 봤지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 날짜에 결혼하면 왠지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 같기도 했고... 1975년 2월 13일 금요일.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 미국엔 언제 오셨나요?

“우린 모든게 속전속결이었습시다. 결혼식 마친 다음 세종호텔에서 3일 묵고는 곧바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지요. 돈이 없어 비행기 값은 후불로 샀어요.”

- 아니, 비행기표를 외상으로 샀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니 우린 신혼여행을 고된 이민생활로 시작했네요. 당시는 이민자에 한해 외환은 행에서 1천달러를 바꿔줬어요.

결혼 부조금과 퇴직금,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장만한 이민 정착금이 1천500달러 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뉴욕에 도착하고 보니 수중에 달랑 300달러가 남아있더라고요.”

- 혹시 사기 당하셨나요?

“아뇨.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고급 카메라를 사갔고 미국에 가면 두배로 팔

수 있다고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거금 1천200달러를 주고 카메라를 샀지 뭐니까.

뉴욕에 와서 팔려고 하니 반값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 팔지 않았더니 주머니에 300달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고생한 건 생략할게요.

그때 얻은 인생교훈이 있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는 걸 저희 부부는 체험을 통해 터득했지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 가족 중 동문들도 있나요?

“동문은커녕 제 고향 충청도 촌에서 대학물을 먹은 건 저 혼자예요. 그것도 서울대를 나왔으니 당시 고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공주의 자랑이었다니까요.”

-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싸움은 많이 해요. 그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우리 부부는 2인용 탠덤 바이크(tandem bike)를 즐겨 타요.

둘이서 같이 페달을 밟으면 기쁨도 두배로 늘어나고. 탠덤을 타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 감정의 골이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데이트를 하는 기분입니다.

몸이 약한 집사람이 원래 운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카약을 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뉴포트비치에 가서 카약을 빌려 타봤는데 차 위에 싣고 내리기가 보통 힘이 든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리 끝에 둘이 타는 탠덤 바이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탠덤 바이크 하면 단순히 페달을 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예요.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호흡하며 함께 동행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지요. 찰떡 금슬을 원하세요? 탠덤 바이크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동문부부

정만영 약대 66 · 이인전 약대 68

약대·농대·공대·의대·법대 등 춘천의 수재집안
“딸은 타지로 못보낸다”... 여동생만 비서울대

제약회사 선·후배로 만나, 첫 눈에 반해 부부의 연 맺어
“아내가 더 현명” 인정하고 나니 51년째 화목한 가정



정만영·이인전 부부.

“
남자 신입사원 첫 인상이
너무 좋아 반했어
”

정만영 동문은 다섯 형제가 모두 서울대를 나와 강원도에서는 손꼽히는 수재집안이다. 모두 춘천고·서울대 동문이어서 더욱 그렇다. 강원도의 ‘독수리 5형제’로 명성을 날렸다.

여니 부부와는 달리 부인 이인전 동문이 정 동문에 반해 적극 구애, 결혼에 골인했다고 한다. 부부의 얘기를 들어본다.

- 두 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ROTC(8기) 장교로 2년 복무한 뒤 일동제약에 입사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꼭 1년 교제한 뒤 결혼했습니다. 1973년 10월 9일 서울의 혜화동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올렸어요.

1년 후 첫 아이 진희가 태어났는데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

“아뇨. 제가 실험실에서 근무했는데 1972년 7월의 어느날, 생산부의 신입사원 한 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첫 인상이 너무 좋아 한 눈에 반했지 뭐예요. 하하하. 제가 남편의 대학 2년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어요.(이인전)”

- 미국엔 언제 오셨나요?

“1982년 5월 5일. 날짜도 정확히 기억해요. 미국에서 서울대 학점을 전부 인정해 주지 않아 USC에서 모자란 학점을 채우고 1985년 졸업, 부부가 함께 약사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 두 분 약대 동문이어서 살면서 다툼은 없었겠네요.

“웬걸요. 우리는 둘다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동문이라는 연

결고리로 이제까지 51년 동안 이혼 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하하. 솔직히 집사람이 저보다 더 현명해요. 제가 양보할 수밖에요.”

- 형제가 모두 동문이라고 들어요.

“저희 집은 5남1녀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다섯 형제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둘째는 정광수로 농과대, 셋째 정승영은 공대 기계과를 졸업했구요.

넷째 정일영은 의대, 다섯째 정길영은 법대를 나왔습니다. 여섯째는 정미영 누이동생인데 아버님이 딸을 타지로 못보낸다고 고집을 하셔서 결국 춘천에 있는 강원대를 나왔습니다.

실은 부모님이 장남인 저 다음으로 딸을 원하셨는데 계속 아들이어서 다섯 형제가 됐습니다. 여섯번째 드디어 딸을 낳으셔서 소원(?)을 이루셨어요. 부모님이 곁에 두고 금지옥엽으로 키웠지요. 누이 동생도 공부를 엄청 잘 했는데... 아깝지요.

저희 오빠 이진영도 동문이에요. 공대를 나왔습니다.(이인전)”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모두 ‘영’자 돌림 같은데 바로 아래 동생 분만 이름이 ‘광수’네요.

“네, 둘째만 ‘영’자 돌림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우리집에 들렀는데 동생을 보고는 이름을 ‘영’자 돌림으로 지으면 단명한다며 이름을 바꾸라고 했대요. 그래서 ‘광수’가 됐습니다.

저희는 집안 대대로 가톨릭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심이 돈독한데도 아들이 불운할 것이라는 그 스님의 예언이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스님의 말을 따른 덕분인지는 몰라도 동생은 농과대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취득, 이명박 정부시절 산림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하하하.”

- 부모의 뒤를 이은 자녀도 있나요?

“딸 진희와 아들 건우 모두 의사가 됐습니다. 약사는 아니지만 같은 헬스케어에 종사하고 있어 부모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되겠지요.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동창회 50년사에 저희 부부와 가족 얘기가 실려 정말 영광입니다.”

나천택 공대 건축과 68 · 최영희 사대 불어과 70

캠퍼스에서 즉석 미팅, 축제 파트너가 반려자로 서울대 배지 달고 시내버스타면 모두 훑어봐

가족중 동문 많아 모이면 동창회 분위기, 불화 없어
나 동문은 바둑 아마 8단, 부부가 멕시코 오지 선교사

대학 캠퍼스 축제 파트너가 평생 반려자로 사랑하고 섬겨온 50년.

나천택 동문은 바둑 동호회인 서기회(서울대 기우회)의 지도사범으로 아마 8단이다.

부부는 멕시코 후아레즈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심한 살해 위협 도시였던 시절,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10년 반을 섬기고 돌아왔다. 학생시절 최영희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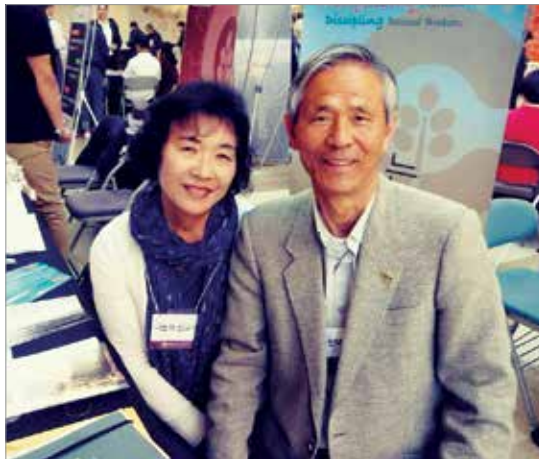
문은 버스 승객들이 서울대 배지에 눈이 가면 위아래로 좌악 훑어보는 무례함이 불편해 아예 배지를 안 달고 다녔다고 한다.

-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1학년 때 공대 캠퍼스에서 교양과정부 과정을 이수했어요. 여고 동창 셋이서 교실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가 등 뒤에서 불렀어요. 지금처럼 휘청하니 키 큰 나천택씨와 또 한분이셨어요.”

- 첫 인상은요?

“착한 사람 같았어요. 우리 셋은 몇시간 후 교내 다방에서 세 남자선배들 앞에 앉았고 가슴이 콩당콩당... 축제 파트너로 ... 그렇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나천택·최영희 부부.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졸업하던 해 12월 17일 결혼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설악산에 도착했는데 그해 첫 눈이 내렸어요. 금년이 결혼 50주년이군요.”

- 남가주 동창회 창립했수와 같군요. 동문이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사랑도 결혼도 안하려던 새침떼기였죠.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굳혀져 있었거든요.”

- 그래요? 뜻밖이네요.

“문학소녀였던 제가 섭렵한 세계문학전집에 다루어진 사랑은 모두 남자의 배반으로 끝났고 눈물이 일상이었던 제 이모의 삶.

또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학생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하지만 2학년 때 수업중 ‘영희야, 그 사람 또 왔어’ 몇년 후 그는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남자라고 결론 짓고 제 삶을 송두리째 맡기게 되었습니다.”

- 나천택씨가 로또 당첨이네요.

“아뇨. 제가 당첨된 거예요. 계속 거절하면 다들 떠나던데 나천택씨에게 썩워진 콩깍지는 아주 특별했 나봐요.”



부부는 멕시코의 범죄도시 후아레즈에서 1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폈다.

- 미국에는 어떤 계기로?

“저는 불어교사였는데 언어 훈련차 프랑스에, 남편은 사우디에 현장소장으로 각각 떠났더랬죠. 유럽을 구경한 저는 서울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세 자매가 유학와서 눌러앉은 LA에 겨울 방학때 방문해 보니 언니 집 뒷마당의 바베큐 파티, 하얀 요트, 푸른 바다의 산타바바

라는 꿈나라, 산타모니카도 그 시절엔 아름다웠어요. 미국사람이 든 저는 건축부장으로서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던 남편이 “볼티나게 분양되는 데 우리도 하나 할까”는 제안에 시큰둥했고 저는 돈을 몰랐어요.

안전한 삶 보다는 개척하고 스틸있는 삶을 좋아하는 그인지라 넓은 땅, 술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에 자신감 넘치는 그였고 막힘이 없던 인생길에 아낌없이 다 버리고 떠나왔죠.”

- 슬하에 자녀는?

“아들과 딸 둘을 주셨는데 아들과 첫 딸은 결혼, 5명의 손자손녀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고 사위목사는 미국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교회, 일, 가정에 정신없이 바쁘고 행복하던 시절, 열심 신앙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새벽마다 이 땅의 복을 구했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저희들 것인 줄 착각했었습니다. 평탄대로가 어느새 광야로 바뀌고 길도 없는 사막을 힘들게 걸으며 목말라 휘청거렸죠.

‘롤모델’, ‘장래가 가장 기대되는 친구’ 등으로 뽑혀 고교앨범에 장식되던 막내아이가 감기와 과로, 왕

따, 디프레션으로 잠만 자고 딜루전-차 사고-하나님의 보호-병원침대에서 떨어져 사망-장기기증... 용서를 구하는 딸의 친구를 딸도 저도 용서했지만 이 기가 막힌 막내의 삶에 이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지요.

비탄과 자책으로 가슴이 아파 매일 밤마다 울던 어느날 밤 갑자기 통증이 없고 온 방

안에 딸이 병실에서 마지막 부르던 찬양 ‘Amazing Grace’가 천상의 소리인가 싶게 흘렀어요.

‘Power of Love’에 이어 그날 불렀던 두 곡. 기쁨과 경이로움에 어리둥절, 가슴통증이 전혀 없어 살며시 보니 웬 손이 아프던 제 가슴을 쓸어주더군요. 남편인가 하고 제 옆을 보니 그는 반듯이 누워 잠들어 있고, 웬 손일까? 순간 성령님임을 깨달았어요.

제 속깊은 아픔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 밤마다 같은 시각 되풀이되던 천국은 105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에 숨죽이며 10년이나 못들은 척하며 미루어온 부르심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어 후아레즈에 갔죠.”

- 가족중에 서울대 동문이 있나요?

“예, 사촌들, 조카 둘, 저희까지 여덟이군요. 경제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금속과, 토목과, 영문과, 언어학과...”

- 남기고 싶은 말씀은?

“흠투성이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쏟아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문부부

김경무 공대 69 · 최정희 간호대 72

회장 취임식장엔 ‘기록적’ 인파 몰려 고등학교 때 교회 성가대원으로 만나

가족중 동문은 “세봐야 알겠는데…”
부인은 한 병원서 44년째 ‘근속 중’



김경무·최정희 부부.

“
누가 고항동이 어디냐고 물으면
인사동이라고 해요
”

지난 2023년 2월 4일 열린 김경무 동문의 남가주 총동창회장 취임식은 ‘레코드’였다.

300여 동문 및 가족이 행사장인 노획의 더블트리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을 꽉 채웠다. 예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량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기록’을 세운 것.

부부가 동문인 점도 도움이 됐다. 이날 공대 동문은 정확히 59명, 간호대도 18명이나 참석했다. 여기에 서울대를 나온 고교 동문(경기고·경기여고)들도 ‘눈도장’ 찍기에 바빴다.

이날 김 동문의 동기 한 분은 “회장은 아무래도 돈 쓸 일이 많을테니 내가 좀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기부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요?

“인사동에서요. 승동교회라고 역사가 130년이나 되는 유서깊은 교회지요. 신자가 한 700명 쯤 되는데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 그 많은 신자 중에서 눈에 띄었나요?

“성가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람은 경북여중(대구)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성가대원으로 만났지요.

참 (미래의) 장모님도 성가대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해야겠지요.

장인어른은 승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부부 모두 ‘모태신앙’입니다.”



김경무·최정희 부부는 직계가족 중 상당수가 의대를 졸업했다. 장남이 전통을 이어받아 의사가 됐다.

- 결혼은 미국서 하셨나요?

“승동교회에서 했어요. 1977년 3월 25일. 인사동은 저희에겐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인사동이라고 해요. 물론 우스개로. 하하하.”

- 아내 자랑을 한 번 해보시죠?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에요. 미국에서 RN 라이선스를 취득하고는 줄곧 한 병원만 다니고 있어요. 벨리에 있는 샌 게이브리얼 제너럴 হাসপিট요. 박인희 선배가 소개해준 병원이지요.

박정모(문리대 66)·박인희(간호대 67) 부부도 우리 동문입니다. 저하고도 인연이 아주 깊어요. 박정모 선배와 CPA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으니까요.”

-부인이 지금까지 일하세요?

“그럼요. 1980년 처음 들어갔는데 올해 44년째가 되네요. 한 병원에서만 장기근속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병원 생기고 나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40년 넘게 일한 의료인ですよ. 주변에서 이제 그만 쉬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 가족 중 서울대 동문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적지 않은게 아니라 무척 많아요. 저도 좀 세봐야

겠는데. 큰형(김경세·의대 60), 작은형(김경인·의대 62), 그리고 매형(이훈택·공대 52)도 동문이지요.

조카 셋 모두 서울대 나왔어요. 이원식(의대 81), 이우식(치대 83), 이주식(공대 83). 동문인 사촌들도 많아요. 박종식(의대 48), 박종건(의대 56), 김광(상대 62), 차재철(의대 62), 배성호(의대 64), 남광순(음대 65), 남세현(공대 67), 문대옥(의대 67), 김석진(의대 71)… 이 정도만 하지요. 지면이 부족할테니.”

- 의대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저 보고도 의대가라고 했는데 저는 공부 싫었어요. 6년이나 해야 하는데… 그리고 보니 우리 큰 애가 저 대신 의사가 됐네요. 하하하.”

- 집안에 의사가 저렇게 많으니 ‘백세장수’는 보장된 거나 다름없네요.

“가끔 이런 말을 듣긴 해요. ‘당신은 건강보험이 필요없겠다’고요. 사실, 피검사 결과를 가족 카톡방에 올리면 즉각 반응이 와요. ‘당은 괜찮은데, 칼슘 보충제를 먹어라’ 등등. 우리 부부 건강은 아주 양호합니다.”

- 부부가 동문이어서 불편한 점은?

“동창회비를 각자 내야 한다? 하하하. 살면서 불편한 점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제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그러다 보면 생각과 방향이 비슷해져요.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요.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찬용 차대 72 · 장난희 간호대 74

무의촌 진료 봉사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서울대 나왔다고 부러워해... 처신에 신경쓰게 돼

MIT에서 온 편지 “학생 보다 부모가 더 훌륭해” 감동
“말수회 모임에 나가보세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찬용·장난희 부부.

“
송정은 저희 부부에게
친정집 같은 곳입니다
”

옛 사람들은 영혼과 정신은 심장, 곧 하트(heart)에 있다고 믿었다. 심장과 영혼이 동의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혼이 맑으면 사랑이 넘쳐난다고 해서 하트는 러브의 상징으로까지 승화됐다.

이찬용·장난희 부부는 심장이 아름다운, 특히 이웃 사랑이 넘쳐나는 동문이다. 멕시코 오지에서 재능기부를 하는가 하면 ‘이슬람의 땅’ 아프리카 차드에도 선교기금을 보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부부가 처음 만난 곳도 무의촌 봉사현장에서다.

-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1970년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당시 무의촌 진료 클럽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 ‘송정’이라는 단체였어요. 주말이면 빈민촌 무의촌 주민들을 위해 나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바로 ‘송정 봉사단’에서 눈에 번쩍 띄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의료봉사를 계기로 우리는 연건동 캠퍼스 커플이 됐지요.

송정 봉사단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봉사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한국에 무의촌이 없어 해외 의료봉사에 진력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부부에겐 봉사와 사랑의 기쁨을 안겨준 친정집 같은 곳입니다.”

- 결혼은 언제하셨나요.

“1979년 12월 1일, 치과대 졸업 후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초 용산 육군본부내 육군회관을

예약했지요. ‘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예약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졌지 뭐예요. 당시 군부 실세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시설 이용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당시 종로에 있었던 기독교 사회복지관인 태화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pecially 그 날을 기억해요. 그해 첫 눈이 내린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 부부가 동문이어서 좋았던 점은?

“딱히 (좋은지는)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딸 아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동급생인 한국계 학생의 부모 한 분이 저희 부부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다면서요. 그때 비로소 서울대 출신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후 말과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서울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지요.”

-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90년대 말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으로 식구들이 빙 둘러 앉아서 수북히 쌓인 선물들 포장을 뜯으며 덕담을 주고 받던 중이었어요. 큰 딸이 편지 하나를 내밀며 깜짝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MIT에서 온 조기입학 허가서였습니다. 온 식구가 뿔뿔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편지에는 저희 부부가 평생 잊지 못할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당신의 자녀가 뛰어나 입학할 허가했지만 사실은 (이 학생의) 부모님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MIT가 조기 입학할 만큼 뛰어난 것은 사실



하와이 가족 여행 중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지만 이런 학생을 키워준 부모가 고맙다며 준 감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중의 하나입니다.”

- 가끔 부부 다툼도 하나요?

“네. 물론이지요. 제가 솔직히 시끄러울 때가 좀 많아요. 아내에게 미안하지요. 하지만 제가 힘을 빼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제자매 중 동문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형 중 한 분이 공대 동문이에요. 조카도 역시 공대 출신이고... 처제도 서울대 가족입니다. 양 쪽 집안에 고루 분포돼 있어요. 하하하.”

- 동문들에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골프를 치신다면 꼭 ‘말수회’에 나가세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열리는 동문 골프동호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골프 모임에 나가봤지만 말수회 만큼 재밌고 행복한 곳이 없었어요. 동문들끼리 교류하니 못처도 창피하지 않고 잘쳐도 건방울 떨지 않고. 정말 문자 그대로 ‘the happiest place in the world’입니다. 저는 말수회는 물론이고, 매수회도 출근하다시피해요. 매주 수요일 열리는 골프 모임입니다. 골프가 처음이시라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잘 안내해드릴게요.”

이규상 약대 74 · 오정은 미대 76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순애보를 쓴 부부 미대 여동생이 소개 "딱 오빠 스타일이야"

집짓는데 10년, 기초공사에 돈 다 쏟아부어
PC 회로판 창업, 약국은 패션아일랜드에서



이규상·오정은 부부.

부부가 순애보를 쓰게 된 곳은 강원도 '인제 원통'이다. 70년대말만 해도 인제 원통을 가려면 마장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5시간 넘게 달려야 한다. 그것도 도시를 벗어나면 비포장 도로가 계속 이어진다. 부부는 이같이 열악한 곳에서 사랑을 키웠다. 러브스토리를 몇권이나 쓰고도 남았을 터다.

-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여동생(이규향)이 미대를 다녔는데 동기 여학생을 제게 소개해 줬어요. '딱 오빠 스타일'이라며 한 번

만나보라고 하대요.

처음 만난 순간 '아, 내 소울메이트'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우린 그렇게 2년여를 캠퍼스 커플로 지냈습니다."

- 강원도 인제 원통과는 무슨 인연이?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느라 군복무를 미루고 있었어요. 군대문제를 해결해야 여권신청이 가능한 시절이어서 서둘러 입대하게 됐지요. 훈련 마치고 배치된 곳이 강원도 12사단입니다."

- 부대 주둔지가 인제 원통이군요.

"네, 맞아요. 오죽했으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산세가 험하고 군생활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인제와 원통은 조선 17대 임금 효종이 청상으로 끌려가면서 생겨났다는 '쌀'도 있을 정도예요.

약대를 나왔지만 제 주특기는 소위 '일빵빵'(100)으로 불리는 소총수였어요. '죽지 않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 왔었나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나요. 그 면 곳을 한달에 한번은 꼭 면회를 와줬어요. 남자가 군대가면 여자가 '고무신 바꿔 신는다'는 말이 유행했지만 아내는 일편단심이었어요.

30여 차례는 왔는데 그중 10번은 면회가 안돼 헛탕을 쳤어요. 힘든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내의 공이 컸습니다."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아들 부부. 부부가 10년 넘게 걸려 지은 집이다.

- 삼청교육대에서도 근무했다는데.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군부대 곳곳에 만든 수용소예요. 불량배 소탕과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곳이지요. 우리 부대에서는 6.25 격전지인 펀치볼 인근에 텐트를 치고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장갑차가 두대 배치되는 등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전과자인지는 모르지만 감금된 분들이 일반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5공화국의 치부를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 미국서 첫 직장이 컴퓨터 회사라고 들어요.

"1981년 5월 결혼해서 이듬해 3월 미국에 왔어요. 먼 친척이 운영했던 'Pioneer Circuits'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보드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얼마 후 나와서 독립, 창업했어요. 구리 회로판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수요가 많았어요.

처음엔 무척 힘이 들었지만 군 복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지요. '(군대에서도 버텼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8년 동안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약국은 어디서 오픈하셨나요?

"뉴포트비치 패션 아일랜드에서 했어요. 두 군데서 했는데 아주 잘됐습니다. 이란계 약사에게 넘기고 지난 1월 은퇴했습니다."

-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집 뒷마당에서 아들을 결혼시킨거요. 지금 사는 집을 저희 부부가 지었거든요. 뒷마당 공사를 미루다가 아들 결혼식을 하느라 뒤늦게

완공했지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흠 스윗 흠'... 우리 부부의 맘과 열정이 맺은 결실입니다."

- 집을 지었다고요?

"네. 원래는 맘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달이 깨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커뮤니티에 빈땅이 있는 거예요. 경사진 땅인데 문득 '커스텀 하우스'를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땅이 비탈져서 기초공사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어요. 설계와 기초공사하는데만 4~5년 걸렸습니다. 돈 벌어서 또 짓고...

경사진 땅이어서 집이 4층짜리가 됐어요. 휴~. 그 고생이란 말도 못해요. 집 짓는게 '인제 원통'의 군복무보다 더 어려웠던거 같아요. 2002년 공사를 시작해서 딱 10년 걸렸습니다. 집 짓고 싶은 동문들께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부부 다툼이 없었겠네요.

"물론이지요. 4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 덕분에 우리가 꿈꿔왔던 작은 소망들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놓고 있던 골프 클럽을 다시 잡아볼 생각입니다. 집사람이 나보다 골프를 훨씬 잘 쳐요. 하하하."

독고량 공대 대학원 82 · 서정화 음대 80

첫 만남에서 '우린 인연이 아니다' 헤어졌는데 1주일 후 졸업식장에서 극적 해후 부부의 연 맺어

만삭의 몸으로 빌딩청소까지... 긍정의 힘으로 버텨
'헤어 익스텐션' 가발 히트, 인생 역전 드라마 써내

두 동문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 부부를 '긍정의 아이콘'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민 초기 세탁소, 스왑밧 등 험한 일, 굶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해냈다. 심지어 만삭의 몸으로 빌딩청소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엇이 오늘의 '독고 부부'를 만들었을까. 모든 게 처음이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보니 현재 종사하는 업계의 '넘버원'이 됐다.

- '독고'가 희성이어서 에피소드가 적지 않을텐데요.

"맞아요. 중국 수나라 마지막 황후의 성씨가 독고였다고 해요. 수나라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자 황후 일족이 압록강을 건너 지금의 평안북도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망명을 한 셈이지요. 그래서 독고의 집성촌은 평북 의주가 됐어요. 부모님 고향도 의주이고요.(독고량)

처음 만났을 때(1984년 2월 초) '독고'라고 자기 소개를 하길래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독고탁'이라는 80년대 초 인기절정이었던 만화 캐릭터 있잖아요? 뽀뽀머리에 야구광... 픽션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독고'가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서정화)"

- 처음 보는 순간 '필'이 꽃이지 않았나요?

"사촌여동생이 친구를 소개해줄 테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부모님(이미 미국 이민) 대신 작은 아버지가 장래 며느리감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쪽(서정화)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첫 만남이 공교롭

게도 맞선 자리가 됐다고 할까요.

첫 만남이 어땠나요? '서울대 여자'답게 까칠했어요. 우리는 서로 인연이 아닌가 싶어 그냥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일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1주일 뒤 졸업식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농협 앞에서요. 관악 세대는 아마 잘 알 겁니다. 졸업식장에서 농협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세상에 1주일 전 헤어진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독고량)

저희 식구들도 농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저사람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 여기서 또 뵈네요' 하고요. 거기서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주겠다고 해서 만나 밥먹고, 다음엔 내가 차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만나고 하다가 그만... 역사가 이뤄졌습니다.(서정화)"

- 그럼 1~2년 사귀셨겠네요.

"천만에요. 저 사람이 미국가야 한다고 해서 4개월 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헤어졌다가 졸업식에서 만나고, 결혼식을 올리고...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꼭 무엇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 미국와서 어떻게 지냈나요.

"시부모님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열심히 도왔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무척 재밌었어요. '내가 이런 막노동하러 미국 왔다' 서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지요. 스티



온가족이 뒷마당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부부의 뒷뜰은 플로리다의 로스코요테스 골프장 9번홀이다.

을 한 번 뽐어주니 주름이 짝 퍼지는게 신기하고 또 멋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신랑이랑 있는게 좋으니까 고생인줄 몰랐어요. 하하하.(서정화)"

- 유학한다고 와서는 공부는 안했나요?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했는데 당시 미국경제가 나빴어요. 대학원에서는 조교(TA) 자리를 얻어야 학비 걱정 안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마침 큰 아이가 태어나고... 결국 박사의 꿈을 접고는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누님이 가발 사업을 하고 있어 거기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 가발은 경쟁이 심한 업종이 아닌가요?

"경쟁이 전혀 없었어요. 제 비즈니스는 가발이 아니라 헤어 익스텐션(hair extension)이라고 해서 두피에 가까운 부분에 길이가 긴 다른 머리카락 피스를 붙이거나 땅기를 해서 머리 술을 풍성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헤어 익스텐션은 주로 백인여성들이 고객이에요. 말하자면 니치 마켓이지요.

염색이 제일 중요한데 제 전공이 섬유공학이잖아요. 섬유 염색이나 머리카락 염색이나 똑같아요. 헤어 익스텐션을 쉽게 할 수 있게 툴(tool)까지 개발해 팔았지요. 중국에 공장까지 차리고요.(독고량)

백인은 머리카락이 매우 가늘어서 머리 술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화장보다는 머리에 투자를 많이 해요. 저희 브랜드(The Hair Shop)는 미국서는 물

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고로 쳐요. 품질에 관한 한. (서정화)"

-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셨네요.

"사실 저희는 막 일, 험한 일 다 해봤어요. 스왑밧 장사도 했더니깐요. 제가 빌딩 청소까지 했다고 하면 믿으려 하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여자가 설마...' 하면서요. 한번은 만삭의 몸인데도 청소하러 갔는데 직원이 날 측은하게 쳐다 보길래 속으로 그랬어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내가 평생 청소만 하고 살지 않을테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는 일마다 잘 된 거 같아요."

- 동문합창단에도 열심이었던데요.

"우리 부부는 창단멤버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공연도 여러차례 했어요. 지휘를 한 조성환 목사가 저와 음대 동기예요. 이원영·정연진 동문을 비롯해 관악연대 동문들과도 친하게 지내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모임을 가졌고요. 교회에서 노래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성 바실 성당에서 10년 넘게 성가대 지휘를 했고요. 남편은 사목회장을 지냈어요."

- 은퇴했다고 들었어요.

"아들만 셋인데 사업체는 큰아들과 막내가 경영하고 있어요. 요즘은 트레킹에 푹 빠져 지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800km)을 3년에 걸쳐 완주했어요. 필그림의 심정으로 걷다보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요. 이외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알프스, 페루의 마추픽추 등 트레킹 명소는 거의 다 가봤어요. 3월엔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합창단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하선희 (8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50TH
1974-2024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제12장

포토 에세이

오흥조
브리슬콘 소나무 숲

나두섭
선인장의 교훈

김양희
가을의 고독

고석자
겨울의 핫카이드





오흥조

치대 55

“해발 1만4천피트, 5천년이 살아 숨쉰다” 화이트 마운틴의 신이 빛은 ‘브리슬콘’ 소나무 숲



캘리포니아에는 유독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붙은 나무들이 많다. 덩치로 따지면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제너럴 셔먼’이 있고 높이로는 레드우드 가 으뜸이다..

그런데 나이로는 어떨까. 캘리포니아의 등뼈라고 불리는 이스턴 시에라 네바다의 화이트 마운틴(White Mountains)에 세계 최고령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로 ‘고대 브리슬콘 소나무 숲(Ancient Bristlecone Pine Forest)’이다. 평균 수명 4,000년이 넘는 나무들의 군락지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290마일 떨어져 있다. 가을철 단풍으로 유명한 비숍(Bishop)에

서는 40마일 남짓. 해발 1만4,000 피트(약 4,300 미터)의 고산지대에 있어 한 여름철에도 천둥번개가 자주 쳐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나무가 주는 강한 생명력과 오랜 세월을 견뎌낸 흔적이 신이 빛은 조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경이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로테스크’하기조차 하다.

특히 고령의 소나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흠이 침식되면서 뿌리가 다 드러났음에도 강한 의지로 나무를 붙잡고 있어 그 생명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곳에는 ‘디스커버리’와 ‘무드셀라’의 두 트레일이



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드셀라’에 있다. 하지만 어느 나무가 무드셀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작동한 나머지 손을 댈까 우려해 당국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무드셀라의 나이는 올해 5,072세다. 무드셀라(Methuselah)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는 구약성경 속의 인물이다.

브리슬콘 소나무 숲의 백미는 고목 사이로 피어난 야생화다. 창조주의 팔레트 위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야생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나두섭

의대 66

선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꽃은 ‘황홀’

선인장 사잇길 거닐면 스트레스 사라져



선인장은 언뜻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식물이다. 거의 모든 식물들은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데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해 있다. 잘못해서 찢리면 통증은 물론이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장미, 또는 백합, 아니면 튤립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키드, 카네이션 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하면 하잘것 없어 보이는 야생화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선인장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것은 꽃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인장 꽃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꽃잎의 색깔은 정열적이고 반짝거릴 정도로 눈부시다. 수많은 수술들은 가운데 자리잡은 암술을 여왕처럼 감싸고 있다. 자세히 볼수록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꽃이 선인장 꽃이다.

선인장은 오히려 많은 꽃이다. 어렸을 때 선인장은 100년에 한번 꽃이 핀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은 선인장이 처음 꽃필 때까지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생긴 말이라.

남가주에서 겨울철 몇달을 제외하고는 사막정원에 가보면 선인장 꽃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선인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도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야생의 선인장은 대체로 물이 별로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잎은 가시로 변해 있다. 그러나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는,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황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찬란한 꽃을 피운다.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진 사람들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뚝 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헬렌 켈러는 시력과 청력의 장애가 있었지만 저명한 작

가, 교육자가 되었다.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오른팔이 잘려나간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한 사람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수월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인장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다. 이것은 또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도 한다. 물론 스트레스가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호르몬과 면역력에 대한 영향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하여 권하는 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결법이 여러가지 있다는 것은 신통한 방법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것은 피하라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연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름을 주홍색으로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이나 바닷물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붉은 태양을 볼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른봄 언덕에 깔려 있는 노란색 민들레꽃을 볼 때, 이른 아침 안개의 바다로 뒤덮인 골짜기를 볼 때, 눈꽃으로 장식된 겨울 숲속의 흰 눈으로 덮힌 작은 언덕길을 바라볼 때도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그리고 경이로운 모습을 한 선인장 꽃들 사이로 난 굽어진 작은 길을 오르내리는 동안은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두섭 동문은

해외문인협회 회장 역임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



사진 김양희 음대 77 · 글 오달 사대 69



가을의 고독은 진보라색

중년 가을의 고독은 진보라색

우렁우렁 소녀 가슴속 빨간 장미 다발

우루릉 황릉, 젊음의 힘찬 파도와 한판 사투

그 황홀한 싸움의 기억은

모래알이 된 꽃잎 부스러기, 그리고

눈물만큼 남아 있는 파도 한 모금

바위가 된 여인은 보라 안개를 토하더라

사진과 시는 2013년 9월 아크라폴리스타임스에 실린 것을 전제한 것이다. 미란다 왕의 피아노곡 'All Is My Love'를 배경음악으로 깔아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댓글도 많이 달렸다.

“양희님은 때로는 명상적, 때로는 도발적 사진을 보여주십니다”(오달 김지영), “인생 각 단계마다 빛깔이 있군요. 내게도 나의 무지개 빛 있다는 얘기! 글에서 빛 나고, 사진에서 훈민정음 소리 나는 듯”(영경귀), “카 사진 글 음악 찍인다! 취한다!”(박변), “아~ 진보라색 바다는 고독해야만 보이는 걸까요? 경이로운 양희님 사진들, 그리고 오달님 썰, 양희님이 직접 골라 보내주신 음악과 함께 감상하니 더욱 좋습니다”(김종하)

포토 에세이



고석자 문리대 72

“겨울의 홋카이도를 담았어요”
눈부신 설경… 하늘과 땅의 경계선마저 모호



Mild Seven Tree
마일드 세븐 언덕의 나무들 모습. 흰 눈이 내리는 사이를 비집고 떠오르는 햇빛이 눈밭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2019, 24"x30")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곳.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일본 홋카이도가 바로 이런 곳이다. 밤마다 눈이 내려 자고나면 늘 새로운 세상이 된다. 어찌면 영어의 'white out'은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일 터다. 원근감이 사라지는 상태다.
눈이 쌓인 들판을 소복소복 걷다보면 어디선가 와 타나베 히로코(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나카야

마 미호 분)가 나타나 “오쟁끼데스까”(잘 지내시죠) 하며 인사를 건네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설경과 오버랩돼 이국 땅인데도 결코 낯설지 않다. (나카야마는 지난 2024년 12월 6일 아쉬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다.)
겨울은 아무래도 눈과 함께라야 제맛이 난다. 동문님들을 홋카이도의 설국으로 안내한다.

작가는
문리대 불문학과
New York Institute of Photography
샤토 갤러리(www.shattogallery.com) 관장
Tokyo International Foto Awards(2024) 금상수상
International Foto Awards(2023) Best Show 수상
International Foto Awards(2023) 심사위원상 수상
모스크바 국제 사진전(MIFA, 2011) 금상 수상
www.sueparkphoto.com



Nostalgia
이 사진으로 IPA, 파리와 부다페스트 국제 사진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2019, 40"x40")



Heaven on Earth
사슴과 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홋카이도의 설원. 땅위에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Wintry Flight
새벽에 잠을 깨어
먹이를 찾아 나르는
모습을 담았다.
(2016, 24"x36")



Propose 수컷이 암컷에게 춤을 추며 프로포즈 하는 장면을 담았다. (2016, 30"x44")



제13장

동문에세이

- 마음이 편하다고? 그럼~ - 홍성선
- 임윤찬, 두다멜 그리고 '황제' - 강미자
- 시민권을 받았건만 - 최진석
- 럴수 렬수, 이렬수가 - 송미선
- 백인사위, 한인 장모 - 김영옥
- 5천불의 기부 - 최재을
- 영시 산책 - 이응섭
- 연건동 아리랑 - 장소현
- 비운의 황세손 이구 - 한효동
- 그린 힐 언덕 위에 - 박윤자
-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 이덕송
- 11월의 이야기 - 박찬호
- 인생의 명강의 - 신동국
- 화술의 대가 - 강신용
- '80년대 학번' 최초의 회장 - 최용준
- LA 스케치 - 신경섭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박제환



마음이 편하다고? 그럼~



홍성선
약대 72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대학원에 유학 중일 때였다. 하루는 차를 마시며 교수님과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 교수님은 의료인류학(Medical Anthropology)을 전공한 분이였다.

처음엔 알래스카에서 살았던 교수님의 체험담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아시아 문화로 화제가 이어졌다. 나도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대화는 재미있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은 문득 내게 질문을 던졌다. “넌 한국 사람과 중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할 수 있는냐?” 나는 주저하지 않고 “Yes or No”라고 답했다. 교수님은 의아해 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선뜻 “만일 그들이 옷을 다 벗은 알몸이라면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옷을 입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대체로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문화의 차이, 곧 집단의 종합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

동문 동호회 중 하나인 골프 모임에 나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동창회 모임에 나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같이 어울려 지낸 캠퍼스 생활이 우리들의 행동양식을 비슷하게 만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근묵자묵(近墨者墨)이라고 할까. 먹을 갈고 있는 사람 곁에 가면 옷에 먹물이 튀듯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사자성어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했던가?

대학생활 4년 또는 6년은 인생에서 별로 긴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20대를 전후한 시기, 즉 그것이 인격형성의 피크타임이라는 시간의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시간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적 성숙기를 같이했다.

앞서 말한 근묵자묵과 유유상종을 되새겨 보면 의미가 약간 다름을 본다. 근묵자묵이란 시공간을 공유하면 서로 같아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유상종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타고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울린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타고남과 길러짐(Nature or Nurture)’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대 동문의 집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타고남(Nature)이 비슷한 자들이 비슷하게 길러졌다(Nurture)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많은 공통



할리웃보울 가족의 밤 행사에 참석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동문들.

점을 지닌 집단.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굳이 이와같이 궤변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좋다.우리 다같이 느끼는 것! 동문 모임에 나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 같다. 마음이 편한 동문 모임 자주 나와서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임윤찬, 두다멜 그리고 베토벤의 ‘황제’



강미자
음대 62

아직도 옛된 20살의 임윤찬은 정확히 1년 전 할리웃보울 야외 연주장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모든 청중을 매혹시킨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할리웃보울에 찾아왔다. 오랫동안 최고 자리를 굳히고 있는 두다멜 지휘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크고 운치있는 야외음악당 할리웃보울에서 그들의 협주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곳LA에 살고 있는 행운이 아니겠는가?

1년만에 가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우뚝 서 돌아온 임윤찬을 어떤 환대로 맞아야 하나? 1년 만에 이토록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 올려놓은 예술가가 또 있었는가? 지난 8월29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청중들 틈에 숨을 죽이며 감상했다.

사실 나는 1988년 ‘88 올림픽 기념 축하음악회’를 LA 뮤직센터(디즈니홀 전신)에서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함께 공연한 바 있다. 그때 한동일은 베토벤 ‘황제’를 연주했고 나는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 중 한 곡과 한국가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베토벤 ‘황제’를 접하며 그 곡의 웅장함과 경쾌한 기교, 특히 2악장의 감미로움에 감탄한 기억이 남아 있다. 왜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연주하고 싶어하는 피아노 협주곡이 ‘황제’인지를 알게 됐다. 그렇기에 임윤찬이 연주하는 ‘황제’를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렸던가.

이 곡의 특징은 1악장 시작부터 오케스트라와 협연없이 단독으로 치고 나오는, 다른 협주곡에선 볼 수 없는 유일한 형식이 특징이다. 첫 악장 알레그로(Allegro) 카덴짜를 임윤찬은 활기차고 화려한 기교로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듯 일말의 빈틈없이 완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연습의 노력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테크닉 처리! 경쾌함과 기교와 웅장함의 극치를 느끼게 했다. 2악장 아다지오(Adagio)는 극도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마치 쇼팽곡을 연상케하는 슬픔으로 모든 관중들의 가슴을 뭉클케 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특히 2악장을 사랑하기에 임윤찬의 표정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커다란 야외 스크린에 비치는 얼굴표정은 건반위 손가락의 잔잔한 놀림과 함께 슬픔에 빠져 있는 듯했다. 적당히 가름한 얼굴에 짙은 눈썹, 가끔 위를 쳐다보는 사색에 잠긴 눈매, 옆 선이 멋있게 보이는 우뚝한 콧대, 슬umped 곱슬기가 있는 눈을 덮을만큼 긴 앞머리 이번엔 반듯한 앞가르마 마저 어울려 보이는 그의 외모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을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곡의 특징은 슬픈 2악장에서 자연스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Rondo Allegro)로 선율이 넘어 간다는 점이다. 슬픈 2악장에서 자연스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로 선율이 이어 받아 폭발함을 제시하며 가장 밝고 활발한 정서를 느끼게 했다.

임윤찬의 연주는 이 모든 ‘황제’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관중들의 넋을 사로잡은 임윤찬은 베토벤의 ‘황제’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연주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우레같은 2만명의 박수소리에 기대해 본 앵콜곡을 들을 수 있었다. 가을 분위기다운 바흐의 시칠 리아노곡으로 또한번 가슴을 적시고 돌아왔다.

강미자 동문은 줄리아드 음대 뉴욕 카네기홀 데뷔(한국인 최초) 런던심포니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 UCLA 방문교수

연습의 노력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테크닉 처리! 경쾌함과 기교와 웅장함의 극치를 느끼게 했다.

연습의 노력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테크닉 처리! 경쾌함과 기교와 웅장함의 극치를 느끼게 했다.

아버지 만나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받았건만~



최진석
법대 64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한다. 살아온 세월의 뒀안길을 따라 만났던 수많은 사람을 그려본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유학을 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곳 미국 이민생활 40여 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사주에 천복성이 들어 식복이 있고, 천역성이 있어 떠돌아다니는 운명이라 하지만 중동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오대양 육대주를 빠지지 않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 많은 관계와 인연 중에서도 나는 오랜 계신 아버지와 인연을 생각해 본다. 6·25 전쟁 때 나가셔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나로서는 아버님의 모습도 기억나지 않고 특별한 추억도 없으나 아버지로 인한 영향력은 내 인생 전부에 미칠 만큼 크고 대단하다.

중학교 다닐 때 동네 유지 어른으로부터 아버지의 인품에 대하여 전해 들은 후 나는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었다. 정치가가 장래 희망이 되고, 진학은 법대로 하기로 결심하였다. 나에게 대한 자존감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가 이로 비롯되었다. 존재 아닌 부존재로부터의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입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것이 아버지와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술도 마시고, 방황도 했지만 모든 걸 순리로 받아들이고 육군 질병으로 제대하기까지는 큰 아픔과 극복이 있었다. 결혼할 때 이 문제는 처가 쪽으로부터 제

기되어 위기가 있었다. 처남이 미국에 있는데 나와 결혼하면 미국에 가기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반대쪽으로 얘기했다. 다행히 중앙정보부 감찰실장과 연이 되어 그의 자세한 설명과 보증으로 간신히 해결되었다. 현재 자녀들과 손자까지도 달라질 수 있었던 인연과 깊이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다.

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종합상사에서 일하던 중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서였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출장을 포기하고 말았다. 유신 정권이 물러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연좌제를 폐지하고 나서야 여권문제가 해결되었다.

중동에 나가 3년간 열심히 일하고 약간의 이민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민 오자마자 빠르게 미국시민권을 받은 것은 실은 북한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흥동근 목사님이 그런 주선을 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알아봤지만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하나 인연은 거기까지고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으니 그 또한 대단한 운명이라 하겠다.

사족이지만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열심히 했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올림픽까지 생각한 것도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4년 동경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의 신금단 선수가 1·4 후퇴 때 헤어져 아버지 신문준씨를 만나는 뉴스가 특종으로 전파될 때의 흥분이 지금도 느껴진다.

다섯살 때 헤어져 70여년 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자의 인연이지만 나는 안 계신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깊은 인연의 계곡을 지나온 존재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오늘 아들의 간절한 사연을 올립니다. 부디 통촉하소서!

“럴수 려수, 이럴수가~”



송미선
음대 89

먼저 한국왕복항공권 추첨에 당첨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022년 5월 21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2부 순서 진행을 맡았다. 사회는 본적이 거의 없었는데 주변에서 강권하다시피해 마이크를 잡았다. 솔직히 조금 떨

리는 했다.

2부 순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비행기표 추첨이었다. 처음엔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라플 티켓을 살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동창회를 돕자는 차원에서 20달러치를 구매했다.

항공권 추첨 순서가 되자 동문들의 눈과 귀가 온통 내 입에 쏠렸다. 도우미 동문이 티켓 한 장을 뽑아 내게 건넸다. 혹시나 해서 결눈질로 내가 산 티켓과 대조해 봤다. 아니, 이럴수가! 대박이 터진 것이다. 마이크를 잡고는 당황해서 처음엔 말이 제대로 안 나왔다. “어머머~. 제가 당첨됐네요.” 가까스로 입을 뗐다.

여기저기서 ‘주최 측 농간 아니냐’는 웃음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다.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티켓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선배님도 계셨다. 티켓을 확인하고는 “여러분, 믿어주세요. 농간은 없었습니다. 사회자에 축하의 힘찬 박수를 보내주세요”라고 응원을 해줘 한바탕 폭소가 터져나왔다.

내가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4년 전 쯤에도 동창회 행사에서 비행기표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이번에 당첨되자마자 처음 든 생각도 ‘어마나~ 이거 어찌지’였다. 주최 측 농간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운이 그리 썩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창회에만 나

오면 운이 따른다. 그것도 거꾸 두 번씩이나.

내가 처음 동창회에 나온 것은 4~5년 전 쯤으로 기억한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대 선배 언니 한 분이 동창회에 가는데 심심하니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 계기가 됐다.

강신용(사대 73) 선배가 회장일 때로 기억한다. 이어 한귀희(미대 68) 동문이 회장에 선출되자 또다시 미대 선배 언니에 이끌려 동창회에 나가게 됐다. 다른 분도 아니고 미대 출신이 회장이 됐으니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후 거의 빠짐없이 동문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마침 내 딸의 한국 방문 계획을 알고 있던 그 선배 언니가 ‘그럼 비행기표나 타라’며 내게 20달러치 라플 티켓을 사줬다. 그 중 하나가 당첨된 것이다. 얼마나 놀랐던지 ‘로또가 터지면 바로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다. 이후 감사한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행사 때 접수는 도와드려야겠다고 맘 먹었는데 이번에 사회까지 맡아 또 당첨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노부모님이 늘 맘에 걸렸는데 이번에 탄 티켓으로 한국을 방문해 밀린 효도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다.

처음엔 쑥스러웠던 동창회 참석이 이제는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다. 선배님들을 뵈 때마다 부모님 뵈는 것처럼 느껴진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활기있게 인생을 즐기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하는 일은 은퇴연금과 롱텀케어, 상속과 리빙트러스트 셋업 등이다. 선배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이제 상은 그만 타겠다. 또 당첨된다 해도 사양하겠다. 한편으론 동문회 모임에 자주 참석하다보니 이런 행운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동문 여러분, 동창회에 꼭 나가보세요. 저처럼 행운이 따른답니다.

동문 에세이

백인 사위, 한인 장모

김영옥
간호대 69

사위가 우리 집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향해 손에 든 물건을 흔들었다. 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나에게 주려고 하나 더 샀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내밀었다. 싱크대 거름망이었다. 거름망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 나는 웃으며 “땡큐” 했다. ‘내가 쓰는 한국제가 더 좋은데’라는 말이 하고 싶었으나 참느라고 애썼다.

사위는 백인이며 결혼 7년 차다.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 특히 김치, 매운 멸치볶음, 잡채는 그가 특별히 잘 먹는 음식이다. 어느 날은 마른반찬을 만들어서 딸네 집에 들렀는데 사위가 혼자 있었다. 마침 점심때라 사위에게 김치볶음밥을 해주었다. 사위는 맛있다고 땡큐 소리를 연신 해대며 수북이 담긴 김치볶음밥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식사 후, 접시를 가지고 싱크대로 간 사위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양 큰 소리로 말했다.

“왜? 이 도마를 썼어요? 비닐 도마를 써야 하는데, 이걸 써서 빨간 물이 들었으니 어떡해요.”

딸이 보면 화낼 거라며, 사위는 도마를 문질러 닦아냈다. 최근에 어깨 수술을 받아 많이 아플텐데도 열심히다. 적당한 도마를 찾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쓰리(Sorry) 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다. ‘밥도 맛있게 해주었는데 나한테 잔소리를 하네.’

사십 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문화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위가 너무도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말할 땐 가끔은 당황한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노’라고 말하기 전에 적어도 3 초쯤은 생각하는 척해 주면 좋으련만... 나도 사위처럼 예스, 노를 정확히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체면과 허세 때문에 탄소리를 하고 만다. 어쩔 수 없는 한국인 장모다.

나는 예절을 차리느라고 트림을 참고 있는데 사위는 밥상머리에서 코를 땡! 하고 푼다. 그럴 때면 기분이 나빠져서 한국식 예절을 강요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유난히 다정하게 인사하고 헤어진다.

사위와 소주 한 잔 나누어 마시던 날, 그가 말했다. 나와 남편이 더 늙고 힘이 없으면 같이 살면서 돌봐주겠다고.

내가 늙었을 때 같이 살겠다는 사람은 남편 말고는 백인 사위가 처음이다. 말만으로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그저 웃

었다. 사위가 같이 살겠다는 말에 언젠가 양로원에서 본 중년의 백인이 떠올랐다. 그는 매일 양로시설로 출근하다시피 한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장모 사진을 찍는데 특별히 얼굴을 가깝게 찍어서 부인에게 전송한다. 만약 어제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면 돌보는 도우미들에게 불평과 잔소리를 해댔다.

얼굴이 야위어 보이면 식사를 잘 못 하면 열심히 권해야 하지 않느냐, 얼굴에 조금 멍 자국이라도 보이면 왜 잘 관찰하고 돌보지 않았느냐 따지니 도우미들이 그 백인을 꺼렸다. 그가 보이면 도우미들은 부딪

히기 싫어서 멀리 다른 곳으로 피해가곤 했다. 열심히 노력한 백인 사위, 그런데 장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사위의 얼굴이 그 중년의 남자와 오버랩되어 보인다. 만약 우리 사위가 나와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그대로라면, 또 그가 나이 들어도 부지런하다면 양로원에 출근하던 그 중년 남자의 모습같이 되지 않을까?

젊은 사위의 얼굴에 20년 후의 모습을 덧입혀본다. 연갈색 머리칼에 백발이 생기면 어떻게 보일까.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냥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사위가 양로원으로 나를 방문하는 모습보다는, 나이 든

백인 사위에게 비록 더 늙었으나 건강한 한국 장모가 김치볶음밥을 해주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미래에는 이왕이면 더 나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사위가 사다 준 거름망 포장을 뜯어 싱크대에 넣는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익숙하지 않더라도 친해지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김영옥(필명 한영) 동문은 제 14대 재미 수필가협회 회장(2025년) 한국수필 등단 (2008년), 한국수필작가회 이사 저서: 수필집 ‘하지 못한 말’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 외 동인지 다수 수상: 미주 PEN 문학상, 재미수필 문학상





SEONHO HA, D.D.S.
PROSTHODONTICS
Esthetic & Implant Dentistry

하 선 호 치대 81

297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 365-1008
Fax : (213) 365-0934
E-mail: shp3240@gmail.com
www.ddsshp.com



송제호
탁구교실

SONG, JEHO
TABLE TENNIS

Tel. 213-383-0096
Cell. 818-279-3202

1049 S Grand View Street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Hoover Blvd. 자이언트 달라 파킹랏 뒤)

[수의사의 임상노트]

“아픈 동물 치료에 보태 써달라” 5천달러 기부



최재을
수의대 82

몇년 전 한 백인 노부부가 고양이 한마리를 데리고 내원했다. 나는 진찰을 하고, 치료 계획을 말하며 치료 비용은 약 300 달러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해줬다. 나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고양이는 불행하게도 숨지고 말았다.

이런 경우가 수의사로서는 가장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예상되는 상황은, 그 노부부가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하게 될 것은 물론 내게 거센 비난을 퍼붓게 될 것이다.

나는 노부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떤 치료를 하였고, 고양이가 왜 죽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줬다. 그러자 노부부는 갑자기 나의 손을 잡으며 ‘Thank you’를 연발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예상과 전혀 다른 노부부의 반응이 의아했다. 노부부의 설명은 이랬다. 자식같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몹시 아파서 급히 다른 병원에 데려 갔는데, 그 병원 수의사가 진찰도 잘 하지 않고 즉시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해서 화가 매우 났었다고 한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 갔는데 의사가 즉시 안락사 하자고 하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는가 반문하며 분개해했다.

그래서 필자의 병원에 다시 데려 왔는데 닥터 최는 안락사는 전혀 언급을 안한 채 자세히 진찰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줘서 고맙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물에게 지극정성인 노부부에게 존경심이 갔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백인 노인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건장한 청년을 대동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다. 아마도 지난

번에는 감사하다고 돌아갔지만, 다시 곰곰히 생각하니 억울한 것 같아서 내게 항의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는 인사를 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다. 그 노인의 말씀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난번엔 내 자식같은 고양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른 아픈 고양이들도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치료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을 위해서 닥터 최에게 5,000달러를 기부하려고 한다. 이 돈을 아픈 고양이들 치료에 써달라.”

노인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청년은 자신의 손자이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손자는 운전이 어려운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온 것이다. 나는 마음 속으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던가?

그 후 몇달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새 고양이를 입양하셨다. 그리고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나는 반갑게 맞으면서 지난 번 기부하신 돈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돈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노인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 돈은 다른 아픈 고양이들을 위한 돈이에요. 내가 쓸 돈이 아닙니다.”

노인은 결국 진료비를 내고 돌아갔다. 얼마후 이번에는 손자가 자신의 고양이를 데리고 내원했다. 그 손자에게도 똑같이 진료비는 안내도 된다고 말해줬다. 지난 번 할아버지가 도네이션 한 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손자 역시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그 돈은 다른 동물들 위해 쓰여져야 내 자신의 고양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내 고양이 진료비는 내가 내겠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한 사람들인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임상 수의사로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응섭
법대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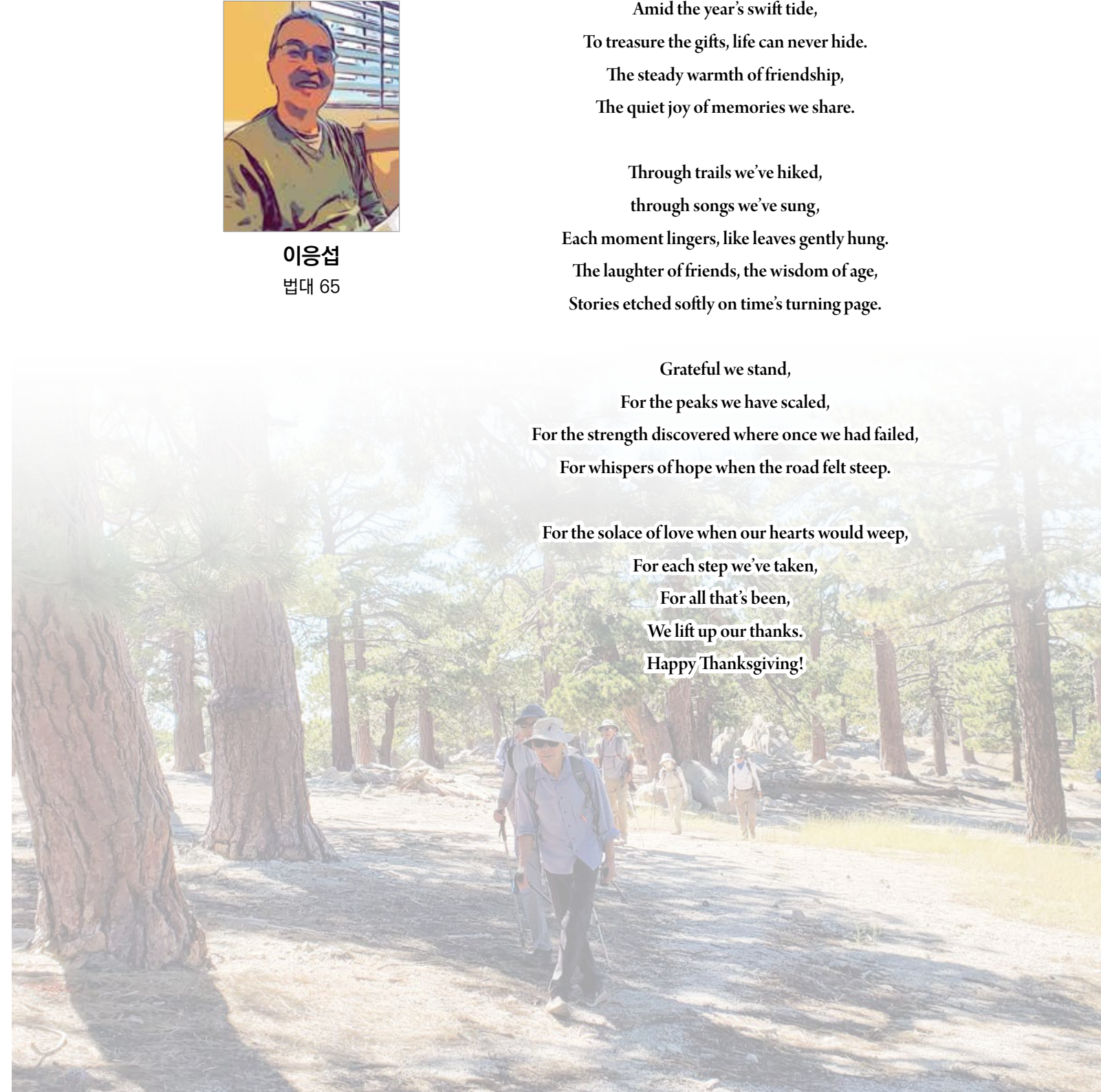
All That's Been

Amid the year's swift tide,
To treasure the gifts, life can never hide.
The steady warmth of friendship,
The quiet joy of memories we share.

Through trails we've hiked,
through songs we've sung,
Each moment lingers, like leaves gently hung.
The laughter of friends, the wisdom of age,
Stories etched softly on time's turning page.

Grateful we stand,
For the peaks we have scaled,
For the strength discovered where once we had failed,
For whispers of hope when the road felt steep.

For the solace of love when our hearts would weep,
For each step we've taken,
For all that's been,
We lift up our thanks.
Happy Thanksgiving!



연건동 아리랑



장소현
미대 65
시인·극작가

이 글은 1960년대 후반 연건동에 있던 서울대 미대 근처를 얼쩡거리던 가난한 부자들의 유쾌한 청춘기이다. 정말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분위기. 우리는 그때를 '낭만시대'라고 기억한다.

법대 뒷구석에 세 들어살던 미대가 독립된 캠퍼스를 마련하고 등지를 튼 것이 법대 맞은편의 연건동 캠퍼스. 미대는 거기서 한동안 지내다가, 공대 결방 살이를 잠시하고 관악산 골짜기로 옮겨갔다.

연건동 시대가 서울대 미대의 황금기였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동감하는 사실이다. 미대 연건동 캠퍼스는 옛 수의대 자리.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며 자손을 만들던 자리, 아니면 실습재료로 희생될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공포의 공간에 미술 실기실이 들어선 셈이다. 외양간, 마굿간 자리에서 예술이 태어난다!

철학이다, 심오한 철학! 동물들이 새끼를 치던 자리에 우리는 환을 쳤다! 철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긴 뭐, 예수님도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으니)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깊은 철학을 미처 몰랐었다.

우리는 그저 동물들이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던 그 자리에서 킁킁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연극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보다 얼마나 나았었는지? 도

무지 자신이 없다.

줄줄 흐르던 실개천, 봄날이면 노랗게 흐드러지던 개나리, 별나라, 학림다방, 뉴욕빵집, 진아춘, 울려 고집. 지금은 없어지고, 아예 몰라보게 변해버린 그곳이 그림다.

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 모르겠다. 그 당시 어울리던 친구들이 대부분 여기저기 미술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어 제자들을 기르다가, 모두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명예만 교수님들이시다.

화폐는 궁핍, 알맞은 가난

그 당시 우리는 가난했다. 그 시절 서울대 남학생들이 대체로 그랬듯이 가난했다. 가수 한대수 식으로 말하자면 화폐의 보유가 양호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쫄 주소 돈 쫄 주소. 돈 고프요 돈 쫄주소~~' 따위의 청승은 떨지 않았다.

왜냐? 화폐는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였기 때문이고, 우리의 가난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빈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 형편상 서울대 다니는 대학생 주제에 가난타령을 하는 것은 천벌을 맞을 짓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그때 이미 첨예하게 존재했다. 여학생들은 대체로 상류사회, 남학생들은 대체로 빈곤층. 여학생들은 대체로 막강했다. 장관집 따님, 재벌가 아가씨, 부잣집 공주님. 경기 이화 등 명문교 출신... 반짝반짝 윤이 났다.

예를 들어,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면 교정으로 새까만 자가용들이 몰려들곤 했다. 귀하신 아가씨들에게 우산을 전해 드리거나 모셔가려고 온 차들이었다. 그 당시 자가용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남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후줄근했다. 도대체 비교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당당했다. 워낙 차이가 커서 비교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마음이 부자였으므로. 그렇기는 해도 늘 화폐가 궁핍하기는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하기는 했다.

아침에 집에서 눈치 봐가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100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학교까지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했으므로 차비가 왕복 40원, 제일 싼 백조 담배 한 갑에 20원, 점심으로 학교 앞 뉴욕빵집에서 라면 한 그릇에 30원... 그래도 거금 10원이 남는다!

그런 식이었으므로 도무지 연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다방에서 한가하게 차 마시고, 밥 먹고 할 화폐가 없으니.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 궁즉통이라! 화폐가 없어도 다 버티는 길이 열리곤 했다.

라면 먹을 돈 없으면 종로 5가 한일극장 앞에 가서 10원짜리 국수 먹으면 됐고 그것마저 없으면 굶거나 염치불구하고 얻어먹으면 됐다. 차비 떨어지면 걸어 다니면 그만이었다.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시네마 극장이나 화신극장, 아카데미 극장 같은 동시상영 극장에서 조조할인으로 보거나, 외국 문화원에 가서 무료로 감상하는 길이 많았으므로 조금만 부지런하면 됐다.

책은 청계천 헌 책방에서 충분히 해결됐고, 그럴 화폐마저 없으면 길거리 좌판에도 좋은 책이 많았다.

'벌레 먹은 장미' 따위의 베스트셀러 고전(?) 문헌 틈에서 양서를 찾아내는 기쁨이란!

나는 그 당시 길바닥 행상에게서 일금 5원을 주고

산 작은 책을 아직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문고판으로 된 '슈바이처 연설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다. 꼭 알맞은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했다. 꼭 알맞게 적당한 가난!

되돌아보면 불가사의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화폐가 없는데도 굶어죽지 않았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할 짓은 다했으니. 무슨 조화속인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워낙 낮은 곳에만 있었으니 어쩌다가 흘러드는 물이 있었던 모양인가? 그래서 노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물처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내일은 외상! 오늘은 현금!'



초창기 미대 실기수업 장면. 모델을 세워놓고 학생들이 데생을 하고 있다.

학교앞 별나라 화방 계산대에는 이런 글이 얽전하게 붙어있었다. 그 글을 보며 우리는 웃었다. 오죽 외상이 많았으면 이런 기발한 문구를 짜냈을까?

'외상 절대 엄금' 따위에 비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람다운가. 주인부부의 재치와 피나는 노력에 진심어린 경의를 보내며 우리는 웃었다.

역시 미대에 붙어먹는 사람이라 어딘가 다르다는 감탄도 섞여있었다. 그곳 구멍만하던 가게 주인양반 부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그렇다. 우리에게 인생살이가 그랬다. 무지개빛 내일을 꿈꾸며 외상을 잔뜩 졌지만 냉엄한 오늘 갚아야 할 현금은 도무지 없었다. 늘 그랬다.

동문 에세이

나의 스승님은 '비운의 황세손' 이구 MIT 출신의 건축가, 낙선재 살며 서울대 출강

한효동
공대 58

지난 2005년 여름, 나는 스승님의 부음소식을 듣고는 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덕궁 낙선재에 마련된 스승님의 영전에 큰 절을 올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렸습니다.

1967년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공부 마치면 꼭 돌아와 조국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 스승님과 약속을 못지킨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줄리아 여사도 내 손을 꼬옥 잡으시며 “귀국하면 낙선재를 찾아오라”고 당부하셨는데...

나의 스승님은 '비운의 황세손'인 이구(1931~2005)입니다. 공대 건축과를 나온 나는 UCLA로 유학을 떠나기 전 'Transasia' 건축회사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그분의 지도아래 주한 중국대사관 설계를 막 끝내고 작별인사차 낙선재로 찾아뵈는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구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동생인 영친왕 이은(1897~1970)의 아드님입니다. 고종이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지요.

스승님은 일제의 강점으로 조선이 망하지만 았았다면 순종에 이어 왕위를 계승할 분이지요. 영친왕이 일제의 정략결혼으로 일본의 황족인 이방자(마사코)

여사와 결혼해 낳은 아드님입니다.

이구 스승님은 일제가 패망하자 미국행을 택합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건축학을 전공했지요.

어머니 이방자 여사는 아들의 유학을 극구 반대했지만 아버지 영친왕은 “너는 이 아비를 닮지마라,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네 뜻을 이루거라”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MIT를 졸업한 그는 뉴욕의 유명 건축사무소인 I.M.Pei에 취업, 하와이 대학교의 동서문화센터 설계에 참여하는 등 재능을 맘껏 발휘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인 줄리아 여사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지요.

1950년대만 해도 조선의 황족에게는 입국금지령이 내려 있습니다. 황실을 극도로 경계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4.19로 물러나고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그제서야 황실가족의 입국금지령을 풀어주고 창덕궁 낙선재에 머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영친왕과 함께 귀국한 이구는 서울대 공대 건축과

에 출강해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는 영어로 소통하며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63학번 이후 건축과에 들어온 동문들은 스승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낙선재의 스승님이 기거하는 방은 벽면이 온통 가,나,다... 한글로 도배돼 있었습



'비운의 황세손' 이구. 낙선재에 살며 서울대에 출강했다.

“공부 마치면 돌아와 조국 위해 일해달라” 당부 한글 익히려 네 벽면에 가,나,다,라,마... 도배질

니다. 얼마나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셨는지, 또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벽지를 보며 가슴 한 편이 저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의 어머니 이방자 여사는 서예에 조예가 깊었으며 한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낙선재를 출입하며 가끔 여사님을 뵈었는데 그분이 주신 서예 한 점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스승님에게서 처음 'Speaking English'를 배웠습니다.

그분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 하나가 “Why don't you...”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제게 지시할 때 이같은 문장을 쓰셨는데 처음엔 직역해 “너 왜 안했느냐”로 나름대로 해석해 기분이 많



1960년대 초 황세손 이구(왼쪽)와 함께.

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미국에 와서 알고 보니 “뭣뭣을 하시지요?”라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스승님께 괜한 오해를 한 것같아 지금도 이 말을 듣게 되면 스승님 생각이 절로 납니다

스승님의 장례는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가 조사를 읽고, 문화재청장이 장례위원장 맡았지요.

대형 태극기를 앞세운 운구행렬에는 연도에 수천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을 배웅했습니다.

불현듯 스승님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패전국' 일본처럼 황실제도가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상호(의대 65)산부인과

SANG H. PARK, M.D.

1300 N. Vermont Ave., #702
Los Angeles, CA 90027
Tel : (323) 730-0200
Fax: (323) 730-1653
s8park_md@sbcglobal.net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을 기뻐하며...

Bank of Hope®

황 윤 석
상대 66

동문 에세이

그린 힐 언덕 위에



박윤자
(유니스)
문리대 59

지난달 주말 하루, 두 집 아이들과 시간을 맞춰서 모처럼 빠지는 얼굴 하나 없이 그린 힐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이 도시로 옮겨 오고 나서 그린 힐 가는 길이 사뭇 멀어졌다. 러시아워를 피해도 왕복 두 시간이 꼬박 걸리니 아침 저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올여름의 살인적인 폭염과 찬 밤의 이슬과 별 시린 외로움을 견뎌낸 무덤가의 수국이 머물다 떠난 혼백의 흔적처럼 늦가을 바람에 희게 부서지고 있었다. 꽃병을 씻어서 들고 온 안개꽃을 꽃아 넣었다.

더위에 군데군데 말라버린 잔디에 아이들이 물을 주고 있는 동안, 그의 묘비에 멍하니 눈길을 주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해지며 바로 옆 자리의 가족들이 나타났다. 비어있던 옆 가족묘지의 한 자리에 우리보다 1년쯤 후의 어느 날 처음으로 꽃이 놓여 있었다. 새로 입힌 펠트 위엔 비석이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가족과 마주쳤다.

“애들 아빠 신들에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 맥 선생님보다 많이 일찍 갔지요?”

우리 비문을 보아 알고 있는 듯, 친근한 웃음을 띠며 말을 건네는 초로의 부인과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자녀에게 애석한 미소밖에는 돌려줄 것이 없었다. 문득 그곳의 두 사람은 이미 밤의 찬 이슬로 대작을 마쳤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모두 입을 모아 'Jesus loves me'를 아카펠라의 하모니로 끝냈을 때, 손주들이 어느새 성급하게 두 차의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떠나는 기척을 알면 그가 섭섭해할 텐데, 그를 처음으로 이곳에 홀로 두고 떠나던 날의 기억이 차 문을 여닫는 금속성의 소리 사이로 아프게 밀려왔다.

아들과 딸은 모두 아버지가 떠난 후에 결혼해서 며느리나 손주들은 그를 본 적이 없다. 사위만은 예외로 딸과 결혼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생전의 아버지를 뵈는 적이 있다고 털어놔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딸과 대학 동문인 사위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한 좋아하던 선배의 아버지를 가까이 다가가 뵈었다고 했다. 1년여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유머를 잃지 않아서 그의 병상 주위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왁자한 웃음소리에 병실에 들어오던 의료진이 자주 흠칫 놀라고

는 했다.

딸을 몹시 아끼던 그는 병문안을 온 친구가 “자네는 스트라이크 하나(아들)와 볼 하나(딸)를 고루 두어서 복이 많다”라고 위로를 건넸는데 그는 대변에 머리를 저었다.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이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스”라고 반박했다.

동부의 대학에 입학한 딸을 학교에 두고 오던 날, 그는 딸에게 ‘AFC’를 주문했다. ‘Aim For C’, 성적은 C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음성을 잃은 그는 아침마다 병실에 들어서면 나에게 ‘I love you’라고 입술로 인사를 했는데 5월



의 화창한 그 날은 ‘I love ~’ 한 후 더이상 이어가지 못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쳐드는 오후 3시, 그는 둘러선 10여 명의 친지들 얼굴에 일일이 눈길을 주고 밤에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노년의 쓸쓸함과 외로움은 온통 남은 내게 떠맡기고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담담하게 삶을 마감했다.

리서치 보조로 한 달에 250달러를 받아 살던 학생 시절, 그에게 공부가 끝나면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처음 들어 보는 지명을 말했다. 팔로스버디스

라는. 그는 지금 샌페드로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팔로스버디스의 그린 힐 언덕에 누워있다.

햇살 가득한 무덤 위에 살아 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 사이에 부는 미풍을 그는 느끼고 있을까. 레테 강을 건넌 그는 우리의 기척도 체취까지도 이미 다 잊었을까.

박윤자 동문은

박병기(제 21대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장, 공대 52) 동문의 미망인.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버지니아에서 온 편지’ ‘그린 힐 언덕 위에’ 등의 저서를 갖고 있다. - 편집자.

서 기 회 (서울대 기우회)

서기회에 오시면 기초부터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동문들과 수담(手談)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회 장: 최진석(법대 64, 아마 5단)

지도사범: 나천택(공대 68, 아마 8단)

총 무: 홍선례(음대 70)

● 장소: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실 2410 James M. Wood, LA, CA 90006

● 일시: 매달 마지막 월요일(오전 10시부터) ● 문의: (213) 503-6964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덕승
의대 54

초가를 날씨답지 않게 소낙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무더운 날이었다.

1950년 9월 27일 오후, 진흙탕물에 뒤범벅이 된 한 인민군 병사가 나를 향해 따발총의 총구를 겨냥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죽을 수 밖에 없

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인민군 병사는 두 눈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눌러쓴 군모에 쏟아지는 빗물과 땀으로 얼룩진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었던 그 순간의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악의에 찬 패잔병 답지 않게 어딘가 순진한 면이 엿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인민군 점령하에서 강제로 차출된 의용군으로 동료들로부터 이탈된 낙오병 같아 보였다.

16~17세의 어린 소년의 옛된 얼굴. 지금도 나에게 는 잊히지 않는 얼굴이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그 당시 내 나이 16세.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남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피신을 못한 공직자들은 그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처형되었다.

우리 가족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힌 몸이었기에 만약 그들에게 발각이 되는 날이면 가차없이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처지였다.

‘인민보육대’란 빨간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정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네 주변에서 나보다 어리게 보이는 학생들이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본 나는 그날부터 골방에 갇힌 몸이 되었다.

골방이란 천장위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캄캄했으며 무더운 날씨의 열기로 한증막 못지않게 확확 달아올라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내면서 하루 24시간을 지나려니 그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처참했다. 게다가 식량도 바닥이 나고 보니 영양실조로 인해 내 몸은 부어오르고 얼굴은 황달로 노랗게 변색되었다.

불안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가닥의 희망이란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과 승전소식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자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어서 속히 저희들을 이 고통 속에서 구해주시옵소서.”

드디어 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국군의 총반격이 시작되면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박격포 포탄이 패잔병들의 길목을 강타했다.

불행히도 우리 집이 인민군이 도주하는 길목의 하나인 돈암동에 있었던 관계로 시간이 갈수록 포탄 세례도 더해졌다.

수도 서울의 탈환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점차 거센 빗발이 골방 지붕위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매 분마다 ‘꽁꽁’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음소리가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깝게 들려올 때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몸은 마치 말라리아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 와들 떨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한가닥의 희망은 주님을 찾는 길이었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때였다. ‘콰앙!’ 골방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 심한 진동에 나는 벌떡 일어나 골방에서 후다닥

뛰어내려 부엌 문을 박차고 뒷마당으로 뛰쳐나갔다. 폭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요란했는지 우리 집이 포탄에 명중된 것 같았고 집이 통째로 주저앉는 느낌이어서 골방에 있다가는 내 몸이 박살 날 것만 같았다. 밖에는 소낙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이 빗줄기에 씻기니 우선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동무, 손들어!”하는 소리에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5~6 미터 정도 떨어진 집 뒷골목 길로 도망치듯 지나가던 인민군이 나를 보자마자 따발총을 겨누며 내 뺨은 말이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쌓아 올린 돌담이 포탄의 여파로 무너져 내려 내 정체가 드러났던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높이 치켜든 두 손과 힘 없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가 마구 떨리면서 얼굴은 백

짓장처럼 창백해졌고 딱딱딱 부딪치는 치아 소리와 콩 볶듯 날뛰는 심장 박동 소리외엔 들리는 것이 없었다.

그래도 두 눈은 살아 있어서 방아쇠 고리 안에 있는 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동무는 뭐얏~! 왜 거기 서 있어!” 총부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며 다그쳐 묻는 말에 나는 부동자세 그 자체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를 죽일 인민군은 아닌 것 같다’는 신뢰감이 언

뜻 내 머릿속을 스쳐가긴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지속되었다. “저어, 전 ... 포. 포탄이 우리집에 떨어진 줄 알고 거... 겁이 나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빗방울에 섞여 그의 귀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고양이 앞의 쥐’ 격으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처절한 내 모습이 적군이 아님을 인지하였는지 나를 겨누었던 총부리를 돌려 집 쪽을 가리키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내 앞에서 급히 사라졌다.



인천상륙작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인민군 병사들.

‘아, 난 살았구나.’ 안도의 큰 숨을 내쉬 새도 없이 나는 재빨리 골방으로 되돌아왔다. 제멋대로 마구 뛰놀던 내 심장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내 주변에서 멀어져 가는 객이 되었다. 나는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인민군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푹푹히 보았습니다. 따발총 방아쇠를 잡아당길 듯했던 그 손가락의 힘을 빼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두 줄기의 감격어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렸다.

11월의 이야기



박찬호
공대 58

동백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11월입니다. 한동안 즐겨 먹었던 한국 포도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니 이젠 탐스러운 감이 수퍼마켓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찬 서리를 맞으며 단감을 내느라 애써준 우리 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랜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해 이사를 한 후 몇달이 지났을까. 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묵직한 그로서리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같은 동네에 이사온 것을 축하하고 싶어 집에서 탄 감을 가져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곳이거나 새삼 느꼈습니다.

몇년이 지났을까. 이맘때면 예외없이 감을 갖다 주시던 할아버지가 오시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셨을까, 몸이 불편하실까 걱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매년 감 얻어먹고 우리는 겨우 애플파이 한 번 사다 드린 것 밖에 없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인정받고 친절하셨던 할아버지를 다시 뵈 수 없게 된 것이 무척 슬펐습니다.

좀처럼 울지 않는 집사람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척이나 감을 좋아했던 집사람을 생각해서, 또 첫 아이도 많이 자라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얼마 후 조그마한 감나무를 하나 사서 뒷뜰에 심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무를 심은 탓인지 몇년 소식이 없더니 한 해는 갑자기 감꽃의 새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도 더주고 비료도 주고 정성도 주고, 이제 몇달 후면 우리 세가족 감 따먹을 수 있겠다

는 희망에 벅찼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불상사가 찾아왔습니다. 감들이 골프공 크기나 되었을까, 온 동네 다람쥐 새끼들은 다 찾아와 우리 가족 희망의 감들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익기도 전인 감을 딱 떼어다가 나무가지에 앉아 갹아먹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너무 밋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해 두해 피해를 당한 후 묘안을 찾았습니다. 가짜 올빼미를 나무에 걸어보고, 바람 종도 걸어보고, 하다 못해 화장실 휴지를 풀어 나무가지에 감아보고,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다람쥐의 명석한 술수에 당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은 단 한가지. 우리가족 세명이 적어도 하나씩은 먹고 싶은 생각에 가는 철망을 사다가 제일 이쁘장한 감 세계를 골라 싸두었습니다. 얼마가 지나니 대성공, 노랗게 변해가는 나무잎속에 터질 듯 탐스러운 감 세계가 철망 속에서 웅자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값, 비료값, 내 정성값을 생각하면 밀지는 장사였지만 일년에 한 번 우리 가족 세명이 하나씩 먹는 감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년 후에는 우리 둘째놈 똥까지 감 네개를 철망에 싸두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정성과 사랑의 감이었습니다.

사십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나무도 사십대가 되니 기력이 부족한지 열매도 시원치 않고, 감나무 주인은 벌써 팔순이 넘었습니다. 서글픈 마음 없지 않습니다.

동백꽃은 꽃이 많아 새들이 찾아온다는데 우리에게겐 꿀 대신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생 팔십은 한해의 11월과 같은 것. 두툼했던 새해의 달력이 이젠 얇팍한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11월에 피는 꽃도 향기는 있다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2박3일의 '인생 명강의'



신동국
수의대 76

지난 2024년 9월 2~4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수의과 대학 동문회 주최로 동문과 가족 30명이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을 다녀왔다.

아침 일찍 출발해 라스베가스로 가는 도중 점심을 먹고 애리조나

주를 지나서 저녁 6시 조금 넘어 브라이스 캐년 여행의 거점인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에 도착했다. 그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틀동안 버스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동문들이 자신을 소개하며 들려준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들이었다.

오죽하면 이번 여행가이드를 맡은 분이 마지막날 소감에서 모시는 분들이 서울대 출신 엘리트에 수의사들이라서 처음엔 많이 긴장했는데 다른 여행팀들과 달리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자기 조카가 수의대를 갈까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바로 조카에게 전화해서 수의대에 가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동문들도 마치 2박3일 부흥회를 갔다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같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길었기에 스스로없이 자신의 허물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다들 친하고 우리 동문들이 살아온 삶이 존경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이었으리라.

돌아오는 날 사회를 맡아 3시간반 가량 동문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선배님은 돈주고도 들을 수 없는 '인생 명강의'라고 말씀하셨다.

양로원에서 쓸쓸히 삶을 원망하고 비관하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을 찾아가 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서울대 동문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노년을 보내

는 분들을 위해 저렴한 노인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동이 불편하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경쟁자인 다른 사람이 승진하도록 도와주니 시간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이야기 등등.

그 뿐이 아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장학생으로 LA에 온 학생인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빚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도와준 이야기, 비영리기관을 세워 장학금을 주고 스피치 훈련을 시켜 대학원을 거쳐 사회리더로 키워낸 이야기에서 손녀가 K-pop 아이돌로 뽐혀서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이야기까지 ...

삭막한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사는 동문들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지고 따뜻해졌다.

이제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서 둘째날인 3일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두시간 반 걸려 브라이스 캐년으로 갔다.

초입새의 큰 암벽들은 모양이 특이해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듯한 느낌이다. 계곡 안으로 가면 하이킹 코스가 많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다음에 시간 되면 와 보라고 한다. 긴 터널을 빠져나와 바로 밑에서 내려다 본 계곡 모습이 또한 장관이다. 조금 더 가니 자이언 인류사 뮤지엄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평생 지리학 교수를 지내다 은퇴한 박시영 동문(사대 63)이 이곳은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본이라고 설명해준다.

저녁에 라스베가스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춤추며 노는 올드타운 밴드 공연도 함께 즐겼다.

우리 수의대는 선후배간의 단합과 단결이 잘되어서 타 대학의 부러움을 받는다. 그래서 단체 여행이 가능하다. 아름답게 여생을 즐기는 우리의 그룹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화술의 대가



강신용

제 43대 동창회장
수필가·CPA

사랑은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이고 가장 많이 인쇄한 단어는 'Maid in China'라고 한다. 상사병에는 약도 없다지 않은가.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사는 쉽고도 어려운 사랑 타령이야말로 백가쟁명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사랑이란 한마디에 가슴 속 깊은 곳에 촌철살인 같은 시퍼런 명이 남는다. 하물며 정치인의 헛공약은 나라도 흔들린다.

선거철마다 세상이 백가쟁명으로 시끄럽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각기 잘났다고 언론마다 떠들어대는 현대판 백가쟁명이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대통령은 이민자가 싫다고 대놓고 말한다.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는 아름답고 미래는 어렵다고 정치를 안주 삼아 한마디씩 거든다.

직업상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대화법의 기본은 말이 하나라면, 듣기는 두 배로, 그리고 맞장구는 세배라고 한다. 혹시나 난채하지나 않나 주의한다.

가끔 생방송으로 세금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서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고객을 위해 일방통행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알려주면 조금이라도 희망이나 위로가 될까 준비한다. 창조주가 사람의 입은 하나만 만드셨다. 두 눈과 귀로 똑바로 보고 듣고 생생한 두 손발로 세상을 경험해도 귀의 일을 입놀림보다 중히 여겼나 보다.

옹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연설로 오바마 대통령도 오십이 되기 전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다. 무슨 말이든 앞뒤가 척척 들어맞는다. 그의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청년들은 너도나도 감명을 받았다.

예전에는 침묵하는 이가 지혜롭다고 했다. 경청하는 사람이 때로는 좋다. 적당한 맞장구와 유머러스한 대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품위로 아름답게 나이 먹는 침묵은 순금과 같다.

나이가 50이면 지천명(知天命)이라는게 공자의 말씀이다. 겨우 세상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만한 나이가 50대다. 오십 마일로 달려오니 벌써 의도하지 않은 퇴출의 길목에 내몰리기 시작한다. 50대의 젊은 늙은이가 폐품 창고에 넘쳐난다. 쓸만한 재생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승길 탈출처럼 어렵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스마트폰은 온갖 정보를 넘치도록 담고 있다. 희로애락이 컴퓨터 전화 속에 모두 입주해 있다. 하늘로 승천하는 약관의 천재 앞에 지천명의 나이는 갈 길을 헤매고 있다.

잡으면 놓기 싫은 것이 마이크하고 권력이라던가. 연설과 설교는 9분이 가장 좋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단 3분간의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자 가장 많이 인용된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한 시간짜리 연설은 은값에도 못 미친다. 신세타령이 마이크로 흡을 가득 메울 때 하품소리와 지방방송이 더욱 심란해진다. 맞장구 대화 속에 기쁨이 자란다. 삶의 경륜이 쌓이면 할 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나이 들어 적당히 존경받는 두 가지 대화법이 있다. 하나는 잔소리하는 입은 닫고(Shut Up) 말 대신 박수로 대신하고 둘째는 Cheer Up으로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일이다.

품 안에 아이가 엄마랑 얘기한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 속에 천사가 있다. 천사를 안고 엄마는 신바람이 난다.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까지 삼천 번을 되새긴다고 한다. 아이의 눈 속에 귓속에 핏속에 엄마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

우리는 천사였고 천사를 키운 부모이다. 사랑이 넘친 말이야말로 대가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80년대 학번' 최초의 회장



최용준

수의대 81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직은 1년이다. 하지만 차기 회장이 되었을 때부터 꼬박 2년은 오로지 동창회 생각 뿐이었다. 모든 대면 활동이 마비된 팬데믹 사태는 설사 이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회적 상황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야겠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80년대 이후 학번 최초 회장으로서 부담감이 적지 않았던 나는 팬데믹을 이겨내며 보다 더 즐거운 동문회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시작했다. 정식 회장 취임 서너달 전부터 속속 모이기 시작한 임원들과 준비한 그 첫 순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이었다.

정기 총회가 연기되고 회장 이취임식만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교 오세정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인사들과 임원들의 새해 인사로 미리 준비한 첫 유튜브 영상을 공개, 우리 동문회의 건재함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선후배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유익한 정보를 알리려 노력했고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자부한다.

동문 모임은 재미와 함께 의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준비한 모교 발전기금 마련 자선 음악회는 가장 보람된 행사 중 하나였다.

음악회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은 감동의 연속이었다. 저소득층 후배들의 식사비 지원이 주 목적이었지만, 또한 서울대인이 세계 문화계의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한창 나래를 펼치다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멈춰 의기소침하던 젊은 연주자들에게도 뜻깊은 무대가 되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한 솔리스트들 중에서도

각 파트의 수석은 악장을 비롯해 모두 우리 동문이어서 그 또한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학연 지연 인종 등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폭넓은 시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동문 행사 무대의 틀을 깨고 그 어느 공연보다 감동적인 연주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은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은 감동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144명 샷건을 기록한 동문 골프 토너먼트와 야외 정찬으로 진행된 정기 총회, 동문 가족 야유회와 원로 초청 오찬 행사, 그리고 예년에 없던 송년 대잔치까지 모든 행사가 참가자 수나 그 내용에서 기록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임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잊을 수 없다. 다달이 정기 임원회의 및 행사 준비를 위하여 평일은 물론 때로는 주말까지 모여야만 했다. 또한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 없이 동문들에게 연락하고 행사 RSVP나 후원, 협찬 등을 부탁해야 했다.

게다가 '진리는 나의 빛' 악극단을 결성, 없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여 밴드 연주와 노래, 그리고 연극까지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창회 운영에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팬데믹까지 겹쳤지만 선배님들의 충고와 젊은 후배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며, 그저 단 한가지만 생각하며 달렸다. 주변 여건에 흔들려 포기하지 말고 재미있는 동창회를 만들자! 그리고 모교에 도움되는 동창회, 동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자. 이는 회장이나 임원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 동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사명이다.

부족함 많은 나를 뽑아주셨던 선후배님들, 날 믿고 따라 준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동문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동창 행사에 적극 참여하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 또 감사를 전한다.

‘노랑머리의 실업자들이... 아! 침단의 패션’



신경섭
자연대 91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비치
를 지나 시원하게 뻗어있는 1
번 국도를 따라 패션 아일랜드
드를 지날 즈음 구슬픈 선율
이 차안을 가득 메운다.

“길 옆 담벼락 그늘에 기대
어 즐던 노랑머리의 실업자들
이... 은밀한 베벌리 힐스 오르
는 길목 티끌 먼지 하나 없는

로데오 거리, 투명한 쇼윈도 안엔 자본보다도 권위적
인 아, 침단의 패션 ...”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태춘의 ‘LA 스케치’
다. 공교롭게도 비아냥 조로 끊어내는 ‘아, 침단의
패션’ 구절에서 저 가까이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의 우뚝 솟아나 있는 하이라이징 빌딩들이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보인다.

노래 가사에 젓다 보니 어느덧 생각은 그 옛날 1991
년 서울대학교 입학 후 한 달만에 열린 총학생회 발
대식까지 닿는다. 그 날 이스라엘에서 수업, 대한민국 최초로 등장한 물대포를 수업 끝나고 학교길에 맞게 되는데, 그 물줄기에 들어 있던 형광물질로 인해 지하철에서 검문 당한 후 파출소까지 가서 취조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로 난 반서구/반미주의자가 되었고, 그 후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즐겨 듣게 되었다. 적어도 IMF후 1998년 미국에 오기 전까진.

누구나 그렇듯이 미국에 와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
을 꿈꾸게 되었고, 그건 2001년 911이 터진 후 박사
학위도 귀국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였
다. 그렇게 비판했었던 자본주의의 본고장에서 돈을
벌기로 마음 먹기란 쉽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에겐 가난의 사고 방식
이 굳건했다. 돈이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만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야 결국 자본가에게 착
취를 당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는 자본가가 아닌 내
가, 입만 열면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버는 부자들을
증오하던 내가 이겨내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자본주
의에 대해 싸울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 행복이
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믿음의 위안 밖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어느 유명한 한인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받을 때까지 정말로
아무 생각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토록 싫어하던 그
자본가 옆에서 그를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어느덧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회사를 떠날
 즈음 난 달라져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일하던 분야가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 Lead Ingestion, Marketing,
Escrow, Loan Origination, Underwriting, Ap-
praisal, Inspection, Closing, Funding, Servic-
ing에 이르는 End to End 프로세싱에 눈을 뜨게 되
었고, 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설령 자
본가든 아니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유 경쟁을 치
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레버리지를 알아야만 하
였고,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효율적인 거래 방식인
선물 시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평성과
정당성은 오히려 자본이 축적된 측에서 좀더 발휘되
고, 과거에 알던 거와는 달리 자본이 불리한 측에서
빈번하게 깨지는 걸 목도하게 된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 단순한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 사이 자본주의의 추악한 모습도 여러번 보아 왔
다. 닷컴 붐과 시기 Enron이 망한 후 그 몇몇이 새
로 만든 EPS Corp이란 곳에서도 일해 봤고, 2007
년에 파산한 Countrywide 출신들과 모기지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탐욕의 끝에서 있던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이들에게 불공평과 부당성을 전적으로 탓하기

엔 무리가 있었다. 이들은 소위 업계 1위를 이
기기 위해 불법을 일삼
은 소수의 탐욕가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
이었고, 그 실수를 다시
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혹독한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2000년
대 일어난 일련의 사태
가 불려온 자본주의의
몇몇 맹점만을 갖고 시
스템 전체를 부정하기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
람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공평성과 정당성을 부정
하는 것이다.

그 후 ‘월가를 점령하
라’ 운동으로 파생된 암호 화폐, 인터넷의 민주화를
위한 Web 3.0과 블럭 체인, 팬데믹이 몰고 온 클라
우드 컴퓨팅과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한
AI 발전은 그 공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근간
으로, 그에 대한 의문을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탄생
한 자본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2019년 채권 시장의 강자 PIMCO에 합류해
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주도하고, 2020년 중
업원 20여 명의 스타트업 NTERSOL에 입사, 이 회
사를 단 3년만에 1억6천만 달러라는 가격에 나스닥
상장 기업 CI&T에게 팔게 된다.

그 과정에서 2018년 NASGO라는 블럭 체인도 개
발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2022년 Sonarverse라는
Web 3.0 블럭 체인 Cloud Native Data Analytics
플랫폼을 개발, 시리즈 A 투자를 향해 순조롭게 나
아가고 있다.



학생회 발대식의 물대포, 파출소 끌려가 암호화폐는 자본주의의 자기반성

고 있다.

지난 30여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찰라,
또 가사가 들린다.

“그림 같은 교외 주택가 언덕 길 가 창문마다 아늑
한 불빛, 인적없는 초저녁 보얀 가로등 그 너머로 초
승달이 먼저 뜬다.”

“백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국에 와서 백
인들을 잘 못 보겠어” (따당, 따당땅, 따당 땅 땅). 이
제 백인들을 제대로 볼 때가 되었다.

신경섭 동문은
물리학과(91 학번)
SVP, Enterprise Data Strategy & Infrastructure at
CMG Financial
CTO at Sonarverse
Adjunct Faculty, Computer Science at CSUF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박제환
문리대 75

지난 10월 8일(토) 50여명의 남가주 동문들이 로스 올리보스에 있는 켈리 와이너리를 다녀왔습니다. 좀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했으면 했지만 버스여행에 대한 불안감, 모교의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 등 여러 요인이 있어서 같이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와이너리 여행에서는 약대 이명일, 의대 김자성 동문이 각 각 기타와 우쿨렐레를 가져와 마이웨이를 비롯한 70-80 노래 등 추억의 팝송을 부르며 신명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발대로 일찍 온 임원들은 테이블 세팅을 예쁘게 해놓는 등 자연 속에서 한결 좋은 분위기를 내느라 애썼습니다.

와이너리에서는 로스 올리보스 타운의 ‘파니노’라는 레스토랑에서 준비해 온 샌드위치, 또는 손수 싸온 도시락 등을 나누며 오붓한 야외 피크닉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이너리는 물가상승을 의식한 듯 ‘인플레이션 버스터’라는 명목으로 와인 케이스를 세일해서 좋은 가격에 지역 특산 와인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와이너리 일정을 뒤로하고 일행은 솔뱅으로 가서 덴마크 마을의 정취, 호박들을 가져다 놓은 미니 펠킨 패치도 보고, 아이스크림 샵에 들러 달콤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약간 더운 날씨가긴 했으나 샌타바바라에 이르러는 시원한 바닷 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

가 피어 근처에 자욱한 해무는 독특한 풍광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명일-김자성 악단은 샌타바바라의 길거리에서 즉흥 연주를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네이션’도 받으며 흥겨운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LA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내내 노래가 이어져 이날 여행은 와인보다 노래가 더 좋았다고 말씀하신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일일 여행으로 다녀온 와이너리 여행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랫말처럼 창가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가득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와이너리 여행중 기타와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 싱얼롱을 즐기는 동문들.

(이 글은 지난 2022년 10월 8일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관한 와이너리 테마 여행을 다녀온 박제환 당시 회장이 보내온 것이다. 여행은 LA를 출발해 로스 올리보스의 와이너리, 솔뱅, 샌타바바라를 거쳐 LA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다. 당초 동창회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2박3일의 비숍 캠핑을 기획했으나 코비드-19 등의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 와이너리 여행은 남가주 동창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제14장 아웃도어 라이프

에베레스트 등반기
권봉성

남극 여행기
방효신

구순에 스키를
유석환

알래스카 100일 살아보기
박정모·박인희



내 나이 이제 80인데... 권봉성의 '인생 트레킹' 문리대 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등반

칼라파타르(5545m) 정상에 우뚝서자 '오금이 덜덜'
고산증에 시달린 대원은 베이스 캠프서 말 타고 올라

뼈까지 시릴 정도의 추위다. 알람이 따로 필요없는 곳. 새벽이 되면 매 시간마다 눈이 저절로 떠진다. 극한의 추위와 턱없이 부족한 산소 때문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방한의류를 잔뜩 껴입었으나 히말라야의 새벽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손과 발은 물론 입김마저 얼어 붙은 느낌이다.

해발 고도 5천미터가 넘어서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주변엔 잡초조차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4월 7일, 2주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칼라파타르(5545m)에 오르는 날이다.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바로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정상까지 채 2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숨이 차서 4시간 넘게 걸려 올라갔다. 칼라파타르에서 본 에



4월 7일 드디어 칼라파타르(5,545m)에 올랐다. 에베레스트 정상이 한 눈에 펼쳐지는 곳이다.

베레스트는 추워서인지 아니면 멧을 부리려 했는지 흰구름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윤석태 단장과 김학중 대원은 고산증에 시달린 나머지 덩보채(4243m)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EBC, 5364m)까지 말을 렌트해 타고 올라가야 했다. 서울에서 카트만두까지 가는 비행기 요금과 맞먹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함마저 느껴지는 히말라야에서는 거만함과 자만심,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조차도 절로 겸손을 배우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감히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 다가선다.

하산길에 가이드 비루가 내게 던지시 말을 건넸다. "권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모신 분들 중 가장 연



낭카르트상 피크(3,985m).



노부체에서 한 컷. 4,940m에 달한다. 산소가 희박해 두 대원은 말을 타야 했다.

세가 많으십니다." 한국생활 16년 차여서 그의 우리말이 유창하다. 그리고 보니 80노인이 할 짓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에베레스트 트레킹은 문리대 산악회 창립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미국 LA에서 3명(권봉성·지질 64, 조경석·식물 64, 김남수·천문 64), 한국에서 4명(윤석태·물리학 62, 조규배·식물학 66, 김학중·화학 66, 노용국·금속공학 76)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이중 칼라파타르 정상에 오른 대원은 권봉성, 조경석, 김남수, 노용국 등 4명 뿐이다.

문리대 산악회는 한국 최초의 원정인 안데스 산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 5,364m)에서 단체 촬영.

맥 아콜카과(6962m) 등정에 성공했고 1990년대에는 한국에 백두대간 중주봉을 일으켰다.

일정은 3월 27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대식을 하고 고락셴(5140m)에 도착, 이어 칼라파타르에 올라 그 장관을 눈에 새기고 내려오는 것이다.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앞두고는 높다든 미국산은 돌아가며 올랐다. LA 인근에



2024년 3월 30일 남체바자르(3,340m)에서 기념촬영.

서 가장 높다든 마운트 발디(3067m)는 수시로 올랐다. 지금까지 600번은 족히 올랐다.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다든 마운트 휘트니(4421m)도 5번 올랐다.

이번 트레킹의 현지 보조원은 13명. 대원마다 짐꾼이 배정되고 밥해주는 사람도 3명이나 동행했다. 비행기표 포함해 트레킹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5천 달러 가량. 네팔의 생활비와 인건비가 워낙 싸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문리대 산악회의 60년 쌓인 우정과 추억을 히말라야에 묻고 내려온 그날,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내년에 또 올 수 있을까." 히말라야가 손짓하면 주술에 홀린듯 배낭을 또 꾸릴 것만 같다.

방효신(약대 56)의 남극 여행기 “극한의 오지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숨 막히는 아름다움, 때 묻지 않은 공기~”
부군 신건호(법대 53) 동문과 함께 두차례

신건호(법대 53)·방효신(약대 56) 동문은 ‘세상 안 가본 데가 없는 부부’다. 한마디로 ‘역마살이 낀’ 분들이다.

대체 지금까지 몇 나라나 여행했을까. “어림잡아도 140개국은 넘을지 싶어요.” 방 동문이 씬을 해봤다. ‘안 가본 데가 없다’는 말이 과히 틀리지는 않을 터다.

부부의 ‘여행끼’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팬데믹 동안만큼은 예외다.

신 동문은 외교관 출신이다. 바깥 세상이 구경하고 싶어 외무부에 들어갔다.

방 동문은 사진 작가. 수십 차례나 전시회를 열었고 사진첩도 출간한 베테랑이다. 여행에 관한 한 궁합이 척척 들어맞는 커플이라고 할까.

여행지는 대개 한 번 가서 보고 나면 ‘물리기’ 마련이다. 부부에게 딱 한 군데 예외가 존재한다.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 바로 남극이다. 지난 2015년 두 번째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했다.

남극 얘기만 나오면 부부는 ‘익사이팅’해진다. 쉽지가 않겠지만 나옴이면 부부는 ‘익사이팅’해진다. 쉽지가 않겠지만 나옴이면 부부는 ‘익사이팅’해진다. 쉽지가 않겠지만 나옴이면 부부는 ‘익사이팅’해진다.



신건호·방효신 부부는 지금까지 140여개 국을 여행했지만 남극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곳이다. 부부는 대자연의 장엄함에서 겸손을 배운다고 했다.

가 그림고, 숨 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 모두를 한 번 더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은 것이다.

남극으로의 여행은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남미의 땅끝마을인 우슈아이(아르헨티나의 최남단 항구)에서 뱃길로 꼬박 48시간, 사나운 바다(드레이크 해협)를 뚫고, 지독한 뱃멀미를 견디며 마침내 다다른 남극 대륙. 이런 험한 곳을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그 비경을 잊지 못해 생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8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

“정말 퓨리티(purity) 그 자체예요. 오염된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몇 천 몇 만년 동안 압축됐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푸른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여행의 끝판왕이라는 남극. 부부가 남극에 매료된 이유는 인간의 손을 거의 타지 않은 자연미에만 있지 않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걸 보며 대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남극에 발을 딛고 서있으면 우리 자신이 아주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돼 겸손해진다”

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부부는 남극을 일컬어 ‘꿀림’보다는 ‘떨림’을 주는 곳이라고 했다.

방 동문은 노르웨이의 극지도 여행했다. 빙하를 카메라에 담아오기 위해서다.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



킹펭귄의 등은 은회색, 배는 흰빛, 머리는 검은 빛이 나는 갈색, 귀 주변과 목 앞쪽은 짙은 주황색이다. 갈색 펭귄은 모두 한살 미만의 새끼들이다.



킹펭귄(king penguin)은 펭귄 중에서 황제 펭귄 다음으로 몸집이 크다. 10여년 전만해도 남극에는 100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었으나 기후변화 탓으로 현재 10만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타야 했지만 남극 못지 않았다. “수지 동생과 둘이서만 갔어요.” 수지는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의 부인이다. 둘은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단짝 카메라 친구다.

최규동 서울대 제 3대 총장이 방 동문의 외조부. 그러니 뻗속 깊이 서울대인의 DNA가 흐르고 있는 셈이다.

방 동문은 지난 2024년 연말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전시회에 출품, 호평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의 홍경삼(문리대 61) 동문이 ‘사진예술의 마에스트로’ 엘버트 왓슨의 명언을 인용,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Find the beauty that others don't see and capture it with your camera.”



때 묻지 않은 절대 순수의 세계. 남극의 빙하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천년, 몇 만년 압축돼 사진에서처럼 푸른 빛이 나온다.

구순에도 스키 '씽씽' 유석환(치대 54) 동문 여름철엔 마운틴 바이크로 허벅지 근육 키워

12월초 캠퍼 몰고 스키여행, 3월 중순쯤 귀가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적인 삶 살고 있어

9순인데 스키를? 믿기지 않겠지만 픽션이 아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석환(치대 54) 동문. 이 같은 소문을 듣고 '설마,뽕이겠지' 하며 전화를 해봤다. 몇차례 걸었는데도 무응답.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놨다.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다 "누구세요? 나, 지금 맴머스 스키장에 있어요. 산 꼭대기여서 아마 휴대폰이 안 터진 모양이네요." 루머가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난달 처음으로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상견례'를 했다.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이었다. '정말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분이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스키를 타러 다닌다는 얘기는 잘 안해요. 이 나이에,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겨울철엔 주로 스키 동호회와 함께 즐긴다. 회원들은 버스를 대절해 타고 가지만 유 동문은 절대 '동행'하지 않는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90대가 끼면 분위기가 썰렁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운전해 간다. "집에서 새벽 4시 출발하면 밤 8시쯤엔(유타에) 도착해요."

부부동반이냐고 물으니 손사래를 친다. "우리집 사람은 스키 못 타요. 나 혼자 가요." 그러나 동반자는 있다. 애완견과 함께다. 진돗개를 두 마리 기르는데 먼저 차에 올라타는 개를 데리고 떠난다.

12월 초에 스키여행을 떠나 이듬해 3월 초 집에 돌아온다. 3개월이나 되는 긴 여정이다. 유타, 콜로라



맴머스 마운틴 정상에서. 3개월에 걸친 스키여행 중 유타, 콜로라도를 거쳐 맨 마지막 들르는 곳이다.

도를 거쳐 맨 마지막 들르는 곳이 맴머스 마운틴 스키장이다.

유 동문은 '아웃도어' 광팬. 여름철엔 풍광 좋은 곳으로 캠핑을 떠난다. 뱃을 개조해 침실까지 꾸몄다. 웬만한 야외 취사 도구는 다 갖췄다. "뱃을 몰고 산에 오르면 숨이 확 트이고, 살 것 같아요."

뱃에도 운동기구가 실려있다. 산악 자전거다. 스키를 타려면 여름철엔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마운틴 바이크를 타며 몸을 만든다. 산에서 자전거 타다가 무릎이 깨진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포기하는 없다.

유 동문의 지난 삶도 스키 얘기 못지않다. 해군 군의관 복무후 첫 직장은 국립 메디컬센터. 그런데 얼마후 사표를 냈다. 당시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데를

왜 그만뒀을까.

당시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라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때만 해도 말이 고속도로였지 왕복 2차선에 불과했다.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면 딱 막히게 된다. 고속도로가 있으나 마나다.

망해가는 정비업소를 헐값에 인수했다. 그리고는 미군부대에서 중고트럭을 구해와 두들기고 용접해 토잉카를 만들었다.

"어느 구간에서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 차가 가서 견인을 해왔어요."비즈니스 수완도 좋아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1974년 무렵 그 비즈니스를 접었다. 갑자기 '미국바람'이 불어 서였다. 그해 미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릇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민와서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시쳇말로 들어먹었다. 선택지는 딱 하나. 한국으로의 '역이민'이었다. 두 자녀가 막아섰다. "미국에 올 때도 아빠 맘대로 오고, 갈 때도 아빠 맘대로 가시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먹먹했다. 짐을 풀었다. 그러고는 독하게 맘을 먹었다. 치과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 그때 나이가 42살. USC 치과대학에 도전장을 냈다. 삼수만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메디컬센터를 그만둔 뒤 거의 20년만에 흰 가운을 입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1985년 무렵이다. 일본에서 치과학회에 참석중 배가 너무 아팠다. 마침 친구가 서울대학병원 암 전문의여서 전화를 걸었다. 당장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는 당일 입원했다. 진단 결과 위암 말기.

귀국해 미국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거의 없었다. 그런 와중에 딸이 명문 스탠퍼드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딸을 차에 태워 대학에 데려다주고는 집에 돌아오면서 평평 눈물을 쏟았다. 이승



여름철엔 자전거를 탄다. 스키를 타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

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가 딸의 졸업식엔 참석하지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암 세포가 말끔히 사라진 것.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돼 이번엔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맸다. 골반이 네 조각나고 간이 파열되면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열흘넘게 지혈이 안되자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런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날 줄이야. 담당의사가 최후통첩을 내린지 불과 몇 시간뒤 피가 거짓말 같이 멈추며 자가호흡을 하게 된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유석환 동문은 3개월 후 스키장비를 신고 맘모스산 정상으로 내달렸다.사고나기 전 예약했던 거여서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타고 싶어 스키 부츠를 신었다고 했다. 그때가 1987년. 이후 산에 눈만 쌓이면 스키를 타러갔다. 미국내는 물론 유럽 등 전세계 유명 스키장은 거의 모두 섭렵했다.

스킨 스쿠버도 배워 바닷속을 누비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사진까지 배워 전시회를 열만큼 예술성도 인정받았다.

한마디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터다. 유 동문에게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침 식사는 꼭 내가 챙겨서 아내와 함께 먹는 겁니다."

유 동문은 남가주 스키협회 원로회원이다. 지난 2024년 4월 13일 열린 정례모임에서 협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한 점이 인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맴머스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카톡으로 보내왔다. 붉은 색 스키 재킷에 헬멧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다. 사진을 보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삶이 지루하면 알래스카 여행 어때요? 박정모·박인희 부부의 100일 살아보기

차에서 자고 캠핑하며 낚시, 짜릿한 손맛에 엔돌핀 ‘핑핑’
러시아에 불과 720만 달러 주고 산 ‘아이스박스’

바둑 용어에 ‘복기’ (復棋)라는 것이 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바둑을 앞서 놓은 순서대로 다시 두는 것을 뜻한다. 복기를 하다보면 뒤늦게 후회할 때가 더 많다. 부주의로 인한 패착이 못내 아쉽기 때문일 터.

여행에도 ‘복기’가 필요하다. 복습 과정을 통해 앞으로 더 멋진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바둑과는 달리 여행을 복기하면 설레임과 스릴이 가슴 한 켠에 가득 묻어나는 것을 느낀다. 우리 부부의 장장 100일에 걸친 알래스카 여행을 복기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연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과 끝없이 펼쳐지는 대자연의 경관이 가까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듬뿍 솟는다.

앞서 100일의 여행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3주가 추가된다. 장기 여행을 하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뒤풀이도 ‘필수템’은 먹거리 장만이다. 100일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부부의 입맛에 맞는 밑반찬을 마련해야 했다. 장조림과 국거리(김치찌개), 그



박정모(문리대 66)·박인희(간호대 67) 부부.

리고 곰탕은 컨테이너에 담아 팡팡 열렸다. 이외에도 마켓에서 깻잎, 김, 라면, 국수 따위를 챙겼다. 코스트코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사 얼음을 가득 채웠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번 여행에서 얼음값만 무려 1,500달러를 썼다. 밥은 직접 해 먹을 요량으로 쌀 3포를 샀다(햇반은 비상용으로 구입). 전기밥솥을 갖고가 캠핑장

에서 직접 지어 먹었는데 전기가 없는 곳에선 버너에 불을 지폈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캠핑을 원칙으로 했다. 자연과 호흡을 하다 보면 코비드에 걸릴 까닭이 없다(사실 이 대목이 늘 신경이 쓰였다). 모텔의 그 깨름칙함이란... 세상 편한 것이 캠핑이다.

2023년 6월 1일 드디어 새벽 알래스카 대장정에 올랐다. 출발하기 전 타이어 네짝을 몽땅 새걸로 교체했다. 엔진오일은 물론이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았다. 차와 관련해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 부부의 ‘애마’는 GMC Yukon이다. 8기통 미

제차여서 파워가 세다. 옐로스톤과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에서 6일간 캠핑을 한 뒤 캐나다에 입국, 밴프 국립공원에서 야영을 하며 캐나다인 로키스의 비경을 즐겼다. 180여 마일의 구간이지만 고산준령의 설경은 숨을 멎게할 만큼 아름다웠다.

알래스카 하이웨이의 시발점인 도슨 크릭(Dawson Creek)에 도착한 때는 집 떠난지 보름여가 지나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할리 데이비스 열성 회원이 선뜻 우리 부부의 알래스카 방문 기념사진을 찍어줬다.

얼음값만 1,500달러, 차에 가득 채워 장조림 국거리 곰탕 쌀 등 먹거리 준비

알래스카 하이웨이는 전쟁의 애환이 서려있는 도로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미국이 일본군의 상륙에 대비,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1,000 마일이나 되는 고속도로다. 기록에 따르면 1만1,000여 명의 병사들이 하루 12~16시간씩 중노동하며 8개월만에 완공했다.

도로 연변의 광활한 지역에 셋노란 민들레가 피어나 대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창조주의 신비한 예술 작품에 그저 감탄할 밖에. 문득 ‘아리랑 민들레’가 생각나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장소현(미대 65) 동문의 LA 폭동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셋노란 꽃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더욱 곱게 빛나네. 뜨거운 불길에도 타지 않는 민들레, 셋노란 아리랑 민들레~.”

알래스카의 오뉴월이 민들레의 계절이라면 7,8월은 ‘fire weed’ 시즌이다. 온천지가 진한 꽃분홍으로 장식됐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도 알래스카의 ‘state flower’는 ‘물망초’(forget-me-not)다. 아

련한 사연을 품고 있기 때문일까. ‘State animal’도 곰이 아닌 무스(moose)다.

드디어 300여 마일을 달린 끝에 야망과 광야의 땅 Yucon주에 진입, 왓슨 레이크(Watson Lake)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도 하이웨이를 건설한 미군 공병들의 애잔한 사연이 전해진다. 칼 린들리라는 병사는 향수병에 걸린 나머지 이곳에 고향집을 가리키는 방향과 거리 표지판을 만들어 세웠다. 이것이 계기가 돼 당시 병사들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싸인판을 세웠다. 현재 2만여개나 된다고 한다.

7월 24일, 알래스카에 발을 들여놓은지도 어느덧 37일이 지났다. 페어뱅크를 108마일 남겨놓은 지점에서 앵커리지 쪽으로 진로를 틀었다.

이번 알래스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Kenai River의 강변도시 Soldotna. 시정부가 운영하는 센테니얼 캠프그라운드에서 캠핑을 시작했다. 이곳은 킹 새몬(king salmon)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연어 한 마리가 90파운드(31.8kg)가 넘는다니... 이름값을 하고도 남는다. LA에서 이곳까지는 5,200 마일 거리다.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몰려와 무려 12시간이나 잠을 잤다.

연어떼가 올라오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다시 남쪽으로 150마일을 더 달려 수어드(Seward)란 곳에 캠프를 차렸다. 수어드는 ‘beginning to Alaska’로 알려진 곳이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수어드가 의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현재 가치로



물반 연어반. 낚으면 월척이다.

아웃도어 라이프

1억2,500만 달러)에 사들인 것을 기념해 그의 이름을 따 만든 도시다.

이곳에선 낚시를 'snagging'이라고 부른다. 미끼는 없고 무지막지한 삼지창같이 생긴 낚덩어리가 붙은 triple hook로 꿰차 올리는 방법이다. 삼지창으로 찍어 올리는 낚시. 예전 에스키모들이 폭이 10m 정도 밖에 안되는 강바닥에 이렇게 연어를 낚아 올렸을 것 같다.

강변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수백명의 낚시꾼들과 독수리, 갈매기떼가 뒤엉켜 우리 머리 위를 날라다니는 경이로운 풍경도 경험했다.

8일간의 수어드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키나이 반도의 최서단 도시 호

머(Homer)로 향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광어와 대구, 명태 낚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알류산 열도는 끝없는 미지의 세계와 어우러진 베링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Homer Spit는 멀리서 보면 마치 바늘침 같은 육지의 연속선으로 캠프그라운드

는 RV파크, 레스토랑, 술집 등 온갖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차 있다.

이곳 명소 중 하나인 선술집 Salty Dawg Saloon은 대낮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손님들이 사인하고 걸어놓은 1달러 짜리 지폐가 온 천장과 내부를 장식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서부개척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한번은 배를 타고 광어낚시에 나섰다. 20여 명을 태운 배에는 낚시에 필요한 도구가 모두 준비돼 있었다. 누구나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한 마리는 28인치 이상, 나머지 한마리는 그 이하의 것을 잡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고향집을 가리키는 거리 표지판. 2만여개나 된다.

가장 큰 광어는 위스콘신에서 왔다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낚았는데 무려 124파운드나 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레인젤(Wrangell) 국립공원에선 알래스카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발데즈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북해에서 채굴된 원유가 800 마일이나 되는 송유관을 통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발데즈다. 이 원유는 유조선에 의해 미국 본토로 수송되는데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소비된다고 한다.

발데즈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솔로몬 걸치 부화장'(Solomon Gultch Hatchery)이 있다. 연어알과

정자를 채취해 부화시키는데 이곳에서 선택돼 후손을 남기려면 29단계의 사다리 수로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생산된 새끼 연어들은 6~8개월 후 방출돼 바다로 나가게 된다.

매년 2억7,000만 마리의 핑크 연어와 200만 마리의 실버 연어 새끼들이 방출된다고 한다.

위낙 핑크 연어가 많아 때로는 낚시하는 발밑에까지 오글오글 모여들어 우리 부부도 평생 처음 연어를 수도 없이 잡아 풀어주는 이른바 'catch & release' 낚시를 하는 초유의 경험을 했다.

이제 본격적인 연어 잡이에 나섰다. Soldotna는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에서 연어낚시꾼들이 몰려들어 캠프사이트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식에 일찍 서둘렀다.

Kenai 강가엔 1마일에 걸쳐 176개의 캠프사이트가 배치돼 있지만 이미 대부분 낚시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사이트는 낚시터와 가깝고 모기가 많지 않으며 또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하고 화장



알래스카의 관문 수어드. 낚시의 천국이다.

실 등이 가까워야 한다.

Soldotna 방문 센터에는 기념물이 하나 서있다. 1985년 5월 17일 세계에서 가장 큰 킹 새면(97.2 파운드)이 잡힌 것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주인공인 레스 앤더슨의 나무상과 실제 크기의 연어를 나무로 깎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연어는 5종류가 있다. 각자 모두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잡히는 시기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삼지창'으로 물고기 낚기도, 스틸 만깍 연어알로 '캐비아' 담아, 알고 보니 젓갈

연어 낚시는 일반 낚시와 확연히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의 선택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어낚시는 미끼가 필요없다.

바다에서 3~4년 성장한 연어는 고향을 찾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먹지 않고 긴 여행을 한다. 따라서 연어낚시는 미끼가 필요없는 것이다.

연어는 산란여행 중 먹지는 않아도 숨 쉬기 위해 입을 뻐끔 거리는데 이때 낚싯줄이 입 속에 들어가 끝에 매여 있는 바늘이 연어의 입에 걸려 낚는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입 이외의 다른 곳에 바늘이 걸려 잡는 것은 '실격'이어서 모두 풀어줘야 한다. 'foul hook'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포츠 피싱' 정신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탄을 받는다.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연어를 'chum' 또는 'dog



연어알로 만든 캐비아. 맛이 일품이다.

salmon'이라 부른다. 개도 안 먹는다 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4종류의 연어(chinook, coho, sockeye, humphy)를 모두잡으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른다. 올해는 sockeye 풍년이다. 음향탐지기에 18만 마리가 체크포인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고무됐다. sockeye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양식을 못해 모두 천연산이다.

이번 알래스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어알로 캐비아(caviar)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현지 주민들조차 연어알에 관심이 없어 강물에 던져 버리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 귀한 것을...

러시아에서 온 낚시꾼들로부터 캐비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결국 성공하고야 말았다.

맛은 철갑상어 캐비아 만든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에 못지 않았다. 그런데 캐비아란 것도 알고 보면 별 거 아니다. 우리의 젓갈 만드는 식으로 소금에 절이면 된다.

젓갈을 넣고 김장을 하면 6개월 이상 신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LA를 출발할 때 마일리지 계기는 6만이었는데 집에 와 보니 7만2,000마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100일 동안 장장 1만2,000마일을 달린 것이다.

은퇴하기 전 생업이 CPA여서 우리 부부는 4월 텍스 시즌이 끝나면 남미를 비롯해 중국, 유럽, 아프리카 등 거의 안가본 곳이 없을 만큼 여행을 즐겼다. 그런데 정말 꼭 가 봐야 할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그중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알래스카다. 그것도 우리처럼 '차박' 여행을 권한다.

기부 및 광고 협찬해 주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 truly appreciate your generous
donations and advertisement sponsorships.

Platinum Donor
(\$5,000~\$10,000)

김동수 (고 김영기 공대 51, 제 5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장남)
노명호 (공대 61, 제 31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박종수 (수의대 58)
이태로 (법대 56, BCD Tofu House)

Diamond Donor
(\$2,000 이상)

벤자민 홍 (문리대 53) 임천빈 (문리대 61)
김중섭 (문리대 66) 정재훈 (공대 64)
임낙균 (약대 64) 서울대 발전기금
김기형 (상대 75)

Gold Donor
(\$1,000 이상)

권봉성 (문리대 64)	한귀희 (미대 68)
김병연 (공대 68)	한효동 (공대 58)
김은중 (상대 59)	홍성선 (약대 72)
김자성 (의대 79)	간호대 동창회
독고량 (대학원 82)	공 대 동창회
서치원 (공대 69)	공 대 64학번
신혜원 (사대 81)	농생대 동창회
양은혁 (상대 56)	문리대 동창회
유재환 (상대 67)	미 대 동창회
이명선 (상대 58)	법 대 동창회
이병준 (상대 55)	약 대 동창회
이승훈 (상대 74)	음 대 동창회
임춘택 (상대 68)	의 대 동창회
정만영 (약대 66)	제11대 미주동창회 / 제17대 미주동창회
채규환 (법대 69)	Ace Home Health, Inc.

Silver Donor
(\$500 이상)

강신용 (사대 73)	박민식 (수의대 65)	이종묘 (간호대 69)	상과대 동창회
권혁창 (법대 54)	박창규 (약대 59)	이창신 (법대 57)	생과대 동창회
김상찬 (문리대 65)	신정식 (상대 66)	이청광 (상대 61)	수의대 동창회
김성환 (의대 65)	양수진 (간호대 80)	하선호 (치대 81)	메트로 بانک
김정빈 (공대 66)	이규상 (약대 74)	대학원 동창회	아주 관광
김지영 (사대 69)	이기준 (법대 54)	사범대 동창회	

Bronze Donor
(\$100 이상)

강충원 (문리대 61)	나정자 (간호대 70)	백혜란 (미대 70)	이상대 (농대 80)	조무상 (법대 70)
강호석 (상대 81)	나천택 (공대 68)	성낙호 (치대 63)	이서희 (법대 70)	조성자 (간호대 76)
김경무 (공대 69)	민일기 (약대 69)	송미선 (음대 89)	이세희 (문리대 81)	지인수 (상대 59)
김경옥 (미대 61)	박다애 (미대 73)	송재한 (약대 61)	이용한 (공대 64)	진성호 (공대 64)
김동석 (음대 64)	박상호 (의대 65)	신경자 (사대 60)	이원식 (미대 79)	차종환 (사대 54)
김동욱 (간호대 72)	박영호 (공대 64)	신진호 (법대 53)	이원택 (의대 65)	최경복 (간호대 69)
김미자 (음대 81)	박영희 (음대 66)	신영찬 (의대 62)	이정희 (음대 55)	최용준 (수의대 81)
김병완 (공대 58)	박인옥 (음대 65)	신응남 (농대 70)	이종호 (문리대 81)	최은화 (상대 78)
김선기 (법대 59)	박인희 (간호대 67)	신정자 (사대 63)	이현림 (음대 81)	최진석 (법대 64)
김양희 (음대 77)	박정모 (문리대 66)	안상금 (간호대 70)	이호주 (공대 64)	한석란 (미대 71)
김영도 (공대 67)	박제인 (약대 60)	양은석 (음대 70)	이호진 (간호대 74)	한정희 (음대 72)
김영혜 (문리대 85)	박제환 (문리대 75)	오계환 (공대 64)	이화숙 (간호대 67)	한중철 (치대 62)
김옥경 (생과대 60)	박준창 (문리대 79)	오세혁 (공대 64)	임항균 (사대 73)	한홍택 (공대 60)
김옥권 (미대 76)	박혜란 (음대 73)	오영하 (음대 58)	장소현 (미대 65)	홍명희 (간호대 67)
김용주 (간호대 69)	박혜옥 (간호대 69)	위종민 (공대 64)	정 신 (대학원 92)	홍선애 (미대 62)
김보연 (간호대 63)	박홍근 (공대 64)	유재각 (음대 72)	정덕구 (공대 57)	홍유현 (음대 61)
김정애 (간호대 69)	방석훈 (농대 55)	유혜연 (음대 79)	정동구 (공대 57)	홍종화 (약대 74)
김향자 (약대 61)	방정자 (간호대 61)	유희자 (음대 68)	정인철 (법대 54)	홍훈정 (음대 70)
김희창 (공대 64)	백양희 (경영대 98)	윤연순 (미대 87)	정인환 (법대 54)	황윤석 (상대 66)
나두섭 (의대 66)	백정현 (음대 66)	이경희 (문리대 83)	제영혜 (생과대 71)	송제호 탁구장

50년을 뒤로하고 100년을 향해 달려가기를~



지난 2024년 12월 28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최종 편집회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병연(공대 68), 채규황(법대 69), 이호진(간호대 74), 박용필(문리대 66), 이상호(사대 80), 임춘택(상대 68), 성주경(상대 68), 김옥권(미대 76), 최진석(법대 64), 양수진(간호대 80), 홍성선(약대 72), 김선명(공대 75), 홍선례(음대 70) 동문도 50년사 제작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동창회 소개는 사범대가 끝입니다. 휴~”

지난 2024년 5월 29일 첫 모임을 갖고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의 발자취를 찾아 해맨지 200여 일 만. 반세기의 역사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백년에 걸친 기간을 정리, 문자로 표현해 낸다는 것은 정말로 난제였습니다.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오랜 세월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동창회보를 살살이 뒤지며 말없는 복사기만 혹사시켰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전임 회장단 좌담회는 길잡이가 되었고 각 단과대학 회장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없었다면 골드북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많은 동문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뭉클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고) 김영기 동문의 장남(김동수)은 제작비에 써달라며 선뜻 큰 액수의 체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의 기부에 임원진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며 감동을 했습니다. 김영기(공대 51) 회장님은 남가주 총동창회의 초석을 다지신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입니다.

지난 50년을 뒤로하고 이제 더욱 성장하고 화합하며 융성하는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100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편찬위원회 -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The 50-Year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발행처: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발행인: 임춘택

편집: 50년사 편찬위원회

발행일: 2025년 1월 17일

디자인·인쇄: Printron Printing, Inc.

13527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9
printron@gmail.com

Copyright by SNUAA.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of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contents without written permission is prohibited.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de with  Tofu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태 로
법대 56



TOFU HOUSE
북창동순두부